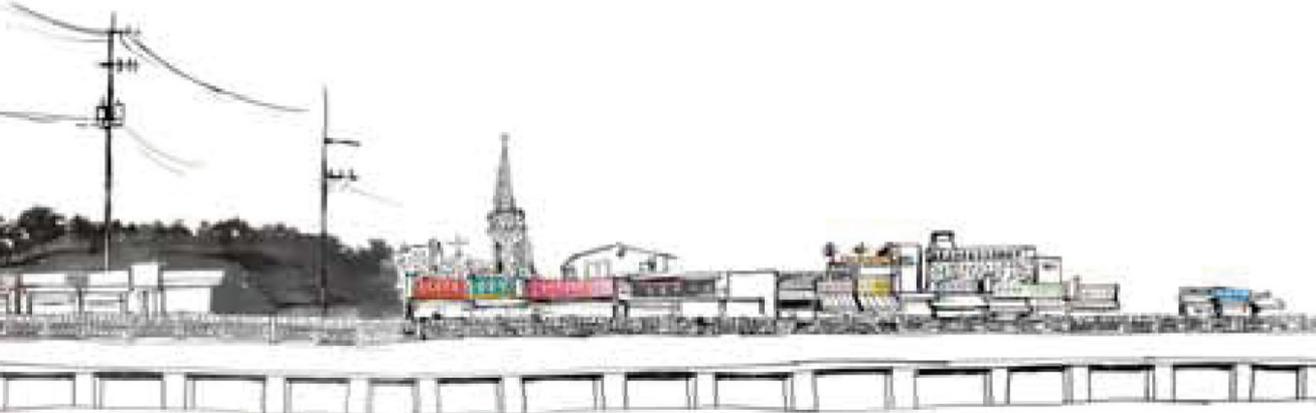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수원시사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수원시사 12

##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 일리두기

###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Contents

일러두기

## 1 식민 지배와 일본 이주민

### 01 일제하 수원 일본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한동민



1. 수원 일본인사회의 형성 / 13
  - 1) 초기 일본인 이민 / 13
  - 2) 경부선의 개통과 수원역 중심의 일본인사회 / 16
  - 3)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사회의 성장 / 21
  - 4) 수원의 발견과 권업모범장의 설치와 운영 / 26
2. 한국병합 이후 일본인 중심의 사회 재편 / 30
  - 1) 경기 남부의 넓은 들과 일본의 농업 이민 / 30
  - 2) 일본인사회의 정신적 구심, 수원신사(水原神社)의 창건과 확장 / 33
  - 3) 일본인 인구의 증가 / 39
3. 일본인 교육과 학교 운영 / 44
  - 1) 일어학교의 성장 / 44
  - 2) 일본인사회의 중심, 일본인 소학교의 설립 / 47
  - 3) 학교조합의 설치 / 51
  - 4) 수원학교조합의 운영 실태 / 54
  - 5) 일본인사회와 식민지 조선의 격리 / 59

### 02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활동과 지방지 편찬

허영란

1.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활동과 수원 인식 / 67



2. 식민 지배의 강화와 지방지 편찬 동기 / 81
3. 수원 지방지의 내용과 가치 / 90

### 03 유아사 가쓰에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 이주민의 정체성 신승모



1. 유아사 가쓰에의 생애와 수원 생활 / 104
2. 소설에 나타난 이주민들의 삶 / 113
3.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2세의 정체성 / 123

## 2

### 월남민의 이주와 정착

#### 01 수원 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생활 경험

박현정

1. 한국전쟁과 수원 그리고 월남민 / 137
  - 1) 월남민 연구 / 137
  - 2) 한국전쟁과 수원 / 138
  - 3) 연구방법과 구술대상 / 142
2. 월남민의 이주 과정 / 144
  - 1) 북한 주민으로서의 경험 / 144
  - 2) 한국전쟁 발발과 월남 과정 / 146
3. 피난민정책과 정착촌 생활 / 156
  - 1) 수원의 피난민정책과 수원 정착 계기 / 156
  - 2) 수원의 월남민 정착촌 / 161
4. 정착 이후 생활 경험과 네트워크 형성 / 171
  - 1) 생활 경험 / 171



- 2) 월남민 네트워크 / 177
- 3) 고향에 대한 그리움 / 180

## 02 월남민의 수원 정착기

박현정



- 1. 박순옥 \_ '동창당' 가족의 수원 정착기 / 183
- 2. 유옥선 \_ 폭격 그리고 자식 잃은 슬픔을 극복하다 / 188
- 3. 최우섭 \_ 신평특공대, 해병헌병대 그리고 CEO / 195
- 4. 김봉석 \_ 열혈 반공청년의 수원 정착기 / 199
- 5. 최형수 \_ 수원지구 황해도민회를 말한다 / 205
- 6. 전계준 \_ 영동시장 상인으로 살아가다 / 210

# 3

##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 01 수원 화교사회의 형성과 변화

이승연

- 1. 수원 화교의 정착과 이동 / 219
  - 1) 수원 화교의 형성 / 219
  - 2) '탈수원' 분위기 속에서 수원을 지키며 살아가기 / 228
- 2. 화교정책의 변화와 수원 화교의 현황 / 230
  - 1) 「국적법」, 체류자격과 귀화문제 / 230
  - 2) 재산권 규제와 수원의 화교경제 / 235
  - 3) 취업 차별과 직업 선택 / 237
  - 4) 교육정책과 진학 / 239
  - 5) 지방선거 투표권 획득과 유권자로서의 입장 / 241



3. 수원 화교의 조직과 사회적 관계 / 242
  - 1) 수원화교협회(水原華僑協會) / 242
  - 2) 수원화교중정소학교(水原華僑中正小學校) / 254
  - 3) 다양한 조직과 사회 관계망 / 262
4. 수원 화교의 일상과 문화 / 265
  - 1) 연애와 결혼, 가정생활 / 265
  - 2) 명절, 장례와 제례 / 271
5. 수원에서 화교로 살아가기 / 278
  - 1) 수원 화교의 성격 / 278
  - 2) 수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 / 280
  - 3) 수원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 281

## 02 만빈원 유씨 가족을 통해 본 수원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이승연

1. 1세대의 삶 \_ 낯선 이방인으로 수원에 정착한 세대 / 290
2. 2세대의 삶 \_ 화교이자 수원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삶 / 299
3. 3세대의 삶 \_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마지막 세대 / 305
4. 4세대의 삶 \_ 한국인으로 흡수 · 동화되는 세대 / 310
5. 만빈원 유씨 집안의 생활과 정체성
  - \_ 낯선 이방인에서 평범한 수원 주민으로의 변화 / 312

# 4

## 이촌향도민의 이주 경험과 삶

### 01 1960~1970년대 이촌향도민의 수원 이주

황병주



1. 산업화 이전 수원의 인구 이동 / 321
2. 1960년대 이촌향도 / 326
3. 1970년대 이촌향도 / 332

## 02 수원 이주 이촌향도민의 삶

황병주

1. 이촌향도 배경과 이주 과정 / 342
2. 이촌향도민의 정착 과정 / 355
3. 이촌향도민의 사회활동 \_ 향우회 활동 / 365
4. 새로운 삶과 정체성 \_ 탈향과 귀향 사이 / 383

# 5

## 결혼 이주여성의 생애 이야기 \_ 꿈꾸는 삶, 끊임없는 노력의 여정

### 01 먼 곳에서 온 그녀들

김윤희

1. 한국사회, 그녀들과 만나다 / 401
2. 이야기의 주인공 / 406

### 02 그녀들의 이야기

김윤희

1. 소픈 이야기 \_ 나는 정말 행복해요 / 415

- 1) 태국에서의 삶 / 415
- 2) 운명 같은 남편과의 만남 / 416
- 3) 한국 생활의 시작 / 418
- 4) 새로운 가족 / 419
- 5) 사회생활 / 421
- 6) 주체적 문화 적응 / 422

## 2. 산드라 이야기 \_ 난 꿈이 있어요 / 423

- 1) 인도네시아에서의 삶 / 423
- 2) 해외 생활 / 425
- 3) 한국 생활 그리고 남편과의 만남 / 427
- 4) 가족 / 428
- 5) 꿈꾸는 삶 / 430

## 3. 라이혼 이야기 \_ 이제 아이들을 위해 살아요 / 432

- 1)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생활 / 432
- 2)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생활 / 434
- 3) 꿈의 좌절 / 435
- 4) 가족 / 437
- 5) 극복과 적응 /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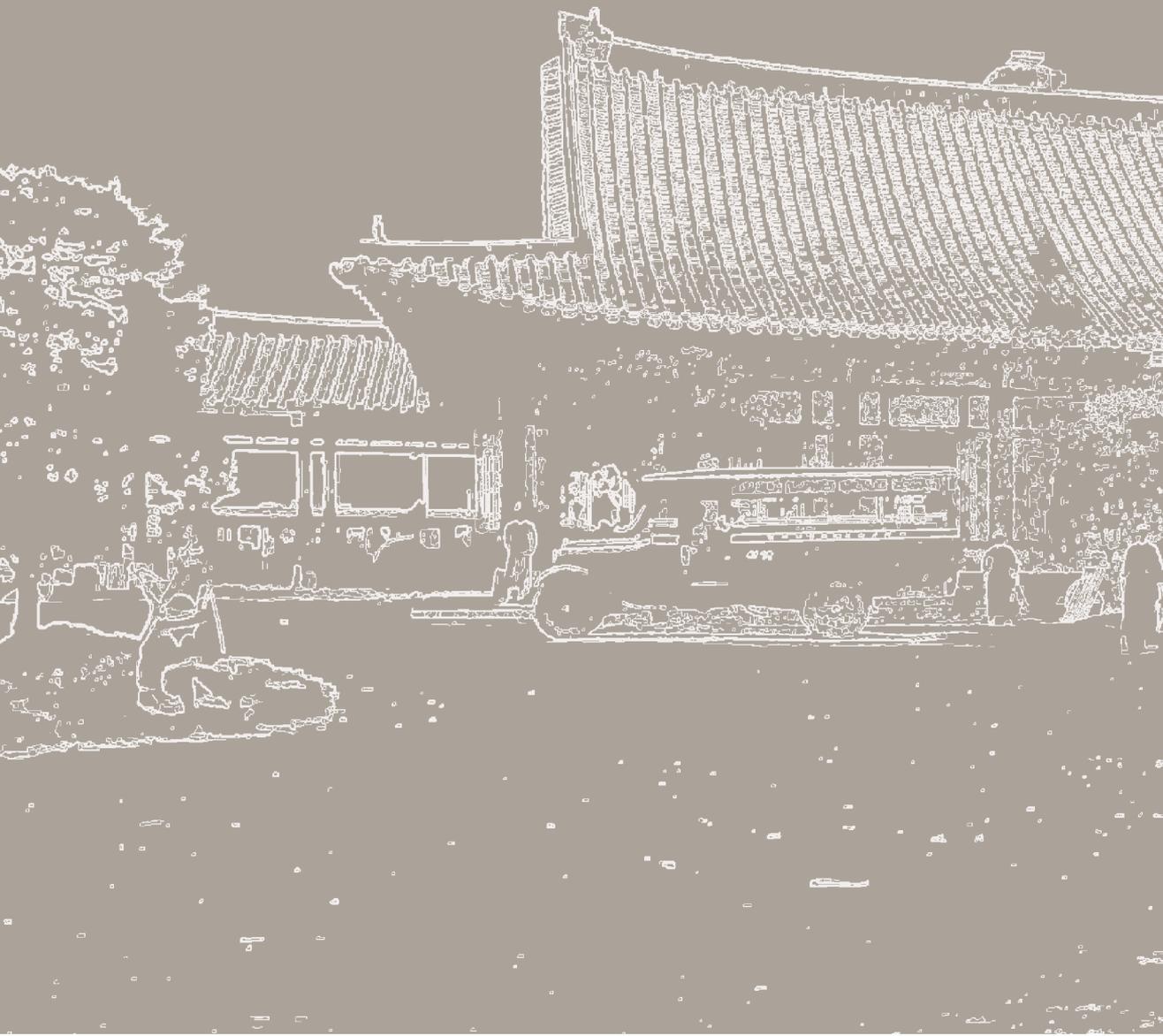
## 4. 지현 이야기 \_ 나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 440

- 1) 베트남에서의 삶 / 440
- 2) 연수생으로서 한국에서의 삶 / 441
- 3) 첫 번째 남편과의 만남 / 443
- 4) 첫 번째 결혼생활과 이혼 / 445
- 5) 새로운 시작 / 447
- 6) 새로운 가족 / 449

참고자료 / 458

집필위원







# 1

## 식민 지배와 일본 이주민

조선인에게 침략자였던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개척자로 자임하면서 조선으로 건너와 각 지방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들이 묘사하는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 고적의 운치, 거주 지역에 대한 애정은 거짓이라기보다는 조선인을 타자화하는 식민주의자의 진심이라 할 수 있다. 미개와 야만의 식민지를 문명화시킬 지배자로서 그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우월감과 자부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근대주의적 신념이었다.



1. 수원 일본인사회의 형성
2. 한국병합 이후 일본인 중심의 사회 재편
3. 일본인 교육과 학교 운영

한동민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 01 일제하 수원 일본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 1. 수원 일본인사회의 형성

### 1) 초기 일본인 이민

일반적으로 선교사-상인-군대의 순서로 침략해 들어오는 제국주의적 침략방식은 일제의 경우에도 부합된다.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던 조선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오는 시기와 맞물려 일본의 각 종교기관도 제국주의의 침병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1876년 한일통상조약(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진종(眞宗)과 일련종(日蓮宗) 등의 일본 종파불교가 한국에 상륙하였다. 최초로 한국에 상륙한 일본불교는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로 1877년 부산에 별원(別院)을 설치하였다. 이후 1881년 일련종과 정토종이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1894년 서울에 온 일련종의 사노 켄레이(佐野前勵)는 인조 이래로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원군을 만났고, 김홍집 내각에 이 문제의 해결을 건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895년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가 명시적으로 해금되었을 때 조선 불교계는 일본 승려의 도움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었다는 인식을 지니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일본 불교의 진출은 활발해졌다.

수원의 일본인들은 크게 관공리, 상공업자, 농업 이민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 수원의 일본인 거류민 집단은 종교인-상인-교사-관공리-농업 이민자 등의 순





1909년 노리마츠가 세운 등신교회(수원박물관 소장)

서로 들어왔다.

수원에 최초로 정착한 일본인은 기독교 선교사였던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 : 1853~1921)였다. 1896년 12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 이는 일본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선교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무런 배경과 후원 없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한국에 왔다.<sup>1</sup> 그리고 1900년 8월 9일 부인과 젓먹이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서울에서 걸어서 수원으로 온 그는 1900년 9월 성안 북수동(장안동)에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고 정착함으로써 수원에 영주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다. 그는 다른 일본인들과 달리 한복을 즐겨 입고 짚신을 신었고, 아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쳤다.<sup>2</sup> 의복과 식기 그리고 주택도 모두 조선식일 뿐만 아니라 4~5세의 아들 요시노부(由信)가 조선어밖에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이 놀랄 정도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였다.<sup>3</sup> 이는 한국인들의 인심을 얻고자 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국주의적 관점을 지닌 다른 일본인들과 차별적

인 그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서 나온 것이  
다. 1906년 11월 반포된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선 내 일본인 종교단체와  
선교사들은 통감부에 포교계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통감부가 각 종파의 포교에 대  
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노리마츠는 1907년 2월 18일 교파 명  
칭을 ‘예수교[耶穌教]’로 하고 자신을 포교  
자로 신고하였고, 수원 보시동(普施洞)에  
‘성서강론소(聖書講論所)’라는 이름의 포  
교소를 신고하였다.<sup>4</sup>

그 후 1909년 8월 2일 김태정(金泰貞)이  
매향동의 토지를 기부하고 신자들의 헌금  
과 협력으로 집회소를 건축한 후 ‘수원성  
서강당(水原聖書講堂)’이라 이름 붙였다.

그러나 1917년 일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기독교동신회(基督同信會)’라는 이름으로 등  
록하였다.

한편 1908년 2월 19일 노리마츠의 부인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후 노리마츠는 재혼하여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일본인으로 수원에 정착한 최초의 인물은 노리마츠(乘松) 선교사로서 1901년 부인과 함  
께 성안 장안동에 거주하며 열성으로 조선인 포교에 힘썼다. 1902년 1월 노나카 스에요  
시(野中末吉)가 이주하여 과자점을 경영하였고, 미와 세이치(三輪政一)는 1902년 6월 화  
성학교를 일으켜 목소 교편을 잡아 조선인을 가르쳤다. 이후 1903년 이노하라(猪原), 오  
노(小野), 곤도(近藤), 호스카와(細川), 야마자키(山崎), 이마무라(今村), 기타자와(北澤)  
등이 수원에 이주하여 일본인 세력의 부식에 노력하였다.<sup>5</sup>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는 노리마츠가 1901년 수원에 정착한 것으로 기록



동신교회 뜰에 있는 노리마츠 마사야스 기념비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지은 '수원'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00년인 것으로 보인다. 노리마츠 이후 1902년 1월 노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가 이주하여 과자점을 경영하면서 수원에 정착하였다. 노나카 스에요시는 수원에 일본인 다화회(茶話會)를 만들고 조금 더 진진된 형태의 일본인회(日本人會)를 조직하였다. 또 일본인 소학교와 병원 설립을 주창하면서 스스로 일본인회 회장이 되어 거류민립소학교 설치 등에 진력하였다. 노나카 스에요시는 수원 일본인 거류민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와 세이치(三輪政一)는 1902년 6월 일어화성학교에서 교

편을 잡았던 인물이다. 그 후 1903년 이노하라(猪原), 오노(小野), 곤도(近藤), 호소카와(細川), 아마자키(山崎), 이마무라(今村), 기타자와(北澤) 등이 수원에 정착하였다.

## 2) 경부선의 개통과 수원역 중심의 일본인사회

깡음을 내며 내달리는 기차는 근대문명의 기호이자 시간에 속박된 무자비한 근대를 만나는 현장이기도 했다. 새벽닭 울음소리에 깨어나 일하고 어둠과 함께 잠드는 순환적이고 자연적인 삶은 노동과 휴식이 철저히 구분되지 않은 일상이었다. 그러나 기차는 '정시 운행'을 통해 정확한 시간을 강제하였다. 그것을 타하는 자를 시대에 뒤떨어진 '무지한 시골영감'으로 매도해 가며 기차는 시간에 속박된 근대적 시스템을 각인시켰고, 이 땅의 자연스러운 존재방식을 깡음을 내며 찢어 가고 있었다. 더구나 신분적 질서조차 철저히 해체해 갔다.

190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부설된 철도는 세계 자본주의의 팽창과 산업화를 보여



1928년에 새로 세워진 수원역(수원박물관 소장)

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되었다. 이는 단지 교통운송 수단의 역할 이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 변화의 파급효과가 대단히 컸다. 철도 부설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는 근대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20세기 한국에서의 철도 부설은 한국의 자본주의화·식민지화·산업화·도시화·근대화 등 중층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경부철도가 몰고 온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일상생활의 변모는 한국사회 변동의 척도가 되었다. 특히 철도 부설의 주체가 일본 제국주의였고 부설 자본이 일본 자본이었기 때문에 철도 부설 이면에는 일제의 침략성과 수탈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내재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억압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아픔이었지만, 당시 철도가 한국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경부철도는 1901년 8월 20일 북부 기공식을 서울 영등포에서, 9월 21일 남부 기공식



을 부산 초량에서 거행하였다. 일본 자본의 회사인 경부철도주식회사는 기공한 지 4년 후인 1904년 12월 27일 경부철도를 완공하였고, 190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전선(全線)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해 5월 25일 서울 남대문정거장 광장에서 개통식이 거행되었다.

1901년 4월 경부철도 노선계획은 지지대고개를 뚫고 서문 밖으로 팔달산 뒤쪽을 관통하며 상류천-대황교 동편을 지나는 노선이었다. 수원 사람들은 팔달산이 정조 사당인 화령전(華寧殿)의 주산이고 지지대 역시 정조와 관련한 유적임을 들어 사그내-지지대 터널의 철도노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에 경부선은 수원 사람들의 뜻대로 수원읍치에서 서북쪽으로 에돌아 군포-부곡-수원역-병점으로 확정되었다. 지지대 터널을 뚫는 난공사를 피해 너른 평야지대를 관통하는 이 노선은 실상 일제의 처지에서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이었다. 1905년 전선이 개통되어 영등포-부곡-수원-병점-오산-진위-서정리-평택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노정을 따라 근대적 변화가 거세게 밀려왔다. 이는 일본의 거대 자본과 제국주의 침탈의 길이었다.

경부선이 개통되자 기차는 일제의 우월한 근대문명과 기술의 선전장이 되었다. 그들의 우월의식은 기차의 기적소리만큼이나 커져 갔던 것이다. 1908년 4월 1일 서울-수원 간 식당열차가 시운전되었다. 철도관리국은 부통감 하세가와(長谷川) 대장을 비롯한 일본인 고등관, 그리고 한국 측의 고관대작들을 초청하여 새로 만든 식당열차를 자랑하였다. 이 열차는 러일전쟁 때 러시아에서 노획한 철도로 만든 것으로, 일본인들의 우월감을 더욱더 고조시켰다. 이들은 남대문정거장에서 모여 10시에 출발하여 차 안에서 오찬 향응을 가졌고, 차창 밖의 풍물을 관망하면서 수원역에 도착하였다. 수원정거장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등그런 등을 매달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수원역 광장에는 임시 운동장이 마련되어 각종 운동경기가 벌어졌다. 차 안에서는 프랑스 요리가 나왔고 일본인 사무관 등이 접대를 맡았다. 술시중은 기생이 맡는 등 초호화환대가 있었다. 수원을 출발하여 남대문정거장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3시 15분이었다.

기차역은 장시의 번성을 가져와 대도시를 만들어 갔다. 이런 점에서 기차 정거장이 위치한 수원·오산·평택은 남쪽으로 가는 제주로(濟州路)의 전통적인 대로(大路)의

혜택에 더하여 기차 운송으로 수혜를 받았던 셈이다. 물론 수혜의 대상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들이었는데, 발 빠른 일본인들이 철도역의 역세권(驛勢圈)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해 갔던 것이다.

1908년 최남선의 「경부철도가(京釜鐵道歌)」는 경기 남부 철도역의 지역적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다음에 정거장 오산역(烏山驛)이니 온갖 곡식(穀食) 모이는 큰 장(場)거리요.  
그다음에 정거장 진위역(振威驛)이니 물새사냥 하기에 좋은 터이라.  
서정리(西井里)를 지나서 평택 이르니 물은 낮고 산(山) 낮아 들만 넓도다.  
묘(妙)한 경치 좋은 토산(土産) 비록 없으나 쌀 소출은 다른 데 당(當)하리로다.

수원은 전통적으로 화성의 남문, 즉 팔달문 주변이 최대의 상권이였다. 그러나 경부선이 뚫리면서 수원의 서쪽 변두리에 불과했던 수원역 주변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였다. 물론 수원역 상권은 일본인들이 주도하였으며, 수원역 주변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일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수원역 주변에 집중되었다. 1906년 일본인 학교가 수원역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고, 수원역전우편소가 설치되었다.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가 서둔리에 설치된 것도 정조 때 축조된 축만제(서호)의 이점을 살린다는 것과 더불어 수원역에서 멀지 않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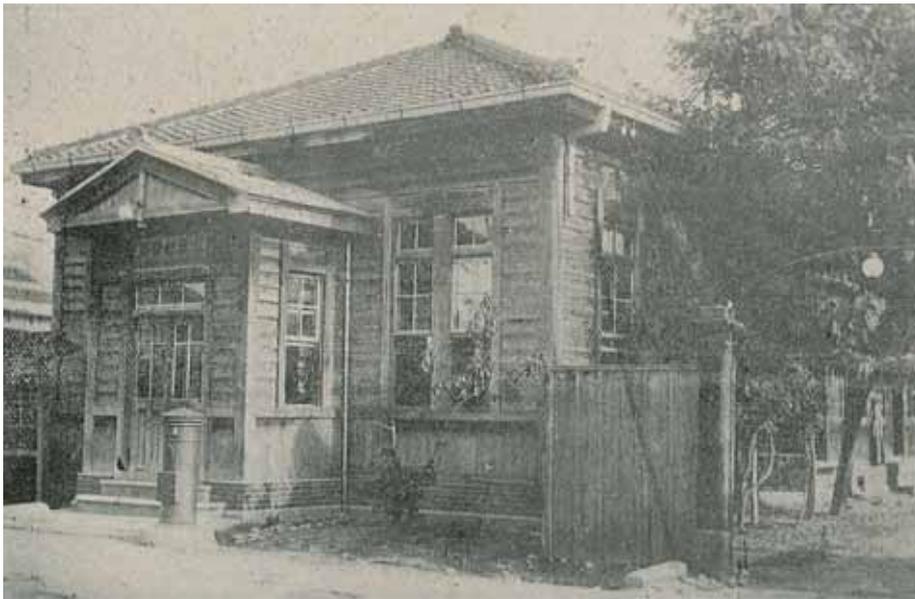
철도와 더불어 도로체계도 새롭게 재편되었다. 즉 반식민지 상태에서 통감부는 내부(內部) 산하에 치도국(治道局)을 설치한 후 '도로개수계획'을 세우고 1906년부터 1910년까지 1·2등도로 총 806.6km를 완공하였다. 총독부는 1911년 4월에 「도로규칙」을 공포하고 이전의 '도로개수계획'을 변경하여 제1기 치도공사를 5개년으로 계획했다가 다시 2년 연장하여 1917년까지 시행하였다. 「도로규칙」은 도로를 1등(노폭 7.3m), 2등(5.5m), 3등(3.6m), 등외도로 등 4등급으로 나누었다. 일제는 1기 사업 기간에 2,689km를 완공하였는데, 이때 수원에서 서정리(송탄)까지 12.9km가 1등도로로 개발되었고, 1909년 수원-여주 간 신작로가 개설되었다.<sup>6</sup>

정조의 필로에 해당하는 길은 일제시기에 1등도로로 개수된 서울-목포선이다. 이 도로는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시를 관통하고 태안읍과 오산·송탄을 거쳐 평택·성





수원역전길(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수원우편국(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환으로 빠진다. 이 노선은 제주로를 근간으로 정비된 것으로 1960년대에 급속히 산업화되기 전까지 국도 1호선으로 지정되었다. 차하 등급의 도로는 수원에서 용인을 거쳐 이천으로 연결되는 오늘날 국도 42호선으로 1914년 당시 2등도로로 정비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수원의 도로망은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재편되면서 수원을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요지로 만들어 갔다.

한편 철도의 개통 이전인 1903년 6월에 한성-수원 간 전신이 개통되었다. 그리고 1903년 8월 1일 수원에서 일본으로 가는 우편수취소를 수원군 남부면 매산리에 설치하였다. 이곳은 장차 수원정거장이 마련되는 수원역 앞이었다. 이것이 이후 수원역전 우체국이 된다. 물론 이미 1895년 8월 10일 한성우체사 수원지사가 설치되어 우편업무를 취급하였다가 이듬해 1896년 수원우체사로 승격되었다. 1898년에는 수원우체사 안성지사가 개국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이 운영하던 우체업무를 일제는 가장 먼저 빼앗았는데, 정부의 독점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수원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거주지들이 만들어지고 그 편의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다.

### 3)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사회의 성장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로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몰려왔다. 특히 1905년 소위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 현상이 되었으며 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일본인 이주민이 급증하여 수원의 일본인은 갑자기 100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인 거류민들은 서로 논의하여 수원일본인회(水原日本人會)를 조직하였다.

1910년대 초 수원에 정착한 일본인의 출신지는 사가현(佐賀縣)과 후쿠오카현(福岡縣)이 가장 많았으며, 100명이 넘는 지역으로는 히로시마현(廣島縣), 야마구치현(山口縣), 오카야마현(岡山縣), 구마모토현(熊本縣) 등이다. 1910년대 초 수원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출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수원의 경우 1906년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가 정조 때 축조된 축만제 옆에 설치되자 일본인 이주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어 일본인 거류민역장(居留民役場), 일본인 소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1906년 수원에는 거류민 총대역장이 조직될 정도로 일본인



러일전쟁(『日露戰域外國畫帖』, 小川一眞出版部, 1905, 수원박물관 소장)

〈표 1〉 1910년대 초 수원으로 이주한 일본인의 출신지<sup>7)</sup>

(단위 : 명)

부현	인구	부현	인구	부현	인구	부현	인구
도쿄부(東京府)	57	교토부(京都府)	26	오사카부(大阪府)	30	가나가와현(神奈川縣)	30
효고현(兵庫縣)	23	시즈오카현(靜岡縣)	36	아마나시현(山梨縣)	17	시가현(滋賀縣)	29
기후현(岐阜縣)	82	나가노현(長野縣)	47	미야기현(宮城縣)	16	후쿠시마현(福島縣)	28
고치현(高知縣)	61	구마모토현(熊本縣)	115	나가사키현(長崎縣)	90	니가타현(新潟縣)	21
사이다마현(埼玉縣)	13	지바현(千葉縣)	13	이바라기현(茨城縣)	6	이와테현(岩手縣)	9
아오모리현(靑森縣)	7	아미가다현(山形縣)	32	아키타현(秋田縣)	20	후쿠이현(福井縣)	13
이시가와현(石川縣)	18	도쿠시마현(徳島縣)	22	홋카이도(北海道)	9	군마현(群馬縣)	18
도초기현(杣木縣)	11	나라현(奈良縣)	26	미야기현(三重縣)	14	아이치현(愛知縣)	58
돗토리현(鳥取縣)	16	오카야마현(岡山縣)	167	히로시마현(廣島縣)	162	야마구치현(山口縣)	184
와카야마현(和歌山縣)	12	가가와현(香川縣)	37	에히메현(愛媛縣)	53	후쿠오카현(福岡縣)	203
오이타현(大分縣)	94	미야자키현(宮崎縣)	28	가고시마현(鹿児島縣)	97	시마네현(島根縣)	18
사가현(佐賀縣)	319	도야마현(富山縣)	15	합계 3부 42현 1도, 인구 2,386명(남 1,349, 여 1,037)			



들이 급증하였다. 일본인회의 조직은 대체로 거류민회 조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거류민 총대역장과 거류민단 그리고 일본인회로 진화되어 갔다.

〈표 2〉 일본인회 호구

(1909년 12월 말 현재, 단위 : 호, 명)

명칭	거류지 구역	호수	인구			호당 평균 인구	설립일
			남	여	계		
수원거류민 총대역장	수원군 일원	360	692	555	1,247	3.46	1906. 8.30.
경성거류민단	경성 성내 일원	7,581	13,217	12,079	25,296	3.27	1906. 8. 15.
인천거류민단	인천 일원	2,917	5,916	5,209	11,125	3.81	1906. 8. 15.
용산거류민단	한강 양안	2,358	3,931	3,634	7,565	3.21	1907. 9. 15.
개성거류민 총대역장	개성군 개성부	336	607	478	1,085	3.23	1900. 6. 17.
영등포거류민 총대역장	시흥군 영등포 중종리, 하방곶리, 사촌리, 도야미리, 구로리	171	297	223	520	3.04	1905. 4. 24.
오산일본인회	오산동	27	48	41	89	3.30	1907. 5. 6.
평택거류민 총대역장	평택역 일원	38	55	57	112	2.95	1908. 5. 5.
여주일본인회	여주 및 부근	29	46	31	77	2.66	1909. 6. 23.
안성일본인회	안성 일원	43	62	51	113	2.63	1909. 10. 25.

일본인 거류민 총대역장은 1900년 경기도 개성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 거류민 조직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만들어졌다. 을사늑약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으로 유입되고 개항장을 비롯한 대도시인 인천·부산·평양·목포·군산·진남포 등지에서 1906년 8월 15일 거류민단이 조직되었다. 뒤를 이어 9월 원산·마산, 11월 대구에서 거류민단이 조직되었다. 수원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표 3〉 수원면의 인구 현황

(1909년 12월 말 현재, 단위 : 호, 명)

구분	호수	인구		
		남	여	계
조선인	1,950	3,045	2,671	5,716
일본인	360	692	555	1,247
청국인		2		2
기타 외국인	2	3	3	6
계	2,312	3,742	3,229	6,971



수원 천리교선교소(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시기인 1906년 8월 30일 수원거류민 총대역장이 조직되었다. 따라서 을사늑약 이듬해인 1906년 일본인회가 대거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은 경부철도의 수원역을 중심으로 거류민 집단을 만들며 그들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갔다.

일본의 종파불교 가운데 진종(眞宗)·조동종(曹洞宗)·정토종(淨土宗)·진언종(眞言宗)·임제종(臨濟宗)·일련종(日蓮宗) 등은 조선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 사찰을 건립하였다. 이들 각 종파는 경쟁적으로 자파세력을 늘리기 위해 사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수원의 경우 정토종에서 1905년 12월 수원군 남부면 교동(校洞)에 수원사(水原寺)를 건립하였다.<sup>8</sup> 이로써 수원 지역에 일본 종파불교의 전초기지가 마련되었다. 정토종은 이미 경성에 진서파개교원(鎭西派開教院 : 1898년 12월)과 인천에 인천사(仁川寺 : 1901년 6월)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원사의 건립을 통해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포교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1909년에 수원에는 다시 정토종교회소(淨土宗教會所 : 1909년 2월), 고야산대사교회(高野山大師教會) 수원지부(水原支部 : 1909년 3월),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 수원포교소(水原布教所 : 1909년 6월) 등이 설치되었다.<sup>9</sup> 당시 진종대곡파 본원사 수원포교소의 주임자는 마에다(前田鐵心)로, 오산(烏山)출장소·천안(天安)출장소도 설치하여 수원에서 출장 관할하였다.<sup>10</sup> 따라서 수원은 경기 남부와 충청도 지역 포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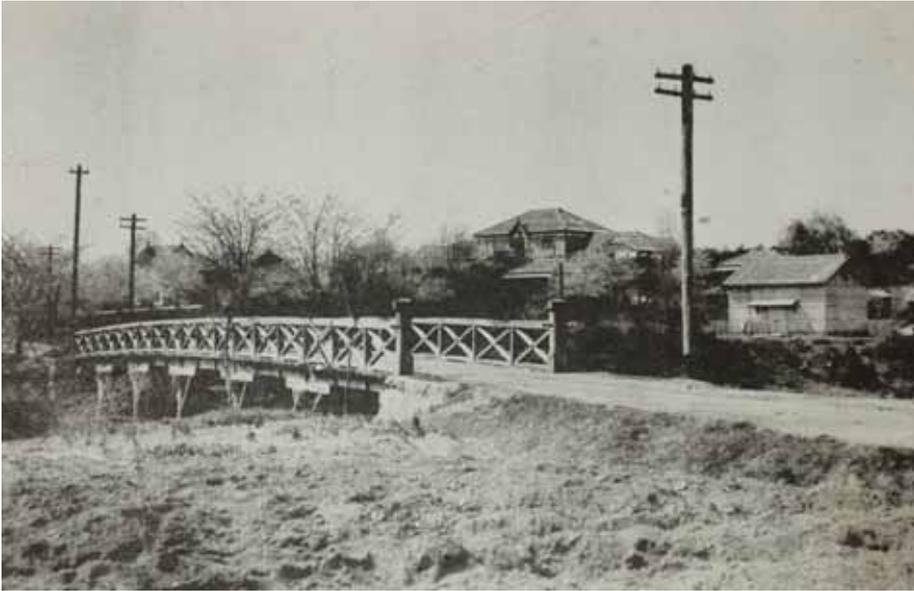
일본인이 설립한 신사사원(神社寺院)은 수원신사(水原神社), 정토종 수원사, 진언종 고야산(高野山) 법룡사(法隆寺), 진종대곡파 본원사포교소(本願寺布教所), 진종본원사파(眞宗本願寺派) 본원사포교소, 일련종 묘법사(妙法寺), 조동종(曹洞宗)포교소, 천리교(天理教)선교소 등이다.<sup>11</sup>

1910년대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던 일본 종파불교는 정토종을 비롯하여 진언종·진종이었으며, 1920년대가 되면 일련종·조동종 등이 추가되었다. 더욱이 정토종의 수원사처럼 진언종 법룡사와 일련종의 묘법사 등이 포교소에서 점차 사찰의 형식을 갖추며 발전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사원 이외에 일본인이 설립한 포교소로 '신도(神道)' 라는 천리교 수원선교소가 1912년 8월 설치되었다.

한일합방 이전 수원의 일본인사회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을 발간할 정도가 되었다. 즉 수원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1908년 3월부터 『수원신문(水原新聞)』 속 사판(速寫板)을 발간하였다.<sup>12</sup> 수원에서 발행하던 이 신문은 이후 『수원신보(水原新報)』(등사판)로 이름을 바꾸어 간행되었으나, 간행 경비의 조달이 어려워 1908년 12월 15일 발행한 제50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sup>13</sup>

#### 4) 수원의 발견과 권업모범장의 설치와 운영

수원은 정조 때 화성 성역과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치수(治水)를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 마련되고, 제언(堤堰)의 조성 과 둔전(屯田) 경영 등의 농업진흥책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미 수원은 정조 대 이래로 선진적 영농의 중심지이자 전국적 모범이 되었던 곳이다. 일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식민농정(植民農政)의 정책기구인 권업모범장을 1906년 수원에 설치하였다.



권업모범장 전경(수원박물관 소장)

통감부는 권업모범장을 일형면 서둔리에 대규모로 조성하였는데, 이곳은 수원역 서북쪽으로 여기산 남쪽이고, 1799년 조성된 축만제(祝萬堤 : 서호) 바로 옆에 위치한다. 권업모범장은 1906년 10월부터 신축공사와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제를 완성하였다. 권업모범장 건립공사가 진행되던 1906년 10월 26일 대한제국은 권업모범장을 이양해 줄 것을 통감부에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통감부는 조선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그해 11월 종래의 경영방침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 등을 붙여 대한제국에 권업모범장을 이양하였다. 이에 1907년 3월 고종은 「권업모범장관제(勸業模範場官制)」를 반포하여 조직적 틀을 만들었다. 1908년 권업모범장에는 장장을 포함하여 20명의 인력을 두었다. 그 가운데 행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 3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문 농업기술인력은 17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한국인으로는 본장에 권석규(權錫圭)와 이필희(李佖熙) 단 2명의 기수가 있었을 뿐이다.

그 이후 1910년 소위 ‘한일병합(韓日併合)’으로 국권이 상실되자, 권업모범장은 조



〈표 4〉 1908년 권업모범장의 구성원<sup>14</sup>

소속	직위	이름
수원본장	기감(技監)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기사(技師)	도요나가 마리(豊永眞里)
	기사	사키사카 이쿠사부로(向坂幾三郎)
	(검)기사	미야하라 다다마세(宮原忠正)
	(검)기사	미야모토 마사조(宮本政藏)
	기사	구사노 다케오(草野嶽男)
	서기(書記)	아마모토 나오사토(山本尙郷)
	기수(技手)	노기 덴조(野木傳三)
	기수	나가오카 데쓰조(長岡哲三)
	서기	나카무라 와키(中村脇)
	기수	기지마 하지메(貴島一)
	기수	권석규(權錫圭)
	기수	이필희(李倜熙)
	기수	다케마 데이치(武間貞一)
평양출장소	기사	하니이 도이치로(花井藤一郎)
대구출장소	기사	헤라이 히데타로(戸來秀太郎)
군산출장소	기사	미우라 나오히로(三浦直次郎)
목포출장소	기사	사토 마사지로(佐藤政次郎)
	기수	스즈키 신타로(鈴木信太郎)
	서기	아에가시(八重樫)

선총독부 관할이 되었다. 곧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관제」가 반포되어 본격적으로 식민농정을 펼치는 농업기관이 되었다. 권업모범장의 주요 사업은 산업의 발달 개량에 필요한 조사와 시험, 물산의 조사와 산업상 필요한 물료(物料)의 분석 및 감정, 그리고 종자·종묘·잠종·종금(種禽)·종축(種畜)의 배부, 산업상의 지도와 강의 등이었다.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그러다가 권업모범장을 실질적인 시험·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총독부 당국자와 권업모범장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권업모범장을 식민농정의 중추적 기구가 아닌 보조적 연구기관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19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연구기관으로 권업모범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권업모범장은 농



『훈다 코스케 박사 추도기념지』에 실린 훈다 코스케 가족(수원박물관 소장)

사시험장(農事試驗場)으로 전환되었다. 총독부는 1929년 9월 17일 칙령 제279호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관계」를 공포하여 권업모범장을 '농사시험장'으로 변경하였고, 1930년 1월 8일에는 총독부 훈령 제7호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사무분장규정(事務分掌規程)」을 공포하여 농사시험장의 조직과 업무를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시기부터 일본 농법의 강제 이식을 목표로 농사 개량의 장려와 지도를 주도했던 권업모범장은 연구시설로 그 기능과 역할이 바뀌었다.

이처럼 권업모범장은 처음에 식민농정의 전위적 기구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음으로 식민농정의 연구기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의 실천적 역할과 보조적 역할 모두를 수행해 나갔던 대표적인 식민기구였다.<sup>15</sup>

이러한 역할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은 권업모범장 장장이었던 훈다 코스케였다. 그는 1907년부터 1919년까지 15년간 장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한국농정의 기본방침과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으며, 1910년대 일제 식민농정의 대부분을 수립·추진하였다.<sup>16</sup> 권업모범장이 설치되면서 잠사부와 농림학교도 이곳에 설립되



었으며, 수원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되었다.

## 2. 한국병합 이후 일본인 중심의 사회 재편

### 1) 경기 남부의 넓은 뜰과 일본의 농업 이민

1912년에 667호에 2,408명이던 일본인은 1924년에 3,000여 명으로 늘었다.<sup>17</sup> 교통이 편리하고 토지가 넓고 비옥했던 수원에 일본인들이 토지를 겸병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일본인 이민자들도 들어왔다. 또한 토지가 비옥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본인 농업 경영자들도 많았다. 『경기도지주명부(京畿道地主名簿)』(1938년)에 나타나는 일본인 지주와 농장이 소유한 수원의 토지는 <표 5>와 같다.

<표 5> 수원 지역 일본인 농장 및 지주<sup>18</sup>

소유주	토지(정보)			소작인 수(명)	소작료 수취 방법	
	논	밭	합계		논	밭
호리우치 준이치(堀内順一)	97	41	138	199	정조 3할 집조 7할	정조 10할
카사마츠 이치조(笠松一藏)	78		78	60	타조 10할	
사카테 요시오(坂手芳夫)	201	110	311	95	정조 10할	정조 10할
국무합명회사(國武合名會社)	302	68	370	518	집조 10할	정조 10할
동산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	857	268	1,125	1,512	집조 10할	정조 10할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809	381	1,190	2,117	타조 10할	정조 10할
조선신탁주식회사(朝鮮信託株式會社)	154	45	199	233	집조 10할	정조 10할

수원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일본인 농장은 동산농장(東山農場)이었다. 동산농장은 1907년 1월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1909년 말에 이르러 대체로 경지정리를 완료하였다. 동산농장은 소작제도를 채택하여 소작인이 8,334명이나 되었으며, 마름솥 흉도 100명이 넘었다.<sup>19</sup> 1912년 4월부터 수원군 남부면(南部面) 지동(池洞)에 모범촌을 두고 체계적으로 일본식 농업기술체계를 보급하였다. 일본 당국에서도 동산농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기술관을 파견하여 제반 시설에 편의를 제공하였



장인문 근처의 일본인 농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다.<sup>20</sup> 동산농장은 소작인들에게 마을마다 농사 개량을 위한 조합을 조직하고 관개구(灌溉溝)의 수리, 악수로(惡水路)의 개선, 경서(耕鋤)·시비(施肥)·제초(除草)·선종(選種) 강조, 비료의 조제 등을 통해 노동력 착취를 강화하였다.<sup>21</sup> 동산농장은 소작인의 노동력을 강도 높게 착취하여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동산농장 사무실은 고등동의 넓은 부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은 토지가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으로 줄임)의 농장이 설치되었다. 동척은 일제하 최대의 식민농업회사로서, 한국인들은 “살을 뜯어먹고 뼈를 갈아먹는 그 무엇이 있다 하면 동척(東拓) 이상이 어디 또 있으랴. 위선(爲先) 일례(一例)로는 봉산군(鳳山郡)의 사인면민(舍人面民), 재령군(載寧郡)의 북울면민(北栗面民)이 그의 독아(毒牙)에 걸려 방금(方今) 죽게 되지 않았는가? 아 조선인의 악귀(惡鬼)인 동척아 어찌면 이다지도 흑독(酷毒)하나? 조선의 토지는 얼마나 가졌느냐. 조선인의 생명은 얼마나 빼앗았냐?”<sup>22</sup> 라고





동산제곡소(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할 정도로 한국의 토지와 농업을 수탈하는 원흉이었다. 동척의 농업 수탈에 대한 반감은 당시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동척(東拓)이여! 기름을 엮지르고 깨를 줌는 동척이여! 무용(無用)한 망상(妄想)으로써 막대한 결손(缺損)을 가져와 무고한 백의농민(白衣農民)의 고혈(膏血)을 빨아먹기에 여념(餘念)이 없는 동척이여! 구시대의 유물로서 조선인의 무한(無限)의 원부(怨府)를 스스로 만든 동척! 조선 민중의 행복과 양립되지 않는 너 동척아!<sup>23</sup>

이처럼 동척은 고율소작료 등으로 소작농민을 착취함에 따라 한국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일제하 수원에서도 동척은 가장 많은 토지와 소작인을 거느린 최대 지주였다. 동산농장·국무농장과 조선신탁 등의 일본인 농장과 회사에도 많은 한국인 소작인이 있었다. 또한 수원에는 일찍부터 일본인 농업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1911년 2월에는 제1회 동척 이민 1,000명 가운데 10

호가 수원에 배치되었으며, 그해 말에 제2회 이민 가운데 81호가 수원 지역에 배치되었다.<sup>24</sup>

한편 1911년 4월 1일 조선농회(朝鮮農會)가 설치되었는데, 사업 확장방침의 결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회원도 3,700여 명이 되었다. 그중 3분의 2는 한국인이며 각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하고 매월 회보(會報)를 발행하며 매년 농산물평회(農產品評會)를 개설하였다. 조선농회는 사무소를 수원군 남부면 고등촌(高等村)으로 이전하고 옛 사무소는 분실로 할 정도로 농업 분야에서 수원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은 막강하였다.

## 2) 일본인사회의 정신적 구심, 수원신사(水原神社)의 창건과 확장

일본인을 위한 종파불교의 활동과 더불어 수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신사의 창건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1910년 이전에 이미 경기도에는 서울과 인천에 몇 개의 신사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수원에서는 곤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 외 48명이 수원신사 창건을 청원하여 수원군 수원면에 수원신사 창건 허가를 받았다.<sup>25</sup> 수원신사는 1915년 10월 수원향교(水原鄉校)를 굽어보는 팔달산 중턱에 설립되었다. 수원향교 위에 신사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각 도시마다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 광대한 넓이의 땅을 점유하여 공간적으로 도시를 제압하고 정신적으로 도시민을 지배했던 것이 신사(神祠)였다. 한국의 거류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황민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순화되어 가던 조선인들에게도 신사는 각 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갔다.<sup>26</sup>



동산농사주식회사 소작료 납부 영수증(의왕시사편찬위원회, 『의왕시사』 6, 2007)

신사는 일본인이 일정한 양식의 건물에 특정한 신령을 모셔 놓고 제사 지내며 신성한 터전으로 여기는 곳을 말한다. 이곳은 예로부터 농경사회로 정착한 고을과 마을을 지켜 주는 신령이 계시는 신성한 곳으로 추송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계층은 이러한 원시신앙인 신도(神道)를 지배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신도를 일본 천황가의 가계에 맞춰 확대 조직하고 제도화하면서 세속적 지배에 유리하게 변질시켰던 것이다.

사실 일본은 고대 불교를 수용한 이래 지배적 종교는 불교였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래 근대 천황가가 탄생하면서 살아 있는 현인신(現人神)으로서 천황을 추앙하면서 신도는 새롭게 개발건되고 독립되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로 확장된 신도는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적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일본이 청·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자신들도 예견하지 못한 승리를 거두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 신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적인 종교가 되어 갔다.

명확한 교의(教義)와 제대로 된 신학(神學), 지켜야 할 계율도 없어 종교·사상적 투쟁도 결여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신도가 일본인을 광신자로 만들어 간 이유는 종교 외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전과 짝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31년 만주 침략과 1937년 중일전쟁에서 들려오는 계속된 승전보는 신국(神國) 일본과 신풍(神風)에 대한 자기 확신을 지니게 하였다. 이는 전쟁을 수행하던 군부와 정부를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전염되어 갔고,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신도에 대한 자발적인 광신자들로 넘쳐나게 되었다.<sup>27</sup>

1910년 당시에 이미 부산·목포·진남포·인천·군산·원산·성진·마산 등의 일본거류지에는 12개의 신사가 건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일합방을 기화로 그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 1912년 말 전국적으로 60개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신직(神職)이 있었던 신사(神社)는 경성·인천·부산·신의주 등 4개 도시, 8개에 불과하였다.

그 후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을 발표하면서 신사 건립 기준과 인가절차를 정하고, 1917년 3월 「신사(神祠)에 관한 건」을 발하여 신사(神社)에 미달하는 것은 신사(神祠)로 정하였다. 이에 거류지 신사들은 공식적인 신사(神社)로 인가받았고, 신사가 없는 지역은 신사(神祠)라도 건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높아 갔다. 이에 따라 수원에서도 일본거류민인 곤도 도라노스케(近藤虎之助) 등 48



수원신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股社社神原水

(行發郡書業繪田原)

段階河正社神原水

(所名原水)

일제시기 엽서 속의 수원신사(수원박물관 소장)

명이 청원하여 1915년 12월 20일 수원신사 창립이 인가되었다. 곤도 도라노스케를 비롯한 48명은 당시 수원의 유력한 일본인들을 망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원신사가 수원향교 위쪽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화성의 건설 과정에서 가장 먼저 터를 잡은 것이 수원향교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향교에 대한 상징성은 절대적이었다. 수원 신읍치 이전 후 정조는 수원향교 고유문을 직접 짓고 전배함으로써 그 상징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sup>28</sup> 따라서 수원신사는 수원향교를 지극히 누르는 위치에 자리 잡음으로써 신사 건설을 통하여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미 향교 주변은 서구 근대문명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던 영국성공회 교회가 1907년 근대식 건물로 들어서고, 일본인 학교가 1906년 새롭게 신축되어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조선의 정신적·문화적 상징이었던 수원향교 위에 지은 수원신사는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을 상징한다. 특히 일본인 학교였던 수원소학교를 드나들며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수원신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심성은 조선인들과 사뭇 달랐다. 즉 조선인에게 향교를 누르고 선 신사가 위압적으로 다가왔다면, 일본인에게는 눈 들어 팔달산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굽어 살피는 위치에 있는 그들을 보호해 주는 신령스런 존재였던 셈이다.

이제 팔달산은 수원신사가 있는 상징적 장소로 변화되어 갔다. 경부선 개설 이후 일본인들의 상권으로 발돋움하며 수원의 신시가지로 형성했던 수원역과 권업모범장에서 바라보면 수원신사와 수원소학교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신도는 1930년대 이후 일본 군부와 정부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신앙하면서 이를 한반도와 대만을 비롯한 식민지는 물론이고,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이름 아래 아시아와 전 세계에 포교·전도하려고 했다. 이는 1931년 만주 침략과 1932년 만주국 건설 이후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군국주의 체제로 전환되어 갔다. 이러한 분위기와 궤를 같이하여 천황가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 신도에 대한 광신자들이 늘어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수원 거류일본인들은 수원신사 확장을 논의하였다.

이에 수원의 일본인 유지집단의 주도로 '수원신사봉찬회(水原神社奉讚會)'가 조직

되었다. 위원장은 수원읍장 아사히카와 가즈이찌(旭川和一), 부위원장은 구로이와 가쿠이치(黒岩覺一)와 차준담(車濬潭)이었다. 그리고 공진부(供進部 : 7명), 공영부(工營部 : 6명), 신원부(神苑部 : 4명) 등 3개 부서를 두었고, 이사 20명을 선임하였다.

〈표 6〉 수원신사봉찬회 조직 구성

부서	부장	위원
공진부(7)	곤도 다이키치(近萬泰吉)	쓰마키하라 지쓰오(橋原實雄), 요시우라 히데노부(吉浦英暲), 야나가와 다쓰오(梁川龍夫), 홍길선(洪原吉善), 기무라 에이키치(木村榮吉), 나가우마(永禮一七)
공영부(6)	요코에 키치용(横江吉四)	오다 하지메(荳田甫), 노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 산와 모토나리(三和基成), 쓰즈카와 아스시게(鈴川泰重), 미야사가 히로아키(宮永博顯 : 상담역)
신원부(4)	니시지와 겐아이(西澤賢愛)	니시무라 규사부로(西村久三郎), 김학배(朝原宗良), 우에카 슈칸(植木秀幹 : 상담역)
이사(20)		구로이와 가쿠이치(黒岩覺一), 곤도 다이키치(近萬泰吉), 윤태정(尹泰眞), 안영태(安永台), 이광현(德山義治), 노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 니시지와 겐아이(西澤賢愛), 오다 하지메(荳田甫), 니시무라 규사부로(西村久三郎), 가가와 시즈오(果川静夫), 쓰마키하라 지쓰오(橋原實雄), 모토키 아리이치(本木有一), 차준담(車田濬潭), 요코에 키치용(横江吉四), 요시우라 히데노부(吉浦英暲), 산와 모토나리(三和基成), 쓰즈카와 아스시게(鈴川泰重), 홍길선(洪原吉善), 아사하라 무네테(朝原宗良), 기무라 에이키치(木村榮吉)

수원신사봉찬회에는 신사 중건을 위하여 1939년 2월 수원신사봉찬회의 이름으로도·읍의원 및 수원읍장 우메하라 시즈오(梅原靜雄) 등 13명이 연서하여 총독 미나미지로(南次郎)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제 수원신사 중건 문제는 수원의 일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와 관련된 사업이 되었다. 당시 수원신사봉찬회는 수원신사 증축에 9만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9만 원의 예산은 수원읍의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과중하고 또 신사 중건은 다른 일반 업무와 다른 특수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 조치는 팔달산공원의 계획 아래 수원읍이 무상으로 대부분이 10여 년간 보존하고 있는 팔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신사 증축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팔달산의 영지(靈地)에 진좌(鎮坐)한 수원신사는 대정 6년(1917년)에 창립됨에 수원읍민(邑民) 모두에게 숭경(崇敬)의 중심이 되는 사단(祠壇) 이고 “수원군의 총진호(總鎮護)로서 수원 17만 민중 숭경의 진수(鎮守)” 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수원신사 신

역(神域)이 너무나 협소하여 사전(社殿)과 기타 조영물의 정비가 되지 않아 송구스러우니 속히 개선·중건하여 신령(神靈)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진정서는 적고 있다.<sup>29</sup>

이러한 진정서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모르지만 1939년 6월 ‘수원신사어조영준비위원회(水原神社御造營準備委員會)’가 조직되었다. 이는 수원신사봉찬회가 조직 개편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수원신사 중건공사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건 내용은 신전(神殿) 개축 1동, 축사 폐전(祝詞弊殿) 1동, 배전(拜殿) 1동, 신찬(神饌)·제기고(祭器庫) 1동, 수수사(手水舎) 1동, 제1조거(鳥居), 제2조거, 사무소(社務所)·재관(齋館) 신축 1동, 사택(社宅) 1동, 신문(神門)·옥원(玉垣) 등의 조성이었다.

1942년 5월 23일 수원읍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0명이 참석하여 토공(土工)과 하수구는 급속히 실시할 것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원신사 중건 비용은 10만 8,539원으로 계상되었고, 건축 비용을 위해 수원읍의 각 정(町)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기부금의 명목으로 징수하고자 하였다. 기부금은 기진금(寄進金)에서 공진금(供進金)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자발적인 신앙심에 기초할 것을 강요하였다. 개인뿐만 아니라 관공서에도 기부금을 강제하였다. 당시 ‘수원신사 공진금 관공서 집계표’에 따르면 69개의 기관에 할당금이 배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당시 수원을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수원군청, 수원군농회, 수원군식량배급조합, 수원세무서, 주조조합(酒造組合), 수원읍사무소, 경방단(警防團), 수원우편국, 역전우편국, 독립수원의원, 범원 수원지청, 토목관구(土木管區)사무소, 경찰서, 농사시험장, 잠계부(蠶糸部), 곡물검사소, 사방(砂防)관리소, 연초관매소, 농업창고, 수리조합, 수원역, 보선구(保線區), 수원신사, 고등농림학교, 수원농업학교, 고등여학교, 화성학원, 상업전수학교, 수원국민학교, 신평국민학교, 세류국민학교, 팔달소학교, 종로유치원, 매산여학교, 식산은행, 한성은행, 수원금융조합, 화성금융조합, 중앙무진(無盡)회사, 제일사(第一社), 화성홍산회사, 경전(京電) 수원지점, 농구(農具)회사, 남북면업회사, 국자(麴子)회사, 경기산업회사, 동경과래분(粉)회사, 운모(雲母)회사, 양조(釀造)회사, 경동(京東)철도회사, 본수원역, 화성차부(車部), 중앙차부, 경수차부, 수원차부, 조선운송회사, 수원도라쿠회사, 경인도라쿠회사, 동산농장, 동척농장,

수원농장, 부국원(富國園), 만종원(萬種園), 동양종묘(種苗), 소화(昭和)직물공장, 수원직물공장, 수원상회, 목재통제조합(木材統制組合), 화성권번(華城券番)

이들을 보면 행정·치안·교육·의료·교통·산업·상업 등 수원의 대표적인 기관들을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본의 패망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물자의 통제를 위한 식량배급조합·목재통제조합 등의 특수한 조합이 눈에 띄고, 팔달소학교·매산여학교 등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개인과 기관의 협찬을 받는 한편, 팔달산 국유림을 민간인에게 불하하여 얻은 돈을 재원으로 수원신사 중건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1940년 5월 1일 오전 9시 수원신사 봉고제(奉告祭)를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여 '이조영 초립식' 을 거행하였다. 이날 수원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은 '근로보국대' 라는 이름으로 수원신사 건립공사에 강제 동원되었다.<sup>30</sup>

### 3) 일본인 인구의 증가

1922년 12월 말에 수원군 호수와 인구는 2만 5,611호, 2만 6,861세대에 남자 7만 2,979명, 여자 6만 9,113명으로 모두 14만 2,092명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은 2만 4,804호, 2만 5,918세대에 13만 8,674명(남 7만 1,110명, 여 6만 7,564명)이며, 일본인은 771호, 904세대에 3,303명(남 1,755명, 여 1,548명)이며, 중국인은 36호, 39세대에 115명(남 114명, 여 1명)이다.<sup>31</sup> 당시 경기도의 호수와 인구는 34만 6,658호, 36만 411세대에 182만 3,248명으로, 경성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인구가 많은 군이었다. 그리고 수원군이 경기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달하였다.

수원역 주변의 일본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 가운데 11.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병점역 주변 총인구 767명 가운데 일본인이 140명, 오산역 주변 총인구 1,006명 중 일

〈표 7〉 일제하 수원면(읍) 인구와 일본인수

(단위 : 명, %)

구분	1910	1915	1925	1930	1940	1944
수원면 인구(명)	6,971	10,714	10,374	13,182	27,547	36,146
일본인 인구(명)	1,247	719	1,265	1,583	2,431	3,091
일본인 비율(%)	18.4	6.7	12.2	12.0	8.8	8.6



〈표 8〉 1921년 수원면과 오산면의 호구와 인구<sup>32</sup>

(단위 : 호, 명)

지명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수원면	1,736	8,564 (남 4,258, 여 4,306)	374	1,421 (남 757, 여 664)	15	40(남)	2,125	10,025 (남 5,055, 여 4,970)
오산면	367	1,884 (남 996, 여 888)	66	286 (남 156, 여 130)	10	44(남)	443	2,214 (남 1,196, 여 1,018)

〈표 9〉 1930년 수원면 인구

(단위 : 호, 명)

직업	일본인		조선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업, 목축, 임업	26	104	420	2,182
공업	19	76	82	395
상업 및 교통업	99	505	622	3,270
공무(公務) 및 자유업	158	599	663	2,974
기타 직업	46	198	137	633
무직	2	2	54	165
합계	350	1,484	1,978	9,619

본인이 68명이었다. 따라서 수원역 주변 일본인 비율은 병점역 주변 18.2%보다 적고 오산역 주변 6.7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 준다. 병점역 주변은 안녕리 및 황계리 일대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한 때문이다.

〈표 10〉 1914년 수원역 주변 인구<sup>33</sup>

(단위 : 호, 명)

구분	호수	인구
조선인	2,273	10,083
일본인	381	1,303
외국인	3	8
합계	2,657	11,394

수원역 주변의 일본인들은 수원군청, 경찰서, 구재관소, 헌병분대, 우편국, 수비대, 권업모범장, 경기도 수원포교 등의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들과 농업 이민자들이었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거주하는 교동(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상계(商界)에서는 아득까지 우리에게 상권(商權)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곳에 비하여서) 근년(近年)에 와서는 차츰차츰 일본 사람에게도 올라가는 형적(形跡)이 보이는 것 같으니 수원 시내만 볼지라도 일본 사람들이 만히 사는 역에서부터 남문까지에 날로 번성(繁盛)하여 가는 것과 조선 사람이 만히 사는 종로 일대가 날로 쓸쓸하여 가는 것으로만 보아도 만이 그랬다고 부인치는 못하겠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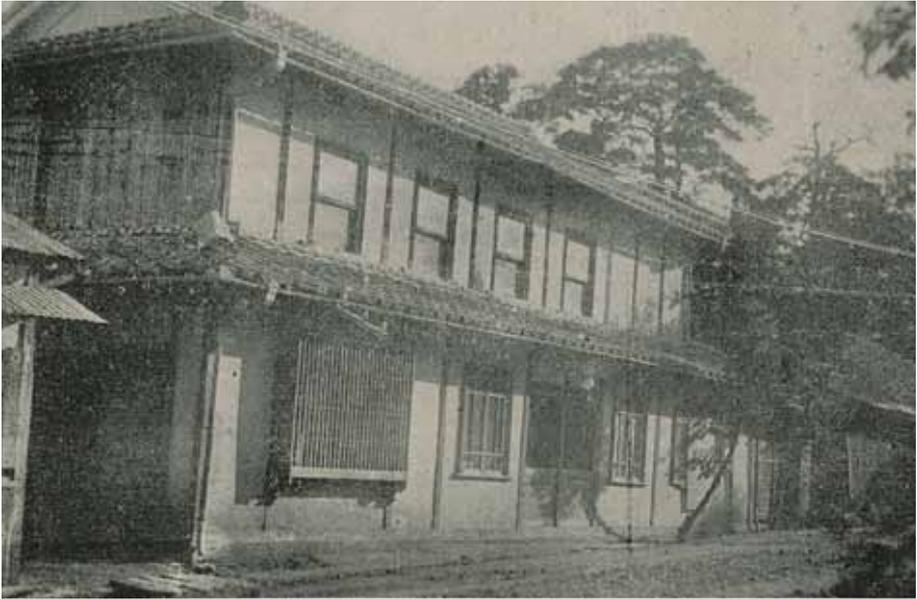
그러나 수원역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사회와 상권은 점차 전통적인 조선인 상권 지역으로 잠식해 들어갔다. 일본 상인들이 점점 한인들의 상권을 침탈해 가면서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일본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sup>35</sup>고 할 정도로 수원 사람들은 반일의식이 강하였다.



수원 읍내 일본인 여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수원 읍내의 상점가를 오가는 일본인들(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종묘상 가아미상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미곡상 아오기상회와 정미소(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 3. 일본인 교육과 학교 운영

#### 1) 일어학교의 성장

1877년 부산에 거주하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일본인 초등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를 시초로 하여 1883년 원산, 1885년 인천, 1889년 경성에 일본인 학교가 설립되었다. 1894~1895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대거 몰려옴에 따라 거류지가 신설되고, 각지에 소학교가 설치되었다. 이에 1898년 목포·진남포, 1899년 군산, 1902년 평양·개성·마산, 1903년 용산·통영, 1905년 강경·대구·영등포·밀양·울릉도 등에 신설되었다. 1905년 「재외지정학교(在外指定學校)에 관한 규정(規定)」이 만들어졌고, 이 규정에 따라 이들 학교의 직원은 물론 아동은 입학·전학 등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있는 공립소학교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세력이 러시아를 능가하게 되자 일본인은 부산·인천·원산의 3항에 거주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읍대도(舊邑大都)에 점차 세력을 뻗쳐 일어학당(日語學堂)을 세워 나갔다. 서울의 경우 1889년(고종 26, 명치 22)경 일본 거류민은 총대사무소(總代事務所)와 같은 본원사별원(本願寺別院)에서 학동(學童)을 교육시켰다. 그 수는 겨우 7~8명에 불과하였지만 1892년(고종 29) 거류지에서 자영(自營)한 이래 거류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출소학교(日出小學校), 남대문소학교(南大門小學校), 영정정소학교(櫻井町小學校) 외에 1908년(융희 2)에는 고등여학교(高等女學校), 1909년에는 중학교가 설립되었다. 경자기념경성유치원(庚子紀念京城幼稚園)과 함께 아동교육기관은 계속 늘어나 1910년경 취학 아동수는 3,000명에 이른다.<sup>36</sup>

한편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어학교는 일본세력의 확장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장하였다. 관립 인천 일어학교는 인천 감리(監理)와 인천 영사(領事) 친다(珍田捨己)가 창립에 관여하였다. 서울에는 해외교육회(海外教育會)의 설립으로 경성학당(京城學堂), 부산에는 개성학교(開成學校), 평양에는 일어학당, 대구에는 달성학교(達成學校)가 세워졌다. 군산·경주·수원·진남포·나주 등에도 각기 사립 일어학교가 있었고, 밀양·동래·군산 등에도 학교가 설립되어 갔다.<sup>37</sup> 즉 전통적인 대도읍과 새롭게 일본인들이 진출한 곳에 일어학교가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역사도 오래되고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학교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인천 일어학교는 학부로부터 2,500여 원을 보조받았고, 부산의 개성학교도 학부로부터 1,200여 원, 외무성(外務省)으로부터 3,000원의 보조를 받았다. 이 외 외무성의 보조금 가운데 1,000원은 마산·동래·밀양·대구·경주의 각 일어학교에 분배되었다.

이들 일어학교 설립의 취지는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서 국교(國交) 친선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예를 들면 인천 일어학교의 취지는 “일본어로 일본의 문화·기풍(日韓)을 주입하여 일한(日韓) 양국의 친선을 견고히 하는 데 있다.”고 하였고, 부산의 개성학교는 “일어로써 개명의 학술을 닦고 국교 화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의 화성학교는 “한인의 교육은 생도에 한하지 않고 그 지방 일반 한인을 교화하여 일본의 정책 및 일본인을 위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지 않으며, 또한 악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여 오로지 좋은 감정으로 이를 환영하여 만사를 주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일어학교의 설립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생도의 수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인천의 일어학교는 30~40명, 경성학당은 가장 많아서 항상 100명을 넘나들었고, 부산의 개성학교는 본교 50~60명 가운데 일본어 학과생은 30~40명이고, 부산 구관지교(舊館支校)는 40~50명 가운데 일본어 학과생은 약 20명, 부산 지교(支校)는 60~70명 가운데 일본어 학과생이 약 20명이었다. 수원 화성학교는 100명 정도로 생도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였다.<sup>38</sup>

화성학교가 처음 개설된 1900년의 학생수는 10여 명이었고 1901년에도 30여 명이었으나, 1902년 미와 세이치(三輪正一)의 부임 이후 교사가 좁아 들어가질 못할 정도로 학생이 증가하였다.<sup>39</sup> 이는 서울 및 인천의 일본인사회의 지원과 미와 세이치 개인의 열성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어학교 학생 증가의 결정적 요인은 러일전쟁의 발발에 있었다.

당시 화성학교 학생들은 일본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즉 화성학교 학생 46명은 군자금으로 44원 80전을 기부하여 교장 미와 세이치가 일본 영사관에 접수하였다. 동시에 일어를 할 줄 아는 4~5명은 통역을 지명할 정도였다. 따라서 1904년 3월 시점에 화성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40명이 넘었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일어화성학교 학생들의 숫자는 1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결국 일어화성학교의 명성은 일본의 세력 확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고, 졸업생들은 일제의 침략에 본의 아니게 첨병 역할을 할 소지가 커지게 되었다. 실제 화성학교 졸업자였던 최규완은 졸업 직후인 1905년 5월 1일 수원 자혜의원 통역을 거쳐 통감부 통신관리국 건설부 용산출장소에서 활동하였다. 이정상 역시 졸업 후 재무서 서기를 거쳐 재판소 서기가 되었는데, 월급 20엔에 일어수당을 1개월에 6엔씩 더 받았다. 이후 통감부 판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판사를 거쳐 전라남도 중추원의원으로 추천되었다. 또한 박성근은 1908년 9월 1일부터 1919년 9월까지 수원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역임하고, 1929년 3월 31일 태장공립보통학교 훈도 겸 교장이 되었다.<sup>40</sup>

결국 일어화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군용철도감부(軍用鐵道監部) 통역, 수원 자혜병원 통역, 재판소 서기 등으로 활용되면서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의 말단 관리로 채용되어 갔다. 당시 일어의 필요성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궤를 같이하며 한국에 대한 침탈의 현실적 도구로 활용되었던 셈이다.

한편 미와 세이치는 1905년 서울 남대문 바로 안쪽 공유지에 건물을 불법적으로 짓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도관찰사 정주영(鄭周永)은 넓은 땅을 두고 하필이면 성문의 좁은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건립을 불허하였다.<sup>41</sup> 이때 미와 세이치의 신분은 일어학교 교장이었다. 따라서 1905년 시점에서 일어화성학교 교장은 일본인 미와 세이치였고, 그는 수원에서 서울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06년 9월 일본인 학교 분립 이후 일어화성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기록은 찾기 어려운데, 이후에는 일어화성학교가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학교의 특장은 일어 교육에 있기 때문에 일본인을 교사로 채용하였다. 쓰루타니(鶴谷)가 1901년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긴 이후 화성학교 일본인 교사 및 교장으로 미와 세이치가 부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와 세이치는 1902년 6월에 수원에 와서 거주하며 일어를 가르쳤다.<sup>42</sup> 화성학교를 건립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화성학교를 일으켜 몸소 교편을 잡아 조선인을 가르쳤다.”고 쓰고 있는 것을 보아 서당식 화성학교를 일어화성학교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와 세이치의 교장 취임 이후 화성학교

는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미와 세이치는 화성학교의 3대 교장이었지만 뒷날 사람들이 그를 설립자로 간주할 정도였다.<sup>43</sup> 따라서 일어화성학교는 실질적으로 1902년 6월 이후 비로소 일본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성학교 재정이 경성(京城) 거류일본인 유지, 일본 영사(領事), 군인들의 기부와 경부철도회사의 가옥 대여 등의 원조에 따른 성격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와 세이치는 1904년 인천 거류지에서 600엔을 거출하였고, 인천 영사 가토 모토시로(加藤本四郎)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1905년 하세가와(長谷川) 대장(大將)과 하야시(林) 공사(公使) 등이 수원의 화성학교를 방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화성학교는 경성과 인천의 일본인 거류지 관민 유지들의 지원을 받으며 유지되었던 셈이다. 이처럼 신평동의 화성학교는 일어화성학교로 불리며 일본인 교사에 의해 운영되었고, 조선인에 대하여 일어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담당하였다.

국내에 외국어학교는 1883년(고종 20)에 영어학교가, 1892년에 한어(漢語)학교가 세워졌다. 1895년 「외국어학교령」이 발표됨에 따라 차례로 법어(法語)학교·아어(俄語)학교·덕어(德語)학교 등도 설립되었다. 일어학교는 1891년 서울에 최초로 생겼다. 이들 외국어학교에는 각기 본국의 교사를 고용하였다. 이에 각국의 공사(公使)가 이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성쇠는 각국 세력의 소장성쇠에 따라 좌우되었다.<sup>44</sup>

## 2) 일본인사회의 중심, 일본인 소학교의 설립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이에 통감부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일본인 학교 설립과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결과 매년 여러 개의 학교가 신설되었는데, 1907년 말 54개교, 1908년 말 79개교, 1909년 말 102개교, 1910년 8월 총독부 설치 당시에는 약 220개교에 이를 정도였다.

수원 지역도 일본인 거류민들이 증가하면서 일본인 자제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거류민 총대와 평의원들이 통감부에 청원하여 일시금 300원과 매월 보조금 35원을 지원받아 화성학교 교사를 수리하였다. 수원의 일본인들은 통감부 설

치 이후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본인 학교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는 재외(在外) 지정학교(指定學校)에 대하여 경상비는 연 480원, 창설비는 평균 150원을 국고로 보조하는 제도를 활용한 셈이다.<sup>45</sup>

동시에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는 수원을 자주 찾았는데, 권업모범장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냥이 취미였던 탓이다. 이에 일러화성학교를 확장 수리하여 일본인 자제를 별도로 받아들여 교육하고자 했고, 후쿠오카현 사범학교 훈도 오쿠조노 에쓰지로(奥園悅次郎)를 1906년 9월 28일 일본인 학교 교장으로 임용하여 1906년 9월 화성학교에 일본인 학생 7명을 받아들여 가르쳤다. 이것이 수원거류민단립소학교(水原居留民團立小學校)의 시작이었는데, 개교기념사진을 통해 보면 실제 개교식은 10월 8일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거류민단 기관지였던 『조선신보(朝鮮新報)』 1906년 11월 29일자 기사에 인천소학교 고등과 4학년생의 수원 수학여행기가 실려 있다.<sup>46</sup> 수학여행일의 날짜는 명확하지 않지만, 기차로 인천에서 영등포까지 가서 다시 경부선 대구행 기차로 갈아타고 수원에 내렸다. 팔달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와 옛 은사인 도쿠나가(德永)의 안내로 화성학교에 들러 오쿠조노 에쓰지로를 면회하고, 또 오랫동안 수원에서 열심히 한인(韓人) 교육을 하고 있는 미와 세이치를 만나 본 후 그의 안내로 수원 시내를 견학하였다. 따라서 1906년 당시 화성학교는 교장 미와 세이치와 일본인학교 선생 오쿠조노 에쓰지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도쿠나가(德永)가 화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들 일행은 관찰부로부터 교장 미와 세이치의 친구인 경시(警視) 구마가이 리에(熊谷利平)를 만나고, 수원정거장으로 가는 도중 '진위보병(鎭衛歩兵) 제 1대대' 를 보았다. 이는 일본인 학교가 팔달산으로 신축 이전하기 이전의 화성학교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수원소학교는 1906년 9월 이래 일러화성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스스로 일본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1906년 11월 15일 경성소학교에서 재한 일본인 소학교회의(在韓日本人小學校會議)가 열리는데, 각 지역 일본인 소학교 학교장을 소집한 회의였다. 당시 참석한 학교는 군산(野田茂治), 조치원(星原貞範), 마산(中訂治野), 영등포(大賀義雄), 용산(宮脇嘉介), 수원(奥園悅次郎), 대구(前田篤志), 개성(岡本豊喜),

부산(高橋 恕), 인천(松本 鍍三郎), 평양(若林 勇), 경성(橫山 彌三) 등 12개 학교였다.<sup>47</sup> 수원소학교 교장 오쿠조노 에쓰지로도 참석하였다. 따라서 일어화성학교 내에 병설된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소학교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일어화성학교는 조선인을 위한 일어교육과 근대적 교육에서 일본인을 위한 학교로 역할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

1907년 일본인 학생이 20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사가 협소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인 거류민들은 기부금과 통감부의 보조금 400원을 합하여 약 4,000원으로 교사를 팔달산 남쪽에 기공하여, 이듬해 1908년 1월 40평 건물을 낙성하였다. 이때 직원은 2명이었고 학생수는 32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교장이었던 오쿠조노 에쓰지로가 1907년 5월 10일 경성소학교로 전임한 이후 1909년 3월까지 학교장이 공석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9</sup> 그럼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아동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09년 9월 다시 건물을 기공하여 이듬해인 1910년 1월 낙성하였다. 규모는 교실 50평이었고 교원은 3명, 아동수는 114명에 달하였다.<sup>50</sup>

순종 황제도 1908년 11월 3일 용·건릉을 전배하고 농사모범장(권업모범장)을 방문하면서 수원 지역 각 단체에 총 2,300원을 내려주었다.<sup>51</sup> 이 가운데 일본인 소학교에

〈표 11〉 역대 수원소학교 교장 일람<sup>48</sup>

성명	임용일	전출일	비고
오쿠조노 에쓰지로(奥園悦次郎)	1906. 9.28.	1907. 5.10.	경성심상소학교로 전임
오쿠조노 에쓰지로(奥園悦次郎)	1909. 4. 1.	1911. 4. 7.	휴직
아이다 히로시(曾田彌)	1911. 5.17.	1921.10.19.	영등포공립보통학교로 전임
단바 모토사부로(丹羽元三郎)	1921.10.19.	1922. 9.29.	의원 퇴직
다나카 사부로(田中三郎)	1922. 9.29.	1925. 3.28.	오산공립보통학교장으로 전임
이토 슈이치(伊藤修一)	1925. 3.28.	1927. 1.13.	이천 장호원공립보통학교장으로 전임
아리사카(有阪 松)	1927. 1. 13.	1933. 4.25.	용인 김량장공립보통학교장으로 전임
시마노에 도라오(島ノ江寅夫)	1933. 4.25.	1935. 3.30.	강화 하점공립보통학교장으로 전임
아카스 모토(赤津基)	1935. 3.31.		
이케다 요시타비(池田義種)	1937. 3.31.		
시마다(嶋田清)	1940. 3.31.		
다테 다케오(伊達武男)	1943. 3.		



일본인 학생들을 위해 팔달산 자락에 건립한 수원거류민립소학교(헤르만 산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순종 황제 수원행행 기념엽서(1908, 수원박물관 소장)

100원, 수원일본인회에 200원을 제공하였다.

대한제국기 수원거류민소학교의 특기사항은 1909년 11월 4일 학교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하얼빈에서 처단된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를 집행하였던 점이다.<sup>52</sup> 전국 각지에서 추도회가 거행될 당시 일본인 소학교는 추도회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수원의 일본인 학교 설립에 커다란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방문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했던 특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화성 안에 일어화성학교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수원역과 가깝고 일본거류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매산리에 일본인 학교를 지어 나갔다. 그 후 수원소학교는 팔달산 서쪽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사회의 핵심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다.

### 3) 학교조합의 설치

학교조합은 일본인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학교의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본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학교조합은 초창기 일본인 민회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학교조합사무소는 대개 면사무소 안에 두었다. 따라서 일본인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지만 공적 기관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었다. 즉 조선인의 세금과 설비가 일본인 교육에 투자되었던 것이다.

「학교조합령(學校組合令)」은 1909년 통감부령(統監府令) 제7호로 공포되어 19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학교조합을 설치할 때는 규약을 만들어 통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사무를 처리하지만 토지의 사정에 따라 부대사업으로서 위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기 3년의 관리자를 두었고, 이사관(理事官)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조합회(學校組合會)를 두고 조합회의 조직, 선거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하였다.

그 후 새롭게 1913년 제령(制令) 제8호로 「학교조합령」을 공포하여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학교조합령」을 새롭게 제정 공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류일본인은 「민단법(民團法)」과 「학교조합령」 시행 전부터 여러 가지 단체를 설치하여 자치적인 행정을 하고 있었다. 즉 1897년 전후부터 거류민들은 단체를 조직하



여 보장(保長)·두취(頭取)·총대(摠代)·민장(民長)·회장(會長)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집행기관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총대회(摠大會)·민회(民會)·일본인회(日本人會) 등과 같은 의결기관을 두어 교육·위생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해 왔다. 즉 공식적인 제도는 「민단법」과 「학교조합령」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관행적인 제도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1913년 10월 30일 부령 부칙 제35조는 거류민단의 사무 및 권리의무로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이 이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역시 같은 날 제령 제8호로 「학교조합령」을 다시 공포하여 학교조합은 관의 감독을 받아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1914년 「학교조합령」이 새롭게 공포되면서 각지의 일본인회는 점차 학교조합으로 수렴되어 갔다. 이에 따라 거류민단과 학교조합 지구 내에서 병영(兵營) 밖에 거주하는 군인과 군속들도 일반 일본인과 같이 거류민단세(居留民團稅) 또는 학교조합비(學校組合費)를 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거류민단과 학교조합이 실질적인 일본인회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셈이다.

합방 이전부터 일본인들은 각지에 거류민단을 조직하였고, 개항장에서는 각국 거류지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 제도가 있어서 특수한 행정을 행하였다. 그리고 경성에는 한국·일본인으로 조직된 한성위생회(漢城衛生會)가 있는가 하면 기타 도시에는 위생조합(衛生組合)이 있어 그 목적이 같은 이중 삼중의 기관이 병존하였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이들 조합과 조직을 없애고 학교조합으로 통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거류민단과 위생조합 등이 학교조합으로 통일되었다. 이는 일본인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사업은 일본인만으로 조직한 학교조합에서 경영하게 한 것이다.<sup>53</sup>

일본인은 학령(學齡) 아동 10명만 있어도 학교조합을 설립케 하고, 조선총독부에서 매년 600원씩 보조해 주었다. 이에 따라 1919년 학교조합 총수는 348개, 매년 보조금액은 20만 8,800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일본인의 학교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한국인끼리 학교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 제1조에 의하여 한국인은 일본인의 학교에 입학할 수 없으며, 일본인 학교와 같은 정도의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일본인 학생들을 위해 건립한 학교로, 이후에 수원공립국민학교로 개칭했다가 1945년 8월 15일 폐교하였다.

학교조합 설치를 허가받으려는 발기인(發起人)은 그 원서(願書)에 동의자가 서명할 인한 조합규약(組合規約)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다. ① 조합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일본인의 직업별 호구표, ② 입학할 학년별 아동수표, ③ 교사(校舍)의 설비에 정서, ④ 조합원이 될 자의 자력조서(自力調書), ⑤ 세입세출 개산(概算), ⑥ 조합구역과 인접지의 약도 등이었다.<sup>54</sup>

학교조합을 설치하려 할 때 발기인은 구역을 정하고 조합규약을 만들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조합규약은 조합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하는 일본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조합규약에는 ① 조합의 명칭 및 구역, ② 조합회원의 선거 및 피선거인의 자격, ③ 조합이원(組合吏員)에 관한 규정, ④ 조합비, 사용료 및 부역, 현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⑤ 전 각호 외에 필요한 규정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학교조합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일본인은 학교조합의 조합원이 되었으며, 학교조합의 영조물(營造物)을 공용(公用)할 권리를 가지고 조합의 부담을 분임(分任)할 의무



가 있었다. 학교조합의 제1차 감독기관은 군수·부윤이었고, 2차 감독기관은 도 장관이었으며, 3차 감독기관은 조선총독이었다. 만약 학교조합의 구역이 여러 군에 걸친 때는 조선총독이 그 감독관청을 지정하였다.

일본인 학교조합 지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교육은 차별적이었다. 일본인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고, 받는 교육의 정도에서 한국인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관공립 교육기관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다.

〈표 12〉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기관

구분	인구	초등교육			중등교육				
		수업연한	교원수	학생수	초등정도 학교수	수업연한	교원수	학생수	중등정도 학교수
조선인	16,617,425	4년	462	2,314 (일본인 694)	56,925	4년	6	114 (일본인 92)	
일본인	305,245	6년	345	1,269	40,239	5년	25	272	4,583

#### 4) 수원학교조합의 운영 실태

수원학교조합은 1910년 5월 31일 설립 인가되었다. 이는 경기도에서 강화학교조합 다음으로 빠른 설립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이 인가된 곳은 강화학교조합과 서산학교조합(1910년 3월 18일)이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 문산·개성·안성·평택·의정부 등지에 설립 인가되었다. 평택학교조합의 경우 1911년 11월 9일 평택역 일원을 기점으로 주변 1리(里) 이내 지역을 조합지구로 인가하였다.<sup>55</sup> 1912년 전국적으로 187개 학교조합이 설립 인가되었는데 수원학교조합보다 인가가 빠른 것은 10여 개에 지나지 않았다. 수원학교조합이 인가됨과 동시에 1910년 5월 수원거류민단립소학교는 수원학교조합립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水原學校組合立水原公立尋常高等小學教)로 개칭되었으며, 1912년(명치 45) 4월에는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다시 변경되었다.

수원학교조합 구역은 1914년 9월 30일 변경되어 수원군 수원면·태장면·안룡면·일형면·매송면 등으로 확대되었다. 조합구역은 수원군 수원면, 태장면 구천동·지동·인계리·우만리, 안룡면 상류천·하류천·세동·독산리·향목동·장지동·지

장동·평동·고색리, 일형면 고등촌·서둔촌·탑동·고양동·화산동·동촌·관길동·영화동·지소동·정자동·석산동·조원동·하광교동·상광교동, 매송면 호매실 등이었다.<sup>56</sup> 학교조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학교조합 관리자는 부윤 및 군수에 게 매달 보고하고, 부윤 및 군수는 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912년 당시 경기도에서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개성 다음으로 수원이었다. 또한 1호당 인구가 많은 곳으로 오산, 영등포, 평택, 수원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이 함께 이주한 사실을 보여 준다.

일본인의 이주에 따라 학교조합의 설립은 날로 증가하여 1913년 6월 말 학교조합 수는 191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이주가 많이 늘었음에도 공동의 관념이 희박하여 조합비 징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7</sup>

1913년 5월 10일 안녕학교조합이 수원군 안녕면을 대상으로 설립 인가되었고, 1913년 6월 18일 안녕공립심상소학교가 수원군 안녕면 동작현(東鵲峴)에 설립 인가되었다. 또

〈표 13〉 1912년 경기도 지역 학교조합 설립 현황

(단위 : 명)

구분	호수	인구			1호당 평균 인구	설립 인가
		남	여	계		
독섬(蘇島)학교조합	113	195	125	320	2.83	1911. 5.30.
의정부학교조합	26	48	39	87	3.45	1911.11.22.
이천학교조합	109	139	127	266	2.44	1912. 7.24.
여주학교조합	40	60	66	126	3.15	1911.11. 6.
안성학교조합	59	107	98	205	3.47	1911.11.26.
수원학교조합	343	710	547	1,257	3.66	1910. 5.31.
오산학교조합	61	126	120	246	4.03	1911.10.25.
영등포학교조합	261	523	440	963	3.69	1910. 6. 9.
김포학교조합	21	30	27	57	2.71	1912. 4. 4.
강화학교조합	26	39	38	77	2.96	1910. 3.18.
교하(交河)학교조합	30	48	43	91	3.03	1912.11. 2.
문산학교조합	33	58	45	103	3.12	1911. 3.31.
평택학교조합	66	130	112	242	3.67	1911.11. 9.
장호원학교조합	27	44	45	89	3.30	1912. 7.18.
개성학교조합	372	701	636	1,337	3.59	1911. 6. 8.
연천학교조합	46	81	58	139	3.02	1912. 4. 6.



한 발안학교조합이 향남면·팔탄면 일원을 구역으로 1916년 9월 7일 인가되었고, 12월 11일 발안공립심상소학교가 향남면 발안리 107번지에 설립 인가되었다.

1918년 4월 6일 오산공립심상소학교에 고등소학교의 교과를 병치하는 것을 인가하였다. 즉 오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된 것이다. 1921년 8월 12일부로 안녕공립심상소학교에 고등과 병설을 허가하여 안녕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되었다. 따라서 수원군 지역의 일본인 소학교 4개교 가운데 수원·오산·안녕은 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되었고, 발안만 발안공립심상소학교로 유지되었던 셈이다.

〈표 14〉 수원군 일본인 소학교 상황<sup>5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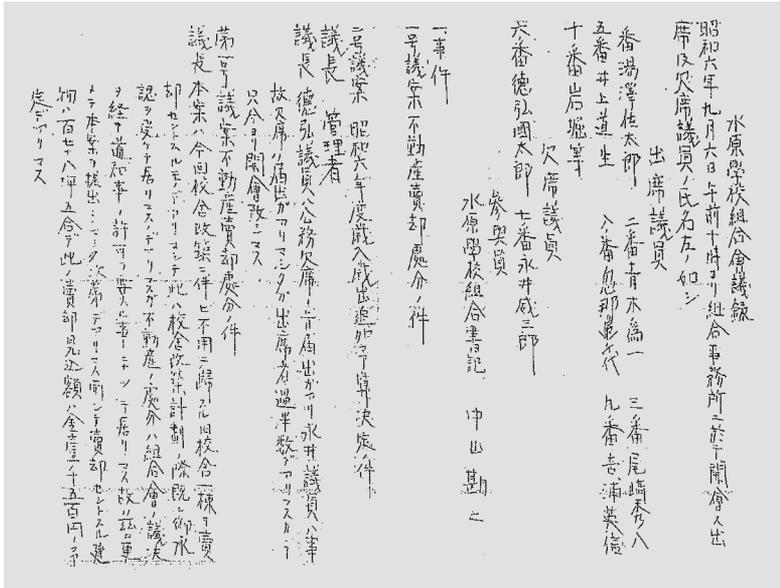
학교명	위치	설립시기	학급수	직원수	학생수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수원을 매산리	1906. 9.	8	9	436(11)
오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성호면 오산리	1907. 4.	3	3	64(8)
안녕공립심상고등소학교	안롱면 송산리	1927. 9.	3	3	71(20)
발안공립심상소학교	향남면 발안리	1930.12.	1	3	9(3)

‘수원학교조합 재산명세표’를 통해 수원학교조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데, 1931년 2월 10일 현재 약 3만 4,372.40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보유한 토지가 5만 2,379평 6,179.10원, 건물이 411.55평 2만 5,849원, 현금이 2,344원 정도였다.

수원학교조합의 재산은 공용재산과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공용재산은 학교조합사무소와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의 토지와 건물로 총 2만 8,612원(건물 2만 5,849원, 토지 2,763원)이었다. 기본재산은 임야(4만 2,526평, 2,126.30원), 대지(1,181평, 1,181원), 밭(544평, 108.80원), 현금(은행정기예금 2,344.30원)으로 이루어져 총액은 5,760.40원이었다. 대개의 학교조합사무소가 해당 면사무소 안에 있었던 것에 비해 수원학교조합은 소학교 내에 두고 있었다.

학교조합은 조합회(組舍會)를 두었고, 조합회는 의원(議員)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조합회 의원은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유효표를 얻은 자로 선출하였고 임기는 3년이였다. 조합회 의원의 정수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졌다. 즉 조합원 500명 미만일 때 6명, 500~2,000명 미만일 때 8명, 조합원 2,000~5,000명 미만일 때는 10명, 조합원





「수원학교조합 회의록」(『소화6년도 학교조합 예산집』, 국가기록원 소장)

수원학교조합의 조합원수는 2,000~5,000명 미만이었다.<sup>59</sup> 이에 1917년 5월 「학교조합령 시행규칙」 제6호 제2항에 따라 수원학교조합 조합회 의원은 10명으로 결정되었다. 조합회의 의결 사항은 ① 조합규약의 변경, ② 세입·출 예산 확정, ③ 결산보고, ④ 기본재산(특별 기본재산 및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⑤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⑥ 재산 및 영조물(營造物)의 관리, ⑦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조합비 및 부역·현품과 그 부과징수에 관한 것, ⑧ 조합채(組合債), ⑨ 새로운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⑩ 조합에 관계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것 등이었다.

조합회는 의원 정수의 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개최하고, 의사는 과반수로 결정하였다. 학교조합의 의장은 회의를 총리(總理)하고 회의의 순서를 정하며 회의를 개폐(開閉)하고 회장(會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장은 회의록을 만들어 회의의 전말(顛末) 및 출석위원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 의원 2명 이상의 서명을 요하도록 하였다.<sup>6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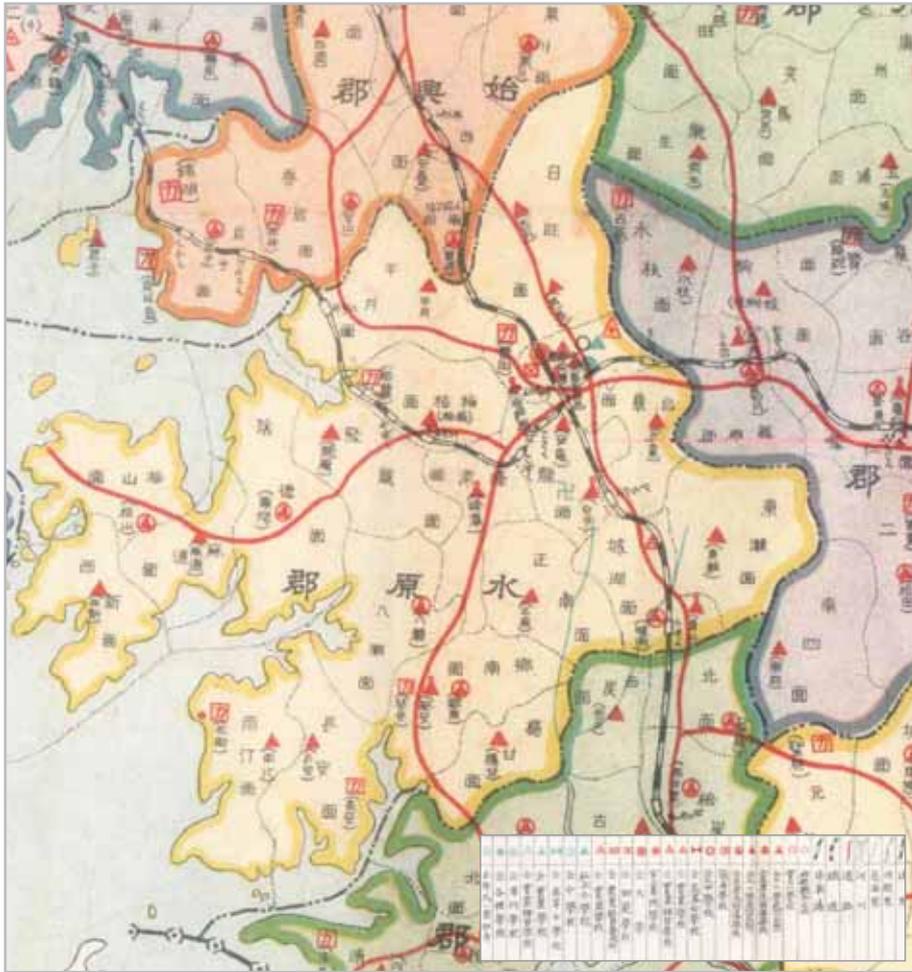
「수원학교조합회의록」을 통해 학교조합 회의 및 운영을 살펴볼 수 있다. 1931년 2월 6일 오후 2시부터 수원학교조합 사무소에서 개최된 수원학교조합 회의는 출석의원 6명, 결석의원 4명으로 개최되었다. 논의된 의안은 ① 1930년도 세출경상부예산 각 항의 유용의 건, ② 1931년도 수원학교조합 부과등급 표준부담 보험의 건, ③ 기본재산 축적 일부정지의 건, ④ 1931년도 수원학교조합 세입·세출예산 결정의 건, ⑤ 조합회의결사항 중 일부 관리자에 위임의 건 등이었다.

1931년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개최(출석의원 8명, 결석의원 2명)된 수원학교조합 회의에서는 ① 부동산 매각처분의 건, ② 1931년도 세입세출추가예산 결정의 건이 논의되었다. 1932년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개최(출석의원 7명, 결석의원 3명)된 수원학교조합 회의에서는 ① 1931년도 수원학교조합 세입세출 추가예산 결정의 건, ② 수원학교조합규약 일부 개정의 건이 논의되었다. 1932년 2월 27일 수원학교조합 의원 10명이 모두 사직을 단행하였다. 이유는 수원학교조합의 관리자를 수원군수가 우메하라 시즈오(梅原) 수원읍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한 반대였다.<sup>61</sup> 1945년 4월 30일 실시된 수원학교조합 의원 선거는 11명이 입후보하여 10명이 선출되었다. 즉 유아사 이헤이(湯淺伊平), 곤노 고이치(今野耕一), 와다 시게호(和田滋穂), 기무라 다카시(木村隆), 마츠모토(松本清), 고바야시 고로(小林五郎), 사카테 요시오(坂手芳夫), 가게야마 이헤(影山伊平), 이시카와(石川喜四雄), 구로이와 가쿠이치(黒岩覺一) 등이었다.

### 5) 일본인사회와 식민지 조선의 격리

일본인 소학교는 대개 조선인 보통학교와 인접한 곳에 세워졌으나 상호 왕래와 교류는 없었다. 일본인 소학교는 조선인 보통학교와 달리 운영되었다. 조선인 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 조선어 교육을 일절 받지 않았다. 조선의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는 통감부 설치 이후 1906년 8월 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일본인 학교는 조선인 보통학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소학교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구분 없이 심상소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41년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초등교육 정책에 따라 모두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1930년대 수원군 관내학교 분포(『경기도의 교육과 종교』, 1934)

한편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 학교에 조선인들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1930년대 후반 한 학급 학생 총 42명 가운데 조선인 학생은 11명으로 4분의 1에 해당하거나, 어떤 학급은 52명 가운데 20명이 조선인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는 1937년 조선인 학생이 11명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수원사에서 운영하던 미도리유치원(김선희 제공)

있다. 이에 비해 안녕심상고등소학교는 총 71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이 조선인이었다. 이는 인근 대황교리의 안룡보통학교와 정남보통학교가 늦게 개설되었고 통학거리가 멀었던 이유가 작용한 것 같다. 이들은 조선인을 위한 4년제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6년제 상급학교에 다니기 위해 일본인 학교로 편입학했거나 처음부터 입학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군의 경우 6년제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로 신흥·오산·남양학교가 있었다. 따라서 수원읍 지역의 경우 성 안의 신흥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이 유일하였던 셈이다. 따라서 봉담면·비봉면·안룡면 등의 수원읍 인근의 조선인 학생들은 수원읍의 교통을 이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수원역과 가까워 성 안의 신흥학교보다 통학이 편리한 일본인 학교인 수원소학교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학이 쉬운 수원역 인근의 조선인 학생들도 일본인 수원소학교로 취학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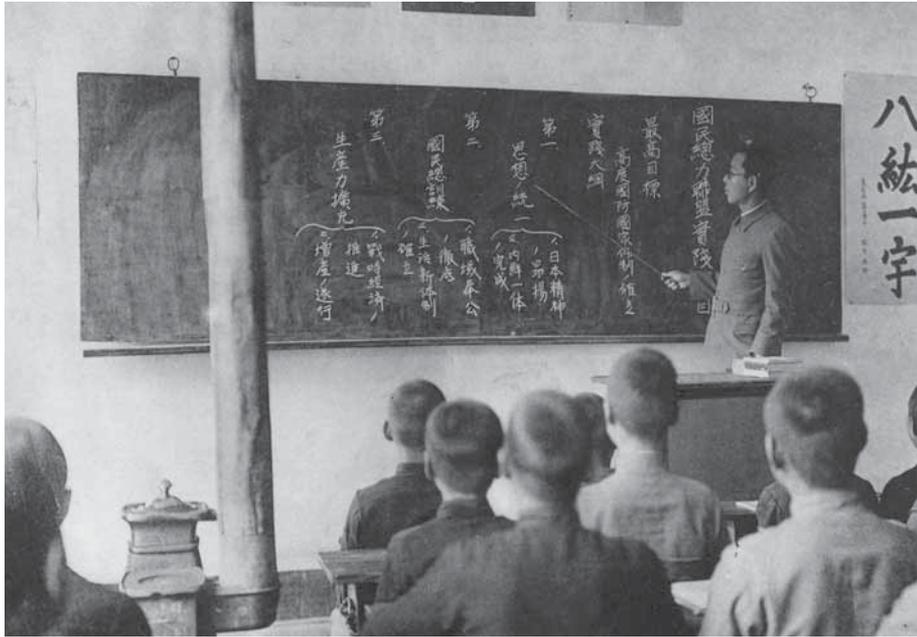
경우가 있었다. 즉 5~6학년의 고등과에 진학하는 경우 이외에도 1학년의 심상과(보통과)부터 일본인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통학의 현실적 편리함과 더불어 일본어가 상용되는 현실에서 일본인 학교를 나와 보다 쉽게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욕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학년부터 일본인 학교를 다녔던 경우가 더 많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인 경영의 미도리(みどり)유치원 출신은 1학년부터 일본인 학교를 입학하였다. 일본 사찰인 수원사(水原寺)에서 경영하던 미도리유치원은 인근의 영국성공회가 운영하는 진명유치원(進明幼稚園)과 더불어 유명하였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일본인 수원소학교 입학 이전에 수원사 경영의 미도리유치원을 다녔고, 조선인 중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다.

일제의 동화정책과 창씨개명 이후 ‘아류(亞流) 일본인’으로 조선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펼쳐져 1940년대 이후 조선인의 입학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의 조선인 교육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선인의 급할 줄 모르는 민족교육운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것을 기조로, 둘째 선택된 소수에 대한 동화교육을 실시하며, 셋째 많은 대중에 대하여 제한된 학습기회만을 부여함으로써 문맹화·우매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교육정책은 대국주의(大國主義) 교육을 통하여 일본인 아동들을 제국주의자로 키우는 것이었다. 조선인에 대한 지배자 의식, 즉 억압민족으로서의 사상과 감정을 갖도록 함으로써 조선인과 조선 문화에 대한 멸시를 일반화시켰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물론이고 교사와 대부분의 선량한 일본인들조차 인간적 권리의식을 키우지 못한 채 지배자 사상에 오염되어 조선인에 대한 동화교육을 긍정하게 되고, 조선인 청소년의 ‘일본인’ 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민족혼을 빼앗고 일본인화를 권장하는 교육의 실천과 그것을 긍정하는 사상을 갖게 하는 것은 민족교육 원리의 부정과 교육에 의한 사상의 부패를 뜻한다. 인간의 사상적 부패는 인간의 지배와 차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민족에 대한 차별과 이러한 차별을 인정하는 사상으로 나아간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서 민족 차별 사상은 조선인 청소년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했고, 일본인 청소년에게는 대



팔굉일우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1941년 팔달심상소학교 졸업앨범)

국주의 교육을 실행하였다. 조선의 동화교육을 긍정히는 교사는 동시에 일본의 국민, 청소년에게 대국주의 사상을 심어 주는 교사가 되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민족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우월과 모멸의 감정이나 의식,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세계 인식을 동반한다.

일본인의 국민교육은 타민족을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오키나와 점령, 대만 영유와 조선 합병, 만주국 건설, 대동아 공영권 제창, 태평양전쟁 등을 통해 대제국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교육이었다. 이는 침략과 지배의 대상으로 주변의 나라를 파악하는 것으로 '탈아(脫亞)' 교육의 연장이었다.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한 일본 제국주의는 주변 나라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지배의 실현을 국민도덕의 덕목으로 일본



청소년에게 주입시킴으로써 교육을 아시아 침략 등 제국주의적 정치 목적에 봉사하게 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대국주의 교육의 중심 내용이었다.

따라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도덕(修身)·역사·지리 등의 교과를 통해 조선을 비롯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민족의 역사와 사회가 후진적이고 정체해 있으며 자주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가르쳤다. 이에 일제는 아시아 여러 민족의 치열한 독립투쟁을 숨기고, 다른 민족의 주체성 결여를 증명하기 위한 왜곡된 지식만을 제공하였다. 반면 일본에 대하여는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으로 인식토록 하였다. 그리고 천황이 중심이 되어 세계 여러 나라를 한집안처럼 통치해야 한다는 팔굉일우(八紘一宇) 의식과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일본의 역사적 사명으로 가르쳤다. 이러한 일제의 대국주의 교육은 필연적으로 일본 아동들에게 조선에 대한 지배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조선을 인식하는 방법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지배자에게 적합한 감성을 갖도록 일본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일상적인 표현은 조선인 아동을 외국인으로 대상화시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가해자 일본인들은 피해자 조선인들의 체험을 알기 어렵게 되었고, 조선 아동들의 식민지 경험을 일본인 아동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인 아동들에게 조선 아동들이 그러한 존재로 비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 아동들조차 이러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킨다는 한 쪽으로 치우친 인식과 평가만을 내리는 습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아동들은 일본인화하여 자신들과 동류가 된 조선인 아동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나아가 조선인 아동의 세계에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는 조선에 대한 애정을 지닌 역사 연구로 유명한 두 명의 일본인 학자가 조선에서 보낸 소년시절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하타다(旗田) : 저는 그곳에서 컸지만 조선인 아이들과 논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조선인 아이들의 얼굴까지는 생각나지만 그것은 자연의 풍물로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복장이나 관습 같은 그런 것 말입니다. 따라서 조선인과 직접 접촉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와타나베(渡部) : 저도 동감입니다.

조선의 아동들은 '자연의 풍물' 이거나 함께 놀 필요가 없는 '아류 일본인' 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본인 어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을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배자 의식에 따른 조선 인식은 필연적으로 조선인 멸시를 낳았다. 지배자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나라 잃은 국민' 으로 냉대하고, 이어 일본과 조선이 한 뿌리라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같은 황당한 역사적 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조선인을 '아류 일본인' 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조선인 멸시와 함께 일본인의 내면에는 조선인에 대한 감추어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19년 3·1운동과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현실화되었다.<sup>62</sup>





1. 시카이 마사노스케의 활동과 수원 인식
2. 식민 지배의 강화와 지방지 편찬 동기
3. 수원 지방지의 내용과 가치

허영란 |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02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활동과 지방지 편찬

### 1.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활동과 수원 인식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수원의 대표적인 지방지 『발전하는 수원(發展する水原)』(1914년), 『화성지영(華城之影)』(1915년), 『수원(水原)』(1923년) 등 세 권을 집필한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는 메이지유신 뒤인 1885년 8월 8일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나카쿠비키군(中頸城郡) 나오에즈마치(直江津町)에서 태어났다. 1908년 6월 주오 대학(中央大學)을 졸업하고, 1910년 9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가 한국으로 온 시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예컨대 1922년에 간행된 『조선인사홍신록』에는 1909년 4월에 한국으로 건너왔다고 되어 있는 반면,<sup>1</sup> 그 자신이 직접 집필한 『수원』에는 1910년 9월에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sup> 어느 쪽이 정확한 기록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전국 명사들의 개인 이력을 모아 놓은 인명록보다는 그 자신이 직접 집필하고 간행한 후자의 기록이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한국으로 건너온 직후 수원 읍내 일본인 거주지에 ‘마사노스케 사무소’를 개설하고, 민사 및 형사 소송 등과 관련된 소송대리업에 종사하였다. 수원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알 수 없지만, 재조선 일본인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던 지연이나 학연 혹은 혈연이 작용했을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는 대체로 다양한 연고에 의지해서 정착지를 정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시기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출판한 수원 지방지

한국 각지에 이주하여 정착한 일본인들이 편찬한 지역 홍보용 책자에는 대부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각 현별 출신자 인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재조선 일본인사회의 형성과 운영에서 동향(同郷)조직의 중요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

들은 자신이 정착한 지역에서 향우회 성격의 동향조직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sup>3</sup> 1914년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주도로 수원의 일본인사회에서 간행된 『발전하는 수원』에도 수원 이주자들의 각 현별 출신자의 수가 소개되어 있다.<sup>4</sup> 당시 수원에는 2,386명의 일본인이 이주해 있었는데, 출신자가 100명 이상인 현은 야마구치(山口 : 184명), 사가(佐賀 : 319명), 구마모토(熊本 : 115명), 오카야마(岡山 : 167명), 후쿠오카(福岡 : 203명), 히로시마(廣島 : 162명) 등이었다. 수원 이주자 중에 사카이의 고향인 니가타현 출신은 21명에 불과하였다. 도쿄에서 주오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청년 인텔리 사카이가 대학 졸업 직후 한국으로 건너왔고, 곧이어 수원에서 법률 사무를 보는 소송대리업을 시작한 것을 보면 지연보다는 학연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따름이다.

1911년부터 소송대리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그는 서울로 활동의 중심을 옮겨 가는 1928년까지 20년 가까이 이 직업을 유지하였다. 1912년 11월에는 『조선신문』 수원지국장이 됨으로써 수원 일본인사회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다. 『조선신문』은 1908년 11월 20일 발행 인가된 일본어 신문으로 『경성일보』, 『부산일보』와 함께 조선에서 발행되던 3대 일본어 신문 가운데 하나였다. 전국에 지국과 지사를 두고 영업을 했으며,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도 지국이 있었다. 일본정부의 국책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논조의 신문으로, 재조선 일본인사회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sup>5</sup> 수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지방도시에서 이 신문의 지국장이 되었다는 것은 사카이가



사카이 마사노스케 법률사무소 광고(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수원에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인 유력자 사회에 안착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본인 유력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수원학교조합의 의원이 된 것도 그런 상황을 방증한다.

사카이는 수원 지역사회의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1914년과 1915년에 각각 『발전하는 수원』과 『화성지영』을 집필·간행하였다. 두 책 모두 일본인을 상대로 수원의 자연환경과 경제 상황, 간략한 역사, 명승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화성지영』은 1915년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개최로 서울로 참관하러 오는 일본인들에게 수원과 더불어 인근에 있는 용인군, 이천군, 여주군 소재 명승지를 소개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었다.

사카이는 수원 지역의 문화계 인사로서 활동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191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그는 상공업계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된다. 1916년에 수원전기주식회사의 감사역에 취임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1920년대 후반까지는 수원을 무대로 본업인 소송대리업과 실업계에서 활동을 병행하다가, 1928년경 활동 무대를 서울로 옮겼다. 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이전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다.

상공인으로서 사카이의 행적은 우선 일제강점기 기업 및 기업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서 확인된다. 이 자료와 함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다양한 사료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그의 행적을 대략 정리한 것이 <표 1>이다.<sup>6</sup>

사카이는 수원 정착과 더불어 시작했던 소송대리업을 1928년에 그만두었지만 일제 말기까지 수원에 본점을 둔 수원인쇄주식회사와 수원상사주식회사에 관여하였다.<sup>7</sup> 수원에서 쌓은 기반을 완전히 정리하고 경성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1928년경 경성의 남대문시장을 경영하는 중앙물산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사로 참여하면서,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경성으로 바뀌었다.

공직 활동을 통해서도 활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sup>9</sup> 사카이는 중앙물산주식회사의 중역이 되면서 1930년경에 경성상공회의소 회원이 되었으며, 1940년에는 경성상공회의소 의원이 되어 있었다. 경성에서 기업가로서 순탄하게 성공 가도를 달린 사카

## 京城商議의

### 議員總會開催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二十五日午後三時부터 議員總會를 開催左의件을 附議決定하였다.

一、商工從業員表彰에 關한件 商工從業員表彰勸業會에 關한件 左와如히 五人으로 한 表彰委員會를 設치함

田中三郎、李東善、酒井政之助、新田義民、野野村謙三

二、內日本(滿洲日本)及北海道總淸視察報告의件

舊田會頭、郡市常議員、酒井議員의二氏로 各各視察報告를 行함다.

## 中央物産重役

### 全部改選

中央物産會社에서 二十八日午後三時부터 臨時株主總會를 開회하고 社現況에 對하여 對策을 講究하기爲하여 社長專務를 除하고 取締役監查役 顧問 相談役의 選任을 行하고 監査委員에 對한 結果, 左의諸氏가 當選하였다. 總會는 了後 重役會를 選定하고 다시 對策을 講究하여 俱體案을 選定하였다.

▲顧問, 鈴木次郎, 渡邊定一郎, 富田儀, 相談役, 和氣孫吉, 金永斗, 尹希誠 ▲版縮役, 成明信, 金溶夏, 芮宗錫 ▲平井龍三郎, 高橋掌之助, 酒井政之助 ▲監査役, 趙鼎漢, 曹榮相

중앙물산주식회사 중역으로 선출된 사카이(『매일신보』, 1929년 11월 30일)

경성상의의원총회에 참가한 사카이(『동아일보』, 1939년 11월 30일)

〈표 1〉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기업 활동<sup>8)</sup>

회사(지위)	확인 가능한 활동 시기	본점	설립일
수원전기주식회사(감사)	1916~1927년	수원	1913년 7월
수원식림종묘주식회사(이사)	1925~1928년	수원	1925년 7월
수원인쇄주식회사(이사)*	1929~1942년	수원	1918년 5월
중앙물산주식회사(이사)	1928~1942년	경성	1922년 4월
조선농업주식회사(이사)	1929~1931년	경성	1905년 9월
수원상사주식회사(감사)	1931~1939년	수원	1920년 5월
경성제유주식회사(이사)	1937~1942년	경성	1936년 8월
경성중앙청과주식회사(이사)	1939~1942년	경성	1939년 4월
조선수산주식회사(전무이사)	1939~1942년	경성	1936년 10월
일본방열기공업주식회사(이사)	1942년	경성	1940년 7월
복록상사(전무이사)	1942년	경성	1937년 9월

이는 1939년에 조선총독부 산하 물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40년에는 전시 물자통제조직의 하나인 경성해산물도매상조합 대표를 맡고 있었다. 가격통제와 물자배급의 실시로 상공업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1940년대에는 난방기기 등을 생산하는 일본방열기공업주식회사와 복록상사의 이사 및 전무이사를 맡거나 물자통제조합의 대표로서 전시체제에 협조했음을 알 수 있다.

사카이 마사노스케는 법률 업무 대리사무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수원 지역에서 실업계로 영역을 넓혀 나가다가 1920년대 후반부터는 활동 무대를 서울로 이전하였다.

이후 기업가로서 그가 이룬 성공을 감안하면, 『발전하는 수원』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수원』이 출판된 1923년을 끝으로 더 이상의 증보판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전쟁 말기와 해방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가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에 걸쳐 집필한 수원 안내 책자와 그것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뒤 그의 생사나 일본으로의 귀환 과정에 대한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살펴볼 사카이의 수원 인식은 대체로 사카이의 책이 간행된 1920년대 전반기까지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명기해 둔다.

한국 강점을 전후하여 조선으로 건너온 모험가들이 그러했듯이 사카이도 조선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었다. 그는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기보다는 ‘거창하게’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자신을 포함한 재조선 일본인의 사명이라고 보았다.

좁다란 반도일지라도 삼천 년의 역사가 있다. 자세히 말해 보자면 수초(水草)를 좇는 유목민의 묵었던 곳이라고 해도 그 터전에 관한 역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사용되는 역사의 의미는 조금 원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 지방에 뭔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거나 국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건을 필요로 한다. 평범한 시간의 경과로는 결코 화려한 역사를 짤 수 없다. 이 점에서 수원은 오랜 옛날 풀에서 나서 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망망(茫茫)하기 그지없는 너른 들판에서 12킬로미터 밖에 두부집이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sup>10</sup>

수원은 젊은 사카이 마사노스케에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터전이자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개척해야 할 사명의 땅이었다. 조선왕조의 후진적인 제도와 부패한 정치로 낙후된 한국을 ‘발전’ 시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여겼다.

화성은 정조 대에 축조되었지만 이후 애잔함 속에 위축되었고, 한국은 잘못된 정치와 비효율적인 제도로 쇠락하게 되었으며, 수원의 산업도 ‘학정’으로 폐멸을 길을 걸었다고 보았다.<sup>11</sup> 사카이는 “조국의 위광(威光)이 여기까지 이르고 나서야 사람들은 수원의 경색(景色)과 토지(土地)의 훌륭함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2</sup>



조선왕조의 쇠락을 보여 주는 듯한 서장대(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낙후된 조선을 문명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식민지화시킨 일본 제국주의 덕분에 비로소 수원의 아름다움과 개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카이는 피폐해진 수원을 새로 건설하고 발전시킬 일본인 이주자의 관점에서 그의 책들을 집필하였다. 그는 한국-수원에 대해 지배자 내지 개척자로서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자들이 정착하기에 한국-수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비옥하며 아름다운 곳인지를 역설하였다.

그가 보기에 수원의 발전은 전적으로 일본의 통치와 이주해 온 일본인의 노력 덕분이었다. 치안이 유지되고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비로소 수원의 ‘융성’은 가능해졌다. 수원의 ‘발전상’이 이주 일본인들의 공적이라고 믿는 그가 다음 인용문에서처럼 자부심에 넘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수원에 대한 그의 애정과 자랑은 식민 지배에 대한 자부심과 중첩되어 있었다.

(침체해 있던) 역사를 말하는 수원도, 다시 개척될 수 있는 기운은 정부선의 부설에 의해



팔달산 능선에서 바라본 수원 북쪽의 기름진 들판(전소 에이스케 소장) 서북공심돈 뒤로 보이는 곳이 대유평이다.

열렸으며, 또 통감 정치가 일어나기에 이르러 빛나는 광명은 전도를 밝히고 이어 병합이 이루어져서 더더욱 이에 수원을 움직일 수 있는 기초는 수립, 동시에 장래 더욱 발전할 소질을 확보하였다. 만일 사람이 팔달산 능선에 선다면 결코 망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10리(약 40km-인용자)의 기름진 들판, 가을 하늘 높은데 황금 파도 금빛 바람에 나부끼는 가을, 누구나 절대적인 보고(寶庫)에 경탄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다. 그 열쇠를 가진 수원의 장래는 유망하다. 또 정거장 부근에 신시가지의 변장은 말할 것도 없고 탄탄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매일 많은 가옥을 새로 건축하고 있다. 아마 수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신구시가는 약속하게 될 것이다. 구시가에 이르러서는 구획 정연하고, 소도회로서 부끄럽지 않은 체제를 완비, 상거래 번성한 것도 타지방에 비해 드물게 보는 바이다.<sup>13</sup>

사카이는 일본(인)에 의해 ‘발전하는 수원’을 “아직 수원의 땅을 밟지 않은 인사에게 소개”하기 위해 『발전하는 수원』을 펴냈다.<sup>14</sup> 그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책의 독



사카이에게 수원 발전의 토대로 여겨진 권업모범장(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이 기관의 존재로 수원은 일제강점기에 농업 선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해 사카이를 비롯한 계수원 일본인들은 매우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자가 전적으로 일본인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수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수원 주민으로서의 향토애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독한 식민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수원을 소개하는 그의 글에서 수원의 원래 주인인 조선인 주민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조선인은 그에게 통치와 계몽, 시혜의 대상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조선인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존재였다. 따라서 수원의 진보를 주도하는 일본인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서는 치안의 확보가 중요하였다.

군 당국자도 집무상 곤란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방침에 따라 새로 늘어난 국민의 계발, 농사 개량 등에 힘써 노력했으며 치적이 크게 일어나 모범군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또한 수원경찰서 등도 모범경찰서로 지명하다. 몇 해 전까지는 흉적이 많이 날뛰었



지만 지금의 무라가미(村上) 서장 취임 이래로 흔적이 끊어져 밤에 문을 열어 둔 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이다.<sup>15</sup>

조선인은 일본의 ‘국민’으로 계발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만일 식민 통치에 저항한다면 경찰이 진압해야 할 ‘흉적’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치안 확보는 조선인들에 대한 강압적이고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것이었다. 치안은 공공재로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1910년대 조선에서 치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편적인 가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통치에 순응할 때만 그러한 가치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sup>16</sup>

사카이가 말하는 수원의 발전은 한 마디로 ‘내지화(内地化)’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통치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을 철저히 타자화시키고 있는 사카이의 글을 읽다 보면, 그가 말하는 ‘내지화’는 결국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10년간에 걸친 격심한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이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분투노력했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작고 남루한 집들이 늘어서 있던 조선인 거리를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개선하고 내지화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는가. …… 관민일치는 마치 일가족과 같고, 화복은 서로 나누며, 공공사업에 진력하는 것은 다른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날의 수원이 있는 것은 이상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소위 일치단결의 결과이다.<sup>17</sup>

사카이가 강조하고 있는 ‘발전하는 수원’은 조선 민중이 배제된 ‘발전 없는 발전’의 결과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이주와 식민화 자체를 조선에 대한 ‘서광’으로 보기 때문에, 일본인 거주지가 확대되고 조선인의 세력이 약화되는 현실은 ‘수원의 발전’과 모순되는 현상이 아니었다.

시가지라는 면에서 보면 정거장(수원역-인용자) 부근의 신시가에서 이천가도를 따라 남



필달문 밖 조선인 마을(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조선인 마을은 작고 더러운 곳으로 형상화되어 식민지의 미개함과 열등함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식산은행 수원지점 앞(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문이 이르기까지 거의 접속되어 있다. 그러나 성안의 이른바 구시가는 뭐라 하더라도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원을 말할 때 먼저 성안을 꼽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내지인이 들어오기까지는 작은 집에 더러운 거리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근년에 굉장하게 발달해서, 남문에서 북문으로 통하는 큰 길의 자혜의원(慈惠醫院)과 같이 눈길을 끄는 장소는 일본식과 서양식 건물이 즐비해서 10년 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더욱이 위생사상이 보급되어 거리가 청결하고 해마다 시가의 체제가 아름다워져서, 내지(일본-인용자)에 사는 것과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밤이 되면 번쩍이는 수천 개의 전등이 찬란하게 상점 앞을 장식하며, 경부선에서도 대구 다음가는 도회이다.<sup>18</sup>

수원이 발전을 거듭한 결과 사카이가 보기에 “내지에 사는 것과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자신과 같은 일본인 이주자들에 의해 면목이 일신되고 있는 도시-수원의 모습에 대해 사카이가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자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사카이에게 식민주의와 근대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통합되어 있는 가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원의 발전, 즉 근대적인 변화는 식민 지배의 성과였으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수원의 개발을 찬양하는 것은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일이었다.

사카이의 책에는 수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수십 장 수록되어 있다. 1910년대에 간행된 『발전하는 수원』과 『화성지영』에는 주로 수원의 명승지를 싣고 구시가의 풍경을 몇 장 담았다. 1920년대에 간행된 증보판 『수원』에는 기존의 명승지 및 가로 풍경과 더불어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구와 수원에 새로 들어선 근대적 시설들을 대거 추가하였다. 이 사진들은 수원을 바라보는 사카이의 시선을 반영한다. 카메라는 과학과 계몽이라는 근대의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진으로 재현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써 통용되었다. 그러나 카메라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선의 권력을 구현하는 근대문명의 도구이다.<sup>19</sup>

사카이가 수록한 사진들은 당시 수원을 바라보는 자(찍는 자)가 가졌던 시선의 권력을 말해 준다. 그 하나는 명승지로서 소비되는 수원이다. 장헌세자와 정조의 화성 건설 이야기는 일본인에 의해 소비되는 수원의 역사적 매력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조선왕조가 부패와 무능으로 망했기 때문에 왕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고적의 이



장안문(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화령전(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팔달문(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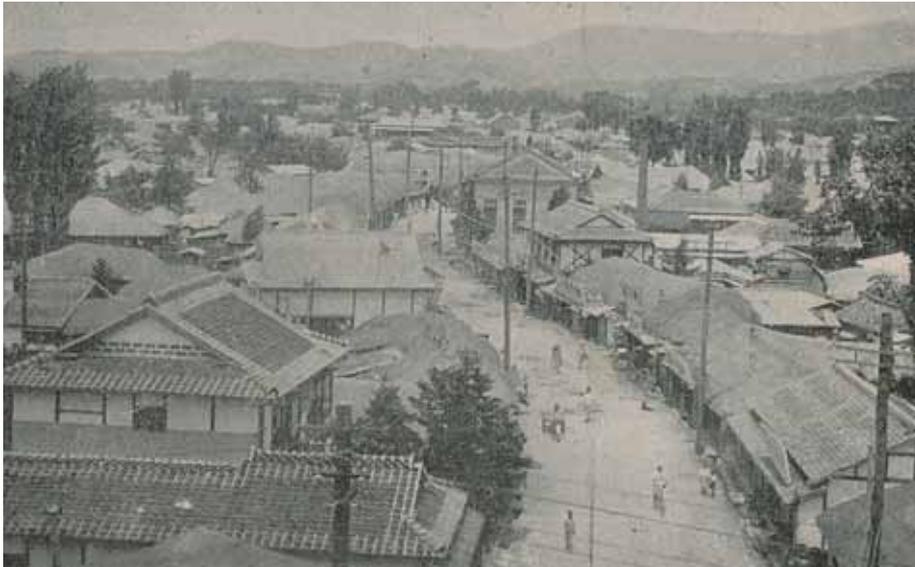


복지(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미지는 더욱 극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에 의해 근대화되고 있는, 즉 ‘발전하는’ 수원이다. 서구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그들과는 다른 식민지 주민의 인종과 풍속을 사진으로 찍어 식민지의 미개함과 열등함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서구적 우월주의를 내면화한 일본인들이 사진을 통해 형성한 조선의 이미지 역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사카이는 일본에 의해 근대적으로 바뀐 수원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우월성과 조선





성안 시가지(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사카이는 일본에 의해 근대적으로 바뀐 수원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우월성과 조선의 열등함을 대비시키는 제국주의적 시선의 권력을 구현하였다.



화홍문 전경(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사진에서 수원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조선인들은 있는 듯 없는 듯한 풍경의 일부일 뿐 존재감이 없다.

의 열등함을 대비시키는 제국주의적 시선의 권력을 구현하였다. 수원의 객관적인 모습이라며 제시하고 있는 사진에서 수원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조선인들은 있는 듯 없는 듯한 풍경의 일부일 뿐 존재감이 없다. 사카이의 글과 사진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선인에 대한 ‘제국주의적’ 무관심이다. 그는 모든 면에서 우월한 지배 엘리트의 시선으로 자신이 ‘개척한’ 수원을 보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발전하는 수원』을 중심으로 1910년대 중반 사카이의 조선 인식, 수원 인식을 검토해 보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카이의 인식은 1923년의 『수원』에서도 변함이 없다. 책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용도 일부 산업 관련 기술을 추가했을 뿐 기존 서술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고 있다. 사카이는 이상과 같은 조선-수원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말로 『발전하는 수원』의 제1편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상 대체로 ‘지리상으로 본 수원’은 기술을 마쳤다. 최신 문화가 알려짐에 따라 우리 동포가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바라건대 성의를 가지고 사업의 발달을 도모하고, 수원의 번영에 공헌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sup>20</sup>

이 책은 누구를 독자로 설정하고 있는가? 일본인 이주자들이다. 재조선 일본인들은 조선 각지에 정착했지만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들만의 시선으로 조선을 바라보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담겨 있는 수원은 ‘그들만의 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진정한 수원의 지방지로 재해석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선의 권력을 해체하고 책의 서술을 거슬러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식민 지배의 강화와 지방지 편찬 동기

청일전쟁 이후 내륙의 각 도읍으로 일본인의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수원에 들어와 정주한 일본인은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로 알려져 있



다. 노리마츠는 일본 개신교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청일전쟁이 끝난 1896년 인천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와 활동하다가 1900년 수원 성내 장안동에 정착해서 포교 활동을 펼쳤다.<sup>21</sup> 이어 1902년 1월에 과자상 노나가 스에요시(野中末吉)가 수원으로 들어왔고, 점차 일본인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일본인회가 설립되었다. 러일전쟁 승리와 권업 모범장 설치(1906년)는 수원의 일본인 이주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06년에 수원 거주 일본인의 수는 267명에 이르렀다.<sup>22</sup>

각 지방에 정착한 일본인 이주자는 식민 지배의 동반자였다. 그들의 정착과 세력 확장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인 동시에 조선총독부가 식민 통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재조선 일본인들은 각 지역에서 거류민 단이나 일본인회 같은 자치기구, 각종 공공단체와 조합, 상업회의소 등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식민 지배에 협조하였다. 수원에서도 일본인회가 설립되었고, 1908년 4월에는 상업회의소가 만들어졌다.

‘병합 조약’이 체결된 이후 재조선 일본인들은 거류민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민으로서 조선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1914년 부제(府制) 개정으로 재조선 일본인들만의 자치제도는 해체되고 조선총독부 지방행정체제 안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재조선 일본인사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일본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부제를 실시하고, 조선 면제(面制)를 실시하면서 일본인이 많이 진출한 지방의 읍면 지역에 대해 지정면 제도를 마련하여 보통면과는 구분되는 특권을 부여하였다.<sup>23</sup> 또 조선인 교육 자치기구인 학교평의회와 구분하여 일본인 교육을 위한 자치기구로서 학교조합을 조직하여 기존 일본인 자치기구를 사실상 존속시켰다.

1917년 면제 실시 당시 수원은 23개의 지정면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었다. 수원면은 전체 인구 가운데 일본인 비율이 10%가 넘는 일본인 밀집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개항장 도시에 비해 수원은 일본인의 정착이 비교적 뒤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부선 개통 이후 서울 남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본인들의 이주와 세력 확장이 단시일 내에 진행되었다.

재조선 일본인들은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공직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15년에 조선 전체에서 일본인 인구 비중은 2% 미만이었지만 그들 가운



수원면사무소와 공회당(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데 50%가량이 부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 외에도 대부분 지방의 도청 소재지, 철도나 향만 도시 등에 거주하거나, 군의 중심부에 밀집해 있었다. 당시 부의 전체 인구 가운데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었다.<sup>24</sup> 수원군의 일본인들도 수원면, 특히 수원역을 중심으로 팔달문과 성내로 이어지도록 조성된 신시가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수원은 정조 대에 건설된 성곽 도시로 화성이 보전되어 성내에 전통적인 도시 형태가 유지되어 왔으나, 남문 밖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심지가 생겨난 것이다.<sup>25</sup>

〈표 2〉는 일제강점기 수원군의 인구 상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수원군 전체 인구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제강점기 내내 2% 내외였다. 이 수치는 조선 전체 인구 가운데 일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표 2〉 수원군 인구<sup>26</sup>

(단위 : 명, %)

연도	한국인	일본인	일본인 비중	외국인	합계
1911	76,978	1,442	1.8	23	78,443
1917	132,536	2,838	2.1	42	135,416
1920	137,811	3,108	2.2	104	141,023
1925	144,093	3,041	2.1	163	147,297
1930	149,086	3,408	2.2	196	152,690
1935	162,016	3,324	2.0	156	165,496
1940	169,773	3,571	2.1	147	173,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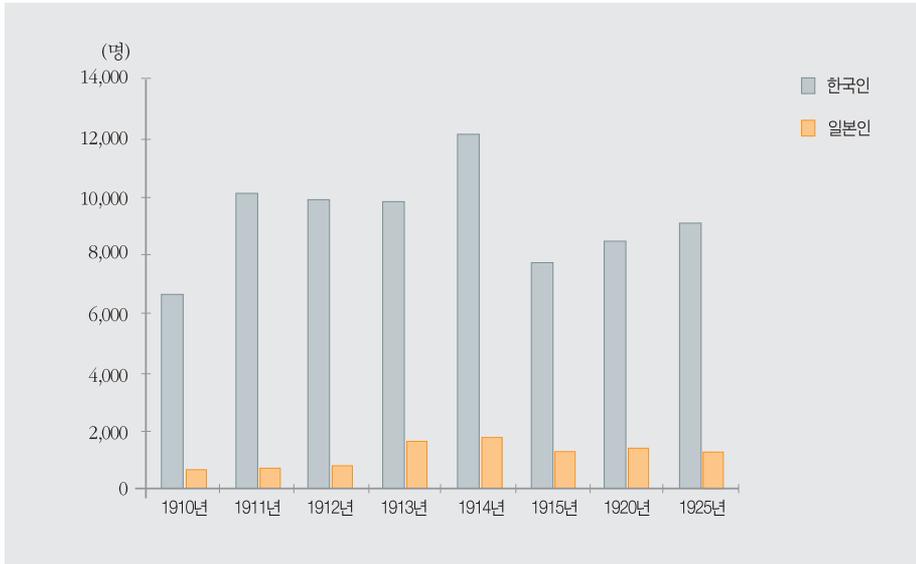
〈표 3〉은 수원군 거주 일본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원면(1931년 4월 1일 부로 수원읍 승격)에 집중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수원면 인구 중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0년을 전후해서는 10% 이하였다가 1913년 이후 12~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군 전체의 일본인 비중인 2% 수준과 비교해 보면 수원면의 일본인 밀집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수원면 인구<sup>27</sup>

(단위 : 명, %)

연도	한국인	일본인	일본인 비중	외국인	합계
1910	6,685	634	8.7	7	7,326
1911	10,083	718	6.6	8	10,809
1912	9,903	791	7.4	18	10,712
1913	9,822	1,621	14.1	24	11,467
1914	12,119	1,747	12.6	27	13,893
1915	7,744	1,261	14.0	10	9,015
1920	8,477	1,396	14.1	35	9,908
1925	9,058	1,265	12.2	51	10,374

수원군 거주 일본인 가운데 수원면 거주자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1910년대에는 그 절반가량이 수원면에 집중되어 있다. 재수원 일본인들은 상업회회소와 학교조합 등의 조직을 매개로 결집하여 수원역 일대를 거점으로 신시가지를 형성하면서 성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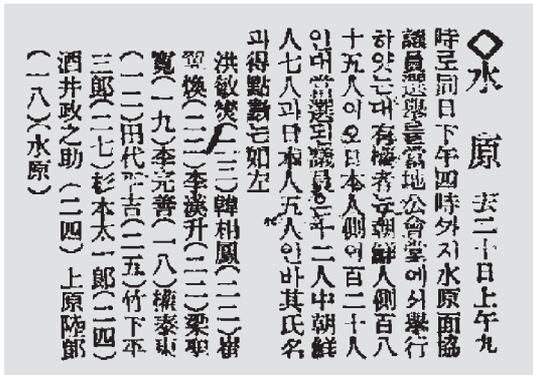
일제시기 수원면의 한국인수와 일본인수

구시가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각 지역에 정착한 재조선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관철 시키기 위해 지역 공동체 단위로 다양한 자치기구와 단체를 구성하였다. 일본인사회의 의사소통과 결속을 위해 일본어로 된 지방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 지방신문을 통해 식민 통치에 협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한편,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담론을 재생산하였다.<sup>28</sup> 1920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제한적 지방자치제도로 구성된 부협의회나 면협의회에도 적극 진출하였다. 납세액(자산 규모)을 기준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자치제도 자체가 조선인보다 일본인의 정치 참여에 유리하게 고안된 것이었다. 각 지방에서 일본인 이주자들의 세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안정되고 지역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었던 제도였다.

재조선 일본인들은 해당 지역사회의 지배민족으로서 상호 결속을 다지고 지역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지를 간행하기도 했다. 각 지방에 정착하여 주도권을 장





수원면협의회 의원(『동아일보』, 1923년 11월 25일) 12명의 수원면협의회 의원 중 사카이를 비롯하여 일본인 5명이 포함되어 있다.

악한 일본인들은 수원에서 사카 이 마사노스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지역을 소개하는 지방지 편찬에 열심이었다. 재조선 일본인들이 편찬한 지방지에는 자연환경, 행정 및 사회, 경제, 역사와 풍속, 명승지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정착 초기에는 해당 지방에 대한 지식의 수집과 소개, 재조선 일본인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이 주된 목적이

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식민 당국과 자신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지역의 근대적 개발과 발전상을 홍보하고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화되었다.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소장 문헌을 이관받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道), 부(府)·군(郡), 읍(邑)·면(面) 단위의 지방지를 조사한 결과 모두 448종의 목록이 검색되었다.<sup>29</sup> 1892년부터 1945년 사이에 간행한 도지(道誌), 부지(府誌), 군지(郡誌), 면지(面誌) 등의 지방지 숫자인데, 전부 일제강점기의 공식 언어인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다.<sup>30</sup> 그러나 향교 등에서 조선시대 지방지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여 편찬한 읍지류,<sup>31</sup> 청금록이나 신사록 등 명사 목록, 관광객을 위한 명승고적 소개,<sup>32</sup> 농업이나 공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경제 정보 자료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지방지는 ① 간행 시기, ② 간행 단위 지역, ③ 간행 주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448종의 지방지를 간행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병합 조약’ 체결 이후 1910년대에 지방지 간행이 늘어나다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급감하였다. 그러나 ‘문화정치’가 시행되는 1920년대에 접어들어 지방지 간행이 크게 늘었으며, 1930년대에는 더욱 늘어난다. 식민 지배의 안정화, 조선총독부의 식민 지배정책, 재조선 일본인사회의 세력 확대 추이에 발맞추어 지방지가 간행되었

〈표 4〉 연도별 지방지 간행 현황

(단위 : 종)

연도	종수								
1892	1	1908	1	1918	7	1928	14	1938	16
1894	2	1909	3	1919	2	1929	24	1939	14
1896	1	1910	3	1920	6	1930	14	1940	18
1897	1	1911	5	1921	7	1931	27	1941	7
1899	1	1912	9	1922	11	1932	22	1942	1
1900	1	1913	6	1923	12	1933	17	1943	3
1901	0	1914	9	1924	19	1934	20	1944	2
1902	1	1915	9	1925	13	1935	16	합계	448
1904	1	1916	8	1926	23	1936	26		
1907	3	1917	13	1927	9	1937	20		



연도별 지방지 간행 추이

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1914년에 처음 수원 지방지를 간행한 것이 유별나게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사카이의 책에서 명승지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짐작되듯이 수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도시로서의 특징이 재조선 일본인들의 흥미를 끌었고, 이것이 지방지 간행을 촉진시킨 이유 중



〈표 5〉 간행 단위별 분포<sup>33</sup>

(단위 : 종)

지역	A : 전국	B : 도(道)	C : (A-B)	D : 부(府)	E : (C-D)	F : 지정면	G : 보통면, 도(島)
강 원 도	7	2	5		5	1	4
경 기 도	71	10	61	43	18	9	9
경상남도	52.5	3.5	49	16	33	14	19
경상북도	53.5	8.5	45	7	38	5	33
전라남도	49.5	10.5	39	8	31	3	28
전라북도	34.5	5.5	29	10	19	6	13
충청남도	26	6	20		20	3	17
충청북도	11	4	7		7	3	4
평안남도	41	4	37	32	5		5
평안북도	16	8	8	6	2		2
함경남도	30	11	19	9	10	3	7
함경북도	19	7	12	8	4	1	3
황 해 도	24	9	15		15	4	11
제 주 도	13		13		13		13
합 계	448	89	359	139	220	52	168

의 하나일 것이다. 또 경부선 연선의 철도 도시로서 일본인들의 이주와 정착, 세력 확대가 이른 시기부터 급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448종의 지방지를 간행 단위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표 5〉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지방지 448종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89건이 도지류(道誌類 : B)이다. 거의 대부분 도청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일부는 조선총독부 산하 부서 또는 신문사나 개인에 의해 간행되었다. 나머지 359종은 부지·군지·면지인데, 이 가운데 38.7%인 139종이 12개 부(府)에 대한 지방지이다. 지정면이 포함되어 있는 군에서 간행된 군지나 면지 52종을 합하면 359종 가운데 53.2%의 지방지가 부 또는 지정면이 포함된 군 지역에서 간행된 셈이다. 일본인이 집중 거주했던 부 지역 및 지정면 포함 군 지역에서 지방지의 50% 이상이 간행된 것이다. 전체 220개 군 지역 가운데 1917년 당시 지정면은 23개에 불과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근대적 지방지 간행은 거의 대부분 일본인 집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들이 주로 참여한 읍지류의 간행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일제강점기 전체 기간에 220개 군 지역 가운데 군지나 면지 어느 것도 간행하지 않은 곳이 절반인 109개 군이나 된다. 어느 곳에서나 지방지가 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흥미로운 현상은 가장 많은 지방지가 간행되는 곳이 제주도(13종), 경주(8종), 진주(7종), 안동(6종) 등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지방지 간행의 또 다른 배경이자 목적이 해당 지역의 명승과 고적을 소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에는 여행과 관광이라는 근대적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각 지방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sup>34</sup>

1930년대에 지방지 간행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는데, 특히 지방행정관서의 ‘군세일반(郡勢一斑)’ 류 간행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당시에 추진된 ‘농촌진흥운동’이 모범부락 창설, 중견인물 양성 등 지방에 대한 미시적 지배를 지향하고 있었던 만큼 지방에 대한 정보 조사와 수집, 활용이 중시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조선총독부 관방의 지역조사를 토대로 1923년부터 1941년까지 간행된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47집 가운데 제28집이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 1: 수원군(水原郡)』이다.<sup>35</sup> 조사와 간행 작업을 총괄했던 조선총독부 촉탁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는 조선 각지의 생활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sup>36</sup> 그는 생활상태조사의 첫 번째 대상으로 수원군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최초로 수원군을 골라서 조사한 이유는 동군이 조선의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그 지세가 산지·평야·연해·도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 군내를 철도가 관통하며, 수원·오산·병점 등 세 개의 역이 있고 교통도 잘 열려 있으며, 문화도 비교적 진보되어 있고, 경제도 상당히 발달해 있으므로, 하나의 군을 단위로 조사하기에는 적당한 지방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up>37</sup>

수원이 식민 통치의 제반 성과와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자연환경·인구·산업·사회·문화·민속 등을 다루었다는 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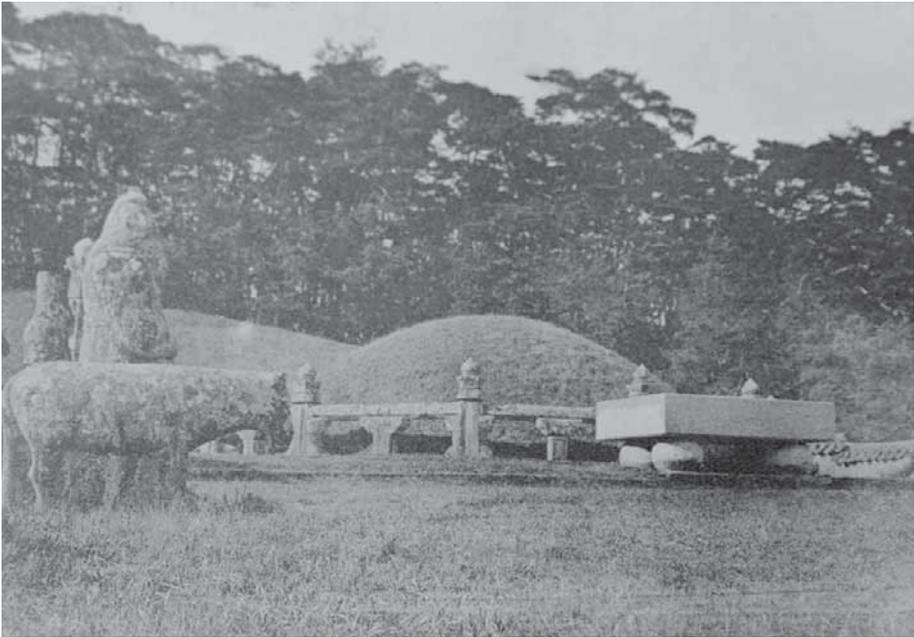


서는 지방지로서의 공통점이 있지만, 체제나 내용은 사카이가 간행한 책과는 판이하다. 우선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 면, 촌락 또는 군이나 도(島) 단위에 대한 세부 조사 항목을 상세하게 작성한 다음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sup>38</sup>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수원군의 경제사정과 생활상태를 조사하는 것이었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1920년대 중반 시점의 수원에 대해 이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러나 군 단위 생활상태조사로서는 첫 번째로 한 작업이었기 때문인지, 뒤에 간행된 제주도(1929년), 강릉군(1931년), 평양부(1932년)에 비해서는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다.

수원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이른 시기인 1910년대에 이미 지방지가 간행되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지방지의 간행이 성황을 이루는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잠잠하였다. 대신 1920년대 후반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세밀한 생활상태조사서가 간행되었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지의 간행 목적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방지 간행의 시기, 주체, 편찬 체제 등을 고려할 때 수원의 지방지 간행 양상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전체의 동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셈이다. 만일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1928년 이후 주요 활동지역을 서울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1930년대 수원을 맡해 주는 또 다른 지방지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 3. 수원 지방지의 내용과 가치

일제시기에 수원을 대상으로 간행된 지방지는 3종이 확인된다.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집필한 『발전하는 수원』(1914년)과 『수원』(1923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생활상태조사 1 : 수원군』(1929년)이다. 여기에 수원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명승지를 다룬 『화성지영』(1915년)까지 포함시키면 총 4종이 된다.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집필한 세 책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체제도 유사해서 동일한 지방지의 증보판에 가깝다. 반면 조선총독부의 생활상태조사는 대단히 세밀하고 망라적이다. 수록되어 있는 사진도 명승지나 근대적 풍광에 그치지 않고, 생활상태와 경제상태 전반에 관련된 것을 조사



정조의 능인 건릉(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항목의 체계에 따라 분류해서 수록하고 있다.

수원 지방지의 내용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재조선 일본인의 관심사에 의거해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주-개발하는 무대로서의 수원이다. 수원은 일본인 이주자, 그중에서도 식민 당국과 지역 엘리트에 의해 물질적·문화적으로 진보해 가는 장소인 것이다.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신천지 수원의 발전은 그들의 공헌에 힘입은 것이다. 사카이가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수원 지방지의 이름이 ‘발전하는 수원’이 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사카이 등이 표현하는 수원에 대한 애정-애향심은 식민주의와 근대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둘째, 화성 축조의 화려했던 역사와 대조를 이루며 피폐해진 수원의 모습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처지와 겹쳐진다. 수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명승고적, 정조와 장헌세자의 역사를 극도로 처연하게 서술함으로써, 조선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타자화시





『수원』에 수록된 일본인 업체 광고

키고 있다.

약 100쪽 분량의 『발전하는 수원』은 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1편 ‘지리상으로 본 수원’에서는 지세, 인구와 호수, 교통, 행정, 학교조합, 교육, 위생, 종교, 농업, 권업모범장, 임업, 상업, 금융, 수산, 생산사업 등을 다루었다. 제목은 ‘지리상’ 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은 경제와 사회 전반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서술이 간략한 편이지만, 그중 농업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다. 권업모범장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조선의 농업 발달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편 ‘역사상으로 본 수원’에서는 조선시대 이전의 기술은 극히 소략한 반면, 장헌세자의 죽음과 정조의 화성 축조와 천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3편 ‘명승지로서의 수원’에서는 공자묘, 팔달문 등의 명승지와 수원8경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명승지들은 책 앞부분에 사진으로도 수록되어 있다. 책의 말미에는 수원에서 영업 중인 기업·상점·여관·정미소 등의 광고를 실었는데, 전부 재수원 일본인이 경영하는 곳이다.

『화성지영』은 63쪽 분량의 사진첩으로, 수원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군내 명

승지와 새로 설치된 근대적 시설을 수록하고 있다. 수원 외에 용인군과 이천군, 여주군의 명승지 사진도 실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수원의 명승지는 상당 부분 『발전하는 수원』과 중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간행한 이유는 ‘한국 병합’ 5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를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9월 15일부터 50일 동안 식민 통치의 ‘치적’을 선전하는 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대적인 이벤트의 성공을 위해 경복궁 건물을 헐어 낸 자리에 전시장을 설치하고 관람객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전국적으로 공진회 관람단을 조직했는데, 그런 노력에 힘입어 입장객 총수가 120만 명에 달하였다. 수원에서도 공진회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유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원협찬회’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가 공진회 참가자들의 명승지 관람을 돕고자 사카이에게 의뢰하여 이 사진첩을 만들었다.<sup>39</sup> 『화성지영』이라는 제목은 사진첩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조선의 역사와 고적을 수동적으로 타자화시키는 제국주의의 시선도 투영되어 있다. 1915년에는 공진회를 기념하여 다른 지방에서도 지방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지방지가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0</sup>

1923년에 간행된 『수원』은 160쪽 분량이며, 『발전하는 수원』과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용 일부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에 해당한다. 책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 자료에는 10년 사이에 달라진 수원의 근대적 발전상을 보여 주는 건물과 시설을 많이 포함시켰다. 본문을 구성하는 3개 부분의 소제목은 똑같고, 서술 항목도 거의 동일하다. 두 책을 비교해 보면, 권업모범장에 병설된 원잠중제조소(1917년에 잠업시험소로 개칭), 여자잠업강습소 등과 관련한 양잠업에 대한 기술이 많이 늘었다. 1914년에는 양잠이 유망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친 반면, 1923년에는 그 사이에 진행된 양잠업의 발달을 소개하고 있다. 그 밖에 임업, 축산업 등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었다.

2편 역사와 관련해서는 기본 구성은 동일하지만 장헌세자와 관련된 서술에서 과장이 더 심해졌다. 3편 명승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1917년 10월 29일에 건립된 수원신사가 제일 첫머리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또 『발전하는 수원』에는 없는 부록을 추가하여 수원 지역 유력자의 이력, 수원의 상공업자 명단을 수록하였다. 수원의 인물로 소개되어 있는 32명은 군수와 경찰·교수·판사·권업모범장 기사·수원군 서기 등 관공리



잠업시험소(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여자잠업강습소(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나 공직자, 그리고 은행 지배인 등 기업가나 상인 등인데,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수와 수원 출신 실업가 2명 등 조선인도 3명 포함되어 있다. 1910년대에 비해 제한된 수준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조선인 유력자와 일본인 유력자 사이에 일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수원의 경우 권업모범장과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유달리 많다는 것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점이다.

1914년 이래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권업모범장이 위치한 수원은 농업 도시로서 뚜렷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농업이 차지했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원에 본장을 둔 권업모범장은 농업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다. 일본의 농법과 일본인이 선호하는 종자 등을 조선의 농토에 맞도록 개량하여 보급하는 등 권업모범장은 단순한 증산이 아니라 식민지 농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이 기관의 존재로 일제강점기에 수원은 농업 선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해 사카이를 비롯한 재수원 일본인 들은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농업이나 양잠 등을 제외한 경제 부문에 대한 관심이나 서술은 매우 개략적이고, 상업에 대한 서술도 극히 간략하다. 수원은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 중심지이자 상업 중심지로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는 한다. 그러나 점포의 수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그리 깊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의 역사에 대한 사카이의 서술은 유념해서 볼 만하다. 우선 조선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얕기 때문에, 수원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장헌세자의 죽음과 정조의 화성 건설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서술의 기초는 낭만적이고 애잔하다. 그런데 장헌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영조와의 갈등에 대한 묘사가 아주 독특하다. 1914년과 1923년 해당 부분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영조황제는 어느 날 중신들을 내전에 모아서 회의를 열었다. 쓰시마(對馬)는 왕년에 우리 조선의 영토였는데 왜노(倭奴)에게 빼앗겼으니 참으로 한스럽다. 적절히 군대를 일으켜서 영토를 회복하여 국가 백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기회를 보아 전쟁을 시작할 것이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장헌세자가 천천히 부왕 앞으로 나아갔다. …… 자못 밝은 모습으로 부왕의 잘못을 말하면서, 조상에 대한 법, 우리나라의 백년지계는 결코 쓰시마의 판도(版圖)같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중국-인용자)에 눌러 당해 있는 만주일 것이다. 어찌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는가(라고 하며) 도도하게 만주 경영을 설파하였으나, 영조는 이러한 대경륜을 이해할 만한 식견이 없었다. …… 누구나 이는 대국으로서 도저히 조선의 적이 아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궁중에서 밖으로 새어 나가 저들 나라 사람 귀에 들어가면 바로 대군(大軍)을 일으켜 공격해 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sup>41</sup>

이 장면에 이어 사도세자는 크게 화를 내는 영조에게 자기에게 약간의 군대를 내려 주면 명나라 군대를 쉽게 물리치고 개선하겠노라 호언장담한다. 사카이는 화성 축조의 계기가 되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역사를 만주 대륙으로의 진출을 설파하는 호방한 기상의 사도세자가 사대주의에 빠진 영조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이야기로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다.

1923년의 기술은 과장이 더 심해졌고, 만주 진출의 의미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영조가 쓰시마 회복을 주장하자 세자는 천천히 왕 앞으로 나아가 강직하고도 조용한 목소리로 영조를 비판하였다.

쓰시마 탈환과 같은 작은 문제가 무슨 소용인가. 우리의 적은 지나(중국-인용자)이다. 보시라, 그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만주의 옥야(沃野) 천리로 뻗어 나가서 우리의 생활력이 뻗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백년지계라는 것은 너무나 가소로운 것이다. 바야흐로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처럼 진정한 대계인 부원(富源) 만주의 경영에 주목할 수 없는 것은 부황제의 현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아뢰었다. ……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황제는) 너는 모르느냐, 지나는 이름에 걸맞은 천하의 대국이다. 조약하고 경솔한 언사에도 정도가 있다. 것처럼 무례한 한 마디가 만일 저들 나라 사람 귀에 들어간다면 구름 같은 대군이 쳐들어 와서, 우리 조선의 멸망은 불을 보듯이 뻗은 일이니,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망하게 할 불측하고 망령된 말이다.<sup>42</sup>

일본에게 조선 지배는 만주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만주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욕망은 집요하였다. 그것은 사카이와 같은 재조선 일본인에

게도 강력하게 내면화되어 있었다. 사카이는 화성 축조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 길이 없는 이야기를 역사편에 버젓이 수록하였다. 1914년에 수록되었던 황당무계한 내용은 1923년에 증보판에서 더욱 과장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사카이는 자신이 정착한 수원의 풍광과 고적을 흠족하게 여겼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는 “수원 땅은 신이 남긴 자연미에 인간의 지혜가 짜낸 기공(技工)을 더한 고장”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성에 가깝고 교통편이 좋아 늘 유람자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sup>43</sup> 1920년대 초가 되면 수원 시내에 서구식 건물과 시설이 늘어나고 거리 경관이 근대화되었다. 또한 수원은 1년 평균 열차 이용 승객이 50만 명에 달하는 시가지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수원에 대한 사카이의 자부심과 정주의식도 두드러진다. 이 책의 머리말은 “반도 산업 개발의 숨은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수원! 풍광명미한 천여의 시경을 자랑하는 우리 수원!”이라는 감탄사로 시작한다.

사카이가 저술한 지방지에는 조선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은 없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지리, 산업, 역사 어디에서도 당대에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수많은 조선인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인 인구, 조선인 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통계, 그리고 자혜의원을 찾은 외래환자의 민족별 통계 정도가 전부라고 할 정도이다. 자혜병원 통계에 따르면 1912년에는 외래환자 가운데 조선인의 수가 9,606명, 비중이 전체의 80.6%였다. 그런데 1922년에는 그 수가 6,509명으로 줄어들고 비중도 72.2%로 감소하였다. 근대적 시설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여 수원의 시가지 경관이 일본을 닮아 간다고 해서 모든 주민의 경제와 복지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통계라 할 것이다.

1920년대 중반의 조사 작업을 거쳐 간행된 『생활상태조사 1 : 수원군』(1929년)의 체제와 내용은 사카이의 지방지와는 전혀 다르다. 내용은 6개 분야로 나뉘어 있고, 책의 말미에는 150장 가까운 사진을 주제별로 수록하였다. ① 경제사정, ② 촌락의 특징, ③ 생활양식, ④ 문화사상, ⑤ 생계상태, ⑥ 농가수지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지만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민속·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생활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두었다. 서술적인 내용이 거의 없고 수치 자료들은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민족별, 직업별에 따라 개인 가구의 수지조사 표까지 수록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수원 지역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사진의 분류 주제는 마을, 민가, 관서, 산업, 교통, 상업, 교육, 종교, 기타이다. 사카이의 지방지와 달리 여기에는 일본인이나 관공서에 국한하지 않고 조선인의 생활 모습 또한 많이 담겨 있다. 찍는 자의 시선이 이제 조선인의 생활세계로 확장되었다. 그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는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사진들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근대적 과학기술에 의해 채록된 1920년대 수원의 객관적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그러한 객관성에 내재되어 있는 시선의 권력, 조선총독부의 생활상태조사가 바라보고 개입하고자 했던 식민지의 삶을 거슬러 투사하고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지방지와 켄쇼 에이스케의 생활상태조사는 수원 지역에 정착한 일본인 엘리트와 지배정책을 직접 구현하는 조선총독부 조사관 사이의 시각 차이를 보여 준다. 전자는 일상화된 차별과 배제를 자신의 책에 그대로 투영한 결과 조선인의 존재 자체가 배제되어 있다. 후자는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인을 통치하는 권력 주체로서 통치 대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지방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일제강점기의 수원 역사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카이의 지방지는 1910~1920년대 수원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수원은 근대 도시로 탈바꿈했고 지금에 이르는 도시구조의 기본 틀도 만들어졌다. 그중에서도 기록이 부족한 1910년대에 집필된 지방사라는 점, 동일한 지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10년 간격으로 동일인에 의해 증보판이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원 지방지는 지역사회의 지배민족으로 위세를 떨쳤던 일본인사회가 형성되는 초기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이 자료는 식민지 개척의 야망을 갖고 조선으로 건너와 수원에 정착한 젊은 사카이가 지배민족의 일원으로서, 재조선



수원 읍내 조선인 민가(젠쇼 에이스케, 『생활상태조사 1- 수원군』, 조선총독부, 1929)

일본인 엘리트로서 어떤 시선으로 초기 식민체제의 구축 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 양상을 보고 있는지 접근하게 해 준다. 비록 기록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1910년대 초기 이주자의 내면 풍경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조선인에게 침략자였던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개척자로 자임하면서 조선으로 건너와 각 지방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들이 묘사하는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 고적의 운치, 거주 지역에 대한 애정은 거짓이라기보다는 조선인을 타자화하는 식민주의자의 진심이라 할 수 있다. 미개와 야만의 식민지를 문명화시킬 지배자로서 그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우월감과 자부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근대주의적 신념이었다. 사카이의 지방지는 식민주의와 근대주의의 결합 위에 기록된 재수원 일본인 엘리트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텍스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사카이가 지방지 편찬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자료에 관한 것이다. 통계 수치를 일일이 대조해 보지는 못했지만 인구수 등 기본 통계를



보리 탈곡(첸쇼 에이스케, 『생활상태조사 1-수원군』, 조선총독부, 1929)



기원(첸쇼 에이스케, 『생활상태조사 1-수원군』, 조선총독부, 1929)



결혼식(젠쇼 에이스케, 『생활상태조사 1-수원군』, 조선총독부, 1929)

비교해 보면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수치와는 상당한 오차가 있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중추원, 조선임시토지조사국, 철도국, 헌병경찰 등 다양한 관서들이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한 자료들이 전국 단위로 모여지기 위해서는 면 단위 혹은 군 단위의 조사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지방지를 포함해 1910년대와 1920년대 초의 지방지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방지가 활용하고 있는 사료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연구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1. 유아사 가쓰에의 생애와 수원 생활
2. 소설에 나타난 이주민들의 삶
3.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2세의 정체성

신 승 모 |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반연구원

## 03 | 유아사 가쓰에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 이주민의 정체성

실제로 나에게서는 이곳(수원: 인용자)을 제외하고 고향은 없다. 다감한 유년, 소년 시절의 거의 대부분을 이 마을에서 보냈으니까.<sup>1</sup>

1942년 7월에 출판된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1910~1982)의 수필집 『반도의 아침(半島の朝)』에 실린 구절이다. 이 수필집은 작가 유아사 가쓰에가 1936년부터 1942년까지 여러 잡지 등에 실린 조선과 관련한 에세이들을 모아 출판한 책이다. 식민지 조선의 수원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낸 식민지 2세(the second generation colonizer) 출신의 작가 유아사 가쓰에는 일본의 전전(戰前)과 전후(戰後)를 포함해 일생 동안 자신의 고향을 '수원' 이라고 명언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을 소재로 한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는 이 수원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한일합방' 을 전후로 해서 일본 문학자들이 발표하기 시작한 조선 소재의 작품들이 작가 자신의 짧은 조선 체재와 체험에 기초한 여행기(여행소설)나 기행문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데 비해, 1930년대 중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유아사 가쓰에의 소설 작품은 오랜 기간 수원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지 정주자(생활자)의 시선<sup>3</sup>에서 수원의 풍경과 수원에 정착해 가는 재조선(在朝鮮) 일본인들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그 세대 간의 차이 등을 심도 있게 그려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 이후 수원으로 이주하였던 일본인 이주민들의 이주 경험과 적응



유아사 가쓰에

및 정착 과정을 유아사 가쓰에의 소설을 통해 살피면서, 특히 작품 속에 나타난 식민지 1세대와 2세대들 사이의 집단적 정체성의 차이와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제국-식민지시기에 수원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일본인 세대 간에 뚜렷이 변별되는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유아사 가쓰에의 생애와 문학 활동을 수원 생활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음으로 소설 작품 속에 나타난 이주민들의 삶을 주로 식민지 1세대의 정착 과정과 정체성의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2세대의 이야기를 주제화한 유아사의 소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식민지 2세대의 정체성과 특징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이 검토를 통해 수원이란 환경과 공간을 배경으로 유아사 가쓰에 문학이 주제화했던 식민지 세대 간의 정착 과정과 집단적 정체성의 차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1. 유아사 가쓰에의 생애와 수원 생활

유아사 가쓰에(本名은 다케시(猛))는 한일합방의 해인 1910년 2월 26일, 아버지 유아사 이헤이(湯淺伊平), 어머니 스미레(すみれ)의 장남으로 일본 가가와(香川)현 켄츠지(善通寺)에서 태어났다.<sup>4</sup> 세 살이 되던 해인 1912년에 조선 수비대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건너와 경남 고성, 평북 검이포 등에서 체재하는데, 이때는 단기 체제로 곧 일본으로 돌아갔다. 1916년 부친이 조선에서 순사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근무지인 경기도 수원으로 이주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팽창해 가는 제국 일본의 권역(圈域)에 발맞추어 많은 일본인들이 '외지' = 식민지로 이주하였다. 제국-식민지시기 한반도에는 총독부 관료를 비롯하여 관공리(官公吏)나 교원 등의 학무직, 언론계·의료계·종교계 등 지식인 계층부터, 인생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건너온 상공직, 농업이민 등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수원수비대(독립기념관 소장) 수원으로 이주한 일본인 중에는 유아사가쓰에의 부친처럼 헌병경찰이거나 관공리, 교원 등이 많았다.

한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의 일본인이 이주해 왔다. 특히 식민지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일본인에게에는 본봉 외에도 ‘외지 특별수당’이 가산되어 그 대우는 일본보다 좋은 경우가 많았고, 유아사 가쓰에의 부친도 1910년대 헌병경찰제도하에 일본인 순사가 대거 필요해진 조선에서 새 직장을 얻어 수원으로 이주해 온 경우가 된다. 덧붙여 부친 이해이는 몇 해가 지난 뒤 순사를 그만두고 상업에 종사하여 수원에서 물산상회를 운영하게 되는데,<sup>5</sup> 훗날 작가가 된 유아사 가쓰에는 자신의 부친을 모델로 하여 조선 식민지 1세들의 정체성과 인생 역정을 그린 소설을 다수 발표한다. 이 작품군을 통해 수원에 이주한 식민지 1세들의 정착 과정과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수원에 이주한 1916년 당시 일곱 살이던 유아사 가쓰에는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일제시기 수원 성 안 풍경(수원박물관 소장)

에 입학했고, 경성중학교<sup>6</sup>를 졸업하는 1927년까지 약 11년 동안을 수원에서 지냈다. 수원에서 감수성이 풍부한 유소년 시절을 보낸 유아사는 1928년 와세다(早稻田)제일고등학교(현 와세다대학)에 입학하면서 도쿄(東京)로 이주했는데,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영구 귀환할 때까지 수원에 집이 있어 왕래하고 있었다.<sup>7</sup>

1935년 4월호의 『문학평론(文學評論)』지에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데뷔작 「간난이(カンナニ)」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가활동을 시작한 유아사는 조선, 특히 자신이 소년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수원을 무대로 해서 재조선 일본인의 정착 과정과 집단적 정체성을 형상화한 작품을 다수 남기고 있다. 이 같은 작품 속 테마는 그 자신이 조선 이민 2세로서 자신의 ‘기원’을 표현한다는 자연스런 내적 동기에서 온 것이다. 특히 작가로서 유아사가 쓰에는 동시대 다른 일본인 작가들과는 변별되는 자신의 혼호(混淆)적인 존재의식을 스스로 뚜렷이 의식하고 이를 피력했는데, 가령 그는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일본과 조선의 관절인 자신”으로 표현한 바 있다.

가령 고향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그렇다. 경기도 수원을 들도 없는 고향이라고 적어서 검열관 한 사람으로부터 의심과 증오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일본과 조선의 관철인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숙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sup>8</sup>

“수원을 들도 없는 고향”으로 간주한다는 말 그대로 유아사의 작품 속에 묘사되는 조선은 수원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다. 작품 속에서 수원이라는 공간은 팔달산, 사대문(팔달문, 장안문, 창룡문, 화서문), 화홍문, 화천, 조선인 시장, 북지(北池), 수원신사, 연무대 등 다채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서사의 무대로서 곳곳에 배치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무대나 배경으로서만이 아니라 작품 속 사건이나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서 엮어 넣고 있다. 가령 유아사의 문단 데뷔작인 「간난이」<sup>9</sup>에서 수원은 작품 속 무대로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잡거(雜居)하는 공간으로 묘사되는데 조선인·일본인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팔달산, 화홍문을 지나는 결혼식 가마행렬, 화천을 따라 걷는 산책, 장안문 밖에 있는 북지에서 낚시, 사거리(四街里 : 종로사거리)에서 4일에 한 번 서는 시장 구경 등 수원의 풍물과 정경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생생하게 약동하고 있다. 또한 3·1 운동과 4월 15일에 일어난 수원 근교의 제암리 학살사건을 작품 속에서는 성곽 내 팔달문과 공자묘 사이에 있었던 프랑스코회(성공회교회 : 인용자) 방화사건으로 형상화하여 다루거나,<sup>10</sup> 결말에서 독립운동 와중에 행방불명된 조선인 소녀 간난이(李橄欖)의 피 묻은 소지품이 창룡문의 북쪽에 있는 연무대 부근에서 발견<sup>11</sup>되는 등 수원의 공간은 플롯상의 주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전개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단순한 배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간난이(カンナ二)」의 표지



파괴된 제암리교회 「간난이」에서는 제암리 학살사건이 프랑스교회 방화사건으로 형상화되었다.



일제시기 연무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간난이는 “군도를 휘두르는 아저씨들”, 즉 일본군 헌병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간난이의 소지품이 발견된 곳이 병사를 훈련하는 장소인 연무대 부근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상징적인 처리이다.



유아사 가쓰에 작품에도 등장하는 복지(만석기)에서 뉴시하는 사람들(사카이 마사노스케, 『발견하는 수원』, 1914)



1920년대 수원 장날 풍경(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이왕직 목장의 말들(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유아사 가쓰에는 자신의 고향=조선의 수원에 대한 심상을 작품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가령 에세이 「고향 전전(故郷転々)」(1941년)에서는 징병검사를 위해 자신의 본적지이자 아버지의 출생지인 도쿠시마(徳島)현을 방문한 얘기, 그리고 소학교·중학교 시절 일시 귀국할 때 어머니의 출신지이자 친정이 있는 에히메(愛媛)현에 간 일 등이 회고되고 있는데, 양친의 출신지 그 어느 쪽도 유아사에게 ‘고향’이라 부르기에는 무언가 부족했던 모양이다.

이윽고 나의 고향은 내가 성장한 조선 중부의 마을로 의적이 자리 잡혔다. 그 마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고향이라 부를 토지는 나에게 없는 것이다.<sup>12</sup>

이 「고향 전전」에는 수원 화성의 성곽과 성벽, 분묘 등을 배경으로 전쟁놀이, 숨바꼭질을 하거나 이왕직 목장에 놀러 가 홀스타인이나 앵글로 아랍·포니와 같은 말·

가축을 구경하던 일, 조선인의 가을 풍년제 행렬을 따라다니며 어른들의 춤을 덩실덩실 흥내 내던 소년 시절의 추억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또한 대학 수험을 치르기 위해 도쿄(東京)로 상경하던 때의 열차 안에서의 일도 기술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단편 「고향에 대해서(故郷について)」(1942년)에서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고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험을 위해 상경하고 있던 열차 안에서,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이 우리들 3, 4명의 중학생에게 물었다. “학교는 어디입니까?”  
 “경성입니다. 경성중학입니다.” 우리들은 학교 이름을 자랑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내지인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고향은 조선입니까?”  
 우리들은 모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불쾌한 표정을 한 한 친구가 장황하게 자신의 본적지랑 아버지의 집안을 말했다. “중학이라는 것은 내지인만을 모아 놓은 겁니다. 조선인학교는 고등보통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 실례했습니다. 아무래도 말투를 들어 보아도 그렇게는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만 무심코” 들던 사람은 죄송해 했다. 중학생인 것도 있어서 그 자리 기분은 풀어졌고, 다시 처음같이 유쾌한 어조로 모두는 그 사람에게 조선의 풍물 등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지만, 나는 이상한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는다. 고향은 조선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서 왜 모두는 그다지도 갑자기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걸까? 왜 “네, 그렇습니다.”라고 주저 없이 쾌활하게 대답할 수 없었던 걸까? 그럼, 너희들의 고향은 어디에 있는 거냐?<sup>13</sup>

위의 상황은 경성중학교를 갓 졸업한 재조선 일본인 2세들이 일본 국내의 대학(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수험차 도쿄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의 일인데, 기를 쓰고 자신들의 고향이 일본 내지임을 강변하는 동급생 친구들과는 달리 유아시는 자신이 자라나고 생활한 조선(수원)을 제외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가 고향이겠냐며 반문한다. 다만 조선의 수원을 자신의 돌도 없는 고향으로 간주하는 유아사의 의식도 도쿄로 ‘상경’ 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수도로서의 도쿄와 지방=고향으로서의 수원이라는 동시대 제국 일본의 문화지정학적인 판도에 그대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해 두어야겠다.

유아사 가쓰에에게 수원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모태(母胎)로서의 수원’이라 표현한 연구가 있는데,<sup>14</sup> 실제로 조선(인)을 소재로 한 유아사의 많은 소설과

수필 등의 작품을 통해서 그의 수원에 대한 일관된 애착과 정열을 확인할 수 있고, 문학적 주제 면에서도 수원은 유아사 가쓰에라는 작가가 탄생하고 성립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 유아사는 일본 문단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한편으로 조선 문인·예술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했고, 세계적인 조선인 무용가 최승희 부부와의 개인적인 친분에서 최승희의 반생을 그린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sup>15</sup> 도쿄에서의 공습을 피해 1944년 5월부터 가족과 함께 수원 집에 돌아와 있던 유아사는 패전 직전인 1945년 8월 9일 조선인 작가 한설야의 용대가 나쁘다는 소식에 함흥으로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경성’에서 일본의 패전을 알게 된다. 서둘러 가족이 머물고 있던 수원으로 돌아온 유아사는 그 후 가족과 함께 ‘인양(引揚者)’을 거쳐 1945년 9월 25일에 일본으로 귀환한다. ‘인양’ 당시 가능하다면 그대로 수원에 남는 것이 유아사의 희망이었다고 하는데,<sup>16</sup> 패전 직후부터 ‘인양’ - 귀환하기까지의 과정과 당시의 심정 등은 소설 「깃발(旗)」(1946년), 르포기사 「외지인양자(外地引揚者)」(1946년) 등의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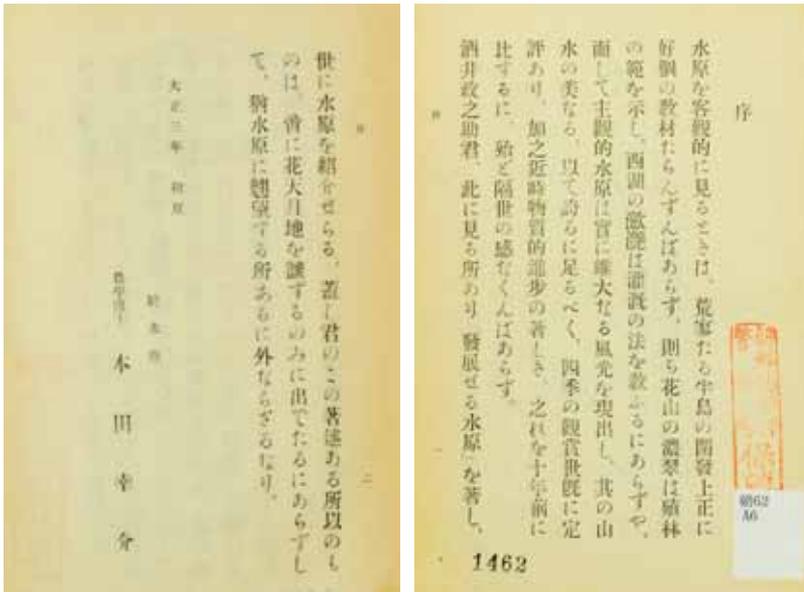
일본으로 귀환한 후에도 유아사 가쓰에는 「간난이」를 비롯하여 조선(인)을 소재로 썼던 자신의 전전의 작품들 중 20편 이상을 전후의 작품집에 다시 수록하여 일본과 남미에서 출판하는 한편, 조선(한국)과 관련된 에세이, 기행문, 평론, 문학작품 등을 다수 기고, 발표한다. 이 같은 문학 활동 외에도 유아사는 일한친화회(日韓親和會)<sup>17</sup>라는 단체의 창립 멤버로 그 나름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과 우호친선에 공헌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전후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일본인의 남미 이민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업 활동에는 조선 이민 2세 출신으로서의 체험과 존재의식이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전전에서 전후에 걸쳐 연속해 가는 그의 지향성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그런 식으로 저는 2세인 겁니다. 최근에 브라질 등에 가 보면 2세는 이미 브라질 사람으로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얼굴은 이미 일본의 젊은이 얼굴과는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얼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길게 4개월이나 오지에 갔다 돌아와 보면, 그 얼굴은 그 토지에 어울리는 매우 아름다운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아마 조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sup>18</sup>

이처럼 브라질 이민자들을 언급하면서 “그 토지에 어울리는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 된 일본인 이주자 2세들의 성장에 공감을 표명하는 유아사는 자신도 일찍이 조선 이민 2세로서 “조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명언하였다. 사실 유아사 가쓰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묘사한 초기 작품군을 남기면서도, 1940년대 전반기에 문학을 통해 조선의 황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해방 후(일본의 전후) 유아사와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주로 식민지 체제에 협력했던 정치적 태도를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 같은 비판은 물론 유아사 가쓰에라는 작가의 전중까지의 문학적 영위와 정치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본과 조선의 관절”이라는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의식하면서 전후를 포함해 일생 동안 ‘조선’과 ‘이민’을 계속 묘사한 유아사의 지향성은 전시 중의 시대 속에서 왜곡되면서도, 전전에서 전후에 걸쳐 그의 정치적인 태도의 변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연속하고 있었다고도 보인다. 그리고 유아사의 경우 그 혼효적인 존재의식과 지향성이 결정적으로 형성·응결된 곳은 바로 자신이 유소년 시절을 보낸 원향(原郷)으로서의 ‘수원’이었다. 그렇다면 소설 작품 속에서 수원에 정착해 가는 일본인의 삶과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을까? 다음에서는 주로 식민지 1세들의 정착과정과 집단적 정체성의 양상을 중심으로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소설에 나타난 이주민들의 삶

유아사의 소설에서 수원에 정착하는 일본인 이주민 1세의 삶을 주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에는 「불꽃의 기록(焔の記録)」(1935년), 「성문의 마을(城門の街)」(1936~1937년), 「망향(望郷)」(1938년) 등이 있다.<sup>19</sup> 이 중 「성문의 마을」과 「망향」 두 작품은 인물 설정과 조형에서부터 서사구조까지가 서로 유사하고, 「망향」은 잡지 연재 중 미완으로 끝난 장편 「성문의 마을」의 후속편으로서의 면모를 띤다. 이 두 작품은 식민지 1세들의 삶과 귀속의식의 거처를 주제화하고 있는데, 특히 「망향」은 식민본국에 대한



『성문의 마을』에서 주인공인 본페이가 읽은 『발전하는 수원』 서문

향수와 수원에 정착하는 것 사이에서 겪는 내면적 갈등이나 2세들과 세대 간의 차이 등을 섬세하게 그려 내고 있어 주목해야 할 작품이다.

우선 일본의 문예잡지 『인민문고(人民文庫)』의 1936년 12월호부터 1937년 5월호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재된 장편소설 「성문의 마을」은 그 제명에서도 표현되고 있듯이, 사대문으로 둘러싸인 수원 화성이 무대이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작품의 첫머리에서 주인공인 본페이(凡平)가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의 『발전하는 수원(發展せる水原)』을 읽으면서 그 책의 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설정<sup>20</sup>에서도 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작품 집필에 앞서 유아사는 소품 「원산의 여름(元山の夏)」(1935년 7월)에서 “내가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어느 마을의 변천의 역사”<sup>21</sup>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성문의 마을」과 「망향」 두 작품은 유아사가 쓰려고 한 것이 바로 수원의 변천 역사임을 보여 준다. 다만 그 ‘변천의 역사’라는 것은 작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수원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정착



일제시기 장인문 그림엽서(수원박물관 소장)

역사이지, 그 땅에서 맥맥이 생활해 온 조선인들의 역사가 아님을 우선 지적해 두어야겠다.

「성문의 마을」은 화성의 성곽과 그 주변의 풍경까지 세세하게 묘사하면서, 유아사 자신의 아버지의 반평생을 모델로 해서 조형한 본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수원에 정착하는 일본인들의 인물 군상과 일상생활을 그리고 있다. 12~13명의 점원을 거느린 식료품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는 본페이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13년 전에 처음 조선 수원에 수비대장으로 부임해 왔을 때는 육군 중위의 신분이었다. 수원으로 오기 전에는 징병으로 러일전쟁에 참전했고 ‘만주’의 변경 수비를 비롯하여 ‘외지 근무’ 만을 계속해 왔다는 본페이의 경력은 실은 조선에서 정착하게 되는 식민지 1세의 하나의 전형으



본폐이가 올랐던 팔달문 2층 누각(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로서 유아사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비슷하게 변주된다.<sup>22</sup> ‘만세사건’=3·1독립운동 직전에 수원에 부임한 본폐이는 사건 당시 인도적인 대처로 지역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신망을 얻게 되고, 본폐이도 3년간의 수원 병영생활을 통해 “완전히 이 마을이 마음에 들어 버려”<sup>23</sup> 이곳에서 정착할 결심을 하게 된다.

본폐이는 자주 이 누각(팔달문의 2층 누각 : 인용자) 위에 올라가, 큰 종을 쳤다. 우왕왕 하고 땅을 뒤흔들듯이 울리는 폭넓은 진동 소리를 듣고 있자면, 가슴에 치밀고 있던 울분도, 짙은 향수도 일시에 날아가서, 때마침 산 가장자리에 붉게 가라앉고 있는 석양이나 멀리 보이는 구룡의 기복이랑 부산 가도의 버드나무 가로수 길을 언제나 마음을 빼앗겨서 바라보곤 했다.(136쪽)

군인을 퇴역한 후, 지역 조선인 재력가들의 청탁으로 해산물회사의 대표지배인(代表取締役)을 맡게 된 본페이는 마침내 수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생의 땅’으로 간주하고 본국에서 가족을 불러온다.

1년째에 본페이는 내지에서 처자를 불러왔다. 이제 점포의 기초도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 생겼고, 분야가 다른 자신에게도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드디어 평생의 땅, 평생의 업으로서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다.(142쪽)

하지만 일본 내지에서 온 아내 사토에(里江)는 풍속이 다른 이 수원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3천 엔 모이면 돌아가요.”(142쪽)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일본 고향의 해협에 임한 시가지, 어묵, 여름밀감 등과 같은 풍물이나 음식을 떠올리며 향수를 달랠 뿐이다.

또한 지역의 조선인 재력가들도 자신들의 사업에 일본군 중위 출신이라는 본페이의 지위가 필요했을 뿐으로, 시간이 지나 새로운 회사를 차리자 본페이를 출장소장으로 좌천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회의를 느낀 본페이 자신도 일본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와중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난다. 초기에 지진 피해가 과장되어 전해지면서 귀국을 망설이게 된 본페이는 퇴역군인인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간들 별다른 수가 없다고 보고 이곳 수원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할”(148쪽) 결심을 하고 현재의 식료품 잡화상을 개점한 것이다. 이후 소설 속 내용은 이전 해산물회사 시절의 수하 직원이었던 기시와 다(岸和田)가 본페이에게 경쟁하듯이 같은 업종의 식료품 잡화상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과 본페이 가족의 일상, 그리고 수원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인생 역정이 간간이 묘사되고 있다. 다만 이 「성문의 마을」은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미완으로 끝난 탓인지, 수원에 정착해 가는 식민지 1세대의 다양한 인물 군상은 형상화하고 있으나 재(在)수원 일본인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심리의 묘사까지는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 심리 변화의 과정과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성문의 마을」 연재를 중단한 지 약 1년 후에 발표된 「망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망향」은 「성문의 마을」과 인물 설정, 배경, 그 서사구조 등이 유사



일본인이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바라본 가야마 상점(사카이 마사노스케, 『발전하는 수원』, 1914)



역전거리에 있던 일본인 양복점(사카이 마사노스케, 『수원』, 1923)

하고, 후키야 고조(吹矢吾助)라고 하는 식민지 1세의 수원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식료잡화상을 경영하는 한편으로 상공회의소의 회두(會頭)이

자 청년단의 단장이기도 한 후키야 고쥬는 수원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러일전쟁에 종군한 이래 '만주' 수비대, 조선 수비대에서 복무해 온 군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주둔한 곳이 수원이었다. 수비대가 용산의 사단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퇴역 후의 생활을 고심하던 후키야는, 빈농의 5남으로 태어난 자신이 다시 일본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별다른 전망이 없다고 보고, 수원에서 정착하고자 결심한다. 제대 후 군인 연금과 퇴직금을 밑천으로 해산물을 취급하는 식료잡화상을 시작한 후키야는 본국에서 아내 이토에(糸江)와 딸 유미코(弓子)를 불러들여 수원에서의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된다. 아내 이토에는 「성문의 마을」의 사토에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낯선 수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온돌방에 틀어박혀 (일본)거문고를 타며 고국의 악곡을 연주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응, 3천 엔 모이면 돌아가요. 내년에는 모일까, 내후년에는 모일까.”<sup>24</sup>라면서 계속 일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토에는 유미코가 밖에 나가 조선 아이들과 노는 것을 싫어해서 한시도 놓아 주지 않고, 고향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들려주는 것이다. 거친 감촉으로 다가오는 마을의 공기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온돌 방안에 틀어박혀서는 자주 열이 나서 몸져누웠다.(216쪽)

여기서는 조선에 이민 온 1세대 사이에서도 이민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내적 갈등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고향'에 대한 심상의 차이로서도 가시화된다. 손바닥만한 토지도 소유하기 힘든 가정의 5남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족의 곁을 떠나 타관생활을 했던 후키야가 자신에게는 “이미 고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214쪽)라고 간주하고 있는 데 비해, 아내 이토에는 자신이 나고 자란 오이타(大分)현의 호요(豊予)해협에 임한 고향 시가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후키야 부부에게도 커다란 전기가 찾아온다. 수원에 온 지 4년째 되던 해에 이토에는 둘째 딸을 출산하게 되고, 후키야는 딸의 이름을 조선의 '선(鮮)' 자를 따서 '아사코(鮮子)'라 짓는다.

힉찬 소리로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봤을 때에 고쥬는 드디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가슴 속에 강한 덩어리가 느껴졌다. 조선의 선(鮮)을 따서 아사코(鮮子)라고 지어야지. 이걸로 마침내 자신의 밭도 이 땅에 붙었다고 생각했다.(216쪽)

후키야가 둘째 딸 아사코를 출산한 것을 계기로 “드디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 것은 이제 수원 땅에 정착했다는 실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고향이 이곳으로 이행하였다고 간주하는 식민지 1세의 심상을 표현하고 있음에 다를 아니다. 아사코의 출생은 이토에에게도 큰 전기가 되어 이토에는 거문고를 버리고 점포의 계산대 일을 맡아 가게일을 돕게 된다. 하지만 이토에는 얼마 안 되어 과로가 겹치는데다 폐렴이 악화되어 쓰러지는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토에는 아사코를 찾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토에는 잠시 밝은 눈빛이 되면서 “아사코는 강하네.”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후키야 고쥬는 이토에의 동경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옮겨 심은 나무 중에서도 이토에는 너무나 섬세한 아름다움이었다. 이 토지의 토양 속에서 우뚝 자라나 온 아사코와 같은 나무는 강인한 뿌리를 둘러쳐 갈 것이다. 어떤 메마른 흙덩이 속에서라도 양분을 듬뿍 흡수해 갈 것임에 틀림없다. 고쥬도 이토에와 같이 희망을 아사코에게 보내고 있었다.(220~221쪽)

아무리 ‘이 땅’=수원에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옮겨 심은 나무” 일 수밖에 없는 식민지 1세의 입장에 비해 아사코는 처음부터 “이 토지의 토양 속에서 우뚝 자라나 온” 새로운 인물상의 식민지 2세로서 묘사되고 있다. 강한 생명력을 지녔고 수원 땅에 일체화된 식민지 2세의 한 전형형을 유아시는 이 작품에서 아사코를 통해 조형하고 있는 것이다. 후키야 부부는 자신들과는 달리 이 땅을 선천적인 ‘고향’으로서 지니게 된 아사코를 통해 수원에서의 삶의 희망을 딸에게 의탁하고 있다. 박광현은 이 작품을 통해 장소에 의해 규정되는 아이덴티티가 피의 순수성보다 중요시되는 유아사 문학의 지향성을 읽어 내고 있는데,<sup>25</sup> 아사코는 말하자면 “이 토지의 토양 속에서 자라나 온” 자연발생적인 아이덴티티를 지닌 ‘수원의 아이’로 성장할 것임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 서사는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초로의 나이가 된 후키야와 동년배의 일본인 남성들이 일본 내지의 벳푸(別府)에 별장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모임에서 자신들의 별장이 들어설 부지의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감격스러워 하는 장면으로 이어

진다. 여기서는 이미 20여 년 동안의 수원 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이곳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간주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본 내지를 동경하면서 언젠가 돌아갈지도 모를 때를 대비하는 식민지 1세들의 착종된 미묘한 심리를 볼 수 있다.

당번 간사인 마에다(前田)가 말했다. “…… 실은 말일세, 처음에 내가 말을 꺼냈을 때에는 고작 1, 2명 응할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응을 맞춘 듯이, 이의 없이 가결됐어. 놀랐지. 내지에 별장을 가진다는 매력은 이렇게나 강한 것일까 하고 말이야.”

“매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뼈에 사무친 동경일 거야.” 히히 하고 웃는 버릇이 있는 변호사 구라타니(倉谷)가 예리하게 말했다. 음 하고 고조는 신음할 기분이었다. 마지막 한 방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무엇인가 회합이 있을 때마다 “이 토지를 분묘의 땅으로서” 라면서 강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대로 굳게 믿고 있던 터였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복병에게 시험받을 줄은 몰랐다.(224쪽)

이케다 히로시(池田浩士)는 이 작품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주제를 ‘내지’에의 향수와 조선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힘의 갈등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sup>26</sup> 여기서는 모든 생활의 기반이 수원에 있고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지’를 동경하고 하다못해 자기 소유의 별장을 가지는 것에 감동하는 이민자 1세들의 상반된 심리와 모습을 볼 수 있다. 본국에 대한 이들의 굴절된 동경과 상념은 자식의 배우자는 ‘내지’의 처자를 데려와 혼인시키려는 풍조에서도 볼 수 있다. 이 풍조에 대해 마에다는 “향수야, 좀 전의 예의 향수야. 내지의 것이라면 마마 자국도 보조개”(225쪽)라고 비꼬고, 구라타니는 “내지에 별장을 만드는 심리인 거지. 자칫 잘못해서 밥줄이 끊어지면 내지의 인척이 발붙일 곳이 된다고 하는”(225쪽)이라고 해석한다. 다름 아닌 후키야가 그런 풍조의 피해자가 되는데, 아사코와 정혼했던 동업자의 아들이 ‘내지’로부터 아내를 맞이하는 배신을 당한 것이다. 박광현은 일본인 이민 1세대는 조선을 고향이라고 의식적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망향의 정이 깊어 간다고 지적했는데,<sup>27</sup> 어쩌면 수원과 본국 사이에서 이렇게 역설적이고도 혼재된 심리를 지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식민지 1세들이 위치한 존재론적인 자리일 것이다. 본의 아니게 동업자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해 축사를 맡게 된 후키야는 행여나 말실수를 할까 봐 조

심하지만 결국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본심’ 을 드러내고 만다.

본디 이 토지에 피어난 꽃은 자연스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적당한 상대가 없다면 또 모르지만, 꽃들이 넘쳐 일제히 피고 있는데 유달리 고향의 것이 아니면 안 될 이치는 없는 셈입니다. 거기에는 제2진에 들어앉겠다는 타산도 있겠습니까만, 배척해야 할 비겁한 심리여서 ……(227쪽)

“이 토지에 피어난” 2세들의 성장에 공감을 표명하는 후키야의 대사는 그 자신 조선 이민 2세로서 “조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명언하는 유아사 가쓰에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레 이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능률하게 자라난 꽃과 같이, 이왕직 목장의 앵글로 아랍을 능숙하게 타면서 눈부시게 수원 가도를 질주하는 아사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키야는 수원에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느낀다. 그리고 작품은 후키야가 지금까지 절에 맡겨 두었던 아내의 유골을 이곳 수원 땅에 묻고 분묘를 만들 결심을 하는 데서 끝이 난다.

고쥬는 문득 이토에의 유골이 아직 절에 맡겨 둔 채로 되어 있음을 떠올렸다. 언제 이 토지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걱정에서 무덤을 만들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던 거다. 아내도 여기에 의젓이 자리 잡게 해 줘야지.(228쪽)

이처럼 작품 「망향」은 후키야 고쥬라는 한 식민지 1세의 반생을 중심으로 일본인 이주민 1세들이 수원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심리 변화 등을 심도 있게 그려 내고 있다. 후키야 고쥬는 자신의 고향이 이곳 수원으로 이행·정착했다고 간주하면서, 수원을 자신들의 '분묘의 땅'으로 삼을 결심을 굳히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식민지 1세들의 집단적 아이덴티티가 처한 존재론적인 삶의 장소는 결국 수원에서 뿌리내리는 것과 본국에의 '망향' 사이에서 끊임없이 유동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사코와 같이 "이 토지에서 피어나" 이 토지에 뿌리를 내린, 선천적으로 '수원'을 고향으로 지니게 된 새로운 세대=식민지 2세들에게 수원은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이며, 이들의 집단적 정체성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다음 3절에서는 식민지 2세들의 이야기를 주제화한 유아사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 3.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2세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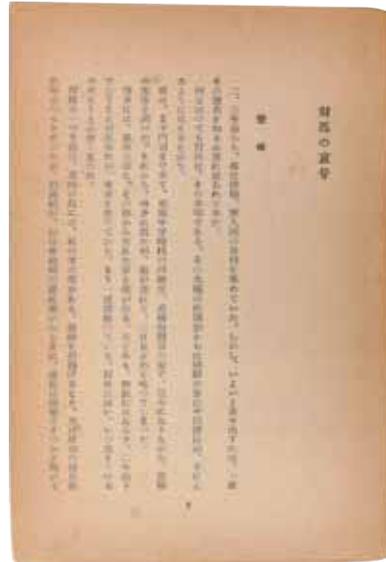
유아사 가쓰에의 작품 중에서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 이민자 2세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에는 「대추(棗)」(1937년), 「심전개발(心田開發)」(1937년), 「하야마 모모코(葉山桃子)」(1939년) 등이 있다. 이 중 「하야마 모모코」는 「망향」의 아사코와 같은 식민지 2세들을 다수 등장시켜서 그들의 집단적 정체성과 고향에 대한 심상을 주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작품이다. 「하야마 모모코」는 전후의 작품집 『간난이』(1946년)에 그 제명을 「채송화(松葉牡丹)」라고 개제(改題)해서 재록되기도 했는데, 작품해설에서 유아사는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선일체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 소학생 시절을 회고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 조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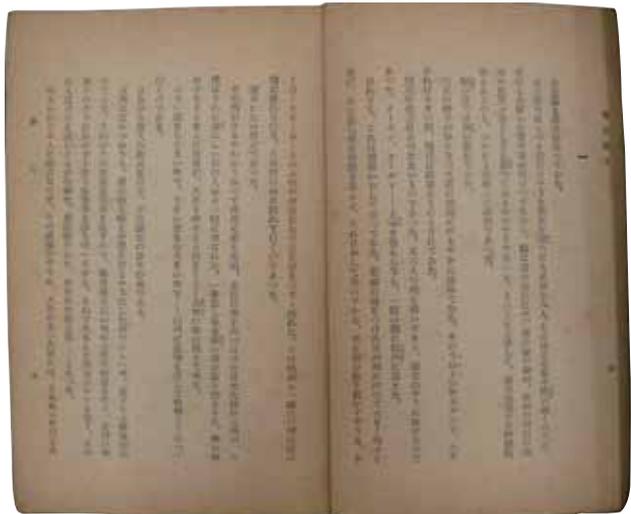
서 자란 일본인 아동의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내선일체에 대체로 반대였다. “정복한 민족이 피정복민족에게 하나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다는 바보스런 일은 없다. 조선인 측에 서야말로 신청해서 비로소 허가하면 되는 거다.” 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제2세는 그 제출의 여하를 불문하고 감정상 반발했다. 제2세는 내지에 돌아가면 종종 조선인으로 대우받기 쉬웠다. 그리고 또한 조선인에 대한 어떤 사소한 멸시도 이를 갈면서 화를 냈다.<sup>28</sup>

즉 이 소설은 유아사 자신을 포함한 수원 이민자 2세들의 소학교(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투영해서 형상화한 작품임을 알 수 있는데, 작품의 플롯은 주인공 다치바나 시게타(橘繁太)의 시점을 중심으로 예전 소학교 6학년 때 ‘새잎회[若葉會]’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던 급우들이 성인이 된 현 시점에서 다시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자신들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도쿄의 대학에서 수원으로 ‘귀성’한 시게타는 수원의 시장에서 소학교 시절 같은 반 급우였던 마쓰모토(松本)가 조선인을 상대로 주전자를 팔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다. 이 마쓰모토는 소학교 시절에 급우였던 하야마 모모코에게 못된 짓을 하려다 발각되어 퇴학처분을 받은 악동으로, 퇴학당한 후에는 오사카(大阪)에 건너가 막별이 일꾼이나 마소의 거간꾼 등의 직업을 전전했지만 지금은 수원으로 돌아와 조선인을 상대로 철물상을 하고 있다. 이 마쓰모토에게서 현재 하야마 모모코도 시장에 나와 복숭아 등의 과일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시게타는 시장을 이동하면서, 소학교 시절의 생활과 일화를 회상하게 된다.

시게타가 다녔던 수원의 소학교는 “신시가와 구시가의 중간의, 팔달산 기슭에 있었는데”<sup>29</sup> 이 학교에는 이른바 ‘이민의 아이’들이 많아서 시게타의 반에도 성 안에서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는 시게타의 양친을 비롯하여, 어머니가 과수원 농장을 경영하는 하야마 모모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농업이민으로 이주해 온 집의 마쓰모토와 가와우치(川内), 선종 계열의 절인 법정사 주지의 아들인 오노(小野) 등 다양한 직종을 지닌 이민자 1세의 자녀들이 모여 있다. 주지하듯이 일본의 식민지 영유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진행된 것이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이었다. 일본인 세력을 이식함으로써 조선에서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권을 더욱 견고한 것으로 만들려 했던 일본정부의



유이사 가쓰에의 소설 『對馬』



소설집 『하야마 모모코(葉山桃子)』 표지와 소설 『이민』





일본인 2세들이 다니던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의도는 일본 농촌의 과잉 인구나 토지 기아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결합하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으로 약칭)<sup>30</sup>의 농업이민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작품 속에서 마쓰모토나 가와우치와 같은 식민지 2세들이 수원에서 나고 자라 학교를 다니게 된 것도 그 부모들이 동척의 농업이민으로 수원으로 이주해 와 평리(坪里), 원천리(遠川里) 등에 이민촌 부락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sup>31</sup>

그런데 시게타가 급장을 맡고 있는 6학년의 이 반에 어느 날 이왕직 목장의 관리이자 고등농림학교 교수의 딸인 마토바 마키코(的場まき子)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전학해 오면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난다. 앞서 언급한 유아사의 작품해설에서 “조선인에 대한 어떤 사소한 멸시도 이를 갈면서 화를 냈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이민자 2세들의 정서는 작품 속에서는 수업 중 글짓기 시간에 마토바 마키코가 발표한 「삿포로로 돌아가고 싶다(札幌に帰りたい)」라는 제목의 작문에 대한 반 아이들의 반응으로 변주되고 있다.



황계리 일본인 이민부락(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 저는 삿포로로 돌아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삿포로의 길에는 가래 따위 함부로 뱉어져 있지 않습니다. 느릅나무 숲이랑 감람 숲이랑 푸르디푸르러서 지금쯤이면 감람꽃이 한창입니다. 은방울꽃도 예쁩니다. 즐거운, 정말 그리운 친구도 있습니다. 아 삿포로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더러운 조선은 싫어 싫어.(236쪽)

홋카이도와는 기후나 풍토가 다른 이국(異國)의 수원 땅에 온 지 얼마 안 된 양갓집의 어린 소녀가 무덤이 뺨뺨이 들어선 낯선 풍경이나 소머리가 통째로 냄비에서 끓고 있는 모습 등을 보고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고향의 친구들이나 풍물을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할 터이다. 마토바 마키코의 작문 발표를 듣고 시게타를 비롯한 반의 이민자 2세 아이들은 ‘내지’에 대한 동경이 뒤섞인 일종의 감동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하야마 모모코는 울먹이면서 다음과 같이 ‘항변’ 한다.

조선은 …… 조선은 더럽지는 않아. 조선은 더럽지는 않아.

다시 시게타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감동이 덮쳐 와서 눈꺼풀이 뜨거워졌다. 교실의 공기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학생 중에는 코를 훌쩍이는 사람이 나왔다.(236쪽)

하야마 모모코의 이 항변이야말로 “이 토지의 토양 속에서 자라나 온” 이민자 2세들의 심성일 것이다. 부모들에게 들어왔던 ‘내지’에 관한 이야기—그것은 조선(수원)으로 이주해 온 부모세대들이 망향의 감정에서 사후적으로 이상화한 ‘내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들 2세들에게도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의 감정을 어려서부터 심어왔다. 가령 부모세대들은 수원에 정착해서 살면서도 곧잘 자식들에게 “내지는 말이야.”라면서 이상화된 ‘내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모들은 정월에, 백중맞이에, 히나마쓰리(雛祭)에, 뭐든지 고향에서의 그 행사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하루 중 가장 즐거운 듯한 눈빛을 보는 것은 고향에서의 나날의 추억으로,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아이들은 부모가 뭔가 피로로 울적해 있는 것을 보면 내지에서는 지금 어떤 꽃이 피어 있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 부모들의 눈이 갑자기 축축해지고 꿈꾸는 듯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257~258쪽)

하지만 이민자 2세들에게 부모들의 고향= ‘내지’는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세대와 같은 실감을 가질 수는 없었다. 이보다는 자신들의 ‘고향’인 조선(수원)에 대한 애착이야말로 훨씬 생생한 실감을 가질 수 있는 실제의 감정인 것이다. 방과 후 평소 조선인 아동을 괴롭히기만 하던 난폭자 마쓰모토도 “조선을 더럽다고 했겠다.”(237쪽)라고 으르렁거리면서 마토바 마키코를 괴롭히고, 위급한 상황에서 시게타와 모모코가 마쓰모토를 제지해서 마키코를 구해 낸다. 이 사건 이후, 작품 속 내용은 서로 화해를 하고 ‘새싹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회원이 된 시게타, 모모코, 마키코, 오노, 마쓰모토, 가와우치 등의 학교생활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에피소드가 수월 성곽을 배경으로 점묘되고, 이곳 생활에 적응한 마키코도 더 이상 ‘삿포로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않게 된다.

하지만 난폭한 마쓰모토를 견제하면서 감화도 할 겸 만든 ‘새싹회’도 서로 간의 의

견 다름 등으로 해산하게 되고, 졸업을 앞둔 2학기에 마쓰모토는 모모코에게 못된 짓을 하려다 발각되어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퇴학당한 후의 마쓰모토는 오사카에서 막별이 일꾼이나 마소의 거간꾼 등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수원으로 돌아와 조선인을 상대로 철물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쓰모토뿐만 아니라 시게타를 포함한 소학교 시절의 동급생들이 졸업 후 제각각 한번은 수원을 떠났다가 성인이 되어 다시 이곳 출신지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마다 이 토지를 떠났던 자가 어느 사이에 되돌아와서, 자신이 자란 집에 차분한 얼굴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그 여름방학에 귀성한 시게타는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보았는데, 마쓰모토가 되돌아와 있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의외로 아직 시게타의 가슴을 동요시키고 있다.(257쪽)

“5, 6살쯤에 아버지를 따라”(257쪽) 수원으로 이주해 왔던 시게타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오랜 동안 길러진 내지への 동경”(258쪽)에서 양친의 고향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해 지금은 도쿄의 대학을 다니고 있고, 마토바 마키코는 일본의 여자대학에 진학하는 등 모두 뿔뿔이 흩어져 한 번씩은 자신들의 고향=수원을 떠나갔다. 하지만 이들 식민지 2세들에게 원향으로서의 고향은 역시 수원이었고, 일본이나 그 밖의 외지로 떠나 떨어져 지내면서 이런 감정들은 더욱 절실하게 와 닿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제 부모들의 고향이 아닌, 수원이라는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 되돌아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게타가, 자신의 눈의 광채가 부모들의 고향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 별다른 것도 없는 조선의 이민지 마을이 달콤하고 즐겁게 눈꺼풀 뒤에 강하게 남아 있어서, 1년에 한 번인 여름방학을 갈망해 기다리면서 서둘러 그 마을로 돌아갔다. 마쓰모토와 같이 그 토지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게타보다도 한층 그 감회가 깊을 것임에 틀림없다. …… 다른 급우들은 저마다 어엿하게 자립해서 이제 이민이 아니라 그 토지의 토박이 농사꾼으로서 팽이를 휘두르고 있다.(2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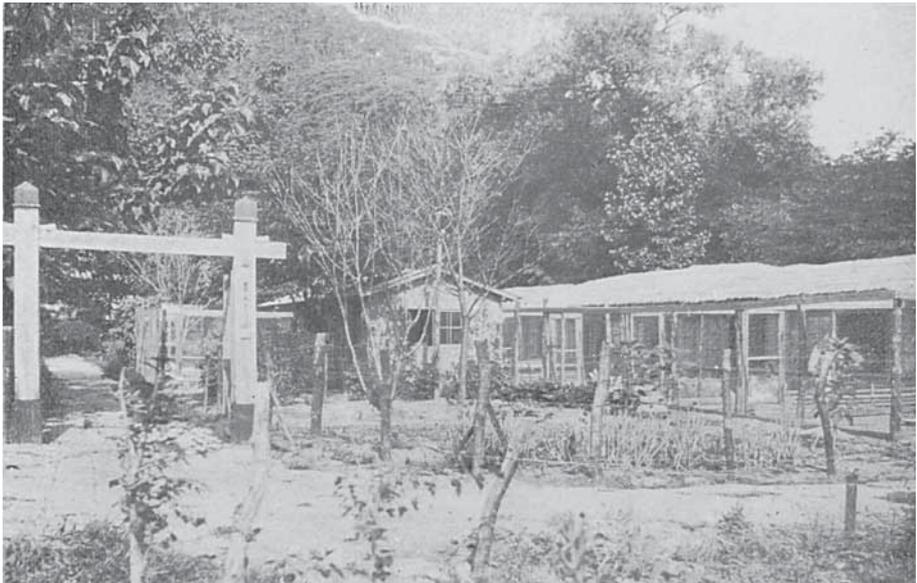
마쓰모토는 아버지가 빼앗긴 논밭을 되찾고자 철물상을 하고 있고, 급우들 앞에서 “조선은 더러워서 싫습니다.”라고 했던 마토바 마키코는 현재 수원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남긴 광산의 발굴조사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과수원 농장을 물려받은 하야마 모모코는 수원에서 농장일을 꾸려 나가면서 시장에 나와 복숭아를 파는 한편으로 밤에는 근처의 조선인 아이들을 모아 놓고 읽고 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작품 속 서사는 시장에서 하야마 모모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게타의 다음과 같은 감개로 마무리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쓰모토며 마토바 마키코며 급우들이 잇따라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의 재발견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자신이 새삼 고향을 재인식하려고 돌아온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밀물이 되어서 그것은 오고 있다.(261쪽)

이처럼 이 작품은 성장한 식민지 2세 출신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새삼 ‘재발견’ 해서, 그 인식을 바탕으로 제각각 수원 땅에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주제화하고 있다. ‘이 땅’으로의 정착과 본국에의 망향 사이에서 끊임없이 유동할 수밖에 없는 1세대들과는 다른, 수원을 돌도 없는 자신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정착하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2세대들의 등장과 이들의 고향, 세대 감각에 대한 유아사의 조형은 ‘신조선(新朝鮮)’ 담론이 창안·유포되기 시작한 1930년대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1930년대 이후 ‘신조선’이라는 용어는 재조일본인 스스로가 조선에의 동일화를 기치로 내걸면서 사용한 용어였는데, 이것은 재조일본인이 스스로를 ‘반도인’이라는 자기규정의 시발점으로 삼기도 했던 의미의 용어로, ‘내지’ 일본인과는 다른 자기상을 상상해 내는 계기로도 작동했다. 특히 박광현은 ‘신조선’이라는 명명법이 재조일본인 1세대들의 자녀들, 즉 조선에서 나고 자란 재조일본인 2세대들의 세대 감각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sup>32</sup> 그 자신 식민지 2세 출신인 유아사 가쓰에가 ‘하야마 모모코’를 통해 수원이라는 장소에 동일화하고 기존의 1세대들과는 구별되는 2세대의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을 형상화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일본인 과수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수원 읍내에 있던 일본인 양계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유아사가 패전 후의 일본에서 최초로 집필, 발표한 소설 「깃발(旗)」(1946년)은 수원에서 일본의 패전을 맞이한 재조일본인 일가족의 상황을 묘사한 작품이다. 작가 자신을 투영한 주인공 삼페이(三平)와 그의 아버지이자 수원 이민자 1세대인 사헤이(佐平)의 감개와 슬회 등을 통해 전전, 전중까지의 작가 자신과 조선(수원)의 관계를 자전적으로 기술한 사소설적 작품인데, 그 속에서 1세와 2세 사이의 ‘고향’ 감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단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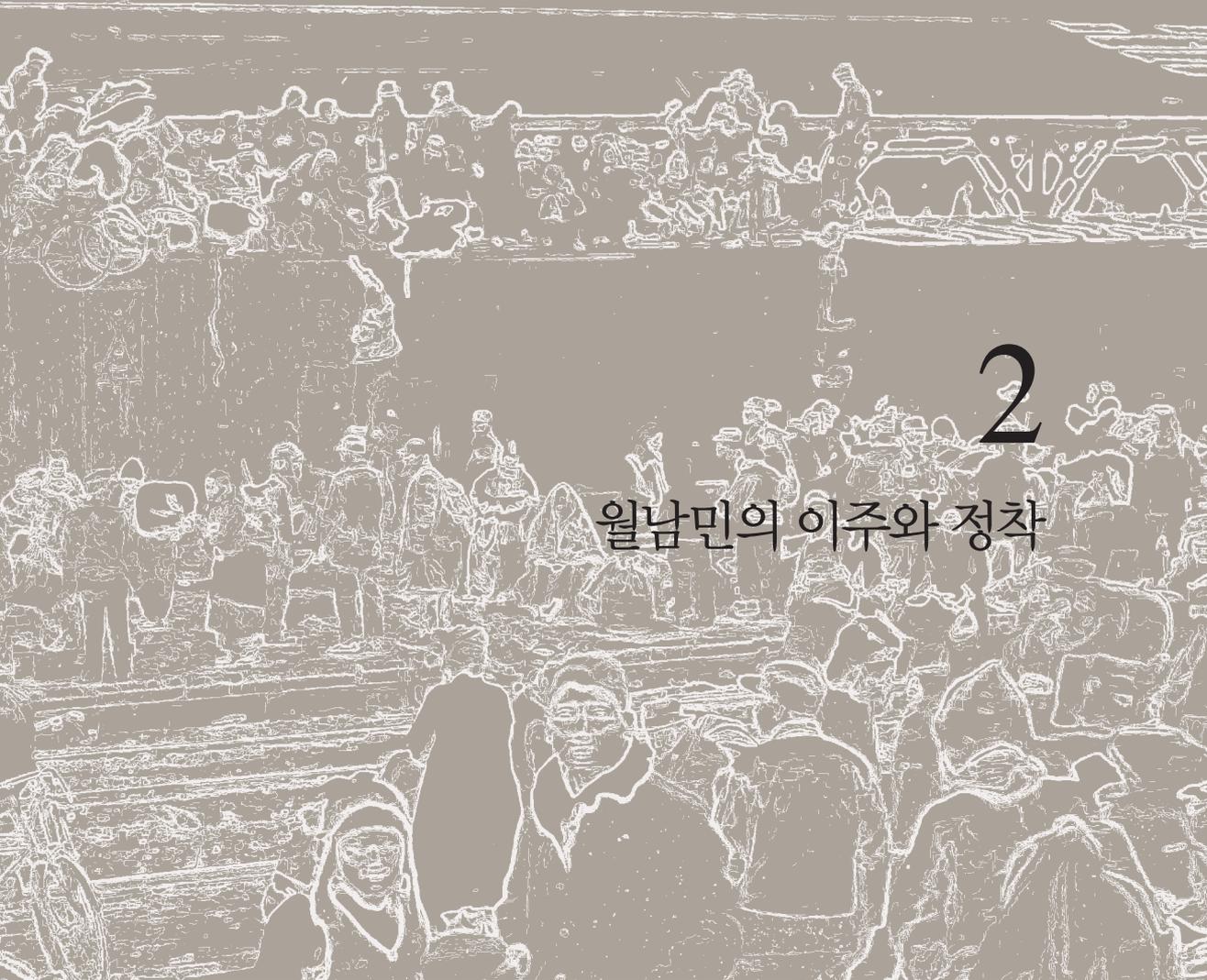
삼페이는 자신들과는 달라서 이 토지(수원 : 인용자)를 제2의 고향 등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 진짜의,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sup>34</sup>

유아사는 패전 직후 귀환한 일본에서 “나의 고향은 상실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라고 했는데, 실제 일평생 그의 삶과 문학에 있어 고향은 수원이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바와 같이 유아사가쓰에의 문학이 고도(古都) 수원의 성곽을 무대로 식민지 이민자들의 현재적 삶과 일상을 묘사하면서 주제화했던 것은 식민지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세대별/간 집단적 정체성의 차이와 그 변모과정이었다. 나아가 작가 자신을 포함한 식민지 2세대들이 ‘이 땅’=수원이라는 장소와 동일화되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진짜 고향”으로 인식하게 되는 아이덴티티의 확립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그 유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바 있는 로빈 코헨(Robin Cohen)은 ‘제국 디아스포라(Imperial Diaspora)’라는 유형을 설정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 식민 혹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정주가 실행될 경우, 그 결과로서 태어나는 것이 ‘제국 디아스포라’라고 설명한다.”<sup>36</sup> 로빈 코헨은 주로 ‘대영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 제국주의가 실행한 식민지로의 자국민 송출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국-식민지시기 수원으로 이주하였던 일본인 이주민들의 경우도 큰 틀에서는 ‘제국 디아스포라’의 유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로빈 코헨은 ‘준(準) 제국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기존의 ‘제국 디아스포라’가 식민 본국과의 연결을 중시하고 본국의 사회적, 정치적 관습을 소중히 모방하면서 스스로가 제국의 위대한 계획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감각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준 제국 디아스포라’는 식민지가 결혼 등을 통해서 현지사회에 융화되거나 식민 본국과의 연결을 끊기도 하는 등 ‘현지화’ 하는 경우가 많음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sup>37</sup> 양자 사이에 정체성, 귀속의식, 문화 등에서 균열과 차이가 발생할 것임은 물론인데, 이 글에서 살펴본 유아사 가쓰에 문학에 나타난 일본인 이주민의 경우도 1세대와 2세대 간의 차이 또는 “부모들의 고향이 아닌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식민지 2세대의 집단적 정체성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 논의했던 식민지 2세 출신의 작가 유아사 가쓰에라는 존재와 그의 문학이 주제화했던 수원 식민지들의 삶과 정착, 그리고 세대 간 정체성의 형성과정은 제국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분화 과정을 문학적 장르를 통해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 2 월남민의 이주와 정착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들 월남 1세대들은 월남 당시 이렇게 오랜 시간 귀향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면서 수원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떠나지 않았다.



1. 한국전쟁과 수원 그리고 월남민
2. 월남민의 이주 과정
3. 피난민정책과 정착촌 생활
4. 정착 이후 생활 경험과 네트워크 형성

박헌정 |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01 | 수원 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생활 경험

## 1. 한국전쟁과 수원 그리고 월남민

### 1) 월남민 연구

이 글은 수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민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이들은 해방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혹은 일시적인 피난으로 여기며 남한에 월남하였다가 수원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 월남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수원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월남민의 구술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대한민국은 형성 과정에서 좌우의 대립과 전쟁이라는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였고 전쟁 후에는 분단과 냉전구도가 지속되었는데, 다른 한편에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3년 한국전쟁 종전까지 8년의 시기는 대량 이주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남북으로 150만여 명의 월남과 월북 이동이 일어났고, 전쟁 시기의 월남민들은 피난민으로서 남한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남한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사라졌으나 최소한 그들에게 분단과 통일은 관념이 아니라 살을 찢는 고통이었으며, 남은 이들에게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과제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월남민이나 월남민 정착촌에 관한

연구 자체가 생각보다 적는데 아마도 이들은 기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향유하는 집단이 아니고 분단의 상징으로서 ‘남북이산가족 찾기’ 운동 등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피난민’, ‘난민’, ‘월남민’ 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전략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런 계기는 정착촌에서 나와 도시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남한 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 직후 월남민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상당수를 차지했고 월남민 정착촌은 지역별로 무수히 존재했으며 현재까지도 사회 곳곳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월남피난민의 정착촌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속초 아바이마을, 김제 용지농원, 풍기읍 정감록촌, 서울 용산 해방촌, 인천 황해도민 정착촌, 부산 지역 정착촌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sup>1</sup> 기존 연구에서 크게 주목한 부분은 정착촌이 지니는 지역적 특성, 정체성, 경제활동과 새로운 문화 형성 등이었다. 이상의 월남민 정착촌 연구 성과와 비교하면 수원 지역의 월남민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수원에 정착한 월남민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하면 더욱 특이한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수원 지역 월남민 연구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 2) 한국전쟁과 수원<sup>2</sup>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은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하였다. 그날 새벽 서울의 육군본부가 수원 농업시험장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개전 초 국군 작전지휘부가 일시적으로 수원에 위치하게 되었다. 수원의 육군본부는 유수폭 300~1,200m, 수심 3m에 달하는 한강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한강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7월 4일 인민군이 수원에 진입하기까지 수원은 전쟁 초기 국군과 미군의 작전중심기지 역할을 하였다.

7월 4일 새벽 인민군은 한강 남안(南岸)에서 남으로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105 전차사단 소속 전차를 앞세운 인민군 4사단은 안양에 진지를 구축한 국군 7사단을 돌



전쟁 중에 파괴된 수원비행장(수원박물관 소장)



전쟁 중의 팔달문 주변(1951년, 수원박물관 소장)

파하고 경부국도를 따라 계속 남하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군은 공병을 투입하여 수원 북방 지리대고개에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나, 이들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원 동북방 풍덕천의 1사단 작전구역에도 인민군이 출현하였다. 초기에는 1사단 12·13연대가 자동화기로 일시 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하였으나, 병력과 화력의 열세로 이들을 끝내 저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7월 4일 오후 수원 북쪽 근교에 인민군 전차가 출현하자, 국군 1사단은 후퇴를 시작하였다. 용인 부근의 8연대도 오산으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9월 21일 유엔군이 수원을 탈환할 때까지 2개월 17일간 수원은 인민군의 점령에 들어갔다.

인민군의 남진은 계속되었고, 개전 50여 일이 경과한 8월 15일경에 인민군은 마산-왜관-포항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제 낙동강을 경계로 유엔과 인민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때 유엔군이 인민군 후방 깊숙한 곳에 기동 타격을 가하였는데,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그것이다. 이로써 전세는 역전되고 인민군은 패퇴하기 시작하였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은 서울을 향하여 진격하게 하고, 미 보병 7사단은 수원을 향하여 남진토록 하였다. 미 7사단 32연대는 9월 21일에 안양 동북쪽 300고지와 시흥 동쪽 111고지를 장악한 데 이어 오후 2시에는 안양 시내에 진입하였다.

미 7사단은 수원비행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9월 21일 오후 4시에 사단 수색중대와 1개 전차소대로 구성된 장갑정찰대를 구성, 안양을 출발하여 수원을 향하도록 하였다. 장갑정찰대가 수원에 들어선 것은 오후 6시였다. 수원이 인민군에 점령된 지 2개월 17일 만인 9월 21일 유엔군이 수원에 진입한 것이다. 장갑정찰대가 수원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이들을 엄호하기 위한 미 해군기의 수원 폭격이 실시되었다. 이때 수원성 동문(東門)이 부서졌고, 나무 부스러기가 길을 메우다시피 하였다.

유엔군이 수원에 진입할 때 인민군과의 시가전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장갑정찰대가 수원 시가전에서 포로로 잡은 인민군의 수는 37명이었다. 그리고 장갑정찰대에 이어 투입된 7사단 전투공병중대가 수원 시내에 진입하면서 인민군 장교 2명을 발견하고 1명은 사살하고, 1명은 생포하였다. 수원 시가전이 이처럼 소규모로 이루어진



팔달문 앞의 미군 제7사단 병사들(1950년 9월 22일, 수원박물관 소장)

것은 인민군 주력이 수원 시내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인민군은 수원과 오산 사이에 2,000~3,000여 명이, 수원과 한강 사이에 1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전쟁 당시 수원을 포함한 경기도는 다른 도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것은 1951년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격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수원시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한편 전쟁 상황에서 수원에 피난민이 대량 발생한 시기는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이후로 유엔군이 후퇴할 때 정부에서 민간인도 함께 소개시켰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피난민의 통로 내지 집결지가 되었고, 6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수원을 비롯하여 화성·안성·평택 등지에 소개되었다. 또한 1951년 6월 4일 유엔군의 지시로 강원도 철원·금화·화천지구와 경기도 한강 이북에 잔류하고 있던 피난민들이 경기도로 소개되었고,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지로 피난 갔던 피난민들이 원거주지로 돌아가기 위해 개별적으로 북상하였다가 군 작전상의 이유로 북귀가 저지되어 경기도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았다.

### 3) 연구방법과 구술대상

이 글은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월남피난민들의 구술(Oral History)을 통해 이들의 월남 이유와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 정착지로 수원을 택한 이유, 수원의 피난민 정착촌 상황, 생활경험 등을 통해 월남민들의 수원 정착 과정과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윌택립은 나단 바첼(Nathan Wachtel)의 말을 빌려 구술사의 목적은 “밑으로부터의 대항역사를 쓰는 것이고 소수민족들, 여자 또는 노동자들인 피정복자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문헌자료는 가장 객관적이거나 과학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경험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sup>3</sup>

그래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구술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포착하기 위해 구술사는 적절한 대안적 연구방법이다. 구술사를 통해 한 개인의 기억을 연구하는 것이 단지 그 개인의 개별적 기억에 갇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억은 사회·역사적 맥락 안에서 구성된 경험으로서의 기억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표적 구술사가인 잔 반시나(JAN Vansina)는 “자료가 주관적일수록 더욱더 과거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했다.<sup>4</sup> 기억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구술사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알박스는 뒤르캬의 영향을 받아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집합기억은 한 개인의 기억이지만 사회적 그물망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기억을 연구할 때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준 변수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을 위해 연구자는 2012년 『수원시사』 편찬에 참여하면서 몇 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총 6명의 사람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과의 만남은 수원시사편찬위원회의 소개로 이루어졌는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측에서 사전에 구술자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허락받으면 그다음에 연구자가 인터뷰 시간을 조정하여 만나는 방법으로 구술조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만난 6명 중 유옥선을 제외한 5명은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구술한 경험이 없었다. 구술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여성 외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나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후세대에게 전승한다는 인터뷰 자체의 취지에 공감하여 별 어려움 없이 인터뷰는 진행되었다.

한편 타고난 이야기꾼이거나 과거의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여 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왔던 구술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구성하여 연구자가 질문할 틈도 없이 물 흘러가듯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인터뷰 방식이 낯설거나 자신의 경험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면서 좀처럼 기억을 꺼내는 것을 어려워했던 구술자도 있었다. 인터뷰 시간은 정하지 않고 구술자가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듣고자 했고, 인터뷰 장소는 대체로 집, 찻집, 사무실 등이었다. 구술에 참여했던 구술자들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구술자 인적 사항

이름	구술일	출생연도 (성별)	출생지, 월남이전 거주지	월남시기	최초의 정착지	수원이주시기	수원에서의 직업
최우섭	2012. 4.11.	1929(남)	경기도 개성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해병헌병대 입문	제대 후 1956년	개인사업
박순옥	2012. 4.11.	1931(여)	강원도 철원	1951년 여름경	경북 김천 피난민촌	1952년 여름경	전업주부 (남편 한약방 운영)

이름	구술일	출생연도 (성별)	출생지, 월남이전 거주지	월남시기	최초의 정착지	수원이주시기	수원에서의 직업
유옥선	2012. 5. 5.	1929(여)	강원도 통천 (출생지) 강원도 철원 (시집)	1951년 6월	전북 전주 피난민촌	1951년 11월	장사
김봉석	2012. 5.19.	1933(남)	강원도 철원	1950년 10월	군 입대 및 노무자	1953년경	세탁소
전계준	2012. 5.19.	1934(남)	평안북도 선천	1950년	인민군장집- 포로수용소	1960년대	영동시장 장사
최형수	2012. 9.11.	1934(남)	황해도 벽성	1951년 10월	연평도-유격 전우회	1952년 가을	자영업

한편 문헌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 연구의 목적인 수원 지역 월남민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술자들을 만나 개인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혀내야 했으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분치 않았다. 연구 초기에는 북한의 여러 지역 출신의 월남민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우연히도 철원과 개성 지역 출신 월남민만을 만나게 되었다. 물론 지리적으로 38선 이북의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출신 월남민이 수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었으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애초의 계획과 달라져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평안북도 출신의 영동시장 상인과 황해도 출신 월남민을 만난 것은 수원시사편찬위원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한 결과였고 본 연구의 외연이 조금이나마 확대될 수 있었다. 한편 이 글에서는 부족한 점을 메우고자 연구자가 만난 구술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원문화원과 수원박물관에서 발간한 자료 중 이 글의 목적과 관련된 인터뷰<sup>5</sup>를 차용하였다.

## 2. 월남민의 이주 과정

### 1) 북한 주민으로서의 경험

월남이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는 주로 한국전쟁 전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월남을 했을까? 기관이나 추정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월남민 규모는 <표 2>와 같다.

〈표 2〉 1945~1949년 월남민 규모<sup>6</sup>

(단위 : 명)

구분	등록된 수		1949년 센서스	추정치		
	외무부	사회부		김철	권태환	이복5도청
총계	649,000	456,000	481,000	150,000	740,000	3,500,000

기존의 연구에서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월남 시기와 월남 동기에 관한 분석을 보면 1945년이나 1946년 초에는 귀향으로서의 월남 비중이, 1946년 3월 이후 몇 달은 북한식 ‘토지개혁’에 따른 월남의 비중이, 1947년 이후에는 식량난 등 경제난에 의한 월남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sup>7</sup>

한편 월남민들이 북한 주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월남의 성격이나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일제하 경험, 해방과 ‘토지개혁’에 대한 경험, 본인의 사회·정치적 활동 경험이 월남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네 가지는 각기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소위 ‘지주’들은 북한식 ‘토지개혁’ 당시 몰수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경험이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와 멀어지게 되어 우익성향의 사회단체 활동을 하였고, 전쟁이 발발하자 월남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연구자가 만난 대부분의 구술자들에게서 드러났다.

박순옥과 유옥선은 북한식 ‘토지개혁’으로 재산이 몰수되자 북한체제에 반감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고, 전계준의 경우에도 토지개혁으로 큰집의 재산이 몰수당하자 자연스럽게 집안사람들이 ‘민주당’ 활동을 하였고 큰집 친척들이 전쟁 전에 월남을 하게 되자 전계준도 전쟁 발발과 함께 월남하였다고 한다.

구술자 중 본인의 정치·사상적 이유에 따른 월남의 성격이 두드러진 사람은 최우섭과 김봉석이었다. 최우섭은 지주집안의 자녀로서 일제시기에 친일경력이 있으며 해방 후에는 경찰에 투신한 인물로서 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월남하였고, 김봉석은 우익 성격의 서북청년단 활동을 하던 형의 영향을 받아 대한청년단 활동을 하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월남을 목적으로 인민군에 자원 입대하였다가 월남하였다고 한다.



## 2) 한국전쟁 발발과 월남 과정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또 한 번 월남민의 대량 유입의 기회가 되었다. 한국전쟁 시기의 월남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관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전쟁기 월남민 이동 규모<sup>8</sup>

(단위 : 명)

사회부	1955년 센서스	권태환	강정구	이북5도청
618,721	449,929	650,000	558,000	1,643,000

연구자가 만난 구술자들의 직접적인 월남 동기와 과정은 전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였다. 앞서 말한 대로 최우섭은 일제시기 친일경력이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개성경찰로 활동하였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본능적으로 월남을 선택하였으며, 김봉석과 전계준은 인민군에 자원 입대하였다가 탈출을 감행하여 월남하였다. 38선 인근에 거주하였던 최형수는 전쟁이 나자 자연스레 피난을 나왔다가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경우였다. 철원 월남민인 유옥선과 박순옥은 1951년 여름 전쟁폭격의 와중에 미군의 피난민 철수정책에 따라 월남하였는데 유옥선은 직계가족만, 박순옥은 일가친척이 함께 월남하였다. 박순옥의 구술을 통해 철원에서의 집단 북한 탈출기를 살펴보자.

박순옥 : 피난 나올 적에 말도 못해. 며칠씩 굶어 가지고 피난 데리고 나오는데, 그놈의 열병은 그때 또 막 퍼져 가지고 앓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철원읍) 월하리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이면 미군 차 트럭이 몇 개씩 와 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뺐거든요. 이남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그날 못 타면, 이게 금화, 평강, 그쪽으로 전부 이동하거든. 미군 트럭이 와 가지고 한 트럭씩 하면 터져라 하고 먼저 기어 올라가서 나오려고 난리통이거든. 우리도 사흘인가 나흘 만에 차에 타서 나왔는데.

면담자 : 그때 트럭에 누구누구 탔어요? 가족분들 중에.

박순옥 : 우리 가족. 그때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 뭐 다 같이 탔죠.

면담자 : 그럼 그 트럭에는 마을 사람, 양지리 사람 다 같이 타고 왔어요?

박순옥 : 양지리 사람이 다가지고 아니라 월하리서 아주 집중으로 왔기 때문에 근동 사람들은 다 거기 와서 주둔을 해서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차를 하루 서너 번씩 두어 번씩 데리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면담자 : 그럼, 인술을 미군이 직접 했어요? 아니면 한국군이 했어요?

박순옥 : 한국 군인이 하고 미군은 태우면 데리고 나왔지요.

면담자 : 그런데 한국 군인이 왜 다 피난을 보냈나요?

박순옥 : 거기 빨갱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리로 피난을 시켰죠.

면담자 :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피난시켜서 내려왔네요?

박순옥 : 거기 있으면 빨갱이한테 붙잡히면 죽겠으니깐 미군 사람이 이남으로 데리고 나온 다 하나씩 죄다 철원을 월하리로 끌려 가지고 차만 오면 죄 타고 나오고 그랬죠.

월남 직후 남성과 여성의 경험은 극도로 대비되는데 남성들은 월남 이후 자원하거나 영장을 받고 군 입대를 하였다. 그중 최우섭은 정식으로 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고, 김봉석은 제1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경험이 있고, 전계준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이후 영장이 나와 입대하였다가 제대 조치되었고, 최형수도 월남 직후 잠깐 동안이지만 유격대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월남민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체화한 사람들이었고, 남한에 와서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반공사상을 증명해 줄 유일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중에서 월남한 후 곧바로 해병헌병대에 입대하여 약 7년간 군생활을 하였던 최우섭의 구술이 가장 특색이 있었다.

면담자 : 전쟁이 났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요?

최우섭 : 6월 25일 아침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 6·25가 터진 거야. 그쯤에 내가 어디 있었냐면 개성경찰 직할파출소에 있었어. 그러니까 개성경찰은 한 30분 만에 점령을 당한 거야. 그날 내가 정문에 보초를 4시부터 섰어. 그런데 5시면 교대가 되잖아. 5시에 교대를 해서 내부만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경찰서 후문 쪽에서 경적을 불어. 뽐뽐, 경적을 불면서 정문 입초를 불러.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 정문 입초가 “왜 그래.” 그러니까 경찰서 근처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숙직경찰들 다 깨라 이거야. 근데 벌써 인민군들이 포위한 거야. 그래 가지고서 대부분 다 맞아 죽은 거지. 난 숙직실로 뛰어들어서 다 떨어진 바지 입고서 하수도 녹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후 4시까지 있었던 거야. 새벽 3시 반 4시부터.

면담자 :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네요.

최우섭 : 그럼요. 구사일생을 몇 번을 거쳤는지 몰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서 아버지한테까지 저고리 갈아입고서는 개풍군으로 나와 가지고 새벽 1시에 이틀을 굶었는지 사흘





수원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피난민들(유로크레인 제공)

을 굶었는지 밥도 못 먹고 가만히 숲속에 숨어서 보니까 뚫단배가 오면 뭘 이만한 보따리를 주면은 배에 태우는데 그게 돈이야. 난 그냥 권총에다가 실탄만 가지고 있으니 돈도 없고 증명서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 거기서 야미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 한 보름 걸러 가지고.

면담자 : 야미배에는 몇 명이나 탔어요?

최우섭 : 한 300명 탔지.

면담자 : 그 300명이 대부분 경찰이었나요?

최우섭 : 경찰이 아니지. 다 민간인들. 돈을 이만큼씩 싸 쥐야지만 타. 그런데 나는 뭐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신분증도 없고 권총에다가 실탄 50발만 가지고 있었어. 만약 내가 붙잡혀 죽게 되면 죽어 버리고 나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말아야. 그렇게 제주도 가서 내가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해도 믿어 주지 않아. 신분증이 있어 뭐가 있어. 권총하고 실탄다발만 내놓으니. 그러니 도대체 검문하는 경찰들도 기가 막힐 일이지. 아무리 내가 경찰관이라도 우겨도, 그런데 보니까 해병대라는 걸 만든대. 그래서 해병대 지원해서 갔지. 나는 저기밖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해병 생활을 7년을 했어.

면담자 : 해병대 생활은 총 7년 했네요.

최우섭 : 응. 나는 해병대 헌병 창설자예요. 백 바가지. 이백 바가지를 거짓말 아니라 내가 만들다시피 했어. 헌병 창설자 백 바가지. 헌병. 지금도 강화에 가면 70대 이상한테 헌병대 최 대장 하면 다 알아 (웃음).

우봉재 : 6·25가 났으니까 말이야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전쟁에) 참가하게 됐지. (아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이었어. 아무래도 이북에서 여러 가지 확대받고 내려와서 빨갱이 잡는 데는 선봉에서 있었지.<sup>9</sup>

남성들과 달리 유옥선과 박순옥은 정부의 피난민정책에 따른 정착과 이주 과정을 겪었다. 한국전쟁 초기 정부의 피난민 대책은 피난민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자 1950년 7월 1일 발표된 「피난민 분산에 관한 통첩」이었다. 통첩에 따라 피난민수용소를 설치하였는데 피난민 증명서 소지자를 원칙으로 수용하되 '사상 온건 여부'를 항상 심사하게 하였고 1인 1일당 2홉(숟가락) 급식하게 하였다.<sup>10</sup> 또한 1950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피난민 대책요강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피난민수용소는 첫째 각 가정에 분포하게 하고, 둘째 집단적 수용을 하는 경우 매 수용소의 정

원은 최하 1만 명 최고 2만 명으로, 수용소의 시설에는 사회부 출장소·보급소·진료소·영업관 주재소·교육계몽반을 두게 하였다. 피난민수용소는 중앙에 ‘중앙피난민 구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에 ‘지방피난민구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였다.<sup>11</sup> 정부는 1950년 9월 25일 법률 제146호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피난민의 수용이 귀속재산만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택, 여관, 요정, 기타 수용소에 대하여도 피난민의 수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2</sup> 1951년 발표된 각 도별 피난민과 수용소의 수는 <표 4>와 같다.<sup>13</sup>

<표 4> 도별 이재민 구호 상황

(1951년 5월 31일, 단위: 명, 개소)

지역	피난민수	복귀민수	구호자수	수용소수
서울		196,842		
경기	1,661,312	1,330,079	2,586,265	
강원	987,160		687,160	80
충북	270,051	408,886	465,532	118
충남	802,572		356,753	126
전북	414,103		414,103	43
전남	577,737		531,394	169
경북	575,292		648,941	101
경남	521,414		285,336	741
제주	148,435		148,794	99
합계	5,758,435	1,935,807	6,124,278	1,477

정부의 피난민 구호정책에 따라 유옥선은 남편과 아들 2명과 함께 의정부에서 용산·수원·대전을 거쳐 1951년 6월 12일 전주에 있는 일제시기 제사공장을 개조한 수용소에서 약 6개월 동안, 박순옥은 시부모 등 일가족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월남하여 경북 김천에 있는 도립병원의 수용소에서 1년 동안 기거하였다. 유옥선의 구술을 통해 월남민들이 피난민수용소에 입소하게 된 과정과 그곳 생활을 알 수 있다.

유옥선 : 그래서 (트럭을) 타고선 어디로 갔냐 하면 의정부로 왔어. 의정부에 왔는데 껌둥이들이 내려놓고는 기차 도로코 짐 싣는 차 있잖아, 거기로 들어가라 그래. 아, 거기로 들

어렸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짐짝 싯듯이 실어 가지고는 그 차가 (화물기차) 의정부역에서 서니, 너덧 시간 있다가 떠났는데 사흘 되던 날, 간다는 게 전주역에 가서 차가 (멈췄어). 그때가 한 네 시나 됐나 봐. 거기서 내려왔는데, 기차서 내리는 사람 염병에 걸려서 죽어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소독을 하는데, 냄새가 나니까 애도 그냥 포대기로 싸고 뒤집어쓰고 비켜서 나왔어.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가자.” 그러더라고. “어디로 가요.” 수용소로 가재. “수용소가 어디예요?” 오라는 데로 따라가면 된대.

면담자 : 수용소?

유옥선 : 수용소라고 그래. 가서 수용하고 있을 데. 그래서 그냥 그 애를 업고 짐 보따리를 들고 걸어서, 여기서 아마 걸어가기가 경계선 방죽 밑만큼 걸어가나 봐. 전주역에서 내려서 가는데 그곳이 옛날 왜정 때 왜놈들이 고추실 뽑는 제사공장이야. 그 공장에다가 기계를 바깥으로 내놓고선, 마당에 풀이 내 키로 한 키씩 자란 풀을 낮으로 잘라서 길만 내고, 가마짜를 뜯어 가지고선 거기다가 안에다 짝 깔아 놔더라고.

면담자 : 가마떼기 같은 걸 깔아 놓은 거예요?

유옥선 : 가마떼길 뜯어 가지고 다 깔아 놔어. 짝. 사람이 한 300명 들어가는 그런 홀이 네 개인지 다섯 개지 그랬어. 제사공장 그 실 뽑는 데니까 공장이 크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휴 모르겠다, 가마짜 깔아 놓은 데 가서 죽으나 사나 여기서 죽자 그러고 애를 갖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마짜 깔아 놓은 데 가서 드러누웠어. 근데 한참 있으니까, 밥을 이만큼씩 뭉쳤더라고. 뭉치 밥을. 전라도 전주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몇백 명 들어오니까 가마솔 큰 거를 몇 개를 걸고 그 안에 들어와서 밥을 해 가지고 주먹밥을 한 그릇씩 담아서 뭉쳐 가지고 거기다가 다강(단무지)을 쪽쪽 쪼개서 몇 개씩 해서 그냥 앉았는데, 여자들이 갖다가 나눠 주고 가더라고. 밥은 거기서 먹었으니까 무슨 밥을 먹어. 에휴 모른다 그러고 요만한 그릇에 담아서 덮어 놓고 내일 아침에 먹지 그랬더니. 그러고선 잤어. 끌어 떨어져서 자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밥을 또 그렇게 가져왔더라고. 그러니까 삼시, 전라도 전주 사람들이 삼시 해 줬어.

면담자 :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밥을 해 줘요? 그 공장 직원들이예요?

유옥선 : 이를테면 봉사지. 봉사활동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지사가 불쌍한 피난민들이 이복에서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거뉘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도지사가 우리 거기 있을 적에 저기하다가 차 안에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 피난민들이 얼마나 슬퍼했는데.

면담자 : 근데 그건 전라북도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렇게.

유옥선 : 나라에서 주는 건데, 여기 온 사람을 굶기지 않고 먹여야 한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나가서 밥을 해서 줘라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면담자 : 그러면 그 제사공장은 일하러 간 게 아니라 피난민수용소네요 그럼?

유옥선 : 그럼. 왜정 때 하던 건데, 비어 있는 거지, 공장이. 비어 있는 걸 그 기계를 바깥으로 내놓고선 거기를 뜯어서 가마짜을 쳤지. 그러니까 사람이 한 오륙백 명씩 거기 들어갔지. 이동 저동, 한 동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이백 명씩, 백오십 명씩 차지를 하고 들어갔지.

면담자 : 동은 몇 개나 있었어요?

유옥선 : 몰라, 그 한 네댓 개. 네 갠지 다섯 갠지 있더라고. 그때도 서울서 나온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 이북서 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서 나온 사람들도 거기들 다 들어갔어.

면담자 : 애초에 전주로 가게 된 건, 그 기차가 가는 대로 해서 다 무조건 전주에서 내린 거예요? 그전에 대전이나 수원에서 내린 사람 없었어요?

유옥선 : 도중에 어디서 내려. 내리라는 명령이 없는데 어디서 내려서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의정부역에서 기차 타고 용산 와서 하루 저녁, 수원 와서 하루 저녁 자고, 대전 가서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떠났으니까.

면담자 : 그러면 그 관리하던 사람은 한국 사람이예요, 미국이예요?

유옥선 :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겠지. 타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다 내려 놔라. 이 근처 내려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차를 탄 사람은 다 실어 놓고, 그다음에 기차로 못 떠나고 트럭으로 떠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떨어뜨려 놔다면 여기네, 광나루. 지금 거기가 성남이 됐지. 그 광나루에다 갖다 놓은 거야. 우리 큰집들은 자동차로 실어다가 거기다 갖다 봐서 광나루 와서 떨어졌어. 의정부 와서 우리 기차 탄 사람들은 전라도 전주, 무슨 어디로 다 분산시켜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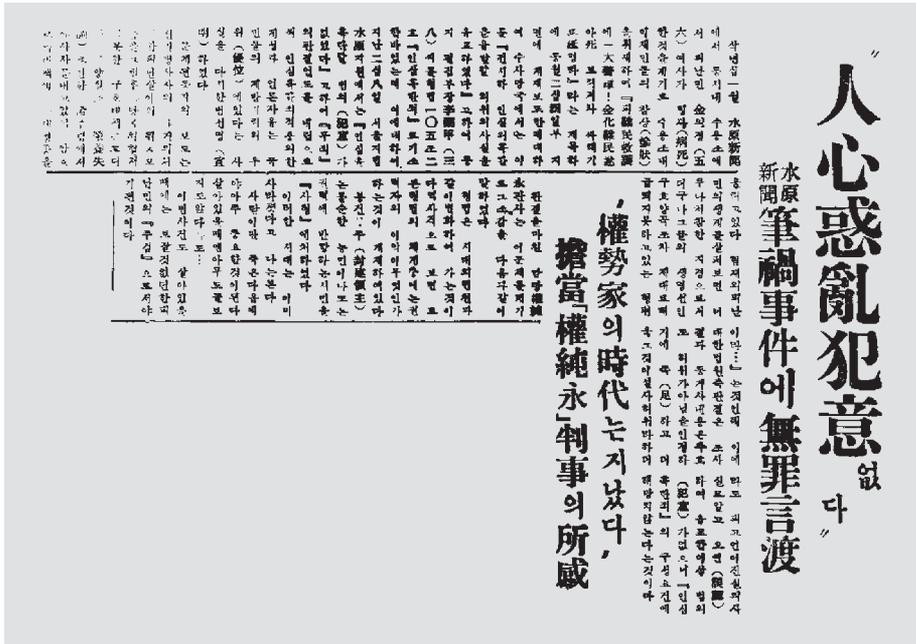
그러나 피난민수용소 생활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구호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수용되어 있어서 질병이 만연하였다. 피난민의 상당수가 폐결핵과 질병으로 신음하였는데 부산의 적기수용소에 수용 중인 피난민의 50%가 폐결핵환자로 밝혀지기도 하였고,<sup>14</sup> 전주시 수용소에는 약 5개월 동안 사망자가 492명, 병마로 신음하는 자가 280여 명이라고 발표하였다.<sup>15</sup> 이런 수용소의 고통은 구술자의 구술에서도 생생히 드러난다. 유옥선은 수용소에서 첫아들을 폐렴으로 잃었는데 그 과정을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박순옥도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종사촌 시동생의 죽음을 경험하였다. 수원의 수용소 상황도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52년 11월 수원의 한 수용소에서 피난민 여성이 병사한 사건을 계기로 피난민







수원역의 피난민들(1951년 1월 5일, 수원박물관 소장)



수원피난민수용소의 참상을 알렸던 '수원신문의 필화사건'('동아일보', 1953년 5월 6일)

들에 대한 열악한 구호대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sup>16</sup>

### 3. 피난민정책과 정착촌 생활

#### 1) 수원의 피난민정책과 수원 정착 계기

경기도의 경우 1950년 10월 경기도청 내에 '경기도구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51년 2월 18일 '경기도구호대'를 편성하였다. 2월 24일 구호대를 수원으로 이동시켜 안성·평택·화성·용인·수원·광주에 집결해 있는 피난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sup>17</sup> 1951년 3월 20일 수원시청도 수원으로 복귀하여 난민구호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는데 피난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거처가 될 수 있는 난민수용소를 설치하기 시

작하였다. 1952년 11월 말까지 수원시에는 모두 12개소의 수용소가 설치되어 3만 1,516여 명의 피난민을 수용하였다.<sup>18</sup> 피난민수용소에는 남녀노약자 및 부녀자, 무의탁자 등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피난민이 우선 수용되었고, 이들뿐만 아니라 무주택 피난민도 수용되었다. 이들 피난민수용소는 경기도청에서 운영하였으며, 주로 기존의 학교·극장·요리점·공장과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sup>19</sup> 전쟁 직후 수원의 피난민을 포함한 구호대상자는 <표 5>와 같다.

<표 5> 1951~1955년간 수원시 구호대상자 현황<sup>20</sup>

(단위 : 세대, 명)

연도	원주민인 호구		전재민 호구		피난민 호구		합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1951	1,240	6,531	1,082	6,059	11,842	60,902	14,164	73,492
1952	1,784	8,283	895	4,412	12,673	64,764	15,352	77,459
1953	1,849	9,028	839	4,109	13,390	73,636	16,078	86,773
1954	1,847	9,023	838	4,106	12,336	67,465	15,021	80,594
1955	1,803	9,020	832	4,081	11,497	63,264	14,132	76,365

수원시 피난민의 수는 1953년까지 증가하다가 1954년부터는 줄어들고 있다. 1954년 11월 17일 그동안 군정이 관할하던 연천군과 포천군 일부 지역이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이곳 주민의 복귀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sup>21</sup> 그러나 복귀가 불가능한 월남피난민이 많았기 때문에 1955년에도 6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수원에 잔류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라도나 경상도로 피난했던 미수복지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갈 욕심으로 계속 북상하였는데, 특히 수원이나 광주로의 이동이 많았기 때문이다.<sup>22</sup>

연구자가 만난 월남민들도 고향인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근접성과 먼저 수원에 정착한 가족·친척이 있어 수원에 정착하게 된 경우가 다수였다. 박순옥·최우섭·전계준·최형수는 먼저 수원에 정착한 가족과 친척의 영향으로 수원에 정착하였다고 하고, 유옥선은 고향과의 지리적 근접성, 김봉석은 우연한 기회에 수원에 오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그런데 대체로 수원에 피난민들이 많다는 소식이 풍문으로 전해지면서 수원을 북한에 가기 위한 중간지점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에 정착하게 된 직접적인 사연은 다음과 같다.





1952년 평달문 일대(수원박물관 소장) 사진 중앙의 좌우로 길게 보이는 수원전면에 피난민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박순옥 : 우리 있던 곳(김천수용소)에서 우리 뒷집 살던 사람이 먼저 올라왔어요, 수원으로. 수원에 피난민이 많다 그래서. (수용소에 가족을) 찾으러 사람들이 오면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피난민이 어디 있다 그리고 어디가 많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네 친척만 데리고 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수원에 피난민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 집이 수원에 먼저 왔는데, 수원에 오니까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면담자 : 김천에 계실 때 들은 이야기예요?

박순옥 : 김천에서는 피난민이 수원에 많고 광나루 많고 서울에 많다. 그것만 들었지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여기 있다는 건 못 들었죠. 그런데 우리 뒷집 사람이 수원에 피난민이 많다니까 이리 온다고 해서 먼저 왔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우리가 김천에 있다는 걸 알았어.

면담자 : 왜 수원에 오신 거예요?

최우섭 : 수원에 개성시민연락소가 있어 가지고.

면담자 : 수원에도 개성시민연락소가 있었나요?

최우섭 : 응. 팔달사에. 팔달사에 절이 있지. 개성시민연락소가 있었어.

면담자 : 연락소가 인연이 돼서 수원에 정착을 하게 된 거네요. 그곳은 누구 소개로 가시게 된 거예요?

최우섭 :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피난 나와서.

면담자 : 아 그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수원에 계셨어요?

최우섭 : 응.

면담자 :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왜 수원에 자리를 잡으신 건가요? 서울에 안 계시고?

최우섭 : 피난 나와서 수원에 개성시민연락소가 있으니까.

면담자 :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여기에 연고가 있거나 친척이 있어서 온 게 아니네요. 그냥 수원에 개성시민연락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자리 잡고 살고 계신 거예요?

최우섭 : 응. 그러자 나는 나대로 헌병생활을 할 때 수원에 개성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 그래서 수원에 휴가를 나왔어. 우리 식구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팔달사 개성시민연락소에 가서 명부를 들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명부를 보고 찾게 된 거지.

면담자 : 수원에 개성시민연락소가 있다는 걸 알고 와서 찾으셨네요.

면담자 : 처음에 그러면, 수원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유옥선 : 수원, 거기서 여기 올라온 건 가깝게 살면 이복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앵겨들어가야지, 전주 떨어져서 있음 어떡하느냐 그래 가지고. 아직 막혀 가지고 못 간 거지.

면담자 : 조금이라도 고향에 가까운 데 있으려고 수원을 택하신 거예요?

유옥선 : 그럼.

면담자 : 여기 수원이 올라가는 길목이니까 여기서 월남민들이 많이 사셨나 봐요, 수원에?

유옥선 : 많이 왔어. 여기 철원 사람들 많이 왔어. 광나루 지금 성남 그쪽으로다가. 이 동네도 많이 들어왔었어.

## 2) 수원의 월남민 정착촌

한편 전황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피난민촌’이라 불리는 월남민 정착촌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임시 막사를 지어 월남민끼리 살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월남피난민과 남한 내 피난민이라 할지라도 복귀가 어려운 피난민들이 오랫동안 피난생활을 할 것이므로 주택알선과 직업소개 등 현 거주지에서 정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sup>23</sup>

수원에 12개의 수용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연구자가 만난 월남민들은 수용소와 정착촌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이들의 주거지가 수용소였는지 정착촌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구술을 통해 피난민수용소 혹은 피난민촌으로 추정되는 곳은 영화동에 있는 북중학교와 연무동에 있는 창용초등학교, 그리고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성곽 주변에 ‘하꼬방’이라고 불리던 판잣집을 지어 판자촌을 이루어 살다가 점차 성곽 내로 이동하여 수원천 인근까지 주거지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원시에서 재건의 일환으로<sup>24</sup> 이들을 한데 모았는데 ‘연무동 공설운동장터’와 ‘세류동 일대’가 대표적인 정착촌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 수원시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판자촌 정비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런데 10여 년을 넘게 살아온 판자촌 피난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그들이 살게끔 하였다. 그렇게 해서 1972년 수원 1호 아파트인 서문아파트가 탄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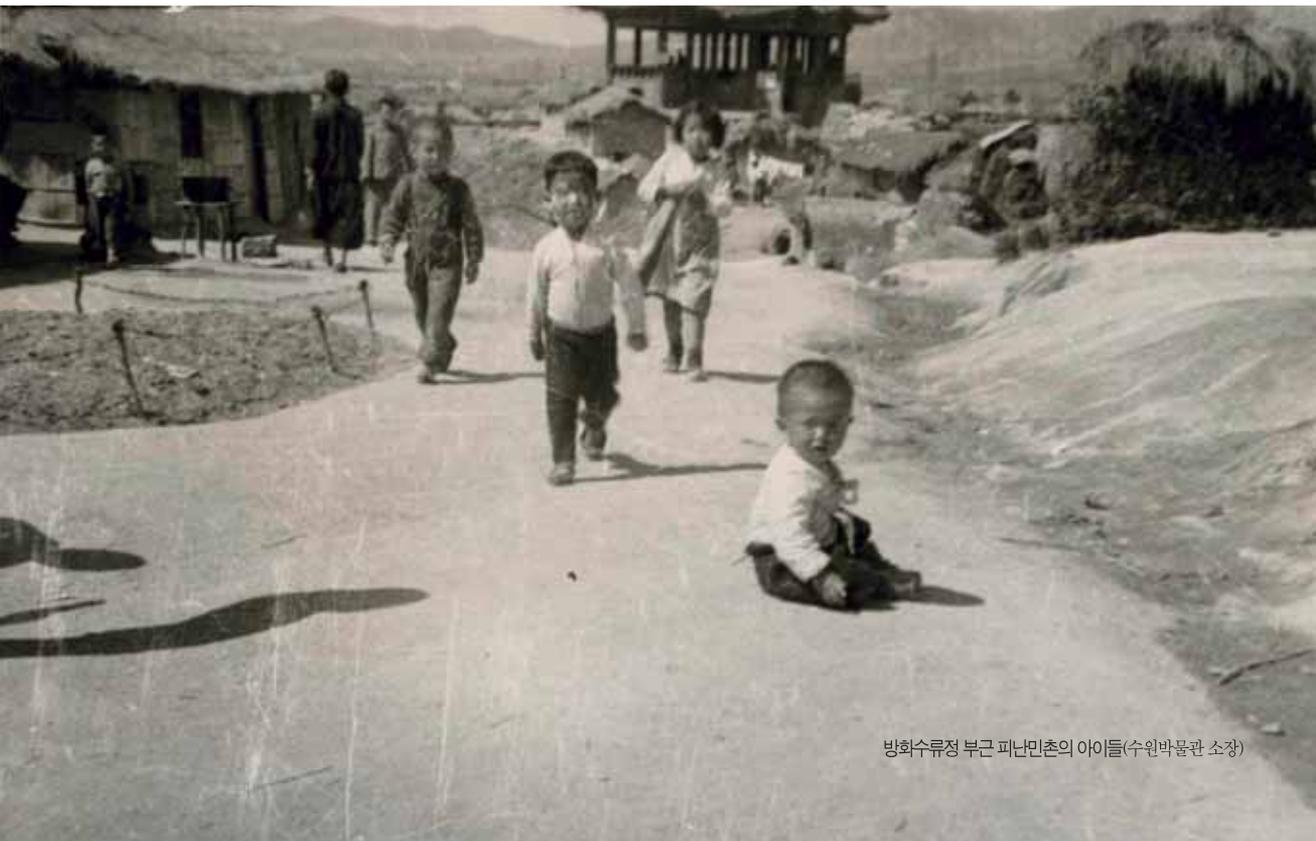
1960년대 수원천 판자촌 풍경(수원화성박물관 소장)

### (1) 수원 화성 인근

수원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바로 수원 화성 인근이다. 수원 화성은 수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했고, 국유지였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세를 얻거나 판잣집을 짓는 것보다는 정착에 이점이 많았으며, 수원시에서도 피난민들이 일명 ‘하꼬방촌’을 짓는 것에 대해 묵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강원도 출신의 부녀자피난민들을 위해 별도의 피난민정착촌을 알선한 곳도 수원 화성 인근이었다. 구술자들의 말을 빌리면 전쟁 직후부터 수원 화성 외부에서부터 불규칙하게 ‘하꼬방촌’이 들어섰다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수원 화성 내부의 수원천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규칙하게 즐비하였던 피난민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현대식 구조를 갖춘 집들로 변모해 갔다. 김



방화수류정 부근의 피난민촌(수원박물관 소장)



방화수류정 부근 피난민촌의 아이들(수원박물관 소장)



판자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화서동의 서문아파트(1972년)

봉석, 유옥선, 박순옥의 구술에서 수원 화성 인근에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는지 추정할 수 있다.

면담자 : 피난민촌은 어디 어디 있어요?

김봉석 : 피난민은 거기 남수동 옆에 성 있어 성. 지금도 성 있잖아요, 남수동 옆에 성이 이렇게 북문까지, 동문까지 성이 있잖아요? 거기다 또 이제 연무동은 성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동문까지 성이 이렇게, 팔달산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성 밖 주변으로, 넘어 또 안으로 피난민들이 거기다 하꼬방들을 쪽 지은 거예요. 그게 국가 땅이니까.

면담자 : 피난민은 정부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피난민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김봉석 : 그냥 그건 지멋대로 갖다 지은 거예요. 하나가 지으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 가지고, 거기는 국가 땅이니까, 거기다 한 세 평, 네 평, 다섯 평, 방 두 개짜리, 하나짜리 이렇게 해서 거기서 토담집 비슷하게 그냥 해서 거기다. 그게 자꾸 지으니까 쪽쪽쪽

해 가지고 지금 시장서부터, 영동시장 거기서부터 저 북문까지 전부 하꼬방이 있었던, 성 넘어 전부 난민들이 거기다가 한 거예요.

면담자 : 영동시장 쪽부터 쪽 북문까지 쪽 하꼬방 집이, 피난민촌이 있었어요?

김봉석 : 지금 미나리깡시장이라고 알죠? 지금 영동시장 다리 건너. 다리 건너 시장이 미나리깡시장이에요. 그 성 옆으로 쪽 동문까지 난민들이 거기다가.

면담자 : 그럼 그때 선생님, 대략 하꼬방 수가 몇 가구나 됐어요?

김봉석 : 많지. 성 밑에만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밑창까지도. 동문에 가면 동문 그 바깥에 성에서 100m, 150m 떨어진 하꼬방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난민들이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거기다가 짓게끔 허락을 한 거예요. 동문 바깥에 저기 지은 건 시(市)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 땅은. 거기는 질서 있게 집을 지었거든? 쪽쪽 나열 되게 지어 가지고. 성 바깥에 지은 건. 옆에 지은 건 무질서하게 막 지은 거고. 근데 이게 성이라 하면 성 옆에다, 성 밑창에다 지은 거 있고. 성 옆에 빼뺄게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성 바로 옆에. 그럼 그 옆에 길 밑창에 또 지은 거예요.

면담자 :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김봉석 : 응. 양쪽에 하꼬방을 지은 거요. 그것도 국가 땅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멋대로 모두 짓고. 그러다가 돈 좀 생기면 하꼬방을 헐치고 제대로 기와집을 짓고, 슬래브 집을 짓고 자꾸만 자꾸만 해가 갈수록 변해진 거죠. 근데 그거 거기만 지은 게 아니요. 그거 하꼬방이 여기, 지금 장안공원에도 하꼬방이 여러 채가 있었다고. 그리고 서문아파트 거기에 여러 채가 있었다고요.

면담자 : 서문아파트 있는 데요?

김봉석 : 응, 자리가. 근데 시에서 하꼬방을 없애려니까 뭐 집을 지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달산 밑창에 서문아파트, 서문이지? 서문 바로 옆에 산비탈 밀어젓히고 거기다가 하꼬방을 지은 거야. 5층짜리 네 동을 지은 거예요. 네 동. 네 동을 지어서 거기다가 하꼬방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글로 들어가라.

유옥선 : 저기 동문 올라가는 데 과부촌이라고 있어. 과부촌이 왜 과부촌이라면 남편들 죽고 과부들만 살잖아. 그러니까 그 과부들 집 지어 준다고 시에서 지어 준 거야. 근데 과부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서방 있는 년들이 다 들어갔어.(웃음)

면담자 : 할머니, 동문 올라가는 데 과부촌이 있었다고요?

유옥선 : 동문 올라가는 데, 지금도 거기 과부촌 집들이 있어.

면담자 : 거기가 월남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방화수류정 근처 피난민촌(수원박물관 소장)



서북공심돈 옆의 피난민 움집(수원박물관 소장)

유옥선 : 철원서 피난 나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철원서 피난 나온 사람들만, 여기 철원연락소를 만들어 가지고 연락소에서 강원도 사람, 철원 사람만 과부된 사람 거기 집을 지어 준다 그래서 거기 수십 채 지었어.<sup>25</sup> 일제 집으로다가.

박순옥 : 여기 남수동 비탈에 거기도 많이들 살았어요.

면담자 : 남수동에도?

박순옥 : 남수동 그 비탈 있잖아요. 거기가 전부 피난민촌이 있더랬어요.

신휘웅 : 처음에는 성곽 가까운 곳부터 집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가 196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피난민촌이 형성되면서 수원천 가까운 곳으로도 집들이 들어섰다. 그래서 성벽 가까운 쪽은 구 사택이라고 하고, 개천 가까이로는 신 사택이라고 불렀다. 처음부터 계획 없이 조성된 마을이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에는 구획정리를 하지 않았다. 피난민촌의 하꼬방은 1970년대에 개량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무허가라도 집을 지어서 살 수 있게 해 줬는데, 그때 집을 짓고 산 사람들은 지금도 국유지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1980년대에는 3층, 4층 정도 되는 연립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꼬방 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sup>26</sup>

## (2) 연무동 공설운동장터

연무동에 있던 공설운동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수원 시민들의 체육놀이시설로 이용되었으나 넓은 공간적 이점 때문에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만들어 정착하자 공설운동장이 사실상 없어졌다. 그 후 팔달산 뒤쪽 현 도청 자리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었다가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유치하면서 도청 부지가 없어 공설운동장에 경기도청사를 짓게 되고 북문 밖 포도밭에 공설운동장을 급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구술자들의 말을 빌리면 연무동 공설운동장터<sup>27</sup>는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월남민들을 위해 정착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중의 한 곳이 바로 이 연무동 공설운동장터였는데, 주로 강원도 철원 출신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순옥 : 북중학교 있다가, 그 옆에다가 저 아버지가 움막을 지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연무동 피난민촌(1960년대, 수원박물관 소장)

거기서 살다가 연무동 피난민 사택에 와서 또 있었어요.

면담자 : 그 북중학교에는 판잣집, 움막촌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박순옥 : 그 무슨 숫자를 알아요? 많았어. 그 바닥에 아주 쪽 있더라.

면담자 : 여기 연무동은요? 연무동도 많고?

박순옥 : 연무동에는 지금 운동장이 전부 피난민 사택이었어요.

면담자 : 여기는 그러면, 이쪽으로 가라고는 정부가 해 준 건가요, 피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건가요?

박순옥 : 정부에서. 수원시청에서.

면담자 : 피난민수용소라기보다는 그쪽에 많이 거주한다?

최형수 : 그런데 연무동에 철원민수용소라고 하는 데는 그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당시는 철원 사람들은 거기가 운동장이었어.

면담자 : 공설운동장요?

최형수 : 응. 거기다 하꼬방을 짓고 살게끔 그걸 허락을 해 줬어. 그래서 수용소가 된 거지. 집을 쪽 지어서 김가 주고 이가 주고 그런 건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정부에서 지어 준 건 아닐 거야. 그런데 자꾸 그걸 양성화시켜서 정부에서 나중에 허가도 해 주고 시에서 불하도 받고 해서 자기 소유가 됐지. 차차. 그래서 원 공설운동장은 거기 다음에 도청 자리야. 거기는 수용소 역할은 안 하고 운동장으로만 썼지.

김문식 : 방화수류정 옆의 연무동 193번지 일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설운동장이 있었다. 그 운동장이 지금의 경기도청 자리로 옮기고 나서는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재건의 일환으로 방 하나와 부엌 하나가 딸린 일자로 된 집을 지어 주고 각지의 피난민들을 이곳으로 모았다. 지금의 창용초등학교 일대가 감나무골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던 피난민들도 새로 생긴 피난민촌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sup>28</sup>

한편 수원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렸던 연무동 산21-1번지에 있는 통수바위마을은 유일하게 남아 있던 피난민촌이었으나, 현재는 재개발 과정에 있다.

### (3) 세류1동(구대한방직터)

세류1동의 옛 대한방직 공장 자리는 황해도 월남민의 대표적인 집단 정착촌이었다. 황해도 월남민인 최형수는 본인이 직접 세류동에 거주한 것은 아니었으나 세류동 정착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면담자 : 그럼 피난민들이 따로 모여서 사는 건 아니고?

최형수 : 모여서 살던 데는 세류초등학교 알죠? 세류초등학교 지나가면 세류1동이야. 거기 가 황해도 피난민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도 정부에서 수용소라고 해서 크게 지어 준 게 아니라 나무들 얻어 가지고 조그맣게 방을 지어서 깡통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덮은 사람도 있고 레이션 박스로 해서 지붕을 덮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걸로 짓고, 여기도 똑같아. 철원군민 수용소가 그랬어. 다 그냥 그걸 하꼬방이라고 그래. 전부 그렇게 짓고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하나 양성화시켜서 벽돌로도 집을 짓고 몇십 년 동안 산 거야. 그리고 또 황해도 피난민들은 거기하고 화성군에 저쪽 평동 오목내(오목천) 알아요?

면담자 : 아니요. 오목내?

최형수 : 고색동 알아요? 거기를 지나면 비행치라고 있어요. 거기도 황해도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면담자 : 화성군(화성시) 평동 오목내하고 고색동에 비행치가 같은 장소인가요? 다른 장소인가요?

최형수 : 다르지. 여기 봐. [지도를 봄] 가만 있어 봐. 수원역에서 나가면 고색동 아냐? 수원 비행장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집성촌이 있었어요.

면담자 : 그럼 이곳은 행정구역상 수원인가요?

최형수 : 아니지. 화성군이지.

면담자 : 그럼 평동 오목내네요?

최형수 : 그건 수원시고. 여기 있잖아. [지도에서 권선구 오목천동을 가리킴] 고색삼거리. 오목천까지 수원시일 거야. 그런데 수원비행장에서 고색동으로 나가는 길에 지금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밥도 해 먹고 거기서 하꼬방 지어 놓고 많이 살았어. 황해도 사람들이.





Shelters in Suwon Late 1952

세류동 피난민촌(수원박물관 소장)

면담자 : 여기가 황해도민 집성촌이 있었다는 곳이라는 거죠?

최형수 : 응.

면담자 : 그럼 황해도민 집성촌 중에서 가장 큰 곳은 세류1동인가요?

최형수 : 그건 확답을 못 하겠는데 여기 수원 시내에서는 세류1동이 제일 많았지.

면담자 : 황해도 분들이 왜 세류1동으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최형수 : 글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류동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다가 지금은 세류1동사무소가 옮겨졌지만 그때 세류1동사무소 뒤에가 그때 대한방직 알겠소? 대한방직 뒤쪽으로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됐지. 그 도로가 뚫렸는데 요번에 다 헐렸어. 재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다 이사를 가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해 주기가 참 그렇더라고.

김수만 : 세류1동은 옛날에 피난민촌이었다. 수원에 피난민촌이 두 군데 있었는데 여기 세류동 246번지하고 지금은 교동으로 속해 있는 예전 세류1동 42번지이다. 따라서 수원의 토박이보다는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산 곳이 세류1동이다.<sup>29</sup>

#### (4) 영화동 북중학교 일대

박순옥은 영화동에 있는 북중학교의 운동장에서도 전쟁 직후 월남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고 구술하였다.

면담자 : 어디 학교?

박순옥 : 지금 북중학교, 수원북중학교. 거기 건물이 폭격에 다 날라가고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비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고 전부 움막집을 만들었다고. 피난민들이. 광고 가서 나무 찍어다가, 그래 가지고선 거기다 움막집을 지어 놨는데.

면담자 : 많았겠네요, 수가?

박순옥 : 많았어요, 거기 아주 다닥다닥했죠.

면담자 : 거기서 사셨구나, 움막 지어 가지고?

박순옥 : 거기 지금은 전부 지어 가지고 학교를 다시 하지만 그 전에는 운동장 다 날아가 버리고 밑에 비틀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파고 움막 더러 짓고서는 거기 있는데, 저 아버지(남편)가 거기를 데리고 가더라고.

면담자 : 다 피난민들이네?

박순옥 : 전부 피난민들이었죠.

면담자 : 그러면 다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이네요?

박순옥 : 그렇죠. 평강, 금화, 철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앞서 구술에서 보듯이 월남민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활동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였고 자연스럽게 동향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집단 정착촌이 형성되었다.

## 4. 정착 이후 생활 경험과 네트워크 형성

### 1) 생활 경험

가족과 일터를 모두 잃은 월남민들에게 남은 생활은 녹록치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월남민들은 수원 정착 이후 출신지역별 연락소(예 : 철원연락

소, 개성연락소 등)에 인적사항을 신고하고, 이곳을 통해 정부에서 주는 구호미 등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이 연락소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을 통해 직업을 소개 받기도 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곳이었다.

면담자 : 읍막에서 살 때 쌀은 정부에서 주나요?

박순옥 : 여기 오면 신고를 했어요. 연락소에 가서. 피난민 연락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타 먹어야지 뭘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배급을 타다가 먹었어요. 처음에는.

면담자 : 배급은 어디서? 수원시청에서?

박순옥 : 연락소에서. 피난민 연락소에서. 시청에서 쫓기에 아마 거기서 나와서 여기서 배급을 쫓는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면담자 : 끝까지 계속 구호미 받아먹었어요?

박순옥 : 어찌겠어, 구호미 받아서 먹었지 처음엔. 어떻게 벌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고 약방 시작하면서 우리는 살아 나가지. 딴 사람보다는 고생 덜한 거야. 대신에 일을 많이 했죠.

면담자 : 철원연락소가 어디 있었어요?

유옥선 : 철원연락소가 서문 가는 데 어디 있었어. 철원연락소라고, 서문 안 넘어가고 서문 안에. 나도 구호물자 타러 갔더니, 요만한 사무실 있고, 구호물자 나오면 오라 그래 가지고.

면담자 : 그럼, 철원 사람들만 가면 구호물자 받는 거예요 거기서?

유옥선 : 어, 철원 사람만 가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야.

면담자 : 다 따로따로 있다고요.

유옥선 : 그때는 철원 사람이 제일 많았지. 피난민들이. 딴 데 사람들은, 철원서 딱 끊어져 가지고 그 뒤에 사람들은 다 이북으로 들어간 거야. 철원역전에서 그 근처에서 나온 사람만 나오고 그 근처 있던 사람은 다 이북으로 들어간 거라니까. 자기네 식구끼리도 서로 헤쳐진 거야 그냥. 글로 들어간 사람 글로 들어가고, 일로 간 사람 일로 가고.

면담자 : 첨에는 거기서 구호물품을 받아서 먹었네요?

유옥선 : 여기서 배급 쫓지.

면담자 : 배급은 얼마나 나왔어요?

유옥선 : 헌 옷가지. 한 식기에 몇 그램씩 주니까 며칠치, 보름치. 보리쌀 강낭콩 같은 거. 쌀은 안 주고 순 그런 잡곡으로 줬어. 갖다가 그냥 섞어서 우리가 해 먹고 그랬지 그냥.

면담자 : 고향 분들을 따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최우섭 : 고향 사람? 많이 만났지.

면담자 : 언제, 어디서요?

최우섭 : 팔달사. 거기가 개성시민연락소니까. 거기서 뭐 옆집 추녀 밑에 가마대기 깔고. (그때 사는 것은) 형편없었지 뭐.

면담자 : 몇 분이나 되었어요?

최우섭 : 한 200명. 그런데 여기저기 혼자 살더라도 낮만 되면 팔달사에 모이는 거야.

최형수 : 그때는 정부가 도와줄 돈이 없잖아.

면담자 : 선생님 정부 지원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최형수 : 지원은 못 받았지.

면담자 : 제가 듣기로는 철원연락소, 개성연락소 이런 데는 등록을 하면 배급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최형수 : 그것이 아까 집성촌 이야기했잖아. 황해도 피난민수용소에를 가면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넉넉히 제공을 받지 못하였고, UN에서 보낸 밀가루 포대 그거나 가끔 한 번씩 받고 탄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면담자 : 그럼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최형수 : 그렇지. 그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가지고 왔어요. 이북에서. 그 집에 있는 것 꾸러서 나왔지. 여기서 도와준 건 별로 없어. 나는 밀가루 포대 한 번 받아 본 건 있지만 거기서 받아 본 건 없어.

한편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할 수 없어 월남민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는데, 박순옥의 경우처럼 남편이 북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한약사 자격증을 인정받아 한약방을 운영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루거나 최우섭의 경우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최고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장사나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갔다. 이들은 피난민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설움도 많아 힘겨웠지만 특유의 억척스러움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룬 것으로 보이고, 이를





1950년대 수원택시주차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최우섭 : 말도 마. 엄청 고생을 했어. 내가 피난지가 여기인데 개성이 고향인데 뭐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제대를 하고 수원시내에 보신당 약방 그 아래가 택시주차장인데 거기에 스페아(spare) 운전수를 내가 한 거야. 그때 내가 영업용 운전수 출신이 아니라 헌병대 백차를 가지고 장난하다가 된 거야. 그래 가지고 스페아 운전수가 되어 가지고 며칠 운전수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2층에서 내려다보고 나 하는 동작을 자꾸 보더니 “여보게, 여보게” 불러. 그래서 올라갔더니 “자네 이력서를 한 번 써 와 봐.” 그래서 이력서를 써 가지고 갔더니 전직 경찰에, 전직 헌병이니 “자네 사고 처리할 줄 아나?” “예.” “자네 오늘부터 운전하지 마. 원무과장을 해라.” 그래서 운전대를 놓은 거야. 원무과장을 한 보름가량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장이 (보기에) 참 엄청나게 뜯뜯한 놈이거든. 저런 놈을 직원으로 써야겠다 해서 원무과장을 해라, 그래서 원무과장 보름 만에 상무가 된 거야. 상무 2년 하다가 전무를 10년간 했어.

면담자 : 완전히 초고속 승진이네요.

최우섭 : 그렇지. 그렇게 전무를 10년 하다가 수원 시내에 택시회사 사장을 15년을 했지.

면담자 : 아, 택시회사 사장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최우섭 : 그렇지. 시내에 금성상사, 금성공사, 수일여객에, 우일여객에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경기도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을 한 10년 했지. 수원 시내 신봉학교 옆에 빨간 큰 벽돌집이 있어. 그것이 경기도택시사업조합이거든.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거기 계단 올라가면 내 이름이 있어. 거기 건립비에 있어.

면담자 : 여기 나오신 분들은 경제활동, 돈 버는 것은 주로 뭘 하셨어요? 피난민들?

최형수 : 초창기에는 거의 다 장사했지. 장사도 여러 가지 했지. 잡화상도 하고

면담자 : 주로 시장에서?

최형수 : 시장에서도 하고 골목에서도 하고. 우리 황해도민들 중에도 시장에서 한 사람들이 꽤 있지. 그런데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장사 안 해.

면담자 : 60~70년대에 장사하셨으면 괜찮게 사신 거죠?

최형수 : [사무국장을 가리키며] 저 양반들도 다 장사하던 분들이여. 전부 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이 많으니까. 내일모레 팔십이잖아. 그러니까 손 놓은 지가 한참 됐지. 그때는 다 장사했지.

면담자 : 장사하셔서 그때 당시 다 잘사신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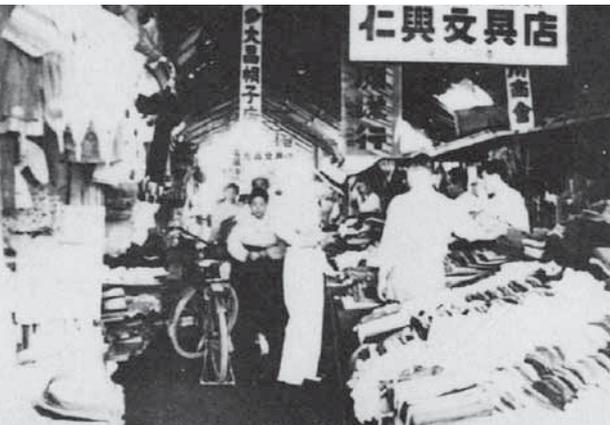
최형수 : 그렇지. 우리 이북 사람들이 나와서 장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북 사람들을 상당히 존경을 했어. 아주 생활력이 강하다고. 수원 사람보다 우리 이북 사람들이 잘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왜냐면 알몸뎅이로 나왔는데 자기가 움직여 뛰지 않으면 먹고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버는 수밖에. 그러니까 여기에 맡뵈기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태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수원 친구들 만나면 “이 새끼들아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영동시장변영회 만들어서 이렇게 해 줘지. 니들이 우리 아니면 수원이 이만큼 됐냐.”라고 내가 농담을 한다니까.

면담자 : 아, (웃음) 그럼 그런 말 들으면 다 수공을 하세요?

최형수 : 뭐 수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농담으로 하니까.

신희용 : 피난민들은 농토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날품팔이를 해서 생활을 꾸려 나갔다. 1970년을 전후로 해서 하루 품값은 3,000원 정도였다. 1970년대는 수원이 변화를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건축 공사장 일이 많았다.<sup>30</sup>





1950년대 영등시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1950년대 수원천 주변 난전(수원박물관 소장)

한편 월남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남민’, ‘피난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했다.

면담자 : 월남민이다 그래서 수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없었어요?

박순옥 : 아이고, 피난민들 뭐 상대라도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면담자 : 그래요? 무시해요?

박순옥 : 그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역전에서 피난민하고 사람하고 싸웠는데 사람이 이겼대. 피난민은 사람이 아니야? 피난민은 사람이 아니냐고. 첨에 그렇게 하더라고. 피난민하고 사람하고 싸웠는데 사람이 이겼다고. 그때구로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일들을 했는지, 지금은 피난민이 거꾸로 됐어.

면담자 : 수원에 들어와 살 때 수원 토박이들, 원주민들과 월남민들 사이에.

유옥선 : 우리가 여기 와 사는데 여기 뒤에 살던 할머니 있었어. 피난민하고 원주민하고 같은 거 봤느냐 그래. 그래서 그 할머니 욕 많이 먹었어, 우리한테.

면담자 : 좀 안 좋게 그랬구나.

유옥선 : 피난민은 뭐이고, 원주민은 뭐이야. 사람은 다 똑같은데. 원주민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느냐. 진짜 욕 많이 먹었어.

면담자 : 그럼 그 할머니가 유독 그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크게 그런 거 없었어요?

유옥선 : 피난민 소리 많이 들었지. 피난 온 피난민, 피난민이라고 이러지. 그 할머니가 원토박이인데 누구 보고 말하면서 피난민하고 본토박이하고 같은 거 봤느냐고 이래.

## 2) 월남민 네트워크

앞서 보았듯이 월남민들은 수원 정착 이후 출신지역별 연락소를 활용하여 구호미를 받거나 정착촌 생활, 직업활동에 도움을 받았다. 전쟁기에 출신지역별 연락소는 피난민 구호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조직한 단체였으나 이 지역 출신 월남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마음의 고향 역할을 하였다. 그 후에는 오랫동안 ‘친목계’ 나 ‘단체’의 형태로 유지되어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면담자 : 그때나 지금이나 철원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 건 있어요?

유옥선 : 모였지. 철원 친목계를 놔 가지고, 우리 노인네(남편)가 친목계 모임 때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30년을 하다가 우리 노인네가 돌아가셨어. 그때도 사람들이 한 30명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노인네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오늘 술 사는 건 내가 살게요. 우리 노인네 돌아가시는 데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끝내 여기를 다녔으면 좋은데, 여자는 없고 남자들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이 마지막 그만둘까 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철원 사람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건데 아주머님 내외해서 시집 갈라우?” 그러면서 그런 소리 말고 오라고, 나오라고. 여기 나와야 철원 사람 보지. 나오지 않으면.

면담자 : 철원 친목계는 주로 남자들끼리만 모였나 보네요?

유옥선 : 다 남자들끼리 모였지.

면담자 : 그럼 할머니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간 거구나.

유옥선 : 응. 그러면 철원서 나온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와라 이거야. 들어오면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지요 그리고 철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 몇 집이 살았어. “저기 집에 신랑 안 나가면, 바빠서 못 가면 집이(당신이) 대신 가서 먹고 와, 나도 가니까.” “아줌마 끝내 다닐 거야?”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했더니 왜 관두냐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줌마 나가면 나도 나갈게, 우리 집 영감 안 가면.” 그러다 이제 그 말이 자꾸 돌아가니까 여자들이 열댓 명 됐어. 그러니까 남자들 못 나갈 적에 여자가 나오는 거야.

면담자 : 대부분 부부가 철원이 고향인 부부인 거예요?

유옥선 : 아니, 여기 나와서도 장가간 사람들 있고 그렇지 그건. 그래 가지고 친목계를 만들어 한 50명까지 만들어 올라갔었어요, 계원들이. 그런데 또 자꾸 떨어져 나가더라고. 떨어져 나가고, 내가 친목계 간 지가 한 11, 10년, 한 10년 됐나? 십년이 못 됐나 봐. 8, 9년 됐어.

면담자 : 그전엔 쪽 하셨구나.

유옥선 : 다리가 아파 가지고, 내가 안 다닌다고, 내가 끝내 저기 할 때까지 다니면 좋은데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파서 저 구루마를 끌고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느냐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먼 데를 못 간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안 갈 테니까. 그리고 그때 그냥 나왔어. 나와 가지고 1년 만에 우리 총무를 후생내과 앞에서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달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고향서 나온 사람 중에 지동 사는 이가 있거든. 그 아들이 와 가지고 날 보고 그래. “총무도 죽었어요.” “언제?” “죽은 지 한 달 됐나 봐요. 그리고 회장도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 “오늘 죽은 지 나흘 됐나 봐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거야.

면담자 : 그래서 모임은 지금 없구나.

유옥선 : 없지 이제. 우리 또래가 다 죽었으니까. 여기 와서 낳은 자식들이 그걸 알아? 모르지.

한편 현재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형수는 수원지구 황해도민회의 연혁과 활동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구술하였다.

면담자 : 황해도민회는 아예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모임이 쪽 있었던 거죠?

최형수 : 황해도민회 전신이 ‘연우회’ 라는, 연우회는 연백군민회 친구들끼리 모임이라고 해서 연우회야.

면담자 : 전부 황해도 출신인가 보네요.

최형수 : 그래. 그런데 이 양반들은 황해도라기보다는 연안 출신이야. 이 양반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황해도민회를 만든 거야. 여기에 2대, 3대가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몰랐어.

면담자 : 연우회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최형수 :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알기로는 어떻게 조직됐냐면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타향에 와서 사는데 우애 있게 살자 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그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봉급이 나오니까 좋았지만 나머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황해도민회는 195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면담자 : 그럼 이게 연백군민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최형수 : 아니 이건 황해도민회를 이야기한 거고, 이 중에서 연백군민회가 또 조성이 됐어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세계 평화의 종 관람 기념사진(최형수 제공)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 댐 일원에 조성한 공원 내에 있는 세계 평화의 종은 전 세계 30여 개 분쟁지역의 탄피를 모아 녹여서 만들었다.



경기도 지역 환경남북도민회 전적지 순례 및 안보수련대회(최형수 제공)

요. 이 안에서. 황해도민회를 구성해서 이 양반들이 만나기만 했지 크게 될 못했다. 활동을 많이 한 거는 조문선 회장이 맡아서 중앙회 부회장을 했거든. 이 양반이 우리 수원 지역에 도민 활성화를 많이 하려고 애썼지. 그런데 큰 행사는 다른 양반 대에 큰 행사를 800 명씩 모인 행사를 한 거야.

### 3) 고향에 대한 그리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들 월남 1세대들은 월남 당시 이렇게 오랜 시간 귀향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면서 수원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떠나지 않았다. 이들은 고향에서 즐겨 먹던 음식을 해서 먹고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금강산 관광을 통해 잠시나마 고향 가까이에 가 보기도 하였으며,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며 통일이 되면 당연히 고향에 가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면담자 : 선생님, 수원이 제2의 고향이네요.

최우섭 : 제2의 고향이지.

면담자 : 통일되면 북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최우섭 : 아유 말도 마오. 강화에 가면 개성시내가 직통으로 보여. 망원경으로 보면 개성 송악산이 보이거든. 그거 망원경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울고 왔는지. 그 송악산 바로 밑창에 우리 집이 있어. 우리 집이 보이는 것 같아. 망원경으로 보니까. 아유. 그런데 그것도 평양이나 함흥, 신의주 그러면 떨어져 못 간다고나 하지. 이건 눈앞에, 개성이 이남이었으려면데 그걸 눈앞에 보면서 못 가니.

면담자 : 여기 사시지만 혹시 고향의 풍습을 따르거나 고향의 음식을 먹는대거나?

최우섭 : 그런 것 없어.

최우섭 아들 : 왜요.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개성보쌈김치, 개성만두, 개성식혜 현재 그걸 그대로 이어 오고 있어요.

면담자 : 개성음식은 주로 언제 해 먹나요?

최우섭 아들 : 만두는 명절 때. 그다음에 김장철에는 보쌈김치. 그제 손이 많이 가죠. 그다음에 호박김치.

면담자 : 호박김치는 뭐가요?

최우섭 아들 : 호박을 넣어서 만든 김치를 찌개를 끓여 먹는 게 개성식이예요.

면담자 : 물 넣어서 찌개처럼?

최우섭 아들 : 늙은 호박을 잘라서 김치를 버무려요. 숙성을 시켜서 그걸 끓여 먹으면 굉장히 맛이 담백해요. 그거 먹어 본 사람들은 다 먹고 싶어 해요.

면담자 : 그게 개성음식인가요?

최우섭 : 그렇죠. 그걸 아직까지 먹어요. 그리고 장땡이라고 해서 된장을 찌 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 각종 양념을 해서 툭툭하듯 해서 그걸 햇볕에 찌 가지고 말려 가지고 그걸 먹는 거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걸로 도시락 반찬 해 가지고 다녔어요. 그거 한 개만 있어도 도시락 반찬이 됐어요.

면담자 : 선생님, 고향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평안북도 고향에?

전계준 : (큰 소리로) 갈 수만 있으면 가야지 안 가냐? 이런, 내 땀줄 끊어진 텐데 통일만 되면 쫓아 들어가지 안 들어가냐.

면담자 : 아, 통일되면 가고 싶으세요?

전계준 : 가기만 해? 세 식구가 거기 남아 있는데 어떻게 안 가냐?

면담자 :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겠죠?

전계준 : 돌아가셨겠지.

면담자 : 동생들은요?

전계준 : 동생들은 모르지, 살아 있는지.

면담자 : 이산가족찾기에 신청해 보셨어요?

전계준 : 신청한다고 되냐. 신청하면 뭐 하나, 그거 다 허상이지.

면담자 : 신청도 안 하셨구나.

전계준 : 하면 뭐 하나, 만날 수나 있냐.

면담자 : 그럼 혹시 금강산 관광 갈 수 있었을 때가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전계준 : 금강산 가면 뭐 하나, 거기 가서 산이나 보고 뭐 하나, 통일되면 금강산이 아니라 고향이랑 묘향산도 가면 되는데.

면담자 : 통일되길 바라고 계시네.

전계준 : 아이고 당연한 얘기지. 조상네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안 가 보냐.

면담자 : 그럼 여기는 아버님 제사, 선생님이 지내세요?

전계준 : 그럼.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다 지내지.



1. 박순옥\_ '동창당' 가족의 수원 정착기
2. 유옥선\_ 폭격 그리고 자식 잃은 슬픔을 극복하다
3. 최우섭\_ 신평특공대, 해병헌병대 그리고 CEO
4. 김봉석\_ 열혈 반공청년의 수원 정착기
5. 최형수\_ 수원지구 향해도민회를 말한다
6. 전계준\_ 영동시장 상인으로 살아가다

박 현 정 |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02 월남민의 수원 정착기

### 1. 박순옥 \_ ‘동창당’ 가족의 수원 정착기

박순옥(朴順玉)은 애초에 월남민 구술의 가장 핵심 구술자로 선정된 경우였다. 박순옥은 수원에서 오랫동안 명망을 유지하고 있는 ‘동창당한약방’의 2대 안주인이고, 전쟁 발발 후 일가친척이 모두 함께 월남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박순옥은 시아버지, 남편, 아들로 이어져 내려온 동창당한약방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전형적인 말머느리로서 시부모 봉양과 시댁 식구들, 자녀들을 건사하는 데 일생을 헌신하였을 뿐 정작 본인 스스로는 바깥활동이나 월남민들과의 교류 등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전쟁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에는 적극적이었고 수용소에서 병을 앓아 고생할 때 이야기는 부끄러워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이야기가 과연 중요한 것인지 몇 번이나 되묻기도 하였다.

박순옥은 1931년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관우리에서 2남 5녀 중 넷째이자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박순옥이 살던 마을은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고 전쟁 후 남한 영토에 편입되었으나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박순옥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철원읍의 남국민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해방은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는 듯 하였다.



박순옥 : 우리 집안은 괜찮았지요. 이 박씨가 죽산 박씨거든요. 죽산 박씨 하면은 철원서도 알아주는 그런 거였어요. (해방되고 나서) 그렇게 혼난 거예요. 그리고 소작인들이 지주가 내쫓기고 빨갱이가 들어오면서 전부 뺏아서 소작인들한테 다 주니까, 아 이 새끼들이 얻어 처먹고 있다가 빨갱이가 와서 뺏어 주니까 얼씨구 좋아서 춤을 추고 지랄들하고, 빨갱이한테 훌쩍 반해 가지고. 우리는 이 지주들은 등을 지는 거야. 땅을 쫓을 적에는 “땅에 소작해서 잘 드릴 테니까 밥이라도 먹게 해 달라.”고 그렇게 와서 굶실굶실하고, 나리 어찌고 그러더니. 빨갱이 새끼들이 들어오면서 그거 다 뺏아서 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훌쩍 넘어가 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오빠, 그 빨갱이 새끼들이 “나리, 마님” 하던, 그러던 새끼들이 “야 좋아야.” 우리 오빠가 박종하거든요. “종하야, 종하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런 말쑥한 노무 새끼들, 엇그제까지 굶실거리고 땅 한 자리 달라고 굶실거리던 노무 새끼들이 좋아야가 뭐야.” 그러고선 할머니가 야단을 치고 그래.

박순옥은 19살이던 1949년 집안 중매로 철원군 어운면 양지리에서 부친(이대길)이 한약방을 경영하였던 장남 이형제와 혼인을 하게 된다. 남편은 반공주의자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피난을 왔다가 좌익세력이 친정아버지, 친정 오빠, 박순옥을 체포하였는데 남편은 도망가고 친정 오빠는 반동분자로 몰려서 죽었다. 그 후 박순옥은 철원읍에 있던 시할머니 댁에 피난을 와 있었는데 철원읍에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박순옥의 주택도 폭격을 맞아 눈앞에서 시댁 작은어머니와 그 아기가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폭격으로 부상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박순옥은 1951년 여름 미군의 피난민 철수정책에 따라 시할머니와 시부모 등 일가 친척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월남하였고, 김천의 도립병원 수용소에서 약 1년간 지내게 되었다. 이때 남편 이형제는 국군의 협조자 역할을 하기 위해 같이 월남하지 못하였으나 후에 수원에서 재회하게 되었고, 친정 식구들도 별도로 월남하여 나중에 재회하였다. 김천의 수용소 생활은 매우 열악하여 고종사촌 시동생이 열병을 앓다가 사망하였고, 이곳에서도 시부모 봉양은 박순옥의 몫이었다.

박순옥 : (기차에서) 내리면서 그날부터 열병이 돌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앉으면서 나오고 작은집 사촌 시누이는 시동생하고 앉으면서, 철원서부터 열병에 걸려 가지고 앉는 거를 죽을 썬 가지고 간간히 먹여 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나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1950년 7월 경북기도(안양-수원)를 따라 남으로 향하는 피난민(© 임인식, 유로크레온 제공)



철원 지역을 지나 월남하는 피난민(정성길 소장, 유로크레온 제공)

면담자 : 도착해서 열병에 걸리셨구나.

박순옥 : 도착하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사흘을 굶었으니까 너무, 그런데 그게 기운이 없으니까 병으로, 열병으로 그냥 바뀌어 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죽겠네, 열이 꼭 달아오르고 얼마나 죽겠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이중 시동생, 고모네 아니 이중이 아니라 우리 고종사촌 시동생 거기도 열병 앓다 죽고 그랬어요. 나는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왔는데 시어머니 세 번 네 번 개통을 했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앓고, 조금 낫는다 그러면 또 앓고. 이렇게 개통을 했어. 열이 오르고 아프고 먹지를 못하니깐 거기서 그냥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빨아요. 내가 나가 빨 수도 없고. 저기 낙동강 그 개울물에는 한창 빨래를 이고 나가야 거기서 빨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갈 수도 없고, 말도 못 했어요.

면담자 :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그 사촌 시동생 한 분 돌아가시고 나머진 다 사셨어요.

박순옥 :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왔어요. 큰고모네가 큰아들하고 나갔죠. 근데 아들이 둘 있더했는데, 친정에 와서 살았어요. 작은아들은 미군부대, 영국부대를 쫓아가 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대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피난 와서 들어오니까 어디서 나타나다라고요. 그래서 찾았고, 큰아들은 거기서 앓다가 죽고, 그 큰고모가 나한테 그 분풀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집년 살아나고, 친금 같은 내 아들 죽었다고 나한테 자꾸 그냥, 나는 어떡해.

그렇게 1년간 지내다가 수용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가족들을 재회하면서 수용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중 옆집 이웃으로 함께 수용소에 거주하였던 사람이 수원에 피난민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수원에 갔다가 마침 수원으로 월남하였던 박순옥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박순옥과 가족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때 박순옥의 친정 식구들도 수원에 정착하였는데 전쟁 전에 미리 월남하여 수원시청에 근무하고 있었던 친척의 영향으로 수원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때 박순옥의 남편과도 연락이 되었다. 남편은 돈을 동봉하여 박순옥에게 편지를 보내 수원으로 오게 하였고, 드디어 남편 및 친정 식구들과 만나게 되었으며 이때는 영화동에 있는 북중학교의 피난민촌에 거주하다가 연무동 피난민 사택에 거주하였다.

그 후 시아버지가 시청에 가서 약방면허증을 갱신하여 '동창당한약방'을 개원하여 경영하였고, 시아버지 사망 후 남편이 한약방을 이어받았으며, 현재는 아들이 운영 중에 있다. 박순옥은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전형적인 말머느리로서 시부모 봉양과 시



수원의 전쟁고아(©NARA, 눈빛출판사 제공)





북수동 동창당한약방

동생 결혼까지 책임지며 살았고, 외부 활동보다는 집안 살림에 치중하고 살았다. 반면 남편은 다른 월남민에 비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철원 지역 출신 월남민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유지하고 지역의 유지로서의 역할도 곧잘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옥은 친정과 시댁 식구 모두가 월남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구술자들에 비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덜하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고향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 2. 유옥선 \_ 폭격 그리고 자식 잃은 슬픔을 극복하다

유옥선은 천상 이야기꾼이었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비상하였으며, 매우 가슴 아팠을 사연에 대해서는 정작 담담하게 이야기하였으나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구술자였다. 질문 하나를 톱 던지면 중간에 말을 자르기 전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구술 시간이 촉박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유옥선이 이토록 과거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 건 전쟁 당시 그녀가 입었던 고통을 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남편 사망 이후 철원 지역 월남민들과의 교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옥선은 1929년 1월 13일 강원도 통천군 인남면 지르메기마을에서 6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고 14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외할아버지가 있던 염성

마을로 이사 왔다. 유옥선은 학교는 다니지 않았는데 17살에 해방이 되자 특별히 죄의  
이나 우의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소위 '토지개혁' 으로 재산을 몰수당하자 북한체제  
에 반감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약 20마지기 되는 논과 약 1,500평의 밭을 몰수당한  
후 친정어머니와 본인의 노동력을 인정하여 두 사람 앞으로 5마지기의 논과 1,000평  
의 밭만 분배되었다고 한다.

그 후 친정어머니의 결혼하라는 말에 가출하여 원산에서 거주하다가 수양부모님으  
로 모시게 된 사람들과 함께 철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된 최말봉  
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때 최말봉은 원래는 성남이 고향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철원  
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사별한 전 부인과의 사이에 이미 2남을 두고 있었고 나  
이도 유옥선보다 20살이 많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철원에 가해진 잇따른 폭격으로 유옥선은 전 부인의 큰아들  
과 조카며느리 등 7명을 잃었고, 유옥선 또한 출산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경험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였다.

유옥선 : 내가, 그때 애기를 낳았어. 6·25 나던 해. 큰아들이지. 지금 살았으면 예순세 살이  
야. 그 애를 가져 가지고 철원서 농사짓고 그러니까, 배는 부르고, 음력으로 7월 스물여섯  
날(26날) 그걸 낳았어, 장남을. 낳았는데 개 낳고 나흘 만에 비행기가 와 가지고 철원역전  
을 다 때려부순 거야. 여기, 이남 비행기가 들어와서. 꼬리뼈가 세 개짜리 있지? 큰 비행  
기. 그거 세 대가 들어와서 철원 부서 놓고 한 서너 시간 네댓 시간 있다가 세 대가 또 들  
어와서 철원을 쑥밭을 만들어 놓은 거야.

면담자 : 낳고 얼마 안 돼서 그랬다고요?

유옥선 : 나흘 만에. 그래서 안고 피난을 떠난 거야. 말도 말아. 내가 개를 스물여섯 날 낳아  
가지고, 잠곡밥을 옆에 집 할머니가 와서 해 주고, 아침에 날이 새니까, 개가 새벽 2시 반  
에 낳는데 아침에 조반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두레박을 들고 저기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면담자 : 애 낳고 바로?

유옥선 : 그럼, 애 낳고 세 시간 만에. 다른 사람 누가 있어? 비행기가 와서 불 지르는데 어  
떻게 저기를 해. 그렇게 해서 밥 해 먹고 살았네, 내가.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안 돼.

면담자 : 애기는 집에서 낳으시고?



유옥선 : 집에서 낳았지 그럼. 그때 병원이 어땠어. 나가면 비행기가 때려 부수는데.

면담자 : 그렇겠네요. 그러면 누가 받아 줬어요, 애기는?

유옥선 : 옆집 할머니가 받아 주고, 잡곡밥 끓여 주고 아침에 날 새니까 도망가 버렸더니깐. 그래서 세 시간 만에 걸레 차고 나가서 물 두레박 가지고 문 밖에 저만큼 우물 있는데 물 길러 가지고 밥 해 먹었어. 지금 사람들 몰라. 우리 며느리도 모르고 딸들도 몰라. 내가 이 소리를 안 하니깐. 개네가 애 낳았을 적에 내가 고생한 생각하고 한 달씩 밥 해 주고 빨래 빨아 주고 그랬어.

유옥선은 미군의 피난민 철수정책에 따라 박순옥과 유사한 경위로 월남하게 된다.

유옥선 : 그 이듬해 5월 단옷날(양력 1951년 6월 9일) 나왔어. 그 이듬해. 그때, 막 총소리가 나는데. 여기 국군들이 포를 쏘니까. 거기 방공호 파서 거기서 살았었어. 있었는데, 포를 치면 강을 넘어가서 떨어져. 그러니까 국군들이 여기 압박해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이제 전갱터가 되겠다하고선 그때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군인들이, 감동인들이 철원역전에 트럭으로, 트럭으로 들어와 있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뭐 어떡해. 애를 뒤집어 업고 옷 대강. (그냥 단순히) 나갔다 들어오는 건 줄 알았지. 한 일주일만 있다가 들어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항아리에 옷이고 뭐고 다 묻어 놓고, 벗가미는 다 거기다 집어 넣었어. 도랑에다가.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갔다 와서, 벼는 썩지를 않는다고, 들어오면 그거 꺼내서 널어서 말려서 방아 찌서 먹으려고, 벗가미를.

유옥선이 최초로 정착한 곳은 전주수용소였고, 그곳에서 또 한 번 잊지 못할 경험을 하는데 그것은 처음으로 출산한 아들의 죽음이었다. 막 돌을 지난 아들은 열병에 이은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유옥선은 그 과정을 구체적이지만 담담하게 구술하였다.

유옥선 : (첫아들이) 홍역 하다가 뒤끝에 폐렴이 있어서 죽었어.

면담자 : 돌은 지나고?

유옥선 : (1951년) 7월 스물여섯날(26일)이 돌이라서, 이웃 사람들끼리 밥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네(남편)가 사진이나 한 장 찍어 준다고 업고서 전주 시내에 나가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고 나서 홍역을 했는데, 홍역 뒤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래 가지고 10월, 음력 9월 초엿새날(6일) 죽었는데, 한 11시 이렇게

됐는데 미국 병원, 미국 사람들이 나왔더라고. 수용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어. 그전에 이렇게 우리 애를 들여다보더니, 한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개 데리고 병원으로 입원시키라고. 그래서 “병원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 타면 간다고. 그러더니 수용소를 다 돌더니, 애를 업고 가자고 그러더라고. 애 오늘 저녁에 못 넘길 것 같은데, 내 혼자 머리로 못 넘길 것 같은데 애를 업고 가야 되나 여기서 애가 죽으면 그냥 저기해야 되나. 이런 걸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미국 병원 인데 가 봐 가 봐, 데리고.” 그래. 그래서 그것도 안 가다 죽으면 저기할까 봐 그거를 업고 갔어. 그러니까 애 들여다보면 눈물이 나서 왔는데, 그때가 음력으로 9월 초나흘날(4일)이던.

면담자 : 10월 중순쯤?

유옥선 : 해가 그때 많이 짧아졌을 거 아냐. 그런데 애를 갖다가 침대에 누어 놓고 앉아서 들여다보고, 아무래도 애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은데, 이걸 업고 도로 거기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2시가 넘고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잖아. 그 사이렌이 불면 못 나가잖아. 진작 같걸. 4시나 돼야 해제 사이렌이 나는데 하고, 그 해제 사이렌 날 때만 바라는 거야. 이렇게 애를 들여다보고, 개 이름이 화성인데, “화성이 죽지 마라. 니네 아버지 보고 죽어.”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눈을 번쩍 뜨더라고 애가. 번쩍 떴다 스프룩 감고 스프룩 감고. 이렇게 보니까 목도 뻗뻗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빨리 애를 업고 집을 가야 하는데. 그래서 한창 안달박달하고 있는데 해제 사이렌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7살 먹은 애가 밤에 죽어서 울고불고하더라고. “아줌마 나 애 좀 업혀 줘요.” 그랬더니, 애를 번쩍 들었는데 애가 고개도 흔들리지 않아. “애기가 목이 굳었어요.”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가서 죽을 거예요. 나 있는 데 가서 죽으면 지 아버지가 가서 물어 줄 거예요.” 그냥 그거를 업고 거기서부터 울면서, 이불 가지고 갔던 거, 뭐 다 내버리고 애만 둘러업고서 그냥 업고 왔어. 허둥지둥하고 막 오니까 5시, 6시가 못 됐는데, 애를 누어 놓고, “이제 니 여기서 죽으면 엄마나 니 아버지가 갖다 물어 줄 테니까 편안히 죽어라.” 이러고선 애를 누어 놓고 애한테 “죽지 마라, 니 아버지 오면 죽어라.” 그랬어. 저녁 때 3시쯤 돼서 눈을 감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피난 나간 집들이, 같이 간 사람들이 일곱 집이 한데 가서 떨어졌어요(같이 있었어요). 우리 앞집 뒷집에 살던 노인네가 오더니 “애미야, 애 그거 싸서 저기 빈방이 있어. 애들 누가 죽으면 거기 갖다 놔다가 묻더라.” 사람들 많은 데 놔둘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묶어다 갖다 놓자 그래요. 그리고 한 피를 끌어 놓은 게 있었어. 그거를 주면서 “여기다가 다 감아서 갖다 놔다가 물어 주세요.” 그랬어. 그리고 지 아버지가 저녁 때 4시가 됐는데 왔더라고. 이제 물건 해 가지고 왔는



유옥선이 운영하는 남수동 잡곡가게 일대(1990년대) 수원천변은 월남민촌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월남민들이 아직도 터전으로 삼아 살고 있다.

데, 사람들이 바깥에서 “아이고 화성이 빨리 저기 들어가 봐요, 화성 엄마 있는데 빨리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줄을 알았나 봐. 사람들이 모두 빨리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와 보니까 애도 없고, “애는 어떻게 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야단쳤어. “죽어도 우리가 갖다 묻으려고 내가 병원에서 다 죽은 걸 업고 왔다.”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웃집 사람들이 안고 갔더라고.

그 후 유옥선은 남편과 전 부인의 둘째 아들과 함께 1951년 11월 28일 수원으로 이주하여 2남 1녀를 낳고, 나무장사·연탄장사 등을 하면서 악착같이 생계를 유지하였다. ‘월남민’, ‘피난민’이라는 이유로 서러움도 있었지만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했고, 현재도 남수동에서 잡곡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면담자 : 그러면 계속 두 분께서 애들 먹여 살리고 키우고 하셨네요. 뭐 장사하셨어요?

유옥선 : 장사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나가 벌어서 먹고 살아도, 우리 노인네(남편), 일이라는 건 다 다니고 일하는 거야.

면담자 : 일이란 일은 무작정?

유옥선 : 그럼. 그렇게 하고 돈 착착 벌어가다가 자리 메움 하러 넣어 넣고 넣어 놓고 하다가. 가을철 되면 쌀 대역섯 가마씩 일 년 먹는 쌀을 사는 거야. 고향에서부터 그렇게. 사람은 사는 게 쌀하고 볼 때는 나무(연탄)만 있으면 먹고 살고,

면담자 : 그냥?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다?

유옥선 : 돈 버는 거. 그때 여기가 마당이 집이 별로 없었어. 근데 나무장사를 하더라고. 나무장사를 모두 하기에 내가 그랬어. “저 나무 우리도 띠어 놓고 팔까.” 그랬더니, 가을인데 우리 노인네가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골서 나무 막 잘라서 10개씩 묶어서 가져오잖아? 그럼 그걸 값 맞춰요, 얼마. 그럼 떼서 그 사람 우리 주고 가면 거기서 우리가 돈을 조금씩 붙여서 파는 거야. 바쁠 적엔 지게꾼 100원인지 10원인지 주고 지게 저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넓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산관에서 산관해 가지고 나무를 싣고 와서 우리보고 사라 그래. 가져오면 우리가 돈을 맞전을 잘 주니깐 이놈들이 딴 사람들을 안 줘요, 우리만 갖다 주지. 그걸 갖다가, 내가 그거를 팔려고, 우리 왔다간 아들은 선달에 낳아서 그 이듬해 돌 전이지. 포대기를 떼고 길바닥에 나와서 우리 노인네는 팔면 어디 배달해 달라면 배달해 주지, 길바닥에 나가서 그 애를 업고 하루 종일 섰다 저녁에 들어오면 제가 갓난애가 발가락이 얼어서 빨개. 귀때기 여기도 얼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애가 병 생기겠구나 하고 포대기를 싸서 업고 싸서 업고, 그래서 한 이텐가 삼 헨가, 한 삼사 년 했나 봐. 그러면 실어서 갖다가 참나무 이런 거를 트럭으로 베어다가 한 차에 얼마 얼마 갖다 부르거든. 그러면 그걸 내가 톱으로 다 잘라 가지고, 도끼로다가 이렇게 쪼개 가지고, 그전에 쪼꼬리라고 요만큼씩 단 묶는 게 있었어. 그렇게 묶어. 내가 다 묶었어.

면담자 : 내다 팔려고요? 팔기 좋게 묶는 거죠?

유옥선 :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여기서 …… 그렇게 해서 몇 년 팔고, 글다가 또 우리 노인네가 연탄장사 한다 그래서 연탄을 그전엔 역전에 나가서 그걸 끌어왔어. 아휴, 그걸 끌어, 구루마를 커다란 거를 가져가서 100장씩 싣고 오는데, 우리 이 아들 그때 4학년 때 인지 5학년 적인가 데리고 역전 저쪽 밖에 그때 무슨 연탄인지 거기서 팔아. 겨울에 그걸 데리고 나갔어. 애를 구루마를 태워 가지고. 거기서 100장을 싣고 오는데 뒤를 밀러니까





유옥선의 막내아들과 함께한 금강산 관광(유옥선 제공) 막내아들이 고향은 못 가도 북한 땅은 밟아 보자고 하여 관광 개시 후 3번째 관광단으로 금강산에 다녀왔다.



월남민들로 구성된 친목계의 여행(유옥선 제공) 유옥선은 월남민들이 모여 만든 친목계의 회원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다. 그러나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버렸다. 위의 사진들도 그런 이유로 절반이 찢어진 상태이다.

이놈이 그, 지금 매산학교 올라가고 내려가는 조그만 언덕이 족잖아. 거기를 갔다가 오는 데, 갔다 와서 방에 들어와서 손, 발을 비비고 그냥, 그러니까 손이 탕탕하고 발도 그렇고. 그제 이제 방에 들어와서 녹으니까 쓰라린 거야. 같이 앉아서 울었어 내가. 더럽게 살면서 애 새끼만 더럽게 고생시킨다고 가지 말라 그랬어. 싫다고, 하지 마라, 쫓아가지 말라고. 그런데 또 어떻게 안 쫓아가. 재들 어려서 연탄 구루마를 많이 뒤를 밀어줬어요.

유옥선은 남편 사망 이후 철원 지역 월남민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고, 특히 70세 되던 해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 3. 최우섭 \_ 신흥특공대, 해병헌병대 그리고 CEO

최우섭의 경험은 전형적인 월남민의 이주, 정착 과정과는 달라서 이 연구에서 알고자 하는 것과 사뭇 거리감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경험은 매우 특수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큰 관심을 갖도록 한 인물이었다. 인터뷰 장소는 아들의 집이었고, 아들의 말에 따르면 최우섭은 현재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과거의 일은 정확하게 구술하였고, 인터뷰할 때 보여준 날카로운 눈매와 반듯한 자세는 오랫동안 단련된 군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듯하였다.

최우섭은 1929년 7월 3일 경기도 개성시 고려동에서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월남한 후 해병헌병대에서 약 7년간 근무하였고 둘째형과 막내 남동생 또한 강화도에서 전사한 군번 없는 유격대원이었다고 하여 3형제가 모두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투사였다. 그는 이름 없이 산화한 형과 동생에 대해 자꾸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훌륭했던 삶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듯하였다.

한편 최우섭은 일제시기 개성 송도중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인 배속장교의 권유에 따라 '신흥특공대' 라는 소위 가미가제 특공대원으로 훈련을 받았던 친일경력이 있었고 이 때문에 해방 후에 친일파로 몰려 고초를 당하였다. 그러다가 1946년 개성경찰에 입문하여 약 4년간 경찰생활을 한 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혈혈단신 제주도로 가는 배에 올라 월남하게 되었다.

최우섭 : 우리 집안은 뭐라 그럴까. 거 뭐 아버지 직업은 별로 없으셨어. 그런데 나만 타고 땡기는 인력거가 있었어. 자가용이지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부터 인력거꾼이 나를 태워서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만큼 부자였어. 아주 엄청난 부자였어. 개성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부자의 하나야.

면담자 : 가지고 있는 땅은 몇 마지기 되나요?

최우섭 : 그거야 뭐 집도 몇 채씩 있고 엄청났지. 그런데 왜정 때 하도 내가 빠릿빠릿해서 뭐라 그럴까 동작 빠르고 말이야 또 기계체조 잘했어. 철봉, 평행봉 아주 훌훌 날랐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중학교에 배속장교가 있었어. 우리 배속장교가 “너는 우리 천황폐하의 아들이 돼라. 일본의 천황폐하의 아들이 돼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7살인데 소



년항공병을 나가라.” 그래서 신평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뭐냐면 원비행기였다 [양쪽 팔을 들어 한 팔씩을 가리키며] 여기 폭탄을 둘 달고, 그 폭탄 위에 앉아서 바람을 이용해 내려가서 부딪혀 죽는 거야. 하나씩 폭탄 안고 폭탄을 의자에다 댄어. 그러니 비행기 조종사가 스위치만 누르면 집게로다가 이 폭탄이 탁 열려. 그럼 이게 내려가서 바람을 이용해서 폭격을 하는데 이만큼 쏜단 말이야. 그럼 부딪혀 죽는 거야.

최우섭 : (신평특공대를 다니다가) 8월 11일 졸업을 맡아서 20일간 휴가를 갔어. 집에. 15일 집에 앉아서 해방이 된 거야. 9월 15일 해방됐으면 죽었지.

면담자 : 왜요?

최우섭 : 신평특공대 2기생이니까. 내가. 영등포의 신남중학교가 신평특공대들의 학교였어. 거기에 졸업을 맡았는데. 우리 신평특공대는 이 단추가 …… 어떤 군복이든 단추가 있는데 5개 아냐? 그런데 우리 신평특공대는 7개야. 7개 단추 붙이고 가죽 반도 차고 일본도 차고 딱 길거리에 나가면 우리는 인도교에 다니지 못하게 했어. 차도 복판에 댄겼어. 왜냐? 일본도에 국화의 표시가 있어. 국화의 표시가 천황폐하의 표시야. 이 천황이기 때문에 칼을 누가 건드리면 안 돼. 그러자 해방이 되니까 친일파네 집이라고 개성 시민들이 몰려와서 싹 때려 부수니까 나는 나대로 도망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붙잡혀 가서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피를 토하고 나 찾아내라고 죽여 버린다고 일본을 위해서 자폭비행대를 나갔으니 친일파로 왜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 가지고, (한글의) '가' 자 하나도 몰랐어. 학교에서 못 배웠으니까. 유치원서부터 일본 학교만 다닌 거야. 그래 가지고 혼자서 할아버지네 천장에 숨어서 독학을 한 거야.

면담자 : 그러니까 해방되고 선생님 때문에 고초를 당했네요.

최우섭 : 해방되고 나서 우리 집을 다 때려 부셨단 말이야. 개성 시민들이. 친일파 집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 살 거 아냐. 나를 누가 건드리지 않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할 거 아냐. 혼자서 독학을 한 거야.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경기도 경찰학교 13기생에 들어가서 경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날 못 건드리지. 경찰관 4년 하니까 6·25가 터진 거야.

최우섭의 경험 중 관심이 가는 것은 군 경력이다. 최우섭은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 해병대 모집공고를 보고 스스로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이어 새로 창설된 해병헌병대에 자원하여 인천상륙작전 등 주요한 전투를 수행하면서 약 7년간 해병헌병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최우섭은 우리나라 해병대와 헌병대의 초창기 조직과 전투상황을 자세



해병대 시절의 최우섭(1955년, 수원박물관 소장) 화홍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왼쪽으로 피난민촌의 모습이 보인다.



최우섭의 결혼(수원박물관 소장)



최우섭의 택시회사 재직 시절(수원박물관 소장)

하게 구술하였다. 종전 후 그의 주된 근무지는 강화도였는데, 그곳에서 절대권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부인과의 만남이다.

그 후 그는 결혼하기 위해 1956년 4월 제대한 후 수원에 오게 되었는데, 수원에 오게 된 과정과 부모님과의 재회 과정도 매우 극적이었다. 헌병생활 당시 수원에 개성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기간에 수원의 팔달사에 있는 개성시민연락소를 방문하여 수원에 거주 중인 개성 시민 명단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보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월남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과 재회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군 제대 후 수원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 후 최우섭은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였는데 고속승진을 하여 택시회사의 사장을 역임하였고, 각종 장학사업과 태권도협회·로타리클럽 등 각종 사회사업을 하면서 수원의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탰다.

최우섭 : 그리고 오산여자중학교 장학회장을 거의 12년을 했어. 180명을 공부 가르쳤어.

최우섭 아들 : 장학금을 매 분기마다 주셔서 상패도 집에 가면 있어요.

면담자 : 어떤 이유 때문에 장학금을 주신 건가요?

최우섭 : 그게 오산에 금성공사라고 택시회사를 만들었어. 어떡하면 조금 요만큼이라도 좋은 일을 할까 했더니 남상조라는 선생님이 평택교육장을 했는데 나하고 초등학교 같이 졸업을 했어.

면담자 : 아, 그분도 개성 분이시구나.

최우섭 : 나는 오산에다 금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평택교육장을 하고 있고. 그래

있다가 내가 농담조로 “야 뭐 하나 좋은 일 할 것 하나 없냐?” “진짜냐? 좋은 일 얼마든지 많이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오산여자중학교 장학회장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중학생 그쪽 등록금이 얼마나 돼? 얼마 안 되지. 그래도 나는 180명을 가르치니까 한 번 등록금을 낼 때 몽탱이로 싸 가지고 가야 해. 그럼 오산여자중학교에서는 나를 단상에다 세워서 장군 나팔을 불어서 학생 1,000명, 학부형 1,000명 불러서, 그렇게 호강스러운 생활을 했어.

면담자 : 선생님은 군대 계시고 사업하시고, 사업하신 걸 바탕으로 장학사업하시고. 장학사업 말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뭐 하셨어요?

최우섭 : 단체생활은 좀 했어요.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태권도협회, 민족통일협의회. 내가 수원 민족통일협의회 초대 회장을 10년을 했어.

#### 4. 김봉석 \_ 열혈 반공청년의 수원 정착기

김봉석도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면담자의 질문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 가지들이 새끼를 처서 나무가 되고는 하여, 연구자는 김봉석의 인터뷰 중간중간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끊어야 했다. 그만큼 많은 사건들이 그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본인이 겪은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과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그때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였다.

김봉석은 1933년 1월 2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에서 2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인쇄소를 운영하시다가 해방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철원읍에서 추어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해방 이후 서북청년단 활동을 하던 형(김경득)이 1947~1948년경 서북청년단원 검거를 피해 월남하였고, 형의 영향을 받아 1949년 고등학교 2학년이던 김봉석도 대한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월남한 형은 이후 육사 1기생(당시는 생도 1기)으로 입대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였다가 총상을 입고 제대한 후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다가 4년 전에 사망하여 현충원에 안장되었다고 한다.



면담자 : 그럼 선생님은 서북청년단이 아니고 대한청년단이었네요?

김봉석 : 대한청년단이지요. 대한청년단 그거는 우리 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때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깐 친구들이 “야, 너 여기 가입해.” “그 뭐야?” “이거 대한청년단이야.” “야 이거 하다가 괜히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그래도 괜찮아, 이거 비밀로 하는 거야.” 이북서는 여기와는 다르게 비밀을 무지하게 지켜요, 이북 청년들은. 아주 그건 한결같이 절대 누설하지 않는 게 이북 청년들이었다고요. 그때 고등학교 때 대한청년단에 가입한 거예요. 아는 친구들끼리 비밀로. 이런 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건 남쪽을 말하는 거란 말이예요. 남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비밀로 이렇게, 남쪽에 그러면 대한청년단이 있으니까 거기 가입하래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도 하고, 앞일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 데려다가 가입하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입하라 그러지. 아무한테나 했다가 무식쟁이들한테 했다가 “야 임마, 나 이런 거 가입했다.” 떠들어 대면 대번 걸리죠. 근데 여기 한국군이 오니까 대한청년단 단원들이 만세 부르고 그냥. 치안을 대한청년단원들이 맡겨 가지고, 철원을 끌고 가요. 후퇴하니까 같이 쫓아 나오는 거죠, 일로.

면담자 : 그러면 선생님이 대한청년단에 가입하게 된 거는 주로 형님의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싫어하신 건가요.

김봉석 : 그건 아니지. 형이 남쪽으로 내뒀었으니까는 우리는, 말하자면 반동분자 집이지 우리는. 요시찰 대상 집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나야 꺾죽꺾죽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쥐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봉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7일 인민군 소집에 응하여 원산까지 갔다가 약 3일 만에 친구와 들어서 탈출하여 철원으로 돌아와 감시를 피해 집에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서울 탈환 이후 남쪽에서 국군이 철원 지역을 통과할 때 학도병으로 참가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아군이 후퇴할 때 무조건 남쪽으로 같이 내려가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 그 후 10월 말경 철원 지역에 주둔한 한국군 17연대가 인민군과 교전 중일 때 김봉석을 포함한 대한청년단원들이 참전하게 되었고, 이들이 후퇴할 때 친구 13명과 함께 월남하게 되었다.

면담자 : 그러면 월남을 하시게 된 게, 인민군 징집 피해서 나왔다가 내려오셨던 거예요?

김봉석 : 우리가 후퇴할 때, 10월 27, 28일쯤 됐었어요. 10월 거의, 날이 좀 으슬으슬 추울 때예요. 그때 한국군이 후퇴할 때 연천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 10월에 또, 10월 27, 28일 나오고 나서부터 의정부 쪽으로 내려올 때 그때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6·25가 나 가지고 1차 후퇴했다가 또 저 위에까지 전진했다가 또 후퇴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1차로 우리도 전진 갔다가 울산인가, 울산인가까지 후퇴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전진,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군이 미군하고 한편하고, 철원 다시 복구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압록강까지 전진하고 올라갈 때, 철원에 같은 동창생들이 학도병으로 남쪽에서 군인으로 나와 가지고 학도병으로 와서 철원에 와서 군복 입고, “야, 봉석아 오래간만이다.” 우린 그때 거기서 숨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악수하면서 “남쪽으로 갈려면 어찌냐.” “야,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야지. 나중에 또 후퇴하면 너 못 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후퇴, 아군이 후퇴할 때는 무조건 쫓아 내려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방으로 압록강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후엔 소식이 없죠. 지금 아니까 그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의정부까지. 철원에 군인들이 다 압록강 쪽으로 올라가고 철원에 군인들이 없잖아요? 패잔병, 인민군 패잔병만 산 속에 숨어 있다가, 콩닥콩닥하고 이제. 미군이 한꺼번에 쫓 후퇴해 버렸잖아요. 그때가 10월이예요. 10월에 한국군 17연대가 철원에 있었거든요? 1개 연대가. 근데 밤이면 인민군 패잔병이 철원읍을 에워싸요. 그리고 막 총질하고. 또 새벽이면 인민군이 산으로 도망가고. 또 밤이면 우당탕탕 하고. 그러니까 한국군인들 가지고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 우리가 그때 대한청년단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대한청년회 가입한 사람은 다 우익 청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하기가 편하고, 밤이면 같이 호에 한국군, 대한청년단 한 명이나 둘이. 군인이 자면 우리가 총을, 그때 M1 총이야. 그걸 주면 그걸 가지고 밤새 쏘고 그러는데. 10월 한 27일인가 그때쯤? 27일, 한 3일 전이야 3일 전. 그러니까 24일 정도에 17연대에서 2개 대대가 의정부 쪽으로, 연천 쪽으로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원에 남은 건 1개 대대만 남은 거예요. 1개 대대가 한 3일을 버텼어요. 버티고 그다음 날 3일 있다가 연천 쪽으로 후퇴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보고도 갈려면 우리 쫓아 나와라.

의정부에 도착한 이들은 치안대에 붙들렸다가 풀려났고, 먹고 살기 위해 제1신병교 육대 모집광고를 보고 들어가게 되었다. 약 1,200명이 경상북도 경산까지 오게 되었



고, 그다음 해 3월에 해산할 때까지 약 6개월 가까이 주로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김봉석은 특유의 빠른 발놀림으로 연대장 연락병을 하면서 연대장 가족과 친하게 지냈고 신병교육대가 해체되었을 때는 연대장으로부터 양아들을 삼고 싶다는 말까지 들었으나 가족과 형을 찾고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들과 헤어졌다. 김봉석은 연대장 가족과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철원에서 함께 월남했던 13명 중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7명과 함께 가평까지 올라왔다가 미 1사단에서 약 20일간 일을 하였고, 미 1사단이 논산으로 이동하자 동두천에 있는 미 485공병부대에 속칭 '하우스보이'(심부름꾼)로 약 서너 달간 근무하였다. 그 후 1951년 5월경 미군의 피난민 철수정책에 따라 철원에 있던 주민들을 광나루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동두천에서 지리를 몰라 수원까지 오는 버스를 타게 되었고, 이때 수원에 하루 머물렀던 기억 때문에 수원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난민들이 준비하였던 광나루에서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만난 김봉석은 준비해 갔던 돈을 주면서 수원에 하꼬방 집을 사서 거주하라고 조언을 하였다.

면담자 : 어머니는 어떻게 수원 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무작정?

김봉석 : 내가 돈을 주면서, 어머니 이 돈 주고 이 돈이면 웬만한 조그만 하꼬방은 살 수 있으니까 여기 말고. 그때 남한산성 쪽 그쪽 다 시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쥘 가까운 데가 수원이니깐, 내가 수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쪽에 가서 집 알아서 거기서 사시오.

면담자 :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전에 수원으로) 빙 돌아와서 한 번 본 곳인데 나중에 정착하게 되는,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네요.

김봉석 : 네, 거기서 와서 한 번 구경했거든요? 그러다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이복서와 가치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는데 본 게 수원이야. 수원이 좀 컸거든? 어느 정도.

다시 485공병부대에 복귀한 김봉석은 그 후로도 약 1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노무사단에 징집되었고, 복통으로 의정부 사단본부의 의무대에서 서너 달 입원하였다가 의무교육을 받고 1년 7개월 가까이 위생병으로 근무하였다. 노무사단의 해산 이후 동두천에 있는 영연방사단 CIA에 잠깐 근무하였다가 영연방사단이 인천으로 후퇴하자 수



1950년대 중반의 팔달문 일대(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1972년 남수동 판자촌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수원천변 점포



1970년대 초 서문아파트 전경

원에 오게 되었다. 수원에 온 후 어머니 고향 사람의 추천으로 서울지방법원 호적과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같은 철원 월남민이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친구에게 세탁 방법을 배워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김봉석 : 우리 친구가 세탁소를 했어요. 저녁때면 거길 들렀다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면담자 : 세탁하는 거를?

김봉석 : 세탁하는 거를. 그때 참에 세탁소가 네 군데 있었다고, 네 군데. 여기 성광세탁소라고 있었는데, 거길 어깨 너머로 “내가 좀 다려 줄까?” 그리고 다림질도 해 주고 와이셔츠도 다려 보고 해 보니까. 한 열흘날 하니까 배워지는 거예요. 그때 세탁소를 11년 했어요.

면담자 : 11년? 세탁소를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김봉석 : 직접 한 거예요. 내가 냈지. 지금 백내과 자리.

김봉석은 오랫동안 남수동과 선경도서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수원시의 판자촌 정

비사업에 따라 1972년 수원의 최초 아파트인 서문아파트가 지어졌을 당시에 입주하게 되었다.

김봉석 : 근데, 그게 처음에 아파트 있는 데 하꼬방을 해서 쫓잖아요? 그거 지어 줄 때, 안에 내부까지 다 만들어서 준 게 아니에요. 겉만 짝 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부시설을 내 돈 가지고 해야 돼. 근데 그 아파트 그때 시세가 20만 원 정도 해요. 내부시설 하려면 20만 원 돈이 들어가야 돼.

면담자 : 아파트 한 채 값만큼 들어가네요.

김봉석 : 그 집을 헐려서 아파트를 하나 쫓으면 내부 시설도 해 줘야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서, 몸뚱이만 들어오면 살 수가 있는데. 그 20만 원을 내게 했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돈들이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20만 원에 되팔고 나와 버리는 거예요.

면담자 : 그러면 서문아파트는 대부분 그런 피난민들이 많았겠네요?

김봉석 : 많지, 많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꾸밈 돈이 없으니까 권리금으로 20만 원 받고 팔고 가는 거요. 시에서는 팔아먹든 말든, 일단 주변 그걸로 끝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어쨌든 처음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무척 부러워했다고요. 그거를 하나를 했으면 하고. 이제 내가 거기서 처음 들어가 가지고 해산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뻔히 아는 거지.

## 5. 최형수 \_ 수원지구 황해도민회를 말한다

최형수는 제일 마지막으로 만난 월남민이었다. 우연히도 구술자들이 강원도 철원 지역에 한정되자 대표적인 정착촌이었던 세류1동의 (구)대한방직 터에 주로 황해도민들이 거주하였다는 자료를 보고 황해도 출신 월남민을 인터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수원시사편찬위원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구술자를 알아보다가 현 수원지구 황해도민회장인 최형수와 연락이 되었고,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 인터뷰는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최형수의 사전연락으로 현 사무국장과 다른 월남민도 참석하였으나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는 최형수의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 황해도민회의 전체적인 운영상황 등에 대한 내용



이 조사되었다. 최형수 이전에 세류1동의 피난민촌에 거주하였던 다른 월남민을 소개 받았으나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환으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최형수는 1934년 5월 11일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 향산리 문해골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추화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5년 해방이 되었는데 38선에 따라 추화초등학교가 남한 영토로 편입되자 1947년 월남하여 추화초등학교를 계속 다녔다. 1949년 졸업 후 1950년 3월경 역시 이남 영토로 된 연안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개월쯤 다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38선 북쪽인 고향으로 오게 된다. 38선 북쪽에는 군인이 초소에 배치되어 경계를 하였으나 어렵지 않게 월남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51년 10월경 최형수는 작은아버지를 따라 남동생과 함께 연평도로 피난을 갔다가 귀향하지 못하게 된 경우였다. 작은아버지는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조카들을 데리고 연평도로 피난을 갔다가 몇 달 동안 유격전우회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면담자 : 그럼 선생님하고 남동생은 작은아버지 따라서 연평도로 가셔서 유격전우회?

최형수 : 유격전우회에 가서 밥을 얻어먹었지.

면담자 :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최형수 : 8240부대라고 있었어요.

면담자 : 아, 8240부대. 그런데 선생님이 군인으로 가신 건 아니죠?

최형수 : 그렇지. 군인으로 간 건 아니지. 그것은 군인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모임을 가지고, 그 청년들이 모임을 가지고 구월산에 드나들면서 구월산부대라고 했지. 거기서는, 지금은 8240부대나 구월산부대나 똑같이 유격전우회라고 그러지.

면담자 : 자발적인 부대 성격이네요.

최형수 : 그렇지.

면담자 : 정식 군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최형수 : 응.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에는 유공자 대우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면담자 : 8240부대 활동은 몇 달이나 하셨어요?

최형수 : 거기서도 3개월씩 했지. 더 할 수도 없어서 3개월씩을 많이 했어. 오래한 사람은 한 6개월 되었는데 우리는 중간에 나왔어요.

면담자 : 그때 총 지급받으셨어요?



최형수가 정착한 매산로(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최형수 : 그때는 좋은 개인지급은 없었고,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갔다 나왔지.

최형수는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용매도로 갔다가 결국 인천행 중선을 탔다. 인천에는 전쟁 전에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전쟁 발발 직후 북한체제와 사상을 달리하여 월남했던 셋째 작은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후 수원으로 발령이 나자 함께 수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최형수의 부친 또한 이 시기에 월남하여 1952년 가을에 만나게 되었고, 모친은 정전이 되자 남은 자식들을 데리고 용매도로 와서 인천행 배를 타고 월남하여 이후 수원에서 모든 가족이 재회하게 되었다.

매산로에 정착하게 된 최형수 가족은 잡화상을 운영하였고, 최형수는 경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에 취직하였다가 수원에 내려와 자영업을 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수원지구 황해도민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고, 2005년 5월부터





고려학원 재학 시절 고향친구와 인천으로 놀러 가서 찍은 사진(1950년대, 최형수 제공) 최형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려학원은 전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위해 수원의 한 개인이 만든 교육시설이라고 한다. 수원향교 건물 한 동(아마도 명륜당일 듯)을 빌려서 운영을 하다가 수원중앙침례교회 맞은편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당시 재학생은 대부분 월남민이었다.

현재까지 수원지구 황해도민회장을 맡고 있다.

초창기 황해도민회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약 30년 전만 해도 광고에서 황해도민회가 모이면 700~800명가량까지 모였고, 매년 5월 5일 전국 황해도민의 날이 한강고수부지에서 열리면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젊은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많이 부족하여 한 달에 한 번 모임 때면 70대 이상 20~30명 정도만이 모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면담자 : 그럼 수원에 황해도민들은 몇 명이나 계신 거 같으세요?

최형수 :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30년 전

까지만 해도 초창기 황해도민 총회할 때는 700~800명씩 모였죠.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한 집에 한두 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임원진이 수원지구 도민회를 매주 월요일에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고향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40~50명이 모였는데, 근래에는 20~30명밖에 못 모여요.

면담자 : 대의원들 모임하면요?

최형수 : 응, 수원지구 황해도민회. 조문선 회장님이 맡은 걸 내가 맡은 지 7년 정도 돼요. 딱 사람하고 교대하고 싶은데 다들 하려고 안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해 주면 좋은데 다 회비 받아 가지고 한니까 힘들거든. 서로 안 하려고 하지. (웃음) 또 연세가 많을수록 고향에 대한 그거(애착) 많은데, 우리 2세대들은 고향을 모르니까 생각도 안 해.



전국 황해도민의 날 행사(최형수 제공) 2012년 5월 5일에 열린 제34회 황해도민의 날 행사 모습이다.



남산 인종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한 황해도민회 수원지구 회원들(최형수 제공)

면담자 : 2세대들은 수원을 고향으로 생각하나요?

최형수 : 2세, 3세대들은 다 그렇지. 우리가 2세나 마찬가지로 우리 2세대들은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은 젊은 층에 속하거든. 올해 60년 아녀. 내가 17살에 나왔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59인데 여기서 낳아서 간혹 이북 이야기를 하는데 이북 이야기는 안 통한다는 거라. 5도 청 황해도민회가 중심으로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총대회를 해. 체육대회를 해. 그때 모이는 사람이 2만 명씩 된다고 하잖아. 다녀가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리 애들은 참석하려고 안 해.

면담자 : 주로 어르신들만 모이시겠네요.

최형수 : 그렇지. 우리 막내 동생이 해방둥이인데도 잠실 2단지 사는데 거기 오라고 해도 잘 안 와. 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무슨 저기로 가냐고. 그니까 70세 미만들은 향토율이 부족해서 참여하려고 안 해. 부모들은 나오는데 거기 친구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깐. 적어도 73~74세는 되어야 반갑다고 그렇지. 70세 미만은 별거 없어.

## 6. 전계준 \_ 영동시장 상인으로 살아가다

전계준은 월남민들이 1960~1970년대에 주로 상권을 장악했다고 하는 영동시장 상인 출신이다. 따라서 영동시장에서 월남민들의 활약상을 듣고자 하였으나 전계준은 타고난 이야기꾼이 아니었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이런 형태의 인터뷰가 익숙하지 않아 연구자가 알고자 했던 많은 것들을 듣지는 못하였다. 또 그가 수원에 온 것도 1960년대여서 1950년대 수원 지역 월남민의 삶을 알기에도 부족하였지만 연구자가 만난 구술자 중 유일하게 평안북도 출신이었다.

전계준은 1934년 2월 27일 평안북도 선천군 군산면 진석리 진석마을에서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전계준의 집성촌이었고, 재산이 좀 있었는데 해방 후 토지개혁으로 몰수당하고 민주당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핏박을 당하여 전쟁 전에 월남하였다. 전계준의 아버지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모진 고초를 당했으며, 이런 경험을 통해 전계준도 북한체제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면담자 : 월남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전계준 :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뭐 다 쫓겨 나오고 집안이 풍비박산되니까 고향에 있기가 싫어지니까 16살에 도망쳐 나왔지. 고향에서부터 이쪽으로 나오려고 작정한 거야. 집안이 민주당이야. 민주당사건에 아버지도.

면담자 : 민주당사건이 뭐예요?

전계준 : 공산당 애들이 하는 말이 남한정권하고 민주당하고 결탁했다고 하는데, 그런 핑계로 민주당 당원들을 덮친 거야. (그 사건으로) 아버지가 매 맞아서 집 지을라고 사 놓았던 재료 다 팔아서 약으로 다 사고 그것도 안 돼서 개똥물 먹여서. 열병 들어서, 개똥물이 어혈 푸는 데는 제일 좋은 거야. 그걸 달여 먹으면 개똥물이 발그스럼해서 그게 어혈 푸는 데 제일 좋아. 그래서 그걸 많이 먹었어.

면담자 : 해방되고 나서 토지개혁을 한다고 해서 재산 뺏긴 거 있나요?

전계준 : 뺏기나마나.

면담자 : 선생님 집안이 잘살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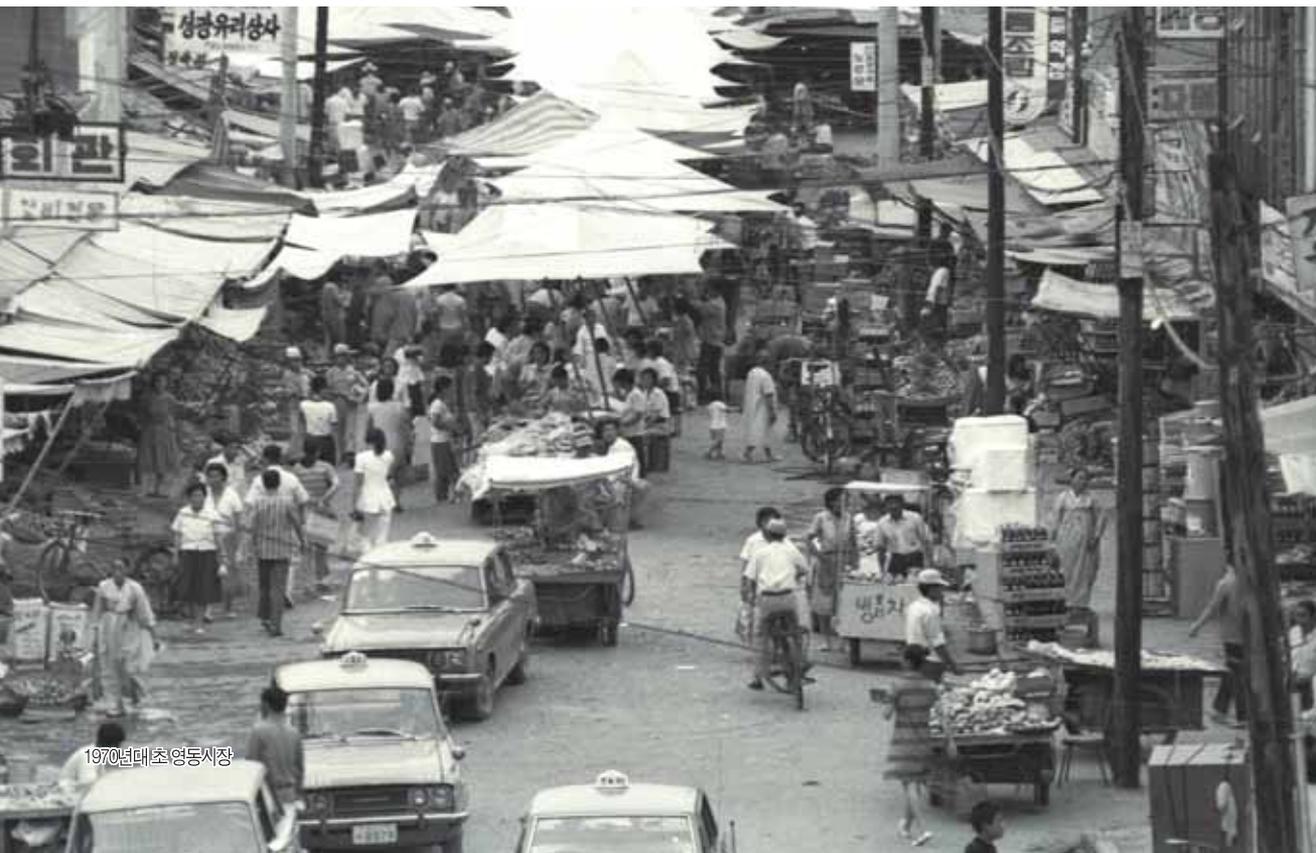
전계준 : 큰집은 잘살았지. 큰집은 5정보 됐는데 그놈들이 쫓아내 버렸잖아. 그래서 민주당 사건으로 미리 나왔잖아. 전쟁 나기 2~3년 전에 큰집 조카는 여기 나와서 오래 살았지.

전쟁 발발 당시 선천고등학교에 다니던 전계준은 인민군 포병부대에 징집되어 약 3개월 정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인민군이 후퇴할 때 개성의 송악산 인근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혼자 탈영하여 체포되었다. 그 후 부산의 가야수용소, 영천수용소, 인천수용소, 거제수용소 등을 전전하면서 약 3년간 포로생활을 하다가 풀려나 전쟁 전에 월남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큰댁으로 가게 되었다. 부산에서 약 2~3개월 거주할 때 아버지가 홀로 월남하여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천에 오게 되어 부두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전쟁이 발발하자 잠깐의 피난생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부인과 딸 2명 등 가족을 뒀던 채 월남하여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부친과 인천에서 거주할 때 군 입대 영장이 나와 11사단에 근무하다가 몇 개월 만에 제대조치가 되어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1960년도 즈음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자 29살이던 1962년경 사촌들이 거주하고 있던 수원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영동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촌들의 도움으로 그 옆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31살에 결혼을 하여 가족을 꾸렸으며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영동시장에서 일하였는데, 현재는 장남이 영동시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영교 부근의 천번시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1970년대 초 영동시장

면담자 : 그럼 수원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전계준 : 장사.  
 면담자 : 어디서요?  
 전계준 : 영동시장.  
 면담자 : 무슨 장사 하셨어요?  
 전계준 : 라이타, 만년필, 잡화.  
 면담자 : 어엿한 가게가 있었어요?  
 전계준 : 그때는 노점에서 하는 거야.  
 면담자 : 그럼 영동시장에서 장사하겠다는 것은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전계준 : 그때 큰집에서 노점상 하니까 옆에서 해라 해 가지고.  
 면담자 : 아, 큰집은 무슨 장사하셨는데요?  
 전계준 : 거기도 잡화했지.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벌어서 수원백화점 들어가서 잘살잖아.  
 면담자 : 선생님은 친척 기반이 있으니까 수원에 오시고 장사도 하시게 된 거네요.  
 전계준 : 그럼 그 집안이 있으니까 왔지. 어떻게 올 수가 있냐.  
 면담자 : 영동시장 장사는 잘됐나요?  
 전계준 : 잘됐지. 그때 영동시장은 장사가 잘됐지.  
 면담자 : 그걸로 아들 가르칠 만큼 장사가 잘됐던 거예요?  
 전계준 : 그럼. 장사해서 그 돈으로 살림했으니까.  
 면담자 : 지금은 뭐 하세요?  
 전계준 : 지금은 애들이 하고 있지. 나는 쉬고.  
 면담자 : 그럼 애들도 영동시장에서 장사하나요?  
 전계준 : 그럼. 큰아들이 하고 있어.



北地

友誼



月恒

僑務委員會委員 呂季直 攝



僑務委員會委員 呂季直 攝



# 3

##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토박이들과 다양한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원에서 화교(華僑)는 다른 민족이자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이면서 동시에 수원의 '토박이' 이다. 수원 화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수원에 정착하여 3~4대째 내려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수원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1. 수원 화교의 정착과 이동
2. 화교정책의 변화와 수원 화교의 현황
3. 수원 화교의 조직과 사회적 관계
4. 수원 화교의 일상과 문화
5. 수원에서 화교로 살아가기

이승연 |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 01 | 수원 화교사회의 형성과 변화

토박이들과 다양한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원에서 화교(華僑)는 다른 민족이자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이면서 동시에 수원의 ‘토박이’이다. 수원 화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수원에 정착하여 3~4대째 내려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수원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원 화교에 대한 조사는 수원에 이주민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으며, 어떻게 정착하고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화교에 대한 연구 중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인천에 집중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그 외 군산·마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존재한다.<sup>1</sup> 이제까지 수원 지역에 집중하여 화교를 주목한 사례는 한국의 화교사회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나 경기 지역의 인물과 공간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수원의 화교 협회, 화교학교에 대해 일부 다루고 있을 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수원 지역 화교의 형성과 변화, 사회 조직, 일상과 문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관계 등에 대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수원 지역 화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수원 지역 화교의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통계자료와 문헌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구술조사를

병행하였다. 구술조사 과정에서 화교들이 소장하고 있던 각종 문헌 기록, 사진 자료, 물증 자료 등을 얻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술 대상자는 수원에 거주하는 화교 2세대 6명, 자녀를 화교소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국인 학부모 4명, 화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 1명, 화교 3세대 여성 1명 등으로 총 12명이다.

구술자 총 12명 중 화교 2세대 5명과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으며 구술자 1명당 2~3회씩, 1회 평균 2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가 아닌 나머지 6명과의 인터뷰는 2012년 5월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웅변대회와 9월에 치러진 유육군의 차남 결혼식에 온 인물들과 현장에서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들 구술 대상자 중 주요 정보제공자이며 심층 인터뷰 대상인 화교 5명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구술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출생연도	출생지	수원으로 이주·정착 과정	직업
강학천	남	1957년	수원	부친이 17세 때 중국 내 혼란으로 인한 생계 해결 및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와 대구에 거주하다가 수원 출신의 화교 여성과 결혼하면서 수원에 정착하였다. 4대째 수원에 거주 중이다.	현(現) 화교소학교 교장 수원중화회의원 한의사
우진강	남	1958년	대구	대구 출신의 화교로 1985년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수원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전(前)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교사 현(現) 수원화교협회 총무
여가상	남	1957년	대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중국 산둥(山東)과 인천을 오가며 장사하였다.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내전으로 중국사회가 혼란해지자 아버지가 국민당 당원이자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대피하였다가 정착하게 되었다. 수원에서 3대째 중식당을 운영 중이다.	현(現) 중식당 '고등반점' 운영
유육군	여	1953년	부산	부모가 중국 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행상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부산에서 몇 년간 거주 후 수원으로 이주하여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정착하였다. 수원에서 3대째 중식당을 운영 중이다.	현(現) 중식당 '만민원' 운영
척명운	남	1955년	수원	아버지가 단신으로 수원에 와 중식당을 운영하며 정착하였다. 척명운은 수원에서 화흥원, 사천대반점 등 중식당을 운영하다가 정리하고 무역업 등에 종사하였다.	전(前) 중식당 운영, 무역업 종사 현(現) 수원화교협회 회장

이상의 방법을 통한 수원 화교에 대한 조사는 수원이라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민을 이해함과 동시에 한국 내 화교사회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1. 수원 화교의 정착과 이동

수원 지역에서 화교는 언제부터 등장하였는가? 수원 화교사회의 발생부터 정착과 이동, 현재 화교 인구의 현황과 직업 분포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히 구술 증언을 통해 한때 화교들 사이에 일었던 해외 이민 붐과 서울로의 이주 분위기 속에서도 수원을 떠나지 않은 이유, 수원에서 살아가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 1) 수원 화교의 형성

화교는 일반적으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해 간 중국인들은 청국인(淸國人), 청상(淸商), 화인(華人), 화상(華商), 화공(華工), 화민(華民), 중국인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었는데, 19세기 말경부터 화교라는 호칭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화교의 ‘화(華)’는 중국을 뜻하며 ‘교(僑)’는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머문다.”는 의미로 외국에 있는 중국인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호칭이다.<sup>3</sup> 19세기 말까지 화교는 외교관의 신분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다가 1893년 청국이 「외국여행금지법」을 폐지하고, 1896년 일본과 「교역 및 선박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에 있는 모든 중국인을 화교로 규정한 후 일반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과 국민당 정권이 분리되고 한국전쟁 후 남북이 분단되어 냉전체제가 형성되었을 때, 별다른 신분증 없이 지내던 국내 거주 화교들은 1954년 당시 중화민국 총영사관의 ‘화교거주허가증’을 발급받으면서 법적인 의미에서 ‘중화민국 국민’이 되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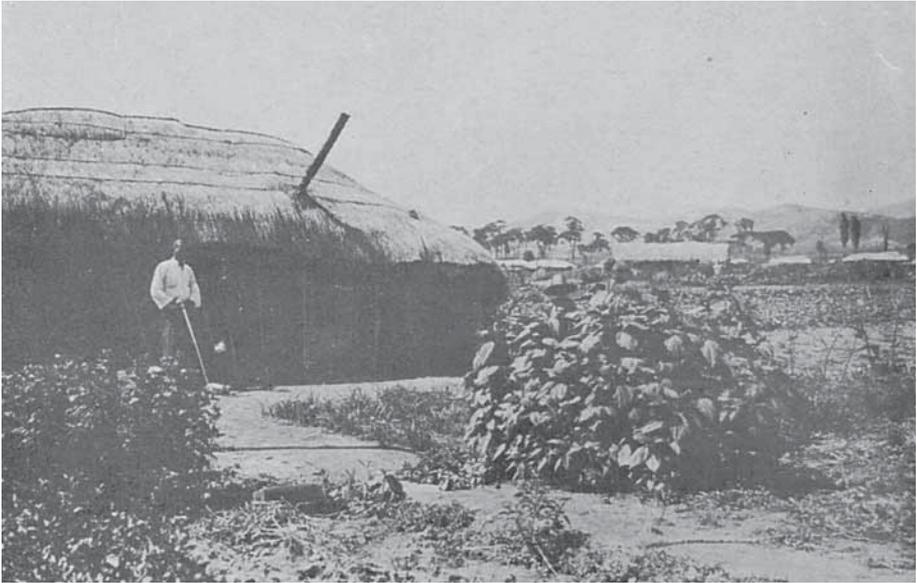
한국 땅에 화교가 유입된 것은 중국 내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긴밀한 관계가 있



다. 1882년 청국 군사 3,000여 명과 상인 40여 명이 마산포에 도착한 후 조선 내 청국인은 정착번영기를 맞이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 화북 지방은 의화단의 난과 마적 때의 출현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점차 많은 수의 중국인이 육로 또는 해상을 통해 조선으로 이주하였다. 그 당시 조선에 들어온 청국인이 모두 조선에 상주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한 노동 이민인 경우 하절기에만 머물고 동절기에는 귀향하는 일시거주도 보편화되어 있었고, 무역업에 종사하는 화상(華商)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 본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오는 것을 일시적인 영업상 이동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화교의 이동은 남자 위주의 단신 이동이 주를 이루었다.

1883년 민간 화교 이주자는 209명이었는데 1910년 ‘한일합방’, 1931년 ‘만보산사건’,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등으로 화교 중 일부가 중국으로 귀국하기도 하였지만, 중국 국내 정세로 인하여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조선으로 향하는 중국인이 귀국하는 사람들보다 많았기 때문에 조선 거주 화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07년 7,902명에서 1912년 1만 5,517명, 1922년 3만 826명, 1930년 6만 9,109명으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다가 1930년대 초반 화교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탄압과 조선인과의 갈등으로 3년 사이에 화교 인구의 절반가량이 감소하였다. 국내 화교는 1933년 3만 7,732명을 기록한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광복 직전인 1942년 8만 2,661명을 정점으로 화교 인구는 다시 감소하였으며, 남북 분단 직후 남한에는 불과 1만 7,687명의 화교가 남아 있었다. 종전 시 연합군을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화교들이 더해져 1954년 2만 2,000명까지 증가하였지만, 이승만 정부가 이민규제 정책을 실시한 이후 화교 인구는 외부로부터의 추가 유입 없이 자연 증가에만 의존하게 되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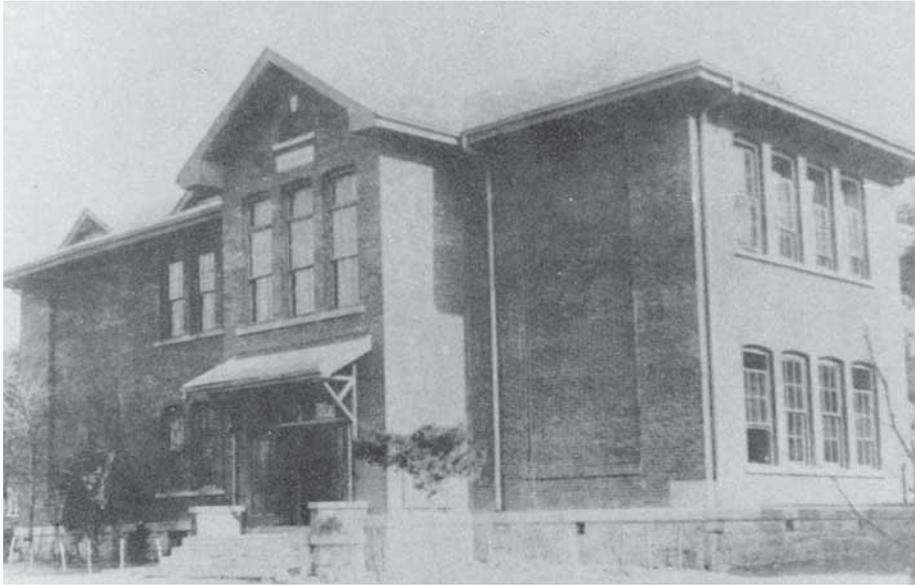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화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및 그 후손으로 지금까지 ‘대만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을 가리킨다.<sup>6</sup> 이 중 특별히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을 ‘수원 화교’라고 부르겠다. 이들은 조부모나 부모 세대부터 수원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오고 있거나, 한국 내 다른 지역에서 수원으로 이주하여 본인 세대부터 수원



일제시기 중국인 농가(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제시기 중국인이 운영하던 요리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일제시기 아담스기념관 중국인들이 건축공사를 담당했다고 한다.

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수원 화교 1세대에 대한 생활 기록은 일제시대 문헌기록과 주민의 구술을 통해 일부 찾을 수 있다.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생활상태조사-수원군』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1924년에 남자 317명, 여자 1명, 1926년에 남자 173명, 여자 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직업은 1926년에 농업·목축·임업 종사자가 15명, 공업 종사자가 5명, 상업 및 교통 종사자가 162명으로 나타나 있다. 일제시기 수원 읍내에서 큰 공사로 꼽히던 천주교 수원본당(1932년) 건축과 기독교 계열의 학교였던 삼일학교 아담스관(1926년) 등의 건축공사를 중국인들이 하였는데, 아담스관 공사 담당자는 중국인 왕영덕(王永德)이었다고 한다.<sup>7</sup>

지역 주민의 구술과 문헌기록을 토대로 한 『수원의이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수지를 막는 공사의 인부 중에 중국인이 많았다고 한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은 1927년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가 건

설치되면서 방죽 안에 살던 주민들이 하동 내의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조성하였다.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는 각각 윗방죽, 아랫방죽이라고 불렀는데, 저수지를 막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부역을 시켰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며, 전부 인부를 사서 작업을 했다고 주민들은 전하였다. 그런데 인부 중 중국인도 상당수가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게 떼놈들이 썰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만들었다는 거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sup>8</sup> 1942년에 발간된 『수원상공인명록』에는 음식점(일반 음식점)에 종사하는 82명 중 중국인이 7명, 요리(요릿집, 고급 요정) 종사자 10명 중 중국인이 4명으로 분류되어 있다.<sup>9</sup>

심층 인터뷰 대상자였던 화교 2세대들에 따르면 수원에 정착한 화교 1세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1940~1950년대까지도 수원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화교들이 많았다. 세류동에는 과수원이 많았는데, 특히 그곳에 사는 화교들은 거의 다 과수 농사와 배추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들 화교 1세대는 사진 몇 장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뿐 이후 대다수가 중식당으로 업종을 전환했고 고령으로 사망하여, 현재 수원에 거주하는 화교 중에 농사를 짓는 이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2009 사랑방 네트워크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 주민 송희상의 구술에 따르면 수원 비행장 가는 쪽으로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좌측 발에서 중국인들이 흙을 곱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만두 가게도 운영했는데 해방 전에는 공갈빵을 중국인만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sup>10</sup>

이상 일제시기 문헌기록과 현재 수원에 거주하는 한국인 및 화교 주민들의 구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원에는 일제시기부터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었으며, 이들은 건물이나 저수지 축조 등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빵·만두 등 음식을 만들어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화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 동부 지역인 산둥성(山東省) 출신이 약 9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허베이, 둥베이 각 성, 장쑤, 저장, 후베이, 광둥, 허난, 샨시, 쓰촨, 구이저우성 출신이 약간 있다.<sup>11</sup> 외국에 정착하는 화교에게는 칼 세 자루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말이 있다. 음식점과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인 육도(肉刀)와 채도(菜刀), 양복점에서 사용하는 가위인 전도(剪刀), 이발소에



1950~1960년대 화교들이 농사를 짓던  
세류동 풍경

세류동에서 농사를 짓던 화교

농사를 짓다가 잠시 휴식 중인 화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학교



中國國民黨駐韓直屬支部水原分部 第五屆黨代表大會出席黨友 (攝影留念) 40.5.18. 중국 국민당 주한 직속지부 수원분부 제5회 당원대회(1957년)

서 사용하는 면도칼인 체도(剃刀)가 그것이다. 이 말은 화교들이 음식점, 양복점, 이발소에 주로 종사하였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수원 화교들에 따르면 한국에 온 화교들은 중국에서의 출신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의 직업을 가진다. 중국의 남쪽 사람들, 즉 후베이성이나 감쑤성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했을 때는 이발과 미용 쪽으로 많이 가고, 중국 해변도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포목 쪽으로 진출하여 비단과 원단을 다루는 일을 한다. 중국 내륙 쪽인 산둥성 복산현, 모평현, 문동현 등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음식업에 많이 종사하는데, 특히 수원 화교들은 97% 가까이 산둥에서 온 사람들이라 포목점이나 이발소보다는 요식업(중식당)과 농사 등에 종사하였다. 농사를 짓던 화교들 다수가 중식업으로 뛰어들었으니 수원의 화교들은 육도와 체도로 정착한 셈이다.

심층 인터뷰를 한 구술자 5명의 부모 세대, 즉 화교 1세대는 생계를 위해 산둥성과 인첸을 오가며 장사를 하거나 중국 내 사회 혼란 속에서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혹은 중국 국민당 신분으로 한국에 온 사례이다. 군 기피 혹은 국민당 신분으로 한국에 온 경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해질까 봐 가까운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에 주변에서는 그저 장사를 하기 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둥성에서 배를 타면 인첸은 가장 쉽고 빠르게 올 수 있는 장소이기에 화교들이 가장 먼저 정착하는 제1정착지였다. 인첸에 도착한 화교들은 국내 여기저기로 흩어졌으며, 지금의 북한 지역에도 유입되었다. 이들은 한국전쟁 때 피난을 하다가 혹은 직업을 찾아다니며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1968년 4월, 대만대사관 조사에 따르면 전체 화교 인구는 총 3만 810명이었는데, 그중 서울거주자가 9,170명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인첸·부산·대구의 화교 인구는 각각 3,000명을 상회하였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48개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2002년 말 통계에 따르면 국내 화교 2만 1,782명 중 서울 34%, 인첸 15%, 부산 13%, 대구 6%, 수원 4%로 대다수가 서울, 인첸,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한다. 대도시의 상업 및 공업이 발달하면서 한국의 인구는 대도시로 집중되었는데 화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집중되었다.<sup>12</sup>

수원 화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수원 지역에서 화교의 등장은 크게 두 가지 계

기에 의해서이다. 첫째는 일제시기 중국 내부의 경제적 궁핍함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한 후 산둥과 한국을 오가며 행상을 하거나 농사, 건축 공사장 등의 각종 일거리를 찾아오게 된 경우이다. 둘째는 중국 내 공산당과 국민당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 이유, 군 문제 등으로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수원으로 유입된 경우이다. 두 사례 모두 처음부터 수원 거주를 목적으로 했다고보다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가까웠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은 과정에서 수원으로 왔다가 정착하게 된 경우이다. 수원과 가까운 오산, 평택, 용인 등 경기도에 정착한 화교들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한다.

수원 화교들은 화교 1세대까지만 해도 중국 산둥성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이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들을 산둥성에 남겨 둔 채 장사나 군 입대 문제 등으로 혼자 한국에 왔다가 고립된 경우가 많았기에 늘 고향을 그리워하였다.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중국도 내전으로 중국과 대만으로 분열되었다.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은 반공체제가 유지되었기에 화교들은 고향인 중국 본토와의 접촉이 차단되었다. 화교들의 고향인 산둥성은 공산국가인 중국 땅이었기에 한국에 살던 화교는 중국이 아닌 '대만'의 국적을 갖게 되었다. 냉전체제에서 화교들은 공산국가이자 적국으로 간주된 중국 입국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기 전까지 한국 화교가 고향인 산둥성으로 돌아가거나 방문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다. 한국에 유입된 화교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부모와 형제 등 고향 가족과의 교류가 끊어진 것이다.

이에 수원 화교 1세대들은 국제정세가 바뀌어 중국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때를 염원하고 대비하였다. 이들은 돈을 벌면 고향의 부모와 형제에게 줄 비단이나 선물을 미리 사 두고 보관하였다. 1980년대를 전후로 수원 화교들은 미국이나 홍콩 등을 경유함으로써 여권에 출입국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밀리에 산둥성에 다녀왔다. 산둥성에 가서 부모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족과 재회하는 등 근 30여 년 만에 이산상봉을 한 것이다. 화교들은 제3국을 통해 방문함으로써 중국에 다녀온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주의하였으나, 정보부에서는 이를 곧잘 알아내었다. 수원 화교 1세대 중에는 몰래 고향에 가서 부모와 형제 등을 만나고 귀국한 후

남산 정보부에 끌려가 간첩 혐의로 의심받고 취조를 당한 경우가 여럿 있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 등 고향 가족들에게 연락할 중요한 소식이 생기면 일본에 있는 사람을 통해 산둥성 친척들과 편지로 왕래하곤 하였다.

1992년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자 수원의 화교 1세대들은 고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환영하였다. 산둥성 친척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수원 화교보다 대체로 경제력이 떨어졌기에, 초창기에는 이불과 옷 등 생필품을 잔뜩 싣고 고향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화교 1세대의 부모 세대, 삼촌 세대 등이 고령으로 사망한 후 한국에서 출생한 화교 2세대들은 그들 부모 세대의 고향인 중국 산둥보다는 본인들이 출생하여 성장한 한국을 더욱 편하게 느끼다 보니 점차 중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뜸해졌다. 화교 3~4세대들이 성장하고 한국에 동화되면서 중국 산둥성과의 네트워크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 2) '탈수원' 분위기 속에서 수원을 지키며 살아가기

수원 화교들은 한국 정부가 화교의 재산권을 규제하자 대만, 미국, 캐나다 등으로 상당수 이민을 갔다. 1960년대에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 금지로 살아온 집과 토지를 팔았고, 1970년대에는 중식당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해져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화교사회에서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 외국으로 나가는 화교 엑소더스가 일어나서<sup>13</sup> 1974년 한국전쟁 이후 첫 번째 정점인 3만 4,913명을 기록한 후 화교 인구는 계속 감소하였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대만을 향하거나 미국·중남미·호주로 이민가는 화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국내 거주 화교의 수는 1981년 2만 8,717명, 1985년 2만 4,742명으로, 1974년에 비해 각각 6,196명, 1만 171명 감소하였다.<sup>14</sup>

심층 인터뷰 대상자인 유육균은 친정 식구 6남매 중에서 자신을 제외한 5명이 모두 대만으로 이민 갔고, 시댁 형제 7남매 중 4명이 한국을 떠났다고 했다. 강학천은 형제 6남매 중 자신을 제외한 5명과 부모까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재산을 늘리기 어렵게 되자 재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떠났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기회를 잡고자 떠났다. 한국에서

화교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만이나 일본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대만은 한국에서 온 화교들의 정착을 지원하거나 대학 입학 시 특혜를 주는 등 한때 한국 화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쳤다. 화교들의 표현에 따르면 수원에 남아 있는 화교들은 돈이 크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저 ‘어중간한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외국으로의 이민 외에 교육문제 때문에 수원을 떠나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수원에는 초등학교 교육 이후 화교를 위한 중·고등학교 과정이 없기에 화교 고등교육기관을 찾아 자녀가 서울이나 인천으로 진학하면서 전 가족이 이사를 떠나기도 했다. 지방에 있던 많은 화교학교들이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몇 군데의 화교학교만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의 경제적 규제와 차별이 힘들어 이민을 떠난 화교 1세대가 막상 현지에 가서는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는 점이다. 한국 화교는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이 이미 한국화된 중국인이기에, 미국에서도 중국인이거나 대만인보다는 한국인과 어울려 한인타운 주변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한국 화교가 미국에 가서 차이나타운이 아닌 한인타운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팔달문 가까이에 위치한 중식당 ‘영화루’의 사장 사옥춘은 1988년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미국에 있을 당시 한인타운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수원 화교 중에는 이민을 가서 생활하다가 노년이 되어서는 한국이 그리워져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여생을 보내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한다.

수원 화교 중에는 수원에서 정착해 3~4대째 내려오는 경우가 아니라 최근 10여년 이내에 외지에서 이주한 화교들이 6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직장을 찾아 수원으로 온 경우이다. 의약업계에 종사하는 화교만 따져도 강원도에서 와서 소아과를 개업한 사람, 서울에서 와서 내과를 개업한 사람, 부산에서 온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의사, 대구와 강원도에서 온 약사 등이 있다. 이들은 수원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주변 상인 및 이웃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수원화교협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수원, 안산,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여주, 이



천, 오산, 화성 등 수원화교협회 지역에 소속된 13개 도시에 적을 두고 있는 화교 인구는 총 2,000명 선이다. 이 중 수원에는 남녀노소를 모두 합하여 510명 정도 거주한다. 화교 중에는 대만, 홍콩, 중국, 미국 등을 오가며 무역을 하거나 이민 간 부모 형제, 친척을 방문하여 장기 체류하는 등 외국에 체류 중인 인원이 많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은 1,3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해외를 오가는 인원 때문에 정확한 동향은 파악하기 어렵기에 화교협회에서는 적(籍)을 두고 있는 인원수를 통해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의 2011년도 『출입국통계연보』의 ‘국적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대만인은 2만 1,381명으로 이 중 남자가 1만 1,266명, 여자가 1만 115명이다. ‘국적 및 체류자격별 체류 외국인현황’을 보면 ‘재한화교’는 총 1만 1,870명으로 남자가 6,701명, 여자가 5,169명이다.<sup>15</sup> 2011년도 ‘지역 및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수원시에 등록된 대만 국적 외국인은 권선구 77명, 장안구 81명, 팔달구 149명, 영통구 80명으로<sup>16</sup> 팔달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업과 유학 등으로 수시로 대만과 중국 등 해외를 오가는 인원이 많기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수원화교협회와 법무부 통계를 볼 때 전체 재한(在韓) 화교의 3~4% 정도가 수원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 2. 화교정책의 변화와 수원 화교의 현황

여기에서는 화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수원 화교의 변화와 현황에 주목하겠다. 「국적법」에 따른 체류자격과 귀화 문제, 취업 차별과 직업 선택의 문제, 재산권 규제와 화교 경제, 교육 정책과 진학, 투표권 획득에 대한 입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국적법」, 체류자격과 귀화문제

한국의 「국적법」은 태어난 지역으로 국적을 규정하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다. 한국

정부가 1950년대 말부터 18세에 이른 화교에게 외국인 등록을 의무화하여 화교들은 화교협회를 통해 수속을 밟아 한국의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을 했다.<sup>17</sup> 한국 화교는 2002년까지 F2 장기거류자격을 가지고 ‘체류’ 형태로 2~3년마다 체류자격을 갱신하며 살아왔다.

화교사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재산권 규제 등 각종 차별로 대만·미국·캐나다 등으로 떠나는 이민 붐이 있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이나 대만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따라서 수원 화교들은 형제, 자매, 자녀 등을 만나기 위해 대만, 미국 등지를 방문하거나 부모를 만나러 중국으로 가는 등 해외 출입이 잦은 편이다. 그런데 화교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회의를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해외를 오갈 때라고 한다.

한국 화교는 국적상으로는 대만인이지만 자신들의 국가인 대만에 들어갈 때마다 대만 임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가야 한다. 50~60대로 접어들면 요식업체, 의사협회 등을 통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동료들이나 동창모임을 통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동남아 등 해외 관광을 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때마다 화교들은 ‘외국인’ 이기에 여행을 통해 미리 비행기 티켓을 받아 따로 제출하여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국적은 대만인데 출생지는 대한민국인 것에 대해 각국의 입국 심사대에서는 의혹을 표시한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국적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나와 보면 일행들이 모두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본인의 짐만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 등의 경험담은 화교들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번 반복된 내용이다. 수원 화교들은 출입국 때마다 한국인도, 대만인도, 중국인도 아니라는 소외감과 공허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국은 한국대로 수십 년째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자신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자신들의 원래 고향인 중국도, 냉전체제 속에서 새롭게 국적을 얻게 된 대만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의 화교들에 대해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일제시거나 해방 직후 한국에 온 수원 화교 1세대들은 고향인 중국 산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라 믿고 중국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2~3세대부터는 스스로를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갈 존재들로 인식하기 시작했으

며,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귀화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기에 화교들이 한국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만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지켜 온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대만으로의 이주나 진학 문제 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교 1세대들은 처음에는 2~3세대가 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추면 펄쩍 뛰며 말리는 분위기였다. 2세대 화교 중에도 대만 국적을 지키며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 나가고자 하는 이들도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화교들이 여러 면에서 차별을 느끼는 걸 보면서, 또 수십 년간 한국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다 보니 점차 귀화에 긍정적으로 변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어렵게 귀화를 결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귀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부모 세대부터 손주 세대까지 4대째 수원에서 살고 있는 강학천은 귀화를 준비하였으나 신원보증제도 때문에 도중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 그는 1989년에 가족 전체가 대만여행을 갔는데 어린 자녀들이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며 보채는 걸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며 “앞으로 수원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에 부친을 설득하고 허락을 받아 귀화 서류까지 접수하였으나 4급 이상 공무원 2명의 연대 보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에서 귀화를 포기하였다. 수원에서 연대 보증인으로 가능한 이는 국회의원, 수원시장, 은행장, 언론사 부장급이었다. 강학천은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수원에서 한의사로서 명망을 쌓는 등 성공한 엘리트에 속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고위 공무원을 사귀고 어울리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고 반문하였다. 또 한국사회가 신원보증을 쉽게 해 주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한다.

예금잔고 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등본을 제출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소유를 증명해야 하고, 고위 공무원의 신원 보증, 귀화 시험 등 조건이 까다롭기에 대다수 화교들은 귀화를 포기하였다. 배우자가 한국인일 경우 귀화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나 부부 양쪽 다 화교일 경우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벽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원 화교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만 국적을 지닌 채 공식적인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F2 장기거류자격을 갖고 체류자격을 갱신하며 살아오던 화교는 2002년 정부가 대통령령 제17579호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수정령」을 발표하면서 ‘F5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F2 장기거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에 만 5년 이상 거주한 자 및 해당자의 20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이다.<sup>18</sup> 이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시행되었기에 수원 화교들은 이를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 중 하나라고 여기며 감사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영주권 제도의 도입으로 체류기간을 정기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불편과 차별을 느끼고 있다.

먼저 화교들은 이 법을 통해 이전에 사용하던 등록증과 번호는 없어지고 새롭게 13단위 숫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받게 되었다. 이 번호의 뒷자리는 5라는 숫자로 시작되는데 국내에서 아직 외국인등록번호 인증 시스템이 보급되지 않아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이용 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인터넷 쇼핑물을 사용할 때 영주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온라인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않기에 외국인 등록증을 스캔하여 팩스로 포털 회사에 보낸 후 인증받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핸드폰과 신용카드 신규 신청 시 ‘외국인’이라고 보증인을 요구받을 때가 있고, 은행 직불카드 신청이 안 되며 인터넷 बैं킹이 불편하여 은행에 직접 가서 일을 보곤 한다. 한국인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일상생활이 화교들에게는 불가능하거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진행되는 것이다.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 ‘만빈원’은 수원에서 3대째 내려오며 60여 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 중이라 수원을 대표하는 맛집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만빈원의 사장 유육군은 식당 주변의 은행에 현금을 가지고 가 통장계좌를 하나 개설하려 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금지당하였다.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화교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강학천 역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은행 대출도 되지 않아 돈을 융통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수원 사회에서 신분이 확실하고 누구보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인물임에도 이러한 차별을 받는데, 일반 화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욱 크다. 그래서 가족 중 귀화한 사람이 있거나 며느리나 사위를 한국인으로 맞이할 경우 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인터넷 아이디를 빌

려 사용하는 형편이다.

외국인등록증 이름을 한국식이 아닌 중국어 원음 발음 그대로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점도 화교사회에서는 불만이다. 화교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한국인과 동일하게 한국식으로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외국인처럼 굳이 중국 원어 발음대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자의 이름은 '이승연'인데 이를 중국 발음인 '리성옌'으로 알파벳 표기하여 학교, 관공서, 은행 등 모든 공적 업무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강학천은 화교 4세대인 어린 손녀에 대해 이름을 이렇게 중국식 발음 그대로 표기하고 있으니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름 때문에 겪을 불편과 어려움을 예상하며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유육군의 손녀 역시 화교 4세대인데 대만 국적의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이고 한 쪽은 영주권자임에도 그 사이의 자녀에게는 영주권이 없어 1년에 한 번씩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했다. 화교 4세대는 이미 조부모 세대부터 한국 땅에 들어와 정착한 지 60~80년이 지난 세대이다. 이들은 한국 땅에서 출생하여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신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 화교들 중에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전 부모와 형제에 대한 생사 확인을 위해 미국이나 홍콩을 거쳐 몰래 고향을 방문한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귀국 후 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곤 했다. 이러한 경험을 지닌 인물일수록 자신을 보호하고 신뢰해 줄 '국가'라는 존재가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 수원에서 대형 중식당을 운영했고, 수원화교협회장, 이민통합지원협의회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화교사회의 지도층으로 꼽히는 척명운은 혹시라도 살면서 사소한 문제가 생길 경우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이 커질까 봐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다. 심지어는 길을 걷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을까 봐 보행할 때도 조심한다고 했다. 이처럼 수원의 화교들은 「국적법」에 가로막혀 있어 '공식적인 이방인' 이기에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며 방어적인 태도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다.

## 2) 재산권 규제와 수원의 화교 경제

수원의 화교들은 수원 화교 경제가 쇠퇴하고 대량 이민을 발생시킨 정책으로 1960년대 시행된 토지법과 1970년대 중식당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1961년 9월 제정된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은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였기에 화교들은 살고 있던 집과 토지를 팔아야 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농사를 짓던 화교들은 대부분 농토를 잃고 중식당으로 모여들었다.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은 1968년 7월 개정되었으나,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한 200평 이하의 토지와 50평 이하의 영업용 토지 소유로 제한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 부의 주요한 축적은 부동산 투자를 통한 것이었지만, 화교는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었기에 그 길이 차단되었다.<sup>19</sup>

중식당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외식을 위한 식당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한국인 사이에 매우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화교음식점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한 가지 예로, 1973년 3월 5일 전국 중화음식점에 대해 「쌀밥판매금지령」을 내렸다. 이 금지령은 양식·한식·일식 음식점은 쌀밥 판매가 허용되고, 유독 중국음식점에서만 쌀밥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어서 매우 차별적인 것이었다. 「쌀밥판매금지령」은 화교단체들의 진정으로 3개월 만에 철폐되었지만 화교 음식점업자의 심리적 위축은 매우 컸다. 또 중화요리점의 주방에서 일한 한국인들이 중화요리 기술을 배운 다음 독립하여 요리점을 많이 차리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화교요리점은 한국인의 중화요리점에 잠식당해 거의 세력을 잃어버렸다.<sup>20</sup>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이 1975년까지만 해도 전체의 65%였지만 1990년에는 그 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현재 한국에는 2만 4,000여 개의 중식당이 있는데, 화교협회에 따르면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은 전국에 500여 개이다. 화교중식당은 전체 중식당의 2%대로 추산되며, 화교 조리사의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수원 내 중식당도 상당수가 경영난으로 그간 폐점하였다. 현재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은 고등반점, 길림성, 동보성, 만빈원, 북해원, 송무반점, 수원만두, 영화루, 청해반점, 흥경원 등으로 열다섯 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한때 수원 화교가 운





1970년대 고등반점(여가상 제공)



수원역 근처 매산로에 위치한 송무반점(1996년)

영하는 중식당들은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돈을 벌어도 외국인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집이나 가게, 토지를 늘릴 수도 없고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았기에 화교들의 재산은 별반 늘어나지 않았다. 또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기술을 배운 한국인들이 독립해 가게를 열었고, 최근에는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중식당이 증가하면서 중식당 영업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에 대한 경제조치가 많이 완화되었다지만 아직도 수원 화교들은 과거의 차별과 규제에 대한 경험, 외국인이기에 대만·한국·중국 어디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소심한 상태이다. 그래서 화교들은 투자를 할 때 가진 돈의 전체를 걸지 않고 소규모로 하기에 한국인들에 비해 사업 규모도 작고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본인이 가진 걸 모두 쏟아붓고 때론 대출까지 받으며 사업을 확장하기에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되고, 그중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종종 나오는 데 비해 수원 화교들은 큰 부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중식당들의 사장들이 왜 화교가 아니라 화교 밑에서 요리 기술을 배운 후 독립해 나간 한국인인지를 설명해 준다. 또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20~30대의 젊은 화교들은 전자상거래 시대로 접어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야 하는데 화교 신분으로서는 제약이 있기에 고심하고 있다.

수원 화교 중에는 최근에 이주한 주민들도 있지만, 화교사회의 지도층과 엘리트들은 대대로 수원을 지키며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원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취업이나 투자 목적으로 잠시 한국에 왔다 가는 외국인들과는 다른 잣대로 평가되길 희망하고 있다.

### 3) 취업 차별과 직업 선택

중식당은 화교에게 최후의 안전망이자 보루라고 일컬어진다. 요식업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진입이 가능하고, 그중에서도 중식당은 화교가 개척한 분야이므로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영역에 해당한다.

수원에서 이름 있는 중식당들은 부모 세대부터 이미 지역사회에서 터전을 닦고

단골을 확보하는 등 기반이 잡혀 있기에 자녀가 이를 물려받을 경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만빈원과 고등반점 등을 이어받은 화교 3세대들은 국제 요리경연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중식계에서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식당은 다른 경쟁 외식업체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 한국인에게 부러움을 사던 직종이었다. 궁핍하던 시절 특별한 외식을 위한 공간이었고 늘 현금이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교 1~2세대들은 지금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편리한 주방기계나 도구의 도움 없이 모든 재료를 직접 손으로 다듬으며 가족들이 온종일 식당에 매달려 일해야 했다. 이들은 요식업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직종이라 생각했기에 자녀가 공부에 소질을 보이면 사무직, 특히 전문직종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화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응시하지 못한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에 지원할 경우 한국인 대학생과 견주어 학점, 토익점수, 컴퓨터 실력 등에서 대등한 자격을 갖추더라도 국적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게 다반사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이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하다는 장점으로 요행히 기업체에 입사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출장, 금융문제 등에서 업무상 한계를 가졌고 승진에서도 제약을 받았다. 통·번역 분야로 취업할 경우 우선은 수입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프리랜서이기에 나이가 들면 우선적으로 정리되는 대상이 되었다.

반면 의약계열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전문직종일 뿐만 아니라 화교가 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였다. 의사 고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별을 두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만 하면 개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교사회에서는 의약계열을 적극 선호하였다. 화교의 경우 대학 진학 시 외국인특례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는 화교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수원의 화교들은 성균관대·삼육대·중앙대의 약대, 대구대·동국대·원광대의 한의대 등에 특례입학 전형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성균관대 약대는 수원에 캠퍼스가 있어 거리상으로도 가깝기에 화교들 사이에 선호되었다. 수원 화교들은 의약대의 경우 입학보다 졸업을 더욱 어렵게 여기고

있다. 특례 전형을 통해 한국 학생에 비해 조금 수월하게 입학하더라도 입학 후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면 유급되는 등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때문이다. 또 요즘 한의대의 교과운영은 한자가 아닌 영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어와 한문에 능통하다는 것이 학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화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업·관광상품 판매·포장업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큰 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이에 비해 수원의 화교는 시대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윤을 챙기지는 못하고 있다. 화교들은 수원에서도 기존의 요식업, 의약업, 자영업 위주가 아니라 직업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화교들의 경우 취업이 어렵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 자체가 좁은 것에 대해 많이 우려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화교 3~4세대는 보다 나아지길 희망하고 있다. 화교에게 문호가 열릴 시대를 대비하여 일단 교육에 매진하면서 실력을 쌓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4) 교육정책과 진학

1990년대 말까지 한국정부는 화교학교를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화교학교의 설립, 교과과정, 교사 채용 등에 거의 규제를 가하지 않았기에 일종의 방임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대만의 중화민국정부는 화교학교에 대만 학교 교육방침을 따르게 하고 교과서를 보내 주는 등 약간의 지원만 할 뿐이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은 일본이나 대만으로 진학하는 추세였다. 일부 졸업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였다.<sup>22</sup> 그러나 요즘은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여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분위기이고, 대만의 입시율이 높아 한국 출신 화교가 대학에 들어가기 힘든 분위기이다. 따라서 화교들의 한국 대학 진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 진학할 때 부모 모두 화교인 경우는 정원 외 특례전형에 해당되므로 입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그러나 특례입학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부모 양쪽 모두 화교일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부모 한 쪽이 한국인인 경우가 많은 화



교동에 위치한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교사회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쯤 위장이혼을 하기도 한다.<sup>23</sup> 인터뷰 대상자 중 이러한 사례는 없었지만 이들은 자녀나 손자들의 동창생 중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화교소학교를 거쳐 화교중·고등학교까지 나온 경우 대만식 교육에 익숙하고 중국어가 보다 편리하기에 한국 대학 진학 후 전공 교과를 따라가고 적응하는 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전국의 화교소학교는 모두 27곳으로 예전엔 화교소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의 중국어 교육 붐으로 몇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을 받고 있다. 일부 화교소학교들은 한국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면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명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sup>24</sup> 수원화교중정소학교도 전체 학생의 수 중 한국 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 수원화교중정소학교는 학생수의 부족으로 지방의 화교학교들이 속속 폐교되는 것을 목격해 왔기에 이제는 ‘화교 학생들을 위한 중국 학교’가 아닌, ‘한국 땅에서 중

국식 교육을 하는 학교'로 변화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중학교를 한국 학교로 가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은 4-5학년 때 한국 학교로 전학 가는 숫자가 많다. 수원에서는 수원화교중정소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의 화교 고등교육기관이 없기에 인천이나 서울의 화교중·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수원의 일반 중·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수원 화교들은 화교사회를 지탱하고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화교소학교의 존재를 꼽았다. 소학교 6년 교육만 마치더라도 중국어를 평생 안 잊어버리고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 5) 지방선거 투표권 획득과 유권자로서의 입장

화교들은 한국 땅에서 수십 년간 투표권 없이 지내 오다가 2005년 7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외국 국적 국내 거주자에 한해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얻게 되었다.

수원화교협회 총무인 우진강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지도 50여 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투표일만 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표는 고사하고 차별받는다는 생각에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 차별받는 화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영주권이 없거나 영주권을 받고도 3년이 지나지 않아 투표권을 받지 못한 화교만 수원에 400여 명에 이른다.”며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투표권이 주어진 외국인은 경기도 내에 1,615명으로, 도내 전체 유권자(872만 6,425명)의 1.9%를 차지하고 있다.<sup>25</sup>

화교는 한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기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권만 있다. 수원 화교들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교들에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수원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식당 등에 방문하여 건의 사항을 묻기도 하는 등 화교를 유권자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원 화교들은 이왕 자신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로 확대시켜 주길 정부에 희망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만 있으므로 소속된 지역에만 유권자로서의 파위가 한정된다는 것이다. 화교는 수년간 체류했다가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을 통한 이주와는 달리 이미 한국에서 4대째 살아가고 있기에 한국사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유권자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화교협회나 화교학교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몇몇 이들은 수원 지역 정치인의 후원회에 들어가거나 지역 발전과 관련한 간담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수원 시민으로서, 유권자로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 3. 수원 화교의 조직과 사회적 관계

수원 화교사회는 팔달구 교동에 위치한 ‘수원화교중정소학교’와 ‘수원화교협회’를 중심으로 유지된다. 수원 화교들은 자녀 교육, 각종 행정 업무, 경조사를 치르기 위해 이 두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 외에 화교 청년들의 모임인 ‘화교청년회’, 여성 모임인 ‘부녀회’와 ‘계모임’,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동업조직’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수원화교협회와 수원화교중정소학교의 역사, 업무 현황, 역할 등을 중심으로 수원 화교사회의 관계망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수원화교협회(水原華僑協會)

화교협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이라면 누구나 소속되어야 하는 조직으로 화교사회에서 가장 구심점이 되는 곳이다. 화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화교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이주할 경우 해당 지역 화교협회로 적을 옮긴다. 화교협회는 화교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공, 전출입과 출생사망 신고 등을 담당한다. 회원의 출생, 사망, 결혼, 신고 등 모든 법적인 기록이 협회에 보관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되는 거류신고 중 연기신청, 외국여행을 위한 추천장, 토지매매

허기증과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서류작성에도 협회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교들은 정기적으로 협회를 방문하게 된다. 또 중국영사관을 통해 전해지는 각종 보고와 전달사항이 화교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sup>26</sup> 화교협회는 화교들에게 동사무소이자 시청, 법무부, 영사관 등의 업무를 두루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수원화교협회는 2012년 현재 수원시 외에 안산,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여주, 이천, 오산, 화성 등의 지역을 포함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 호적을 두고 있는 화교 인구는 총 2,000여 명 선이다. 수원화교협회는 별도의 건물 없이 수원시 팔달구 교동 172번지에 위치한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건물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원화교협회의 전신인 중화공회는 1934년 5월 30일, 초봉파(初鳳坡)가 중심이 되어 수원 지역의 화교 유지들의 힘을 모아 설립한 조직이다. 이 공회는 당시 300여 명의 화교가 살고 있던 수원 지역에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에 이미 설립된 중화상회 또는 공회와 긴밀한 협조를 목적으로 하였다. 중화공회는 후에 중화상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1947년 각 지방에 산재한 상회조직이 일원화된 조직인 전국의 자치구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수원화교자치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7년 당시 중국의 총영사였던 유우만은 남한을 48개 지역의 자치구로 행정조직화하였다. 이 자치구 조직은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행정조직을 한국 화교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다. 전국을 갑·보·구의 행정 단위로 나누어 가구 10호는 1갑, 10갑은 1보, 약간의 보는 1구로 각 자치구를 나누었다. 이는 중화민국의 지방조직단체와 똑같다. 이는 한국에 있는 화교조직(단체)의 특색이자 한국 화교를 성공적으로 조직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화교자치구는 화교협회로 명칭이 다시 바뀌어 현재에 이르렀다.<sup>27</sup>

수원화교협회는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회로 나뉜다. 협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데, 회비는 1인당 매월 2,000원 이상을 내도록 한다.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겐 회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원 화교 중 회비를 내는 인원은 300여 명이다. 회원의 경제적 형편이나 관심도에 따라 월 10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화교 개개인의 자율성에 기대하는 것이기에 정해진 월 2,000원만 내는 회원이 훨씬 더 많다. 화교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들어



수원화교자치구 춘절 연예대회(1956년)



수원화교자치구의 춘절 축하 공연 연극 대파산 정변 (1957년)



수원화교청년회의리셉션(1956년)

오는 수입은 월 50만~6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는 협회에서 상근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의 월급조차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회비로는 협회 총무의 출장비로 사용하고 있고, 총무는 협회 업무뿐만 아니라 화교중정소학교의 물품 관리 등 운영 업무를 함께 보면서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화교들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중화민국의 건국기념일인 쌍십절,<sup>28</sup> 설(구정)이 있고, 그 외에 부녀절, 청년절, 장개석 총통의 생일 및 사망일, 화교절 등이 있다. 수원 화교협회에서는 화교학교 강당에서 공동차례를 지내거나 기념식을 가졌으며, 운동장에서 지역 화교를 위한 경로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 자신들의 고향인 중국이 적국(敵國)으로 인식되면서 화교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간 수원 화교사회에서는 장개석의 대만 정부를 지지한다는 공개적 입장 표명과 반공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주요 행사 중 하나였다.





쌍십절(雙十節) 기념일 행사를 위해 모인 화교들

그러나 화교 1세대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모이던 화교들의 참여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원 화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화교 1세대가 생존해 있을 때만 해도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였기에 명절과 행사를 열심히 챙겼지만, 화교 1세대가 고령이 되고 주도권이 2~3세로 넘어가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설 명절에 화교학교에서 단체로 차례를 지내는데, 예전에는 전 가족이 참여하였지만 요즘은 각 가정의 만이들 한 명이 대표로 참석하는 등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화교 젊은이들은 점점 여가와 개인 생활에 치중하는 등 개인주의적인 세태를 보여 준다. 이는 요즘 한국인 젊은이들이 명절에 간략하게 차례를 지내고 여행이나 레저를 즐기는 것과 동일하다.



수원 화교들이 준비한 장개석 총통 69세 생일축하연의 연극 공연

수원 화교 전체가 장개석 총통 70세 생일축하연을 위해 모였다.

장개석 총통 74세 생일축하연에 수원 화교소학교 교사, 화교협회 간부, 국민당 지부 당원들이 모여 절을 하는 모습



장개석 총통 74세 생일축하대회 농구시합



장개석 총통 사망 당시 수원 화교들이 준비한 추념식



수원화교청년반공구국회 거행 49년 혁명선열 기념 및 제17회 청년절 축하 행사(1960년)



공군총사령 왕숙명 장군의 수원화교중정소학교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



방첩대의 최 특무대장이 수원 지역에 방문하여 화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1절 기념 경축대회에 화교협회 간부가 참석하고 있다.



수원에서 열린 반공행사에 참여한 화교

요즘 화교 행사는 주로 화교학교가 주최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학생들이 참석하는 행사여야 학부모들의 참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교소학교의 웅변대회에는 전업주부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영업업을 하는 아버지들도 휴가를 내거나 잠시 생업을 중단하고 참관한다. 자녀가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부 화교들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수원화교협회가 행정 사무와 명절 행사 이외에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화교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수원 화교는 인원수가 적고 직장이나 다른 조직을 통한 사회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집안의 대사는 화교들끼리 뭉쳐야 잘 치러 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협회 총무의 업무 중에는 경조사와 관련한 출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며 도와주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에 가서 사회를 보거나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소한 부분까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웅변대회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쌍십절 체육대회(수원화교중정소학교 제공)

지 챙기는 등 화교협회의 일은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진행된다.

수원화교협회의 총무는 수원 화교사회 개개인의 출생, 사망, 전출입, 경조사 등 화교들의 신변사항은 물론 생업의 변화 동향 등을 일선에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화교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수원화교협회의 회장과 이사 등은 대사관, 경찰 임원, 정치인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수원화교협회 회장 척명운(남, 1955년생)은 아버지 세대부터 수원에 정착한 인물로, 수원에서 사천대반점·화흥원 등 대형중식당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서울에서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청년 시절에는 화교청년회 회장직을 맡았으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감사·이사직도 역임하였다. 현재 화교협회 총무로 재직 중인 우진강(남, 1958년생)은 대구 출신의 화교인데, 1985년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교사로 부임했다가 3개월 만에 아버지 초상을 당하였다. 이때 차량 2대의 문상객을 지원받고 부의금 봉투만 70여 장을 받는 등 수원화교협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아무 연고 없는 수원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 평소 늘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협회 총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만한 인력이 마땅치 않자 본인이 학교 업무와 총무 역할을 병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회장, 이사, 감사 등 화교협회의 임원과 화교학교 교장은 별도의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명예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수원에서 대형 중식당을 운영하거나 한의사, 의사, 사업가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잡은 50~60대가 주축이 된다. 화교협회의 회장, 이사, 감사 등은 화교협회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선거를 통해 뽑는 선출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화교사회에서 인품, 인간관계, 기여도, 학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두루 존경받는 인물들로 구성된다. 협회 임원이나 학교 교장은 상근직이 아니라 회의나 행사 등이 있을 때 모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그 외에 화교협회에 소속된 하부조직으로 수원화교청년회·부녀회 등이 있으며, 협회는 이를 감독·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원화교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연륜과 화교들 사이에서의 신뢰와 친밀감이 필요하다. 외지에서 수원으로 들어온 경우 수원 화교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기까지 근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원화교협회 중국어 강습반 수료식(1976년)



수원시장과 수원화교의 면담(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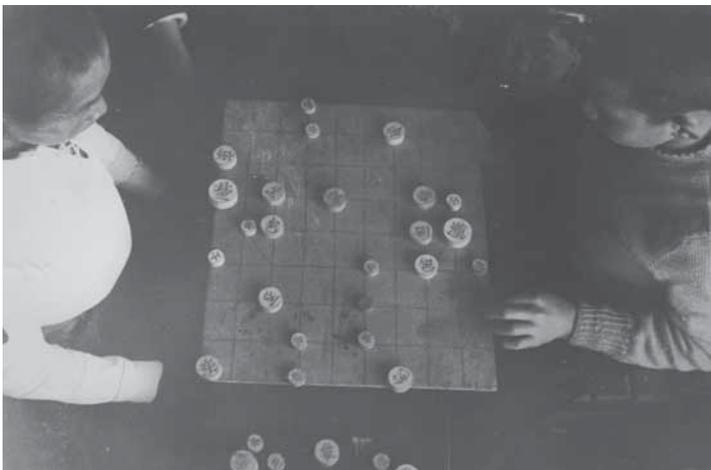
## 2) 수원화교중정소학교(水原華僑中正小學校)

수원화교중정소학교는 유치부와 초등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 및 인근 지역 화교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장소는 수원시 팔달구 교동 172번지로 매산119안전센터 건너편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다. 수원역과 가까우며 시내버스는 물론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큰 길에서 볼 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중에서도 학교의 존재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

수원 지역에는 해방 직후까지도 화교소학교가 없어 수원에 있던 화교 학생 17명은 기차를 타고 서울 명동의 화교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형편이었다. 1946년 영등포역에서 기차가 탈선하면서 서울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수원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 다시 명동소학교로 되돌아갔다. 전화시설이 열악하여 학생들과 쉽게 연락이 닿지 않았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신변을 크게 걱정하였고 당시 화교협회 회장이던 손광안이 트럭을 빌려 서울까지 가서 학생들을 데려오는 소동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원 화교사회 내에서는 수원에도 화교학교를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1946년 장개석 총통의 회갑선물로 모았다가 그가 일절 선물을 거절하면서 되돌아온 2,000원의 자금과 화교들의 모금을 통해 학교가 설립되었다. 장개석 총통의 호인 중정(中正)을 따서 수원화교중정소학교라 이름 짓고, 교사 1명이 학생 21명을 가르치면서 개교하였다.<sup>29</sup>

1946년 12월 1일 학교를 개교할 당시에는 매산초등학교 맞은편 사찰 옆 건물에서 수업을 하다가, 한국전쟁 후 현재의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였다. 학교 부지 주변은 개교 당시 허허벌판이었지만 학교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화교들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화교학교의 입지를 분석해 볼 때 화교학교가 들어서는 곳이 대부분 훗날 상업 중심지로 형성된다고 한다. 외국인은 택지 200평, 상가 50평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 때문에, 현재의 학교 부지는 등기부에 3명의 명의로 나뉘어 있다가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이 해제되면서 1998년 학교 명의로 등기 이전되었다.<sup>30</sup>

화교학교는 대만의 교육부가 아니라 해외 담당부서 교무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준공식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성립 10주년 기념

화교 학생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제8회 졸업생 기념사진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제9회 졸업생 기념사진

고, 이곳을 통해 교재와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 교과서는 주대만 한국대표 부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모든 교과 과정은 중화민국(대만) 교육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예전에는 전국의 화교학교 교사들이 매년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교과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회의를 하는 등 서로 교류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급에 대한 압박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수원화교중정소학교는 인허가를 받은 지 6년 정도 되었다. 시교육청에 법인체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학교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순서인데 학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하다 보니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학교 운영비는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한국의 사립학교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학교 졸업생 중 성공한 사람들, 특히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독지가의 비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학교 건물 2채 중 하나는 판잣집 형식의 낡은 건물이었는데 7년 전 6억여 원을 들여 개축하였다. 대만대사관에서는 이러한 큰 공사에 대해서도 10분의 1 정도까지만 경비를 지원해 준다. 이번 개축에는 1만 5,000달러를 간신히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그간 운영비를 모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최근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기에 현재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개축하려고 계획 중이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총 51개교이다. 이 중 화교학교는 서울의 한국한성화교소학교 ·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인천의 한국인천화교소학교 · 중산중고등학교, 의정부의 화교소학교, 수원의 수원화교중정소학교, 대구의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부산의 부산화교소학교 · 부산화교중고등학교, 강원도의 원주화교소학교 등으로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다.<sup>31</sup>

화교 인구가 줄어들어 따라 화교 학생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동두천 · 천안 · 청주 · 울산 등에 있던 화교학교가 최근 10년 이내 폐교되었다. 하지만 수원화교중정소학교는 위기를 잘 넘기고, 중국어 교육 열풍 속에서 입학한 한국 학생들 덕



화교중정소학교 신축 낙성을 기념하여 만든 비단 휘장 노란 두루마리에 학교 건축 비용을 기부한 화교들의 명단을 적어 놓았다.



강당 건물 벽에 붙은 전기(奠基)  
중화민국 51년(1962년) 7월 21일에  
주한 중화민국대사가 썼다.



강당으로 사용하는 구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건물



수원 화교중정소학교 게시판

분에 오히려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원화교중정소학교는 초등부 105명, 유치부 40명 내외로 총 150명가량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sup>32</sup> 재학생은 수원뿐만 아니라 용인, 수지, 안산, 안양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다. 부모가 화교가 아닌 순수 한국인 학생 비율이 75~80%이며, 나머지는 화교나 조선족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등록금은 이원화되어 화교 학생에게는 한국 학생에 비해 수업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대만 학교와 동일하게 수업 일정 및 공휴일을 지켰으나, 현재는 한국의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 일정에 따르고 있다. 이 학교의 교장인 강학천(남, 1957년생)은 수원화교중정소학교를 “한국 땅에서 중국식 교육을 하는 한국학교”로 인식하며 한국 교육 환경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수업은 모두 중국어(번체자)로 진행하며, 주 1회 한국어 수업이 있다. 특별 수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의 교사는 원어민 교사이다.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에서 화교 학교를 졸업한 후 대만에서 학부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2009년도 발표에 따르면 수원화교중정소학교는 정규 교원(일반교사) 11명, 비정규 교원(시간강사) 4명으로 총 15명의 교원을 두고 있다. 유치부는 1년과 2년 두 과정으로 운영되며, 초등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구성된다.





2007년 여름 대만 연수(수원화교중정소학교 제공)

학교의 교훈은 예의와 의리, 청렴과 부끄러움을 알지는 뜻에서 ‘예의염치(禮義廉恥)’이며, 특색사업으로 매년 중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해 재학생들의 중국어 실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학교 건축양식과 학교 급식 메뉴는 모두 한국적이다. 3학년과 5학년 여름방학 때는 대만이나 중국으로 언어연수를 가서 현지어, 생활풍습, 민속놀이 등을 통해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화교학교의 학력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모가 모두 대만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한국의 중·고등학교 진학이 자유롭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자녀는 한국인으로 인정되어 화교학교에 다니더라도 정규학력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은 5-6학

년 때는 한국 초등학교로 전학을 기는데, 전학을 허락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이에 한국인 학부모들은 자녀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고민이 많아지고 중도 이탈률도 높아진다.

화교중·고등학교는 서울·인천·대구·부산 등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만 있으므로, 수원의 화교 학생들은 화교소학교 졸업 후 서울이나 인천의 화교학교로 진학하거나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중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출신이 서울의 화교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그곳에서도 높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등 화교학교 사이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우수한 편이다. 화교협회 우진강 총무에 따르면 그가 재직한 1985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출신 중에 의학박사가 3명 배출되었고, 약사와 한의사는 40~5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원화교중정소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국인 학부모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화교중정소학교를 선택하였다고 했다. 수업이 소수정예식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왕따가 없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학생 숫자가 적다 보니 1학년 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같은 아이들끼리 만나게 되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속속들이 친해지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한다. 학교 교장 및 교직원들은 자녀를 화교학교에 보내는 한국인 학부모들은 경제력과 지적 수준이 높은 편이며, 무엇보다 교육철학이 분명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였다.

학교의 교장과 임원(이사, 감사)은 화교협회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열어 이들의 인품, 인간관계, 화교사회에서의 역할, 학력 등이 교육자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선출한다. 이들은 화교협회와 마찬가지로 월급이 없는 무보수의 명예직이기에 화교사회에서 교육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임기는 화교협회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교장은 강학천(남, 1957년생)으로 교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7년제 교장직을 맡고 있다. 강학천은 한의학 박사이며, 학교 이사장은 의학 박사로서 화교사회에서 엘리트이자 존경받는 인물들로 꼽힌다. 강학천은 교장과 한의사 업무를 겸직하고 있기에 오전 일찍 학교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본업을 위해 한의원으로 향한다. 그



는 당장의 성적보다는 앞으로 단체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캠프를 열어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거리와 더불어 협동심을 길러 주고 웅변대회를 통해 발표력과 리더십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수원에 화교소학교가 있어 체계적인 어린이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에 어린 나이의 자녀를 중국으로 홀로 유학 보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조기유학과 기러기 가족이 양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제대로 중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였다.

### 3) 다양한 조직과 사회 관계망

수원화교사회는 화교협회와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유지되는데, 이 외에 청년회·부녀회·자모회·동업조직·동창회 등의 각종 모임이 존재한다.

자모회는 화교 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쌀과 반찬 등을 지원해 주고, 장학금을 유치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화교 교육에 앞장선 모임이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화교 학생의 숫자가 감소하였고 재학생들이 한국 학생 위주로 재편되면서 움직임이 뜸하다.

여성들의 모임으로 화교 부녀회가 있다. 수원은 남성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여성들은 각종 행사나 모임에 남편과 함께 참여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화교 남성들은 여성들이 좀 더 활발하게 조직을 갖추고 화교사회를 위해 일하기를 희망한다. 대구에서는 2004년도에 소상원(簫相援)이 협회장으로 당선됨으로써 한국 화교사회에서 여성 최초로 화교협회 회장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수원의 분위기로는 당분간 여성 회장 배출은 힘들 것이라 전망한다.

수원 화교 여성들 사이에는 계모임이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한 친목이나 목돈 굴리기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화교가 가지는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기에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무원이나 기업체 취업이 어렵다. 따라서 화교 3세대들은 사업(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다. 계 조직을 통한 목돈 마련은 각 가정의 자녀들이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수단으로 쓰인다.

수원화교중정소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에 비해 학생 숫자가 적기에 학창시절부터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지내며 친밀한 편이다.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동창회를 유지하고 꾸준히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에 계속 거주하는 화교의 경우 소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한 차례 흩어지고 이후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결혼 후 학부모가 되어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수원화교중정소학교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재회하게 된다. 화교협회의 우진강 총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단쳤던 제자가 학부모가 되어 다시 학교를 찾아와 자녀 교육문제로 고민한다며 학교를 기반으로 한 화교사회의 끈끈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화교 1~2세대 중에는 한국인들과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어울리는 걸 어색해 하여 화교 모임에만 치중한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화교 1세대 중에는 70~80대가 된 현재 까지도 한국어에 능숙치 못해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20~30대의 젊은 화교들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자랐기에 한국어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국내 대학, 학원, 동호회 등 각종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화교 1세대가 고령으로 속속 사망하고 2세대가 60대로 접어들면서 화교사회에서는 향후 경조사를 치르는 등 인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협회 이사, 감사 등 화교 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젊은 시절 활약했던 '화교청년회'를 재조직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만민원의 유육군, 고등반점의 여가상 등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화교청년회를 만들어 주변 젊은이들에게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화교사회의 종교기관으로는 '달마불교회'와 '중화기독교회'가 있다. 수원에는 달마불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화기독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화교 1명이 얼마 전 떠남으로써 화교 종교 조직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지 않다. 수원의 중화기독교회는 중국 선교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화교들은 각자 집 주변의 교회나

성당·절 등을 통해 종교활동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본인이 화교라는 신분을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다.

수원 화교 중에는 중식당 종사자가 많아 요식업 종사자들이 모임을 할 경우 자연 스레 화교끼리 만나게 된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화교끼리 따로 모임을 가지기도 하는데, 중식당이 보통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한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여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눈다. 다른 업종 종사자와도 폭넓게 어울리고 싶지만 서로 여유 있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직업을 가진 화교끼리 자주 만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 화교사회는 화교협회와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청년회, 부녀회, 자모회, 동업 조직, 동창회 등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화교들은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관계로 서로 만나고 있다. 20~30대에 화교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은 나이가 들어 50~60대가 되면 협회나 학교의 이사, 감사, 회장 등으로 진출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화교청년회를 이어받는 등 화교사회는 일부 지도층이 이끌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화교들은 이러한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자신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그에 비해 보수가 없기에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거나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는 사람,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 기반을 잡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일이 아닌 남의 일까지 발벗고 나설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화교사회를 대표하는 얼굴이기에 학력, 인품, 인간관계, 일 처리 능력 등 여러 면에서 출중한 인물을 뽑다 보니 동일 인물이 화교협회와 화교학교의 이사, 감사직을 중복하거나 돌아가며 하는 경우도 있다. 여가상은 화교협회 부회장과 화교학교 상무이사를 지냈고, 척명운은 화교청년회 회장과 화교학교 감사장·이사와 수원화교협회 회장을, 유육균은 남편이 화교학교 교장이었으며 아들들은 화교청년회의 중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까지 수원 화교사회를 이끌어 온 이들 화교 엘리트들은 앞으로 더 많은 화교들,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원 화교가 지난 60~70여 년간 지켜 온 단결력과 상부상조의 덕목을 이어 가길 희망하고 있다.

#### 4. 수원 화교의 일상과 문화

여기에서는 수원 화교의 일상과 문화를 살펴보겠다. 먼저 화교사회에서 연애와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결혼식 풍습은 어떠한지,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 등 가정 생활은 어떠한지를 보겠다. 화교 2세대와의 심층 면접, 만빈원 유육군의 차남이 치른 중국식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구술자료를 토대로 하겠다. 다음으로 수원 화교들은 명절, 장례와 제례, 생일잔치 등을 어떻게 치르고 있으며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 이들의 생활 풍습과 문화를 화교들이 제공한 사진자료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연애와 결혼, 가정생활

수원에 유입된 화교 1세대는 가족 단위의 이민보다 남성 1인 중심의 이주가 많았다. 일제시기에는 중국 산둥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이 단신으로 건너와 한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 등 경제적 기반을 잡은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다수였다. 해방 후에는 중국 내전으로 10~20대 젊은 남성들이 군 입대를 피해 한시적으로 머물다가겠다는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며, 중국 국민당 신분으로 중국의 사회 혼란을 피해 들어오기도 했다.

화교 인구의 남녀 성비는 1910년경 10 대 1, 1935년경 5 대 1이었다. 화교사회에는 남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화교 1세대부터 화교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1949년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면서 고향에 갈 수 없게 된 화교가 중매혼의 대상으로 국내에서 한국 여성을 배우자로 찾기 시작하였다. 고향에 남겨 둔 처자와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화교들도 대부분 재혼을 하였다. 화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은 기록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1960년대까지는 전체 화교 결혼의 10% 정도로 추측된다.<sup>33</sup>

수원 화교들의 구술에 따르면 화교 남성들은 강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중식당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경제적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외국인임에도 한국 여성들에게 배우자감으로서 매력적인 존재였다고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화교 중에도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경우가 있고, 한국인 며느리를 맞이하기도 했다. 결혼을 매개로 화교와 한국인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셈이다.

그러나 화교 1세대들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다양한 국적의 부부들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이 일반화되기 전이었다. 이때까지 국제결혼이라 하면 주로 미군부대에 근무하던 미국인과 한국 여성 사이의 결혼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화교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인들은 이들 부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화교 2세대들은 어린 시절 “폐놈, 짱꼴라” 등의 놀림을 받으며 자랐다. 화교와 결혼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과 결혼했냐며 수군거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신기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또 부부 간에도 언어와 식습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고 자란 화교 2세대들은 같은 화교와 결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수원외 화교 1세대들도 자녀에게 “뿌리를 잊지 말아라.” “기왕이면 화교, 중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더 좋다.”는 식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한국인 며느리를 맞을 경우 화교 시부모와의 언어적·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과연 집안에 잘 융화될 것일지 걱정하였다고 한다. 화교 1세대들은 화교에 대한 각종 사회적 규제와 차별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대만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 한국은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배우자를 화교로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화교들의 중식당이 대표적인 외식업으로서 번성하던 시기에는 경쟁 상대 없이 돈을 잘 벌어들였다. 궁핍한 시기에 맛있는 음식과 손님들로 북적대는 중식당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집에 시집가는 여성은 먹을거리 걱정 없이 편하게 잘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각오 없이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식당은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쳐 노동하는 형태였고, 주방은 지금과 달리 환경과 시설이 모두 열악하여 육체적으로 힘든 분위기였다. 경제력과 안락함을 기대하고 결혼했으

나 막상 들여다보면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식당에 매여 힘들게 일하는 분위기에 실망하여 얼마 뒤 집을 나가는 한국인 신부들도 있었다. 주변에서 이러한 신부들을 목격한 이후로는 같은 화교들끼리 결혼해야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국사회에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참한 화교 아가씨가 있다고 하면 신랑감의 부모들이 일찍부터 짐을 짊어 놓고 며느리로 맞아들이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한다.

한국인보다는 화교를 배우자로 맞이하는 게 좋다는 인식이 가장 팽배한 것은 현재 50~60대인 화교 2세대들이 결혼할 당시였다. 한국에서 중·고·대학을 나온 화교 청년들은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 여성과 연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대로 화교 아가씨를 물색하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일수록 여성 쪽에서도 “왜 짱꼴라하고 결혼하느냐?”며 화교보다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를 선호하였다. 양쪽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는 경험도 했으며 사랑과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화교 여성들도 되도록 화교와 결혼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남성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였다. 또 화교 남성과 한국인 여성보다는 화교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의 결혼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수원의 화교 여성들은 화교 집안이든 한국인 집안이든 어디에 가셔도 잘 적응하여 무난하게 가정생활을 했다고 한다.

화교 2세대는 주변의 권유와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한 후 후회하는 지인들을 보았기에 자신들의 자녀들 결혼에 대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자녀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였다.

수원 화교사회는 유교사회의 전통으로 남성 중심, 가장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교육과 정체성도 부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더라도 남편의 뜻에 따라 자녀들은 화교학교에 다녔다. 수원 화교 3세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화교소학교를 다녔다. 화교소학교에서 6년간 교육을 받으면 중국어에 능통해질 뿐만 아니라 역사 인식, 문화적 소양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화교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할 경우, 가부장적인 문화와 시대의 간섭 때문에 자녀를 화교소학교에 보내는 비율은 20%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자녀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였다. 화교사회에서는 화교 여성이 한국 남성



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세대부터 화교로서의 정체성이 단절된다고 보았다.

현재 20~30대의 젊은 층에 해당하는 화교 3세대는 50% 이상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스스럼없이 한국인과 어울리는 등 한국화되었다. 이들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이므로 80~90% 이상이 한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한다. 또 화교 남성 중에서도 의대 출신의 경우 90% 이상, 한의대의 경우 80% 이상이 연애를 통해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 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엘리트 화교 남성일수록 여성 쪽에서도 '외국인'이라는 거부감을 덜 가지기에 집안의 반대 없이 결혼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부모, 부모 세대 역시 이제는 세계화, 다문화 시대이며 수십 년간 한국에서 살아왔기에 자녀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많이 너그러워진 편이다.

화교끼리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는 주로 수원화교중정소학교 출신의 선후배와 동창들을 통한 소개로 이루어진다. 수원 화교사회는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서로 연결되며,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를 알 만큼 좁은 사회라고 한다.

결혼식은 화교 1세대들이 산둥 지역에 살 때 보고 배운 풍습대로 한다. 1930~1955년에 주로 한국에 온 화교 1세대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결혼식을 보고 진화시킨 형식이다. 지금의 화교 결혼식은 전통 산둥식도 한국식도 아닌 수십 년 전 산둥의 전통 결혼식에 한국식과 서구식이 혼합된 형태라고 한다.

수원 화교들은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결혼식을 했지만, 요즘은 대형 중식당을 선호한다. 수원에서 화교들이 경영하는 중식당 중에는 예식을 진행할 만큼 넓은 홀을 가진 곳이 없어 서울의 대형 중식당을 주로 이용한다. 간혹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인 수원 조원동에 위치한 다송을 이용하기도 한다. 다송에는 하객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식을 올릴 때는 화교협회 총무가 사회를 맡거나 예식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례는 수원화교협회 회장이 가장 많이 하는 편이고, 협회장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을 경우 수원화교중정소학교의 이사장 혹은 주한 대만대사관의 총영사와 영사 등이 대신한다. 특별히 '굿발'이 좋을 경우 대만 대사가 주례를 맡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각종 경조사는 화교들의 단결력이 가장 드러나는 순간

으로 웬만하면 수원의 안면 있는 화교들은 참석해서 서로 축하해 주는 분위기이다.

화교 결혼식이 한국의 결혼식과 다른 특징은 주례 외에도 신랑, 신부를 중매해 준 사람이 단상에 함께 서며, 결혼 서약서를 읽고 날인을 한다는 점이다. 중매자가 없이 남녀 당사자가 자연스레 연애결혼을 한 경우에도 화교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인물을 형식상 중매자로 세워 예식에 함께한다. 하객들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사회와 주례를 본다. 전통 중국 결혼식에서는 하객들도 붉은 옷을 많이 입었지만 요즘은 한국과 동일하게 정장이나 평상복을 입는다. 예식이 끝난 후 식사를 하면서 악사와 밴드를 동원하여 피로연을 연다. 피로연은 매우 흥겹고 떠들썩한 분위기이며, 하객들이 나서서 노래를 부르느라 노래 시간만 1시간 이상 이어진다. 한국 결혼식이 엄숙한 분위기라면 화교 결혼식은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기는 파티 문화의 성격이 강하다. 50~60대 이상 연령의 협회나 학교 이사, 감사, 총무 등 화교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들도 이 같은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간다.

화교들 본인의 이야기, 화교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주부들의 구술을 종합할 때 화교 가정은 한국 가정에 비해 시집살이나 시댁의 텃세가 적고 혼수 갈등이 거의 없다고 한다. 통상 남성 측에서 예식 비용과 집을 장만하고, 여성 측은 가구와 이불 등 세간을 준비한다. 남성 쪽에서는 예물이나 예물 대신 현금을 준비하고, 여성은 시댁에 예물을 보내지 않는다. 1950~1960년대 출생한 수원 화교들은 결혼할 당시 여성은 세숫대야, 비누, 수건 정도만 구비해 와도 괜찮았다고 한다. 남성은 결혼 당일 예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대신, 결혼 당일 축의금은 여성 측 축의금도 남성 측으로 넘어가 함께 예식 비용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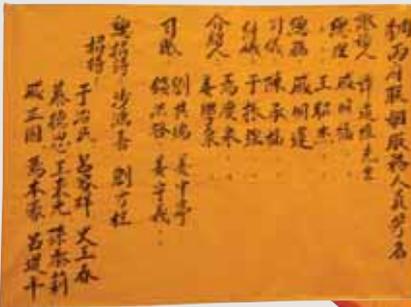
화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 입장에서는 한국 가정보다 제사 등 집안 행사가 적어 수월한 면이 있다고 한다. 한국인 여성과 화교 남성의 결혼은 결혼 전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망설이게 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장점이 부각된다고 한다. 화교는 법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한 화교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금융거래를 하며, 때로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등 재산을 등록한다. 한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어떤



중식당 다솜 에서 중국식으로 치른  
민민원 유육군의 차남 결혼식  
주례 외에 유육군, 수원화교협회 회장, 중매자  
등이 단상에 올라가 예식의 중인으로 참석한 후  
혼인서약서에 날인하였다.



예식 이후 치러진 피로연  
고객들은 식사를 하면서 밴드의 연주에 맞춰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등 흥겹고 merry한 분  
위기이다.



예식장 입구에 주례, 중매인, 진행자 등  
결혼과 관계된 이들의 명단을 붙여 놓았다.

화교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작성하는 방명록



가정에서는 남편은 물론 시부모와 시동생 등 모든 시댁 식구들이 한국인 며느리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하고 핸드폰을 개통한다.

1998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인이면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용이해졌다. 이에 한국인과 화교 사이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한국인이 될 수 있고, 귀화를 원하는 화교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화교끼리 결혼하여 대만 국적을 지키지 않는 한 화교 인구는 결혼, 출산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수원 화교들은 앞으로 30여 년 후면 법적으로는 정체성으로는 수원에 화교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 2) 명절, 장례와 제례

수원 화교는 다른 지역 화교에 비해 전통을 잘 지키고 격식을 따른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교 1세대가 가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정월 초하루면 어린이와 청년층이 중심이 되어 새벽부터 화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다녔다고 한다. 1세대들이 노쇠하고 사망에 이르면서 이 같은 전통은 점차 약화되었다. 수원의 화교들은 한국과 풍속이 다르고 인원이 적은 데서 오는 외로움을 없애지는 취지에서 매년 설날 오전에 수원화교중정소학교에 모여 공동 차례를 지낸다. 화교 1~2세대들은 대부분 공동 차례에 참여하였으나 젊은 세대인 3세대부터는 가정당 한 명씩 대표로 참석하는 집이 많은 분위기이다. 차례가 끝나고 오후에는 각자 불일을 보거나 가족여행을 가는 등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화교 2세대들은 차례만 마치고 바로 흩어지는 최근의 분위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부모를 모시는 집은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부모와 자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가정일수록 참여율이 낮아진다. 중국인들은 설에 붉은 색의 화려한 소품을 장식하거나 붉은 종이에 ‘화기생재(和氣生財:마음이 고와야 재물이 생긴다.)’ 등 복을 비는 글을 써서 집이나 가게 곳곳에 붙이는 풍속이 있다. 중국인들에게 붉은 색은 행복, 경사스러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다. 화교 2세대까지는 이러한 글씨와 소품을 장식하는 풍습이 널리 이어졌는데 이 역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설을 전후하여 일주일 동안은 일을 쉬고 모두 모여 먹고 마시며 휴식하





중식당 민빈관 벽면에 붙어 있는 '화기생재(和氣生財)' 글씨와 '복(福)' 자장식



관우제신상(關羽財神像) 관우제신은 집안의 평안과 재물을 보살피는 신으로, 화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많이 모시고 있다.

는 기간으로 삼았으나 요즘은 설 당일이나 2~3일 정도만 쉰다.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종 업계 사람들과 휴일을 맞추기 때문에 점차 설을 지키는 풍습이 사라지고 있다. 설날에는 빵과 만두를 먹는데, 과거에는 설날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집집마다 만두를 빚는 등 직접 음식을 준비하였다. 화교들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주방이 갖추어져 있고 식재료를 구매하기도 간편해 명절 음식을 대량으로 준비하는 것이 수월했다고 한다.

장례식은 화교들이 모두 모여서 노제(路祭) 형식으로 지낸다. 중국의 공산화 이후 산둥 지역의 풍습은 점차 간소화된 데 비해 수원 화교들은 공산화되기 이전에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고 한국에 와서 서로 한 마디씩 보태며 코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산둥의 친척들보다 더 중국 전통방식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얼

마 전 수원 화교 중 한 명이 장모상을 당했는데, 장모가 살던 익산 지역 화교들은 중국식으로 장례를 치러 줄 만한 일손과 경험이 부족하여 난감해 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수원 화교들이 단체로 방문하여 일을 척척 해내자 모두 감탄했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오동나무 관은 두께가 얇지만 중국관은 윗단이 6cm, 양 사방으로 5cm, 바닥 4cm로 나무가 굉장히 두껍고 무게가 나가기에 열 사람이 들어도 못 들 정도이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주변 화교들은 서로 도움을 줬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중국식 관을 짜는 기술자가 없기에 한국과 같은 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 문화가 증가하면서 80% 이상이 화장을 하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화성시 양감면에 수원 화교들이 사용하는 산소 자리가 있었는데, 택지 개발로 사라지면서 개별적으로 성남 공원묘지를 이용하고 있다. 화교 2세대들이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대거 한국을 떠나고 수원에 있던 화교들과도 연락이 끊어지면서 이들의 부모 묘가 택지 개발로 훼손될 위기에 처하였다. 수원 화교들은 이들의 부모 묘를 대신 이장해 주느라 당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한다.

사망하면 영구를 상여에 실은 다음 장지에 가기 전 집이나 가게 앞에서 노제를 치



'고등반점'을 운영하는 여가상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식당 앞에서 노제(路祭)를 지내는 모습





'고등반점' 여가상의 부친이 사망했을 때 치린 장례식 빈소 중국 전통에 따라 향을 피우고 제사상을 준비하였다.



묘를 쓰고 제사 지내는 과정

른다. 요즘은 다들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분위기이기에 생략하고 있다. 중국식 예법에 따르면 사망 후 3년까지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며, 3주년이 넘으면 제사는 따로 지내지 않고 설날 차례로 대신한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다섯 가지 과일과 과자, 빵, 만두 등의 음식을 차린다는 점에서 한국과 구별된다. 과일과 과자도 지역과 집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에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제수 음식 중 과자, 빵, 만두 등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중국 슈퍼나 월병집에 주문하기도 하고 중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만들기도 한다. 과일은 수박, 바나나, 참외, 귤 등을 올린다.

화교들은 회갑잔치보다는 칠순 잔치를 주로 하는데 예전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집에서 하였으나, 요즘은 간단히 식사만 하고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보내 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수원 화교들의 연애와 결혼, 가정생활, 명절, 장례와 제례 등을 살펴보면 1세대가 가정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까지는 중국 산동식 전통 풍습을 따르며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사망하거나 노쇠해지



제사상 차림



福如北海

先老元十九甲

義前廷老  
先生六秩華誕

極  
星  
招

先老元十九甲  
先生六秩華誕  
董宗山敬祝

日  
升  
月  
恒

先老元十九甲  
先生六秩華誕

僑務委員會委員呂季直敬

水陸軍各界同會敬



海屋添筹

柏長

中華民國  
陸軍武官  
黃宗石敬祝

弟賴紹南敬賀

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화와 풍습이 점차 간소화·서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강원도나 전라도·충청도 등에 비하면 수원 화교들은 단결력이 강하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기에 중국식 전통을 지키며 힘든 경조사를 잘 치러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5. 수원에서 화교로 살아가기

여기에서는 수원 화교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과 역할은 무엇인지, 화교에게 수원이란 어떤 공간이며 수원에서 화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수원 화교의 성격

수원 화교들에 따르면 화교는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경상도 화교는 성격이 화끈하고 떠들썩하며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고, 전라도 화교는 생활력과 단결력이 강해 자기들끼리 잘 도와주며, 서울 화교는 사회 변화에 잘 대처하며 합리적이고 사업 수완이 좋다고 한다. 이는 지역별 화교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일컬어지는 지역민들의 일반적 경향이기도 하다. 수원 화교들은 화교들이 그만큼 자신이 사는 지역에 동화되어 지역성을 띤다는 증거라고 이를 설명하였다.

수원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화합이 잘되고 의리가 있으며, 한 마디로 ‘기가 센’ 지역이라고 한다. 화교들은 어린 시절부터 ‘짱꼴라’, ‘떼놈’ 등의 놀림을 받았고, 성장해서는 ‘외국인’, ‘이방인’ 으로서의 시선을 받았다. 놀림과 차별 속에서 화교들은 서로 연민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욱 단결이 잘되고 서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느낀다고 했다. 현재 수원에는 500명 정도로 추정되는 화교가 살고 있는데, 인구가 많지 않기에 경조사가 있을 때나 힘들 때 서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원은 관혼상제(冠婚喪祭) 의식을 치를 때 전통을 잘 따르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

수원 화교들끼리는 “벌거벗고 100리 뛴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는 다른 사람 같으면 벌거벗으면 너무 부끄러워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수원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100리를 뛴 수 있을 만큼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수원 화교는 외지에 가더라도 적응력이 뛰어나 어디를 가든 웬만큼 수준을 유지하며 쉬어 산다고 한다.<sup>34</sup>

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씹씹이가 조금 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밥 한 끼 하자.”라는 말은 밥은 물론 술까지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원은 말 그대로 “밥만” 먹는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더라도 “내가 오늘 술 한 잔 쏘다!”라고 하면 끝까지 접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원에서는 먼저 마시자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술자리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수원 사람들이 절제를 잘하고 검소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화교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면 대인관계에서도 보다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담고 있다.

수원 화교들은 집에서 면이나 만두 등 중국 음식을 먹더라도 화교들끼리 친목 모임을 가질 때는 중식당에 가지 않고 삼겹살이나 찌개를 먹으러 간다. 화교들은 회식 때 가장 선호하는 음식으로 찌개, 삼겹살, 소주 이 세 가지를 꼽는다. 화교들끼리 모여 이렇게 먹다 보면 ‘아, 내가 한국화되어 가는구나.’,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인가 보다.’ 라는 감정을 불현듯 느끼게 된다고 한다.

화교들 사이에는 자신들만 쓰고 알아듣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중국어로 밥을 먹었느냐는 표현은 “니츠판러마(你吃饭了吗)?”이다. 그런데 문장 끝에 한국어 어미 사인 ‘~냐 나 ~니’를 붙여 “니츠판러냐?” “니츠판러니?”라고 얘기한다. 지금 몇 시냐는 질문은 중국어로 “지디엔(几点)?”인데, 역시 여기에 ‘~냐’를 붙여 “지디엔(几点)냐?”라고 한다. 이들은 화교소학교 교육을 통해 굳건히 지켜 왔던 중국어에 한국어를 붙여 한국식 농담으로 승화하면서 언어의 묘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화교들은 외국인에 대한 재산 규제가 심하던 시기 평생 고생하며 장만했던 집과 토지를 지키기 위해 한국인 지인의 명의로 등록해 놓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지인이 도주를 하거나 자신의 것이라고 잡아뭍을 경우 꿈쩍없이 빼앗겼던 경험들이 있다. 오로지 한국인 지인의 양심에 따라 훗날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던 시기였다. 믿었던 한국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면 한국사회에 대한





수원중국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한 화교



'연무사랑의 집'에 성금을 전달하는 중국음식축제협의회(뉴시스와이) 이 제공)

실망이 커져서 이민을 가거나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하였다. 주위에서 배신과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곳에서 계속 살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남아서 수원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수원 화교들은 자신들을 “이 없이 잇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이 말 속에는 특별히 무엇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주어진 현실에 맞추어 그저 맞춤형으로 살아야 했던 화교 1~2세대의 고단했던 삶이 응축되어 있다.

## 2) 수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

수원 화교들은 수원 지역사회에서 화교가 소수에 해당하고 더구나 외국인 신분이기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거나 끼워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수원 화교사회를 이

끌어 가는 지도층일수록 여러 모임에서 감투를 몇 개씩 쓰고 있었다. 여가상은 고등동 자치위원, 팔달구 외식업지부 운영위원, 경기도 관광협회 관광식당업 운영위원, 수원시 중국음식축제 고문 등을 맡았다. 유육군은 생활안전협의회 역전지구대, 수

원시 화성문화제 음식축제 중식부 총무와 매산동 주민자치위원을, 척명운은 이민통합지원협의회 자문위원을, 강학천은 수원 경실련 집행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이 밖에 요식업협회, 한의사 협회, 약사 모임 등 각자의 직업과 관련한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수년간 봉사를 펼치고 있다. 중국음식축제협의회회는 고등반점의 여가상이 회장으로 있는데, 화교 중식당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음식축제협의회에 소속된 업소는 회비로 ‘경동원’, ‘연무 사랑을 나누는 집’을 포함해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열리는 수원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종류의 중국요리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수원사랑장학재단과 수원여자대학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다.<sup>35</sup> 강학천은 경기도한의사회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수원 역 노숙인 의료봉사에 참여하여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을 진료하고 있다.<sup>36</sup>

요즘은 일회적이고 이벤트성이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홍보함으로써 영업에 도움이 되거나 명성을 얻으려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수원의 화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봉사에 대해 쑥스러워 하며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길 꺼려하였기에 이러한 활동 내용은 기존의 언론 보도와 타인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화교 중에는 본인의 신분이 ‘외국인’ 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러한 봉사가 혹시라도 주 제넘은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려하여 되도록 조용히 진행하고자 하는 이도 있었다.

### 3) 수원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수원의 화교 중 1세대는 언어와 생활습관 등 여러 면에서 이미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이 형성된 후 한국에 온 이들이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이데올로기의 벽에 가로막혀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갈 길이 금지된 경우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언젠가 중국으로 되돌아갈 사람이며 수원에 잠시 머무는 이방인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반면 2세대들은 한국 땅에서 출생하여 자라 온 이들이기에 생활환경, 언어, 문화, 습관 등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한국인과 흡사하다. 다만 주변의 시선

에 의해 자신들이 한국인과는 다른 특수한 입장이라는 것을 점차 받아들이고 중국인으로서 자의식을 더욱 느끼게 된다. 화교 2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화교 지인들이 대만과 미국 등으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등 탈(脫)수원하는 분위기를 체험하면서 “나는 누구이며 내가 소속된 곳은 어디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고민을 절실하게 한 세대이다. 이는 화교 3세대가 조부모와 부모 등이 이미 한국 땅에 뿌리 내리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에서 태어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조사를 위해 심층 인터뷰한 구술자들은 ‘화교’라는 걸으로 드러난 자의식의 이면에 수원 토박이이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주었다. 팔달산, 원천유원지, 남문시장, 서호 등을 뛰놀며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 옛 수원 물가에 대한 상세한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였다. 또 한국에서는 평소에 잘 먹지 않다가도 막상 중국에 머물게 될 때면 김치와 라면이 그리워져 호텔에서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신라면을 박스째 주문해 비축해 두었다고 회고하였다. 어릴 때는 ‘떼놈’, ‘짱꼴라’라는 한국인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 어릴 적 한국인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 그들이 그때 그 별명을 부르더라도 반갑게 들린다고 했다. 어릴 때는 그토록 치욕적이고 상처가 되던 말에 대해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과거 수원 사회는 남문시장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아는 사람, 친구를 몇 명씩 만나게 될 만큼 좁았고 사람들끼리 끈끈한 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들과 옛 친구들 상당수가 수원을 떠나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했다. 수원에 오래 거주하며 나이 들고 있는 화교들은 수원의 도시화·현대화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삶은 편리해졌지만 예전에 비해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다. 자신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수군거리고 때론 놀리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어가 어눌해 불편함을 겪던 부모 세대를 따뜻하게 챙겨 주며 도와준 것도 역시 수원의 이웃이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들이 외상값을 떼일까 봐 대신 외상값을 계산해 받아 주기도 했고 친구가 되어 준 것이 바로 수원 주민들이었다. 화교들은 수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情)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수원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한 수원 화교

화교들은 금융거래, 인터넷 사용 등 일상 속 몇 가지 불편한 점만 개선된다면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며, 자신들은 3~4대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이니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희망하였다. 화교는 해외 이민, 한국인과의 결혼, 귀화 등으로 그 숫자가 나날이 줄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숫자의 화교들은 다음 세대에 가서는 결국은 다 '한국인'으로 동화될 거라고 전망하였다. 이들은 한국이 다문화되고 있는 만큼 자녀, 손주 세대에서는 더 이상 취업과 일상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

화교들은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나?”라는 의혹을 받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은 대만인도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국제고아’나 ‘국제난민’으로 취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국 땅에서 60~70여 년간 살고 있는 부모 세대의 삶에 대해 조사해 보고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 지역에 대해

## 水原華僑中正小學校歌

姜學泉 作詞  
李仁植 作曲

Moderato

1. 古 都 華 城 旁 柳 城 八 達 邊 我 校 中 正 純 潔 浩 然  
2. 老 師 諄 諄 同 學 牧 牧 同 學 如 手 足 師 長 如 父 母

5 環 境 優 美 前 輩 功 績 培 育 兒 童 小 英 豪  
現 在 做 個 活 潑 的 好 學 生 將 來 做 個 好 國 民

9 呀 呀 水 原 華 僑 中 正 小 學 蒸 蒸 日 上 前 途 光 明

13 呀 呀 水 原 華 僑 中 正 小 學 我 願 為 你 爭 取 榮 耀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교가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 땅에서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지만 수원 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수원 사람’, ‘수원 토박이’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였다.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교장 강학천은 “나는 수원민국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화교학교 교가를 작사하면서 첫 구절을 “고도 화성방(古都華城旁), 유성 팔달변(柳城八達邊)”으로 하여, 수원화교중정소학교가 중국의 학교가 아닌 ‘수원의 학교’이며 수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식당 고등반점의 사장인 여가상은 “무슨 여(呂)씨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수원 여(呂)씨다.”라고 답변한다. 이들은 혈통상 ‘중국인’이라는 자의식

과 함께 수원에서 몇 대째 살아가고 있는 ‘수원 시민’ 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특히 수원에서 화교들은 수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이다. 수원의 화교들은 수원을 함께 살아가고 지켜 가는 구성원의 하나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했다.



1. 1세대의 삶 \_ 낮은 이방인으로 수원에 정착한 세대
2. 2세대의 삶 \_ 화교이자 수원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삶
3. 3세대의 삶 \_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마지막 세대
4. 4세대의 삶 \_ 한국인으로 흡수 · 동화되는 세대
5. 민빈원 유씨 집안의 생활과 정체성 \_ 낮은 이방인에서 평범한 수원 주민으로의 변화

이승연 |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 02 만빈원 유씨 가족을 통해 본 수원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이주하여 수원에서 4대째 거주하며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만빈원(萬賓園) 유(劉)씨 집안에 대한 구술조사를 통해 수원 화교의 생활과 세대별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화교(華僑)’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사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과 그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대만(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화교’라고 부르며,<sup>1</sup> 그중 특히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화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겠다.

연구방법은 1950년대 수원에 이주하여 4대를 살아오고 있는 유씨 가족을 선정하여 구술생애사를 통해 수원 화교의 생활문화와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수원 화교사회 내부의 변화와 정체성을 보여 주는 데에 적합한 인물로 중식당 ‘만빈원’의 사장인 유육군(劉毓君)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만빈원은 경기도청 앞에 위치한 중식당으로 3대 60여 년째 이어 온 곳이다. 수원에서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은 15곳으로, 이 중 만빈원은 같은 장소에서 자녀를 통해 대물림한 곳으로 화교 식당 중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유육군은 1953년생 여성으로서 3세 때 부모를 따라 수원으로 이주한 후, 현재 만빈원을 운영하고 있다.

유육군의 가족을 살펴보면 수원에 화교들이 유입되어 정착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볼 수 있다. 유육군의 아버지는 고향인 중국 산둥성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서 행상을 하다가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어 한국의 적국(敵國)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 정착하게 된 경우이다. 그는 화교 여성과 결혼하여 유육군이 3세가 되던 1955년, 수원으로 이주하여 중식업을 시작하였다. 딸 유육군은 수원에서 화교소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산둥성 출신으로 수원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다. 만빈원은 수원에 아직 본격적인 외식업체들이 들어서기 전 식당 인근의 경기도청과 수원여고 직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1980년대까지 큰 호황을 누렸다. 식당 운영이 잘되던 시기에는 방 11개에 종업원 2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수원의 대표적 중식당이자 맛집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중식당에 대한 차별과 재산권 규제 등 화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자 경제적 타격과 한국사회에 대한 회의감으로 한때 미국 이민을 준비하였다. 수원은 물론 한국에서 화교들 사이에 대규모 이민 붐이 일어났을 때 유육군의 친정 6남매 중 그를 제외한 5남매와 부모가 전부 대만으로 이주하였고, 남편 쪽 형제도 7남매 중 4명이 한국을 떠났다.

유육군의 남편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원화교협회<sup>2</sup> 부회장과 수원화교중정소학교<sup>3</sup> 교장을 지내며 수원 화교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유육군은 남편과 사별한 후 만빈원을 운영하면서 생활안전협의회 역전지구대, 매산동 주민자치위원, 수원시 화성문화제 음식축제 중식부 총무 등을 맡아 수원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만빈원은 유육군의 장남을 통해 3대 58년째 이어 오고 있다. 유육군은 2남 1녀를 두었는데, 그의 자녀세대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지 3대째에 해당하지만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겪는 차별과 제한 때문에 직업 선택의 폭이 좁다. 한국사회에서 화교에게 개방되어 있는 업종은 중식업계와 의약계열이며, 그 외 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은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반 기업체 입사도 극히 어렵다. 따라서 그의 자녀들도 중식계와 의약계로 진출하였다. 장남은 중식요리사로서 가업인 만빈원을 이어받았으며 한국 여성과 결혼하였다. 딸은 수원에서 약사로 활동하며 사위 역시 같은 화교이다. 차남은 한국에서 일하는 데 한계를 느껴 중국으로 건너간 후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과 최근 결혼하였

다. 유육군의 손자와 손녀들은 수원에서 화교 4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화교소학교가 아닌 한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언어·생활습관·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인으로 거의 동화되어 있다. 현 수원화교중정소학교의 교장이자 수원 화교사회를 이끄는 대표적 지도층인 강학천은 유육군의 조카이며, 유육군의 아들은 수원화교청년회<sup>4</sup>의 중심 멤버이다. 유육군의 가족과 친척들은 수원 화교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빈원 유씨 가족들은 수원에서 4대째 거주하며 화교 협회와 화교학교 운영 등 화교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 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육군의 자녀들 중에는 성공적으로 수원 지역사회에 정착한 이도 있고 아직까지 진로로 고민하는 이도 있으며, 부모와 형제들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대신 대만으로의 이민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유육군의 가족들은 수원에 화교들이 유입되어 정착하는 과정과 수원 화교사회 내부의 변화와 정체성, 생활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되었다. 이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육군과의 인터뷰를 실시하는 한편, 유육군의 차남 결혼식에 참관하여 가족의 일상과 경조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유육군과의 심층 인터뷰는 총 2회 진행했으며, 면담 시간은 1회 평균 2시간 정도였다.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면담 일정

구분	일시
1차 면담	2012년 5월 30일 16시 10분~18시
2차 면담	2012년 7월 24일 15시 40분~18시
결혼식 참관	2012년 9월 8일 11시 30분~15시

구술과정에서 만빈원 유씨 집안에서 소장 중인 사진자료, 물증자료 등을 얻어 이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만빈원 유씨 가족들이 1세대에서 4세대로 내려가며 수원에서의 생활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은 어떠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1. 1세대의 삶 \_ 낯선 이방인으로 수원에 정착한 세대

유육군의 친정 부모와 시부모는 양쪽 모두 중국 산둥성 출신의 화교이다. 유육군의 외할머니는 일찍이 산둥과 인천을 오가며 행상을 하다가 한국에 정착하였고, 유육군의 어머니는 같은 산둥성 출신의 중국인과 결혼하여 6남매를 두었다. 유육군의 부모들은 중국 대륙의 공산화로 출입이 금지되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처음 수십여 년 동안은 국제정세가 달라져 고향 산둥성으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머물던 낯선 이국땅 한국에 와서 이렇게 100여 년 가까이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고 한다.

유육군의 부모들은 한국전쟁 이후 부산 피난지에 잠시 머물다가 유육군이 3세가 되던 1955년 생업을 찾아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수원에 왔을 때는 이미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식당이 몇 군데 있었는데, 유육군의 아버지는 그중 한 곳에 들어가 요리 기술을 배운 후 수원에 중식당 복화원을 차렸다. 처음 한국에 와서 장사(행상), 농업 등에 종사했던 화교들이 중식업으로 직업을 바꾼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경제정책으로 토지를 빼앗기고 당시 화교들에게 다른 영업은 허가가 나지 않았기에 딱히 선택할 만한 마땅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육군의 시부모 역시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1954년부터 수원에서 중식당 만빈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수원화교협회에 따르면 수원 화교의 97%가 산둥성 출신이다. 수원의 화교 1세대는 대부분 단신으로 와서 부모 형제와 떨어져 이국땅에 남겨진 입장이었다. 화교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아 화교 여성은 인기 있는 신붓감이었다. 유육군의 시아버지는 같은 화교 집안에서 며느리를 맞고 싶어 했다. 그래서 유육군을 “탁 찍어서 며느리로 달라고 외삼촌한테 그렇게 매달”렸다고 한다. 유육군은 1973년 결혼하였는데 당시만 해도 많은 화교들은 조만간 중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한국인이 아닌 같은 화교끼리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유육군의 외가와 시댁은 과거 한동네에서 같은 우물을 먹을 만큼 지역적으로 가까웠다고 한다.

유육군의 부모세대는 한국어가 능통치 않은 상황이라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



유육군의 부모



유육군의 형제들

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육군의 아버지는 어눌한 한국어 때문에 다름이 생겨도 본인 입장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수원의 몇 안 되는 화교들끼리 의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화교는 한국인과는 다른 외모와 풍습 때문에 눈에 띄었고 놀림을 받았다. 유육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중국의 전족 풍습 때문에 발이 작고 중국 풍습에 따라 바지를 입었으며 귀걸이를 걸고 다녔다. 치마저고

리를 주로 입던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단연 튀는 외모였다. 유육군은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 세대가 겪은 놀림을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였다고 설명하였다.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은 발 조그마하잖아요. 뒤통뒤통 다니는 것도 따라다니며 웃고. 우리 여자들이 바지 입는 것도 그렇게 따라다니며 웃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들은 다 중국에서 오면 다 바지 입었어요. 근데 가랑이 찢어진 거 입는다고 놀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귀걸이 다 뚫잖아요. 어른이나 애나. 근데 우리 옛날에는 할머니 때도 옛날부터 뚫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대. 그거 뚫었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보고 놀림감 되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세대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겠죠.

그의 시택인 만빈원은 지금의 수원세무서<sup>5</sup> 자리 뒤편 길 건너에 가정집을 개조해 식당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위치인 매산로3가 128-9번지로 이사하였다. 건물은 기와집이었는데 이후 리모델링하였다. 만빈원이 개업한 초기에는 수원세무서 직원과 수원역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하였다. 당시 수원에 외식업은 장국밥



만빈원의 옛 모습(1983년)



현재의 만빈원(2012년)

밖에 없어서 다른 경쟁상대가 없었다고 한다. 버스리든가 교통수단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았던 시절, 수원여고 학생들과 매산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만빈원 앞길로 걸어 다녔다. 1967년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였는데 구내식당이 없었기에 가까운 만빈원이 도청 직원과 도청을 드나드는 사람들 사이에 구내식당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에는 경기도청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며 인근에 먹자골목이 형성되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던 화교들도 만빈원 인근에서 중식당을 개업하였다. 1970년대 후반 경기도청 내에 직영식당이 생기면서 점심식사를 위해 만빈원으로 오는 고객들은 줄어들었지만 1980년대 초까지는 큰 호황을 누렸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러저럭 운영이 되었으나 이후 수원의 경기불황, 은퇴자들의 식당 개업 등으로 현재는 수익이 예전보다 못한 상태이다.

만빈원은 경기도청 직원들의 전용 식당처럼 운영되면서 수십 년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예전에는 식대를 모두 외상으로 달아놓았다가 매달 20일 도청의 월급 날이 되면 각 부서별로 식대 쪽지를 가지고 가서 수금하였다. 만빈원 유씨 가족들은 도지사부터 수위에 이르기까지 도청의 모든 직원들과 두루 친하였다. 경기도청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발령받아 수년간 근무한 후 다시 경기도지사로 오게 된 이가 있었는데, 그는 도청에 들어가기 전 먼저 만빈원에 들러 유육군의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고 한다. 경기도청의 직원들은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 승진하기까지 오랜 세월을 만빈원과 함께하면서 유씨 가족들과 특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였다.

수원여고의 교직원들도 만빈원의 단골 고객이었다. 유육군의 시부모들은 한국어를 잘 몰라 전표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수금을 하러 가도 실수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수원여고에서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원별로 외상값을 계산하여 대신 받아 주는 등 도움을 줬다. 유육군의 부모세대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정책적인 차별을 당하고 이방인이라는 설움도 받았지만 인연을 맺게 된 단골 고객들과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였다. 수원의 화교 1세대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전 수원 사람들은 선량하고 순수했으며 정(情)이 많았음을 공통적으로 회고하였다.

만빈원은 일찍부터 배달 업무를 시작했는데 자전거에 나무판으로 만든 배달통을

신고 식사를 배달하였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오르막길이 가파르고 겨울에 눈이 와도 제설차가 없었기에 배달원은 발에 새끼줄을 감은 채 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갔다. 지금처럼 음식을 포장하는 랩이 없던 시절, 겨울에는 배달 과정에서 짜장면이 다 얼어붙어 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짜장면을 불평 없이 맛있어 했고, 짜장면 한 그릇을 위해 눈길을 헤치며 배달하였다. 한창 호황기 때 만빈원은 방 11개에 종업원 20명을 두고 운영할 만큼 규모가 확장되었다. 배달원은 주로 강원도 산골에서 상경한 한국인 젊은이였으며, 당시는 먹여 주고 재워 주기만 하면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요리 기술을 배운 후 독립하여 중식당을 차렸다. 수원의 화교 1세대 밑에서 배달부터 시작해 기술을 익힌 한국인 중에는 현재 서울에서 대형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화교 2세대가 성장함에 따라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며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이들 자녀들이 부모 대신 수금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만빈원 유씨 가족은 물론 수원의 화교 1세대가 운영한 중식당들은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가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동원되는 등 전 가족이 매달려 운영하는 가족 중심적 경영이 대부분이다.

유육균은 1960년대 화교에게 가해진 경제적 제재로 수원 화교 경제가 쇠퇴하고 대량 이민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1961년 9월 제정된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였기에 화교들은 살고 있던 집과 토지를 팔아야 했다. 화교들의 반발로 1968년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한 200평 이하의 토지와 50평 이하의 영업용 토지 소유로 변경되었다.<sup>6</sup> 당시 수원에 살던 돈 많은 화교들은 주위의 한국인 친구 이름으로 대신 집을 사거나 이름을 빌려 장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경우 서류상으로는 한국인이 소유자가 되므로 그중 몇몇은 이후 되돌려 주길 거부하며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하거나 정리한 후 도망을 가기도 했다. 만빈원 맞은편에 있는 동해장은 화교가 운영하는 역사 깊은 중식당인데, 원래 그 자리는 고량주를 제조하던 일종의 술 공장이었다. 당시 경제 제재 때문에 한국인 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했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하면서 공장이 넘어가게 되자 수원 화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재판까지 하면서 되찾은 사례가 있다. 수원 화교 1세대는 돈을 벌더라도 집이나 땅을 사거나 가게를 확장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만빈원의 옛날 목간판

사실상 곤란하였다.

그 외에 중식당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도 진행되었다.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임을 상징하는 간판을 강제로 수거하거나 중식당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 쓰던 춘장과 수타면을 금지시킨 일이다. 화교들은 일반 전면 간판과 달리 아침에 걸었다가 저녁에 떼어 보관하는 목판을 사용하며 이를 신줏단지처럼 아꼈다. 붉은 천을 장식한 목간판은 옛날 중국음식점의 상징이요, ‘랜드마크’였다.<sup>7</sup> 만빈원 역시 강제 수거 때 목간판 2개 중 1개를 빼앗겼다. 2개 모두 트럭에 실어가는 걸 유육군이 나서 몸싸움을 벌여 그중 1개를 간신히 되찾았으며, 이는 아직까지 가게 내부에 걸어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왜 우리 화교들을 그렇게 계속 못살게 구는지, 아니 화교라는 증표가, 일식(日食) 가면 이렇게 허다 못해 우동집이라도 이런 거 달잖아요. 그럼 우리 화교들은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저거 처마 밑에 두 개 걸려 있어요. 걸리면은 영업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 중국집은 무조건 저거 오픈하면 상징이예요. 간판이죠.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쪽 처마 밑에 걸어요. 집집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저녁 때 끝났다 그러면 걷어 들고, 예를 들어서 오픈 크로스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중국집이라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저녁에 끝나면 걷어 들이거든요. 아침에 또 걸고, 저것도 인제는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고 그러다 보면은 탈색이 되고 깎이고.

만빈원의 간판은 화교라는 표식이면서 동시에 중식당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수원 화교들은 대부분 이 간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한다. 목간판은 화교뿐만 아니라 수원의 노인들에게도 추억거리이다. 식당에 들어섰다가 간판을 보는 사람들은 “아! 저 만빈원 진짜 오래됐다! 저게 있다는 게. 옛날에 처마 밑에 머리로 치고 주먹도 치고.”라며 반가워하고 신기해 한다.

예전에는 화교 중식당마다 각자 직접 담근 춘장을 사용하였으나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된 뒤로는 대부분 사자표 춘장을 사용하고 있다. 사자표 춘장은 1948년

화교 1세대인 왕송산이 만든 것으로 중국식 된장인 침면장(脛麵醬)에 캐리멜을 혼합한 것이다. 유육군은 요즘 유명 한식집들은 직접 제조한 된장, 고추장으로 전통의 맛을 지키고 있다며 자신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소중한 춘장을 모두 잃었다고 회고하였다. 유육군의 시아버지 등 화교 1세대들은 자신들이 외국 땅에서 정착하여 이제까지 살게 해 준 원동력이자 목숨처럼 소중한 담가 온 춘장을 버리면서 다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우리도 옛날에는 집집마다 향아리가 다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집은 옥상에 이렇게 큰 향아리 있어요. 근데 빵을 찌서 콩하고 발효해서 장도 만들고 아침마다 올라와서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저어요. 장을 자꾸 저어서 발효시켜야 맛있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젖고 햇빛 쬐고. 근데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이 친구네도 아버지 살아 있을 때 다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비위생이라고 해 가지고 일절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울면서 그걸 다 퍼내 버렸어요. 노인네들은 그게 생명이고, 그 짜장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걸 퍼 부어 버리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위생검열 나오는데. 그땐 엄청 심하게, 한 달에 한두 번이고 불시에 들어와서 뒤져요.

만빈원을 포함한 화교 중식당들은 모두 면을 직접 손으로 쳐서 뽑아내는 수타면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수타면을 뽑는 과정에서 조리사의 땀이 떨어져 들어가 비위생적”이라며 수타면 제조가 일절 금지되었다. 이렇게 화교 중식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목간판을 빼앗기고 맛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타면과 춘장 제조가 금지되면서 화교 중식당은 식당 각각의 개성을 잃고 획일화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수타면으로 뽑은 손짜장이 유행하고 있고, 수십 년 된 간장과 된장을 보유한 한식집이 각광받는 걸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한다.

이러한 몇 가지 규제 속에서 수원의 화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육군의 친정 형제 5남매는 1973년도에 모두 대만으로 이민을 가면서 운영하던 중식당 복화원을 팔아 버렸다. 유육군의 시대 역시 남편 쪽 형제 7남매 중 4명이 한국을 떠났다. 유육군의 부부도 미국 이민을 준비하였으나 연

로한 시부모를 한국에서 모셔야 된다는 생각에 도중에 포기하였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던 만빈원에서 형제와 시누이 등이 이민을 가면서 규모가 축소하였다. 배달은 1988년 6월까지 하다가 이후 없애 버렸다. 유육군의 부모세대 중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을 지키고 더욱 불리기 위해 해외로 이민을 갔다. 유육군에 따르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주로 수원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제가 점점 성장하면서 건물도 못 사고 재산도 못 늘리니까 이리다 보니까 사람들 빠져나갔죠. …… 솔직히 그전에 그 돈 있고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끝배기 싫어서 다 이민 갔습니다. 우리는 뭐 능력 없는 사람 솔직히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거, 진짜 듣기 싫어. 보기 싫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수원 화교 사이에서는 88서울올림픽 개최 후 1990년이 되어 가면서 홍콩을 통해 몰래 중국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이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중국 산둥성 고향에 다녀오기 시작하였다. 유육군의 시부모들도 이때 산둥에 갔는데, 그들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형제들과 40여 년 만에 상봉하였다. 중국 산둥은 한국보다 경제 발전이 더딘 지역이라 한 번 다녀온 후에는 헌 옷가지와 양말, 솜이불 등 각종 생필품을 모았다가 바리바리 신고 가서 전해 주었다.

수원 화교 1세대는 외국인으로서 겪는 경제적 제재와 차별 때문에 이민을 가느냐, 한국에 남느냐의 양자택일로 갈등하던 세대였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졌으나 낯선 이방인으로 수원 땅에 들어온 자신들을 따뜻하게 받아 준 수원 주민들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으로 회고하였다. 만빈원 유씨 가족들은 자신들과 한 때 ‘언니’, ‘오빠’ 라는 호칭으로 부를 만큼 친하게 지내던 경기도청과 수원여고 직원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해 제대로 셈을 하지 못했던 부모를 대신해 전표를 정리해 주던 사람들, 노령의 시부모에 대해 안부를 물어보며 깍듯하게 공경해 주던 예전의 단골 고객들에 대해서 아련하게 추억하며 그리워하였다.



중국식 인테리어 소품으로 꾸민 식당 내부. 중국인에게 붉은색은 귀신이나 액운을 막고 재물과 경사로움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이다.

## 2. 2세대의 삶 \_ 화교이자 수원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삶

단신으로 이국땅에 온 화교 1세대와는 달리 수원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화교 2세대에게 수원은 고향이다. 유육균은 결혼 전 지동에서 살았는데, 구천동 수원천에서 빨래를 하고 미꾸라지도 잡았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였다. 구천동 개천 옆 시장에는 구루마를 끄는 남자들이 쌀 뒷박에 막걸리를 담아 팔았고 유육균의 아버지는 종종 막걸리를 사서 한 사발 들이킨 후 일을 시작하였다.

유육균 등 화교 2세대는 어린 시절 ‘떼놈’, ‘짱꼴라’ 등으로 놀림을 받아 “열 받아 썩썩거리며” 친구들에게 화를 자주 냈다고 한다. 이들은 가슴 속에 설움과 상처가 많았다고 토로하였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웃과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 한





관우제신 제단 옆에 모인 유육군의 자녀들. 관우제신은 집안의 평안과 재물을 보살펴 주는 신으로 화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많이 모시고 있다. 현재는 장식장에 관우제신상을 모셔 놓았다.

국어로 어려움 없이 대화하며 친하게 지낸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성장 후 한국에 와서 언어, 생활 습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낯설고 소통이 힘들었던 1세대와는 많이 달라진 삶을 살았다. 화교 2세대는 중국 전통에 따르는 삶을 살며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평범한 한국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유육군은 부모들의 뜻에 따라 한국 학교가 아닌 화교들이 다니는 학교인 수원화교중정소학교를 졸업하였다. 17세인 1973년에 중매를 통해 중식당을 운영하는 화교 집안의 남성과 결혼하였다. 그는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만빈원의 일을 도우며 관

혼상제와 일상생활에서 중국식 전통을 상당 부분 지켜 왔다. 친정 부모는 이민 가고 시부모들은 사망하였으며, 1988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만빈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부모들이 생존해 있던 시절 보고 배운 것처럼 경조사 및 식당 인테리어 등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중국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는 이를 번거롭다거나 힘들게 여기지 않고 이제껏 전통을 지켜 왔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유육군 부부는 부모세대에 비해 화교로서 당하는 차별에 대해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바꾸고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세대였다. 화교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금융거래와 인터넷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만빈원은 대형 식당으로 매일 대규모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함에도 가까운 은행에 현금을 들고 가 계좌를 하나 개설하려 해도 “중국인이라 안 된

다.”며 거절당하였다. 또 요즘은 인터넷 बैं킹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시대임에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인식이 되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유육군은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 인터뷰도



만민원 입구에 걸린 현판

하고 담당자에게 항의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공중과 방송에 출연하여<sup>8</sup> IT 강국인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간단한 인터넷 쇼핑물조차 이용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하였다. 또 중국 국적인 아들과 한국인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손녀가 영주권 없이 1년에 한 번씩 체류권을 연장하며 생활해야 하자 법무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다. 유육군은 “한국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며 한국인들과 똑같이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으며 4대째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 큰소리를 치고 나왔다고 한다.

우리는 화교라 규제가 많아요. 일단은, 솔직히, 화교라고 안 따졌을 땐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오죽하면 법무부 가서 나도 청국장 먹고 김치찌개 먹고 니네들 된장찌개 다 먹고 살았다고. 대한민국 법이 어딴어? 니 손에 죽이고 살리고. 우리 손주,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고. 인권 외치고 다문화 외치고. 우린 인권 없어?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오가며 그걸 하느냐. 그런 거를 솔직히 힘든 건 아는데 그거를 조금만 풀어 주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유육군은 자신들은 3~4대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이니 외국인이라는 편견과 시선보다는 같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자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더 편의를 봐 주고 ‘인권’을 고려해 주길 희망하였다.

유육군의 가족들은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을 잡은 화교로서 화교사회와 지역사회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다.





유육군 남편 장례 당시 빈소 화환들이 고인의 사회활동을 대변하고 있다.

먼저 수원 화교사회의 지도층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유육군의 남편은 수원화교협회의 부회장직을 17년간, 수원화교중정소학교의 교장직을 8년간 역임하였다. 화교사회에서 이들 조직의 임원은 별도의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명예직에 해당하며 본인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에 봉사한다는 의식을 전제로 한다.

또 화교를 대표하는 얼굴에 해당하기에 인품,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평판, 여유 시간, 경제력 등 여러 면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유육군의 남편은 처음에는 고사하였으나 화교들의 추천으로 다년간 화교 조직에서 일하였다.

유육군 역시 남편 못지않게 성격이 활달하고 추진력이 있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안전협의회 역전지구대, 매산동 주민자치위원, 수원시 화성문화제 음식축제 중식부 총무 등이다. 만빈원을 포함해 고등반점 등 화교 중식당들은 인근 고아원과 독거노인들에게 급식 봉사를 하거나 소년소녀가장 돕기, 장애인회관 돕기 등 수년간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모(某)기

관의 관련 부서에서 관내 보육원에 급식 봉사를 하는 유육군에게 “어떻게 외국인에게 무료로 봉사를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며 음식 재료비를 억지로 지급해 주는 일이 발생하였다. 유육군 등 화교들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끔 탕수육, 짜장면 같은 별미를 제공해 주자는 순수한 동기에서 해 온 일에 대해 “외국인이라서 차마 안 된다. 어떻게 같은 한국인도 아닌 외국 사람에게 그런 걸 받느냐.”는 반응이 돌아오자 “외국인은 봉사도 못 하느냐.”며 못내 서운한 기색이었다.

유육군 부부는 귀화를 하지 않고 대만 국적을 유지하였으며, 수원의 다른 화교 2세대 중에도 귀화를 한 이는 드물다. 이는 우선 귀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위 공무원의 신원 보증, 귀화 시험, 예금 잔고 증명, 부동산 관련 서류 제출 등 조건과 절차가 복잡하며, 무엇보다 신원 보증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sup>9</sup> 유육군은 이 같은 이유 외에도 그의 형제, 자매들이 대만으로 대거 이민을 갔기에 더욱 귀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



중식당 종사자들과 함께한 무료 급식활동



녹색어머니회 봉사자들과 함께





조카인 강학천과 함께 전통 의상을 입고 화성문화제 중국 음식축제에 참여한 모습

만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만 국적을 유지할 경우 대만에 가서 10년간 체류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을 획득할 경우 여행 비자로 대만에 머물면서 보름밖에 체류하지 못한다고 한다. 유육군은 앞으로 나이가 들면 식당 운



화성문화재단 음식축제 총무로 활동한 후 받은 표창장

영에서 물리나 대만의 자매들을 자주 방문하며 머물기를 희망하였다.

유육군은 화교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행동하는 한편, 중국 전통식 경조사와 명절을 챙기고 식당 내부를 중국식으로 꾸미는 등 외국인으로서의 생활과 정체성을 보여 준다. 그는 부모세대와는 달리 한국인 이웃, 지인들과 폭넓게 어울리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등 수원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 3. 3세대의 삶 \_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마지막 세대

수원의 화교 3세대인 유육군의 자녀들은 모두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마쳤다. 1970~1980년대까지 한국 화교 사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만이나 일본 대학 진학이 유행하였으나 한국인으로 동화되고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현재 20~30대 젊은 층에 해당하는 화교 3세대는 50% 이상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체로의 입사도 사실상 어렵다. 화교 1~2세대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였기에 중식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3세대까지도 그 부모로부터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다. 유육군은 젊은 시절 온 가족이 식당일에 매달려 일하며 육





대만 음식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유육군의 장남(사진 왼쪽)

체적으로 고생스러웠기에 자녀 세대에게까지 이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지금 처럼 겨울에 채소가 나오지 않았기에 가을부터 재료를 준비하여 마당에 쌓아 두고 매일 아침 손질했으며, 단무지도 한 번에 2,000개씩 구입해 염장해서 보관하는 등 식재료 준비와 손질에 훨씬 힘이 들었다. 자신의 세대까지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게” 일을 하였으나, 요즘은 세척과 손질을 마친 재료들이 나오고 편리한 주방 도구와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많이 수월해졌다고 한다.

유육군의 장남은 만빈원을 이어받아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열린 국제 요리경연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중식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화교 중식당인 고등반점 역시 아들을 통해 대물림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은 서울의 호텔에서 주방 경력을 쌓은 후 수원으로 돌아왔다.

이렇듯 요즘 화교 3세대들은 부모에게 이어받은 기술로만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큰 호텔의 주방에서 2~3년씩 경험을 쌓고 오거나 요리대회에 나가 실력을 평가받는 등 부모세대를 뛰어넘고자 한다. 만빈원은 중국식 춘장으로 제조되어 노란 빛깔을 띠는 물짜장과 중국 냉면, 직접 빻은 만두를 대표 메뉴로 세우고 운영하고 있다.

유육군의 딸은 수원에서 약대를 졸업한 후 약사로 활동하고 있다. 화교는 대학 진학 시 외국인특례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기에 그의 딸 역시 특례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의약계열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별을 두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개업할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화교사회에서 부모들은 외국인이라는 차별이 거의 없고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가장 선호하여 자녀들을 독려한다. 유육군은 그의 딸이 약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서로 격려하고 공부에만 집중한 덕분이라고 했다. 유육군의 자녀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수원화교중정소학교를 다녔지만,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한국인들과 어울려 한국 학교에 다녔다. 화교 3세대부터는 화교 인구가 적고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들과 함께 장기간 학창생활을 했기에 1~2세대보다 한국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더욱 폭넓고 왕성해졌다.



민병원의 대표 메뉴인 물짜장

유육군의 차남 역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 외국인 신분으로는 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화교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기에 인터넷 사용과 전자상거래, 은행금융거래 등 정보를 얻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제약이 많다.

네이버(Naver) 들어가면은 패스포트 복사해 가지고 와야 되고 신분증 복사하고, 다음(Daum)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뭐냐 안 되냐면, 젤 치사한 게 안 돼요. (웃으며) 인터넷 쇼핑할 적에, 할 때 있죠? 그렇게 돌리다 보면 아 뭔가 조그만 거라도 “아, 저거 하나 살까? 직통 전화는 돼요. 상담원하고 하면 되니까. ARS 예약전화가 안 돼. 민증번호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은 A대 나왔어요. 개 죽어도 안 산대 여기서. 중국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년째. 왜냐하면 인터넷 시덴데 우리 그 민증번호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젊은 애들이 “아 씨! 나 여기서 안 산다! 엄마 이런 대우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는 한국에서는 활동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의 옌벤으로 가 한의학을 공부하려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인데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수상하다.”며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중국인”이라고 하고, 조상들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인”이라고 하며,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한국에서 수대째 살면서 이미 동화되었다.”며 세 국가 모두 한국의 화교를 ‘이방인’으로 취급한다. 유육군의



차남은 중국에 10년째 머물면서 사업을 모색 중이다.

대만 가면 대만 사람으로 절대 인정 안 하지. 중국 가면 중국 사람으로 절대 인정 안 하지. 왜 무슨 희한한 일이 생겼냐 하면 우리 작은애가 연변에 가서, 연변대학을, 고대 나와 가지고 연변대학에 한의학을 다시 공부할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신분을 떠나니까 거서 안 받아 주는 게 차라리 중국 본토면은 아 요런요런 걸 이해를 해요. 근데 조선족이다 보니까 “아니, 너는 대한민국서 태어났는데 신분은 어떻게 대만 신분이야?” 그러면서 너는 중국 사람이라고 너는 외치는데 도저히 개네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많은 관료들을 다 동원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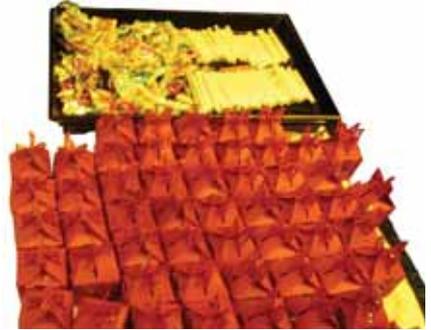
유육균의 자녀들 중 장남은 한국 여성과, 딸은 같은 화교 남성과, 차남은 중국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였다. 화교 2세대까지만 해도 결혼문제에 부모들의 개입이 많았고 화교들끼리 결혼하라는 권유가 강했으나 3세대에 대해서는 결혼문제나 국적 취득에 부모의 입김이 적어지고 자녀들의 자율에 맡기는 추세이다. 유육균의 차남은 2012년 9월, 중식당 다송에서 중국 전통식으로 결혼식을 치렀다. 수원 화교들은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결혼식을 했지만, 요즘은 대형 중식당이나 일반 음식점을 이용한다. 수원화교협회 임원과 총무 등이 예식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평소 왕래가 그리 많지 않던 화교들도 경조사에는 “큰일에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의식에서 대부분 참석을 하였다. 하객 중에는 연령이 높아 중국어에 보다 익숙한 화교, 중국에서 온 친척들,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지인들이 고무 섞여 있기에 예식은 중국어와 한국어, 두 개 언어로 진행한다.

아직까지 경조사, 명절 등 집안의 대소사는 부모 세대가 주도하기에 중국식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화교 3세대부터는 조부모와 부모 세대가 가르쳐 온 전통과 풍습대로 따르기보다는 점차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고 간소화되고 있다. 유육균은 자신들 세대가 사망한 후에는 자녀들이 이를 지켜 나갈지 확신이 없다고 했다.

근데 아직까진 애들은 전통은 일일이 어른이서 아르켜 주긴 하는데 애네들이 흡수할라고 안 해요, 잘.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들이 있고, 작은애도 있고, 지킬라고 하고, 준수하



결혼 피로연 때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旗袍)를 입고 하객에게 인사를 다니는 신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나눠 주는 사탕과 담배 결혼식에서 권하는 사탕을 희탕(喜糖), 담배는 희연(喜烟)이라 부른다. 사탕은 결혼 생활이 사탕처럼 기쁘고 달콤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담배는 담배연기처럼 기쁨이 퍼져 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고. 집에 오면 무조건 산소에 가서 인사하고 집에 와서 있고, 갈 때도 인사하고, 구정 때도 꼭 설 쇠러 들어오거든요. 작은아들. 아직까지는 제가 늙어서 힘 없을 때까지는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우리 아들이, 앞으로는 며느리들이 뭐 할려는지 모르겠어요.

수원 화교사회에서는 화교 인구가 감소하고 점점 개인화되는 분위기 때문에 향후 명절과 경조사를 치를 만한 인력이 부족하리라는 우려 때문에 미리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유육군을 비롯해 여가상 등 화교사회에서 중추적 인물을 하는 몇몇 인물들은 자신들의 장남들을 중심으로 화교청년회를 조직하게 하였다. 화교청년회는 현재 50~70대의 화교들이 젊은 시절 활동하던 조직으로 화교사회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큰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수십여 년간은 거의 해산되다시피 한 모임이다. 30대 위주의 젊은 남성층으로 구성된 화교청년회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여하면서 부모 세대로부터 일을 배우고 있다. 과거 자발적으로 활동하던 화교청년회는 이제는 부모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꾸려지고 있다. 화교 1~2세대들은 점차 개인화·한국화되어 가는 젊은 화교들을 보면서 전통적 화교 조직과 인력 동원은 이들 세대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4. 4세대의 삶 \_ 한국인으로 흡수·동화되는 세대

유육군의 손자와 손녀는 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큰손녀는 수원화교중정소학교에서 1년간 대만식 교육을 받았으나 2학년 때 한국학교로 전학하였다. 처음 손녀를 화교학교에 보낼 때에는 어릴 때 중국어를 익히게 한 후 한국교육을 시킬 계획이었다. 수원 화교사회에서는 화교 3세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는 되도록 화교소학교에 다니는 추세였다. 화교소학교 교육을 통해 고향인 중국에 대해 인식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화교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화교 4세대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모와 조부모들은 이들이 한국인으로 완전히 동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화교 숫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인 경우가 많고 어릴 때부터 방송과 환경을 통해 완전히 한국식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화교소학교에 입학하여도 총 150명가량의 학생 중 부모가 화교가 아닌 순수 한국인 학생 비율이 75~80%에 달한다. 중국어 조기교육에 대한 열풍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중국식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일찍부터 일반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커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유육군의 손자와 손녀들도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 현재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원의 화교 3~4세대부터는 이미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이라서 혈통으로도, 언어, 생활습관, 문화 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한국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많다. 수원화교협회에서도 지금 남아 있는 화교들은 몇십 년 후에는 대부분 결혼을 통해, 혹은 한국으로 귀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법적으로 재한화교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sup>10</sup> 이렇게 된 데에는 출신 고향인 중국, 「국적법」에 따라 속하게 된 대만, 이 두 국가 중 어느 한 쪽으로부터도 충분한 보호와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들은 이렇게 화교 4세대를 한국으로 흡수, 동화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데 비해 정작 자신들의 손자세대까지도 국적상의 문제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화교 1~2세대까지 받은 규제와 차별에 대해서는 일종의 ‘팔자’로

받아들이며 감내했지만 왜 그 후손들까지 조상의 출신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유육군의 손녀는 아버지는 화교, 어머니는 한국인인데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했다. 유육군은 자신들은 세금을 착실히 내는 등 의무를 다 해 왔고 손녀의 신원이 확실해도 매년 체류 연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차라리 5년치, 10년치 증지 값을 미리 제출한 후 그 기간에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살아 갈 수 있길 희망하였다.

우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냐구.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한국으로 피난 온 거도 아니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 선친들이 이렇게 묶여 이렇게 사는데 난 인정해. 내 팔자라 생각해. 우리 손주 새끼가 뭘 죄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 우리 국적, 아들이니까. 머느리가 한국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 있네요!” “엄마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아니! 엄마가 한국 사람이냐고?” “당신들이 외치는 다문화가정인데 어쨌다구!” 한국 엄마에는 1년에 한 번씩 연장해서 18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때 선택권을 준다는 거야.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여보쇼. 당신네들 너무 모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18년 동안 차라리 한국 걸 줘. 그럼 편하게 살다가 열여덟 살 되면 너는 아버지가 중국 사람인데 너 원하면은 중국 거 해라. 그럼 얼마나 좋냐. 그럼 2년이나 3년이나 연장하는 걸로 따지면 증지 값을 미리 부과해도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증지 값을 20만 원, 30만 원 받으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지금 뭐냐고!

유육군은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구성된 가정이 많아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점차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데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할 때는 취업의 문이 보다 넓어지고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손자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한국인과 같은 이해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차별 없이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 화교, 외국 국적자,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포용, 이것이 화교들의 공통된 생각이자 바람이었다.

우리가 지금 2세, 3세까지는 이렇게 피해 보고 살았지만 우리 손주들은 앞으로는 언젠가는 다 한국 사람으로 다 흡수되죠. 근데 그러면은 애네들이 나중에 한국 정부에도 뭔가를

나중에 좋아지지 않나 싶어요. 이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린 그러길 바래요. 우리도 같은 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게끔 한국사회에서 포용을 해 줬으면은. 우리도 살 길이 있지 않느냐.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서 우리를 포용을 못 해 가지고 솔직히 우리도 외톨이로 굴러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언젠가 우리 포용할 시기 있지 않느냐 대비해서 손주들 한국학교 나가서 사회 가서 한국역사, 한국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직장에서 어느 직장에 문호가 열리면 애네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 5. 만빈원 유씨 집안의 생활과 정체성

### \_ 낮선 이방인에서 평범한 수원 주민으로의 변화

수원에서 화교로 4대째 거주하며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만빈원 유육군과의 구술조사를 통해 유씨 집안의 세대별 생활과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유육군의 부모세대는 낮선 이방인의 신분으로 수원에 유입되어 정착한 첫 번째 세대이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저 경제적 이유로 중국 산둥과 인천을 오가며 행상을 하다가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한국의 분단으로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혀 버린 사례이다. 언어, 외모와 옷차림, 문화, 생활습관 등 모든 부분이 일반적인 한국인과 다르고 한국 환경에 어눌한 상태에서 이들은 편견과 놀림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폭넓게 어울리기보다는 수원 화교들끼리 모여 자녀 결혼, 교육, 명절, 경조사 등에서 중국 산둥식 전통에 따르며 생활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경제규제 때문에 직업 선택의 폭이 한정되었기에 유육군의 친정 부모와 시부모는 모두 수원에서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만빈원은 전 가족이 매달려 가족 중심적 경영을 하며, 경기도청·수원여고 직원들을 상대로 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겪는 경제적 차별과 중식당에 대한 규제 때문에 유육군의 친정 부모와 친정, 시댁 양가의 형제, 자매들은 대거 대만으로 이민을 떠났다. 1990년대가 되면서 40여 년 만에 비로소 고향인 산둥 친척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이들과 교류가 시작되었다. 유육군의 부모세대는 한국 정부의 화교정책에 대해서는 분노와 서러움을 표현했지만 수원에서 낮선 이방인이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키워

나가는 데에 같은 화교뿐만 아니라 단골 고객들, 친절한 이웃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이들은 본인이 중국인이라는 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수원에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세대였다.

수원의 화교 2세대인 유육군은 단신으로 정착해 고생한 부모세대와는 달리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된 가운데 출생하여 성장하였기에 한국어와 문화에 능숙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부모들의 영향으로 결혼과 교육, 관혼상제는 물론 식당 인테리어 등도 여전히 중국 전통에 따르고 있다. 유육군은 노후에 자매들이 이민 가 있는 대만에 자주 들르기를 희망하는데다가 귀화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기에 귀화를 하지 않았다. 유육군 부부는 수원화교협회, 수원화교중정소학교 등 수원 화교사회에서 구심점이 되는 조직에서 활동하며 화교사회에 상당히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보육원 등에 무료 급식을 하고 지역축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원 사회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유육군은 부모세대부터 내려온 중국 전통을 따르며 화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삶을 사는 한편 수원 시민으로서도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유육군의 자녀들은 한국인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화교 인구 숫자가 많이 감소한데다가 한국에서 대학교육까지 받으면서 한국 친구들과, 동창들과의 어울림이 넓고 왕성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체로의 입사도 사실상 어렵다. 유육군의 장남은 만빈원을 이어받아 증식업에 종사 중이며, 차남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딸은 화교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는 분야인 의약계열로 진학하여 현재 약사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직업 선택에서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펼치며 폭넓게 진출하기보다는 부모, 조부모 세대의 선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유육군이 가정과 식당의 실질적 가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에 자녀들도 어머니의 뜻에 따라 경조사, 명절 등을 중국 전통에 따르고 있다. 장남은 부모 세대들의 권유로 화교청년회의 중심 멤버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유육군은 점차 개인화·한국화·서구화되는 화교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도 점차 한국인으로 동화되어 이들이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육군과 그의 아들

유육군은 손자와 손녀 등 화교 4세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국에 흡수되어 한국인과 같이 살아갈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대만 국적과 호적을 갖고 있다는 점 외에는 중국식 교육도 받지 않고 중국어도 할 줄 모르는 등 일반적인 한국 청소년들에 가깝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글로벌화되는 추세 속에서 손자와 손녀들은 한국인과 똑같이 능력에 따른 기회를 얻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길 희망하고 있다.

만빈원 유씨 가족을 통해 본 수원 화교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1세대는 낯선 이방인으로서, 2세대는 화교이자 수원 시민으로서 생활하였으며, 3~4세대부터는 한국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 유씨 가족들은 한국에 완전히 흡수되어 진정한 의미

의 한국인으로 살아갈 세대는 손자와 손녀 세대인 4세대부터라고 꼽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원의 화교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낯선 이방인에서 친숙한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언어, 생활습관, 문화, 정체성이 송두리째 변하고 있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 4

## 이촌향도민의 이주 경험과 삶

이촌향도가 보여 준 해방과 새로운 억압의 체험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거의 모든 사람이 느꼈던 양가적인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농촌과 어촌에서 뿌리 뽑힌 자들이 다시 도시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야말로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 산업화 이전 수원의 인구 이동
2. 1960년대 이촌향도
3. 1970년대 이촌향도

황 병 주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01 | 1960~1970년대 이촌향도민의 수원 이주

근대 이후의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은 도시이다. 근대를 가능케 한 핵심 요인 중의 하나가 산업화라고 한다면, 그것의 다른 이름이 곧 도시화였다. 산업화는 수천 년간 지속되었던 농업사회를 해체하면서 새롭게 산업사회를 구성하였고, 그 공간적 편제도 도시를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농업과 농촌 대신 공업과 도시가 근대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존재 형태도 농민과 촌민에서 도시민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요컨대 근대적 삶이란 곧 도시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도 이러한 근대적 변화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더욱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범위도 전면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는 그 빠른 속도만큼이나 사람들의 삶을 격변시켰다. 산업화가 초래한 격변의 중심에 이촌향도가 놓여 있었다. 산업화가 초래한 여러 변화는 결국 인간의 삶으로 집약된다는 점에서 이촌향도는 근대화의 상징적 현상이라 할 만하다. 곧 개별 인간들에게 산업화와 근대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로 경험되곤 했던 것이다.

이촌향도는 1차적으로 공간 이동으로 나타났다. 농촌과 어촌 등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공간 이동이 이촌향도의 1차적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촌향도는 단순한 공간 이동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간 이동 자체도 큰 문제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양식 전체에 걸친 전면적 변화였다. 농업과 어업 등 비교적 단순한 산업을 생산기



반으로 하여 폐쇄적인 공동체적 유대를 특징으로 했던 비도시적 삶은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생산 과정과, 개인과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삶으로 전변되었다. 변화의 진폭이 컸음과 동시에 그 속도도 놀랄 만큼 빨랐기에 개별 인간이 느끼는 충격의 강도는 더욱 강렬하였다. 한 마디로 그것은 뿌리 뽑힌 자의 삶이었다.

한편으로 이촌향도의 경험은 확실히 놀라운 상승의 경험이었다. 매우 느린 변화와 상대적 과잉인구의 압력으로 농촌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게다가 오랫동안 유지된 신분제적 유제와 가부장적 문화는 위계질서의 하위에 속했던 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억압이었다. 도시 이주는 이 모든 억압과 구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이촌향도 초기 주로 농촌지역의 하층민이 이주하였다는 점은 그것이 일종의 해방의 과정일 수도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가부장적 전통 속에 이중의 억압을 경험했던 여성들의 이촌향도가 새롭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으로 기억되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였다.<sup>1</sup>

그러나 이촌향도를 통해 경험한 해방은 도시에서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억압과 질곡으로 그 빛이 바래질 수 있는 것이었다. 물질적 자산은 물론 별다른 사회적 자산이나 상징자본도 가진 것이 없었던 하층 농민들이 도시에서 계층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다. 농촌의 고통스러운 삶은 도시의 비참한 삶으로 계승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촌향도가 보여 준 해방과 새로운 억압의 체험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거의 모든 사람이 느꼈던 양가적인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농촌과 어촌에서 뿌리 뽑힌 자들이 다시 도시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야말로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이촌향도는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이지만 도시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이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산업화를 통해 서울 중심성은 극도로 강화되었으며, 한국 전체가 '서울과 비서울', '서울과 시골'로 재편될 정도였다. 서울의 비대화는 곧 수도권 팽창으로 연결되었고 수원의 도시적 성장 과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요컨대 수원의 이촌향도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그 결과에 긴밀하게 연루되는 것이었다.

## 1. 산업화 이전 수원의 인구 이동

1970년 전국의 읍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50%를 넘게 됨으로써 한국은 본격적인 도시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수원의 도시 성장과 이촌향도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수원은 상당한 규모의 인구 이동을 경험하였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인구 이동과 이촌향도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인구 이동이 원인 불분하고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을 지칭한다면, 이촌향도는 산업화 효과로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주하는 특정한 현상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수원의 이촌향도는 전체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격적 이촌향도 이전에도 수원 지역은 적지 않은 규모의 인구 이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와 구분되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도 하겠다. 예컨대 산업화 직전인 1950년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험한 급격한 인구 변동은 1960년대 이촌향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원인은 다르지만 자신의 고향을 떠나 도시지역에 정착한 이주민들이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의 인구 변동을 살펴볼 때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은 정조의 화성 축성을 계기로 한 도읍 형성이다. 1783년 정조는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1789년에는 화성 축성과 더불어 한양·개성 등지의 부유한 상인들을 이주시켜 본격적인 도읍 확대를 꾀하였다. 이는 분명 근대적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과정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수원이 중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수원이 근대적 의미의 도시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는 식민지 시기로 볼 수 있다. 18세기 말 『호구총수』에 기록된 수원부 인구는 5만 7,660명이었으며,<sup>2</sup> 1910년에도 7만 4,661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1920년에는 14만 1,023명이 되어 10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전국은 물론 경기도 지역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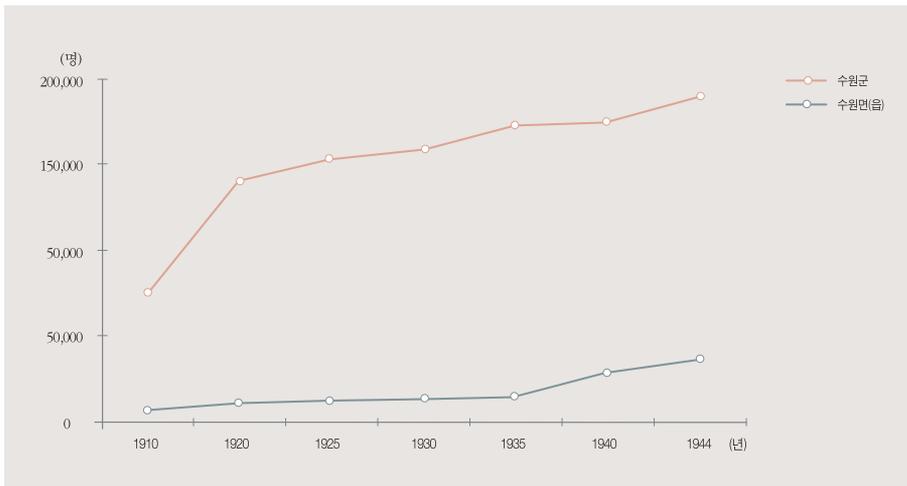
율보다 높은 것이었다. 1920년 우리나라 인구는 1910년에 비해 29.9%가 증가하였고 경기도 인구는 61.8%가 증가하였지만, 수원군의 인구는 그보다 훨씬 높은 88.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일차적 원인은 1914년 추진된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수원군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원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0년에는 17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인구 증가는 도시 규모의 확대와 연결되었고 1931년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다. 특히 수원읍은 중일전쟁 이후 직물업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전개되면서 1930년대 후반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식민지 시기에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시작되었고, 수도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도시화에 따른 이혼향도가 초기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 일제시기 수원 인구 변화<sup>3)</sup>

(단위 : 명)

구분	1910	1920	1925	1930	1935	1940	1944
수원군	74,661	141,023	153,227	159,504	173,187	174,391	189,967
수원면(읍)	6,971	10,714	11,699	13,182	14,054	27,547	36,146



일제시기 수원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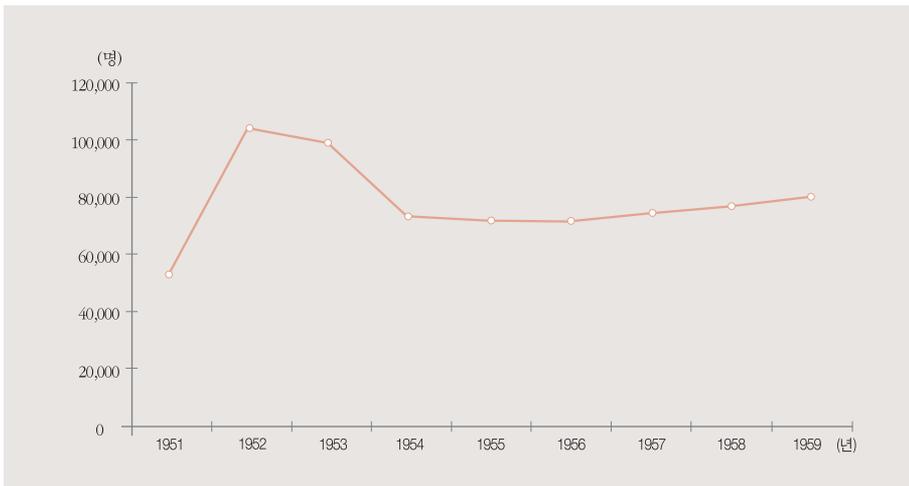
해방 이후 수원 지역의 인구 통계는 자세하지 않다. 해방 공간 행정체계의 혼란으로 정확한 인구 통계가 가능하지 않았다. 해방 공간의 인구 이동은 주로 귀환민과 월남민을 통해 이루어졌고 수원 지역도 귀환민과 월남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었다.<sup>4</sup> 수원읍의 시 승격으로 수원군에 속해 있던 여타 면들이 분리되면서 전체 인구수는 줄어들었지만 수원읍의 인구는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산업화 이전 수원 지역이 경험했던 가장 격렬한 인구 이동을 초래하였다. 1951년 초 수원과 평택 사이에는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몰린 것으로 보도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sup>5</sup> 1953년 초까지도 매일 유입되는 피난민이 3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sup>6</sup> 피난민 유입으로 수원의 인구는 1952년에 10만 4,044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선이 안정되고 휴전이 성립하면서 수원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표 2〉 195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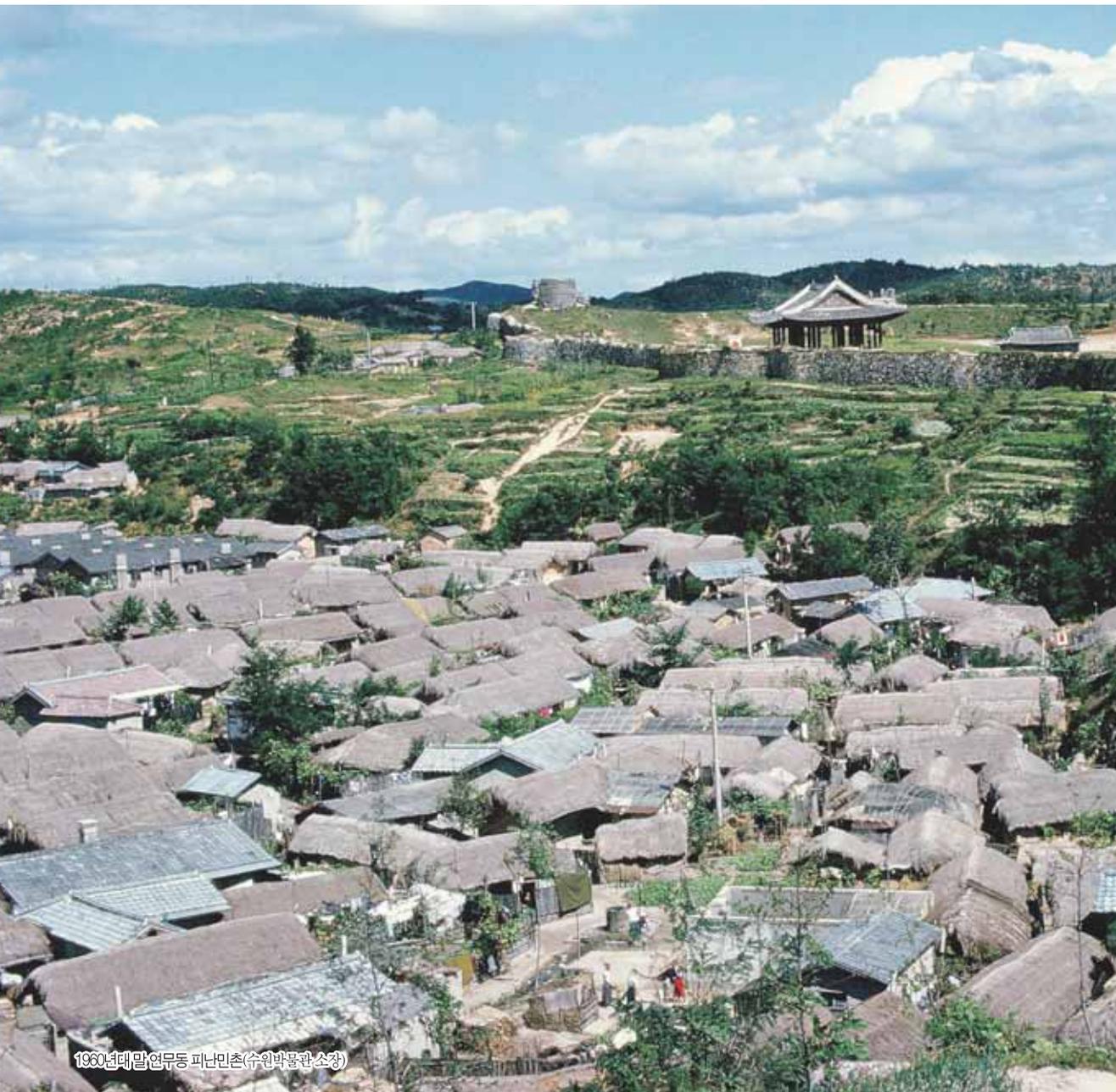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인구	52,452	104,044	98,820	73,004	71,991	71,918	74,058	76,668	79,480



195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





1960년대 말 연무동 피난민촌(수원박물관 소장)



1953년에 9만 8,820명, 1954년에는 7만 3,004명으로 축소되었다가 1956년에는 7만 1,918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완만하게나마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1959년까지 8만 명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전쟁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수원이 경험한 인구 이동은 이후 수원 지역의 도시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남녀 성비 불균형에서도 나타났다. 1957년의 인구 분포에서 특징적인 점은 시 전체의 성비가 100을 훨씬 밑돌았다는 것이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시의 성비는 100을 상회하였지만, 1950년대에 들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자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57년의 성비는 93.0에 불과하여, 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93명에 지나지 않았다.

1950년대 수원의 인구 변화에서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이상 변동을 제외한다면 출생률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가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1958년과 1959년 사이 인구 증가분은 2,812명인데, 이 중 자연 증가가 2,444명이었다.<sup>8</sup> 자연 증가에 비해 사회적 증가분은 고작 400여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인 것을 보건대 1950년대 후반 수원의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에 의존하는 전통적 양상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출생률 증가는 전후 베이비붐 현상과 밀접히 관련된다.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950년



대 중후반은 한국전쟁 종전 후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났다. 출산율의 폭발적 증가는 전후 사회의 일반적 특징인데, 수원도 예외가 아니었고 인구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는 수원의 연령별 인구 통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1964년 기준으로 20대 인구는 2만 565명인 데 반해 10대 인구는 2만 7,426명이었고 0세부터 9세까지의 인구는 3만 4,877명에 달하였다.<sup>9</sup> 전후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0~9세 아동수가 여타 연령층을 압도한 것이었다.

이러한 추정은 가구당 가족수 변동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1955년 가구당 가족수는 5.33명이었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1964년에는 5.75명까지 증가하였다.<sup>10</sup> 가구당 가족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족 분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핵가족화라는 가족 형태를 촉진시키는 도시화와 근대적 변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년층의 단신 이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산업화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 가족 중심의 생활방식이 고수되고 있으면서 전후 베이비붐에 따른 출생률 증가로 자연 증가가 대세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 2. 1960년대 이촌향도

1960년대 수원 지역의 이촌향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계획으로 상징되는 산업화를 빼놓을 수 없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역이 집중 개발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초기 경제개발계획은 경인지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개발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따라 1964년에는 경인지구종합 건설을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업지 선정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 건설이 계획되었다. 즉 서울 인구를 400만 명으로 억제하기 위해 주변의 위성도시를 적극 개발하여 인구 분산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sup>11</sup>

이에 1964년 초에 만들어진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르면 수원은 의정부, 금곡, 광주, 안양 등과 함께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유도할 위성도시로 개발될 것이 계획되었다.<sup>12</sup>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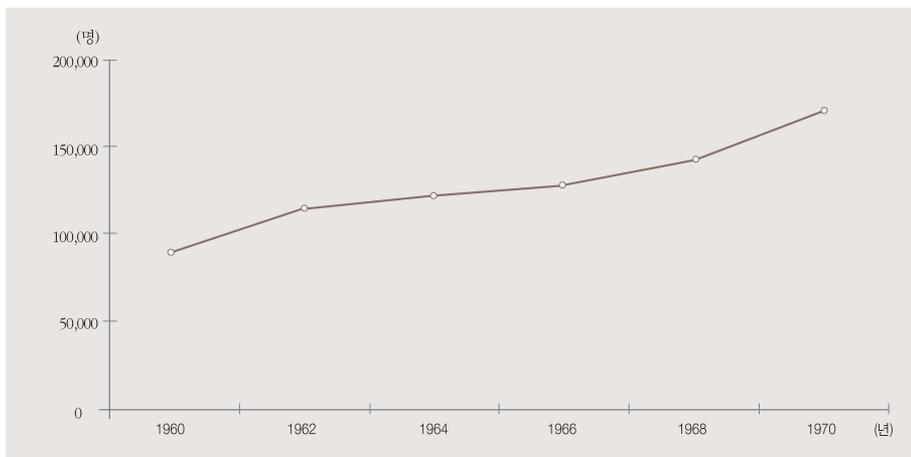
한 건설부 주도로 광역도시계획이 작성되었는데, 서울을 연말생활권 도시로 하고 인천·수원·이천 등을 월말생활권 도시로 하여 서울의 위성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sup>13</sup>

이러한 맥락에서 1963년 1월 1일자로 화성군 일왕면, 태장면 등의 20개 마을이 수원으로 편입되었다.<sup>14</sup> 그러나 행정구역 확대가 인구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9만 5,648명이 11만 3,326명으로 증가해 2만 가까운 인구가 증가하는 했지만,<sup>15</sup> 더 중요한 요인은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이었다.

〈표 3〉 196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sup>16</sup>

(단위 : 명)

연도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인구	90,806	113,910	122,025	128,352	142,001	170,518



196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

1960년대 수원의 인구 증가는 주로 후반부에 집중되었다. 전반부인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수원의 인구 증가는 연평균 3.2%로, 서울의 인구 증가율 6.8%는 물론 전국 도시 인구 증가율 5.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접한 인천의 증가율이 5.5%인 점에 비교되는 수치였다.<sup>17</sup> 그러나 이미 1960년대가 되면 자연 증가보다 사회





1960년대 말 수원역의 추석 귀성인파(경인일보사, 『경기 근현대 사진집』, 2010)

적 증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이촌향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1963년과 1964년 사이 인구 증가는 2만 1,398명이었는데, 이 중 자연 증가는 2,000여 명에 불과하였다.<sup>18</sup> 즉 자연 증가는 10%에 불과한 대신 사회적 증가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60년대 후반부에는 가파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해 1970년의 경우 1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 지역의 구체적인 이촌향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1960년대 중반 서울 지역 이촌향도 현상의 구체적 양상을 알려 주는 자료를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은 서울의 위성도시적 성격이 강하기에 서울의 상황과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67년 인구문제연구소가 1961년부터 1966년까지 6년간의 서울 지역 전입 상황을 분석한 내용은 상당히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sup>19</sup> 분석에 따르면 서울로 전입해 오는 지방민은 연평균 12만 명을 상회하는 정도였는데, “보다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움직이는 젊은이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전입자 성별 비율인데, 여자 100명당 남자는 76.3명에 불과해 상당한 여초현상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sup>20</sup>

이는 1960년대 산업화 양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60년대까지 한국의 산업화는 경공업 중심이었는데, 섬유·봉제·가발 등이 그 주요 업종이었다. 이러한 업종의 노동력은 주로 젊은 여성들이었고, 이들이 초기 이촌향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1960년대 젊은 여성들의 도시 이주는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식모’로 호칭되는 가사 노동력이 대거 사용되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1960년대 젊은 여성들의 이촌향도는 두 측면에서 강화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첫째, 가사 노동력으로 공급되는 측면과 둘째, 새로운 공업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측면이 그것이었다.

위 신문기사는 또한 전입인구의 도별 출신을 분석했는데,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그다음으로는 경기도·전라남도·경상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데, 통상적으로 알려진 대로 전라도 출신보다 오히려 충청도 출신이 많았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산업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1960년대 전반이란 시대



적 조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에서는 경기도보다 충청도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경기도 도시들의 농촌인구 흡수 상황을 설명하였다. 즉 경기도는 인천이나 수원 같은 큰 도시가 많아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수원 지역의 지역 출신 중 충청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수원의 지리적 특성상 충청도 지역과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어쨌든 1960년대부터 충청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입 인구의 67.1%가 가구 전체의 이동이라는 점이다. 이촌향도의 대표적 두 형식은 가구 단위 이주와 단신 이주인데, 1960년대까지는 전자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는 이 당시의 이촌향도가 산업화의 직접적인 효과로 공업 노동력을 대거 확충하는 것과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sup>21</sup> 즉 젊은 층의 단신 이주가 공업 노동력의 충원으로 이해된다면 가구 단위 이주는 그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좀 더 느슨한 관련을 보인다. 농촌의 상대적 과잉인구와 도시 비대화에 따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도시 이주라고 하겠다.

그것은 1963~1968년에 서울로 이주한 이농민의 11.5%가 무학이고, 초등학교 졸업이 45.2%에 이르고 있다는 점으로도 확인된다.<sup>22</sup> 이러한 저학력 노동력이 근대적 공업 부문으로 진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 당시의 인구 이동은 공업화 효과라기보다는 농촌지역의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 이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다는 분석은 역으로 단신 이주의 성격을 반증해 주는데, 즉 도시 부문에서 적응할 수 있는 별다른 자산 없이 일종의 '무작정' 상경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이주민들의 전직(前職)은 농민과 어부 등이 20%였고, 무직이 37%가 넘었다. 여성과 학생의 경우 무직에 포함되었다. 이들이 도시에서 새로 취업한 분야는 13.51%가 서비스 직종이고, 단순 기능공과 노무자가 12.98%, 판매업 종사자가 9.9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았다. 교육 수준과 취업 업종은 상당히



삼성전기 생산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1971년) 여성의 단독 이주는 취업이 가장 큰 동기였다.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전문직종에 취업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서비스 업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주민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24.9%에 불과하였다. 단신 이주의 경우 66.7%가 전월세를 살고 있었고, 자가 소유는 4.4%뿐이었다.

이주 방식은 연고 이주가 압도적이었다. 전입인구의 78.3%가 가족, 친척, 친지를 통한 연고 이주였다. 이주 동기는 구직·취직·개업·진학 등인데, 단독 이주의 경우 여자는 구직, 남자는 개업이 많다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사회문화적 동기 중 제일 많은 것이 진학과 취학인데, 1960년대가 이미 엄청난 입시열이 불던 시대였음을 상기하면 대충분히 이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심리적 동기인데, 여성의 경우 “서울이 좋아서”가 제일 많았고 남자는 “잘살아 보려고”가 제일 많았다. 여성의 경우 출신지역에 따라 동기가 미묘



하게 다른데 군 지역 출신들은 “서울이 좋아서”라고 답한 반면, 시 지역 출신들은 “살던 곳이 싫어서”가 더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시 전입인구의 특징을 수원 이주 이촌향도민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원이 서울 인근의 주요 도시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울로 전입했던 인구 중 상당수가 다시 수원으로 재이주한다는 점에서, 수원의 1960년대 이주민들의 삶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1970년대 이촌향도

1970년대 수원 지역의 이촌향도는 꾸준한 인구 증가로 확인된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간 수원의 인구 증가율은 6%로, 전국 도시 인구 증가율 6.3%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sup>23</sup> 그러나 6%의 인구 증가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자연 증가를 뛰어넘는 인구 유입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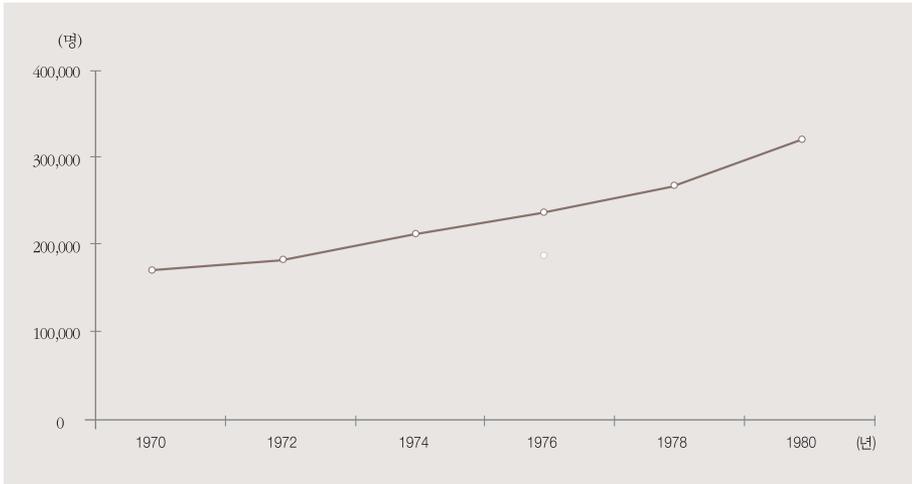
1970년대 수원 지역 인구 증가 양상의 특징은 먼저 서울로부터의 전입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966년에서 1970년 사이 서울의 인구 증가율은 무려 9.4%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서울의 인구 증가율은 대폭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970~1975년에는 4.4%로 떨어지더니 1975~1980년에는 3.9%로 낮아졌고, 급기야 1980년대 들어서는 2%대로 주저앉았다.<sup>24</sup>

서울의 인구 증가가 완화되는 것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서울 인구의 대규모화로 절대 인구는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저락하는 현상이다. 둘째는 서울로의 인구 유입이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1970년 경기도 전입인구의 54.3%가 서울에서 왔다는 점은 이를 보여 준다고 하

〈표 4〉 197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sup>25</sup>

(단위 : 명)

연도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인구	170,518	182,871	210,258	235,159	266,135	319,757



197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

겠다.<sup>26</sup>

서울의 포화상태와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은 수원의 인구 변동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1970년 수원 지역의 순이입률은 1.6%에 달했는데, 구 단위로 측정된 도시지역에서 18위를 차지하는 것이었다.<sup>27</sup> 그리 높은 순위는 아니었지만 서울로부터의 유입을 포함해 사회적 인구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입과 전출은 사회적 인구 이동 양상을 보여 주는 대표적 지표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7년 전입인구는 6만 7,367명이었고 전출인구는 5만 5,744명이었다. 1978년에는 7만 1,501명의 전입과 6만 2,769명의 전출을 기록하였다. 1980년에는 9만 518명의 전입과 7만 4,471명의 전출을 기록하였다.<sup>28</sup> 1970년대 후반이면 매년 1만 명에서 1만 6,000명 가량이 수원으로 유입되었다.

수원은 이제 서울을 대신할 정도의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될 만큼 성장했다고 하겠다. 수원으로의 인구 이동을 설명해 주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경제적 측면으로 판단된다. 수원의 특성상 경제적 이유를 넘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측면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1971년 수원 시민 1인당 총생산액은 12만 394원으로 전국 평균 9만 6,889원보다





토지규획정리사업 중인 업무동전경(1977년) 전쟁 피난민 정착촌이 형성되었던 업무동 일대는 산업화 이후 이촌형도시민의 유입으로 주거밀집지역이 되었다.





1970년대 말 삼성전자 수원공장 전경(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전자 20년사』, 1989) 삼성전자 수원공장 설립으로 수원의 노동인구 유입이 증가하였다.

훨씬 많았다. 전국 평균은 수원의 80% 정도에 불과하였다. 1975년에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수원의 1인당 총생산액은 36만 1,142원에 달한 반면, 전국 평균은 25만 3,372원에 불과해 70%에 그치고 있었다. 1980년에는 105만 9,405원 대 91만 8,875원으로 86%까지 올라가 격차가 상당히 완화되기는 했지만 1970년대 내내 인구 유입 효과를 낸 것만은 분명하였다.<sup>29</sup>

경제적 성장은 유명 대기업의 유치로도 확인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의 수원 이전이었다. 삼성전자의 수원 이전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수원 지역의 이촌향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3년 8월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한 삼성전자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면서 인구 유입을 촉발시켰다. 이 외에도 1971년 3월에는 1967년 착공한 수원 연초제조창 공장이 완공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sup>30</sup>

1960년대 산업화 단계에서 수원의 주요 공업은 방직공업이었다. 한국 전체적으로도 그러했지만 수원은 선경의 존재로 방직공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선경은 이미 1950년대에 직기 1,000대가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원의 대표적 기업으로 자리하였다. 선경은 자체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청, 계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수원 지역의 인구 유입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sup>31</sup>

그러나 선경은 애초부터 수원을 연고지로 한 토착기업이었지만 1970년대 삼성전자의 이주는 상황이 달랐다. 수원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적 판단으로 수원으로 이전을 결정하였고, 이는 그만큼 수원이 사업장으로 적절한 지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뒤이어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대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그중 중요했던 것은 교통의 편리성이었다. 수원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을 뿐더러 1960년대 후반 이후 서울과의 교통시설이 확대 개선되고 있었다. 1968년 12월에는 경부선 서울-수원 구간이 개통하여 서울과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었다. 또한 1971년 2월에는 서울-수원 간 전철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수도권 철도 전철화 사업의 1단계로 경인선과 함께 서울-수원 간 철도가 선정되었다.<sup>32</sup> 이것은 그만큼 수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인구집





신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면접 대기 중인 삼성전자 응시자들(삼성전자주식회사, 『삼성전자 20년사』, 1989)

중이 더욱 용이해지게 된 것을 의미하였다.

서울로 이주했다 다시 수원으로 이주한 경우는 구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구술자 중 한 명인 박정용은 원래 서울로 이주해 거주하다 1974년 수원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였다. 그는 건영정기화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원영업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1980년대 중반 수원으로 이주한 정옥배 또한 애초 서울로 이주해서 살다가 수원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그는 연합신문사에 근무하다 수원으로 이주하였다.<sup>33</sup> 두 명의 구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의 비대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분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수원으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기업이 들어오면서 수원의 도시 규모도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게 확대되었다. 도시 규모뿐만 아니라 주민 구성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대규모 공업시설이 별로 없었던 시절 수원시 주민의 직업은 공공부문 종사자나 상업 등이 중심

이었다. 그러나 선경과 삼성전자 등 대규모 기업과 공장이 들어서면서 노동자층이 주요 주민 집단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산업 노동자층은 연령대로 보아도 20대를 전후한 젊은 계층 중심이었다. 상업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보다 훨씬 젊은 계층의 인구가 대거 수원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낸 것이었다. 『통계연보』에서도 14세 이상 인구층의 지속적 증가가 눈에 띈다.<sup>34</sup>

수원의 이촌향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신지역별 분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수원 주민집단의 출신지역별 구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략적으로 충청도(특히 충청남도) 출신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다음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경기도 출신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우회와 같은 눈에 띄는 활동이 없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충청남도는 지리적 여건상 수원 지역으로의 유입이 비교적 손쉬운 편이었다. 이촌향도의 최고 목표가 서울인 것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했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었다. 따라서 충청남도 출신들이 서울 이주가 곤란해진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수원시였다고 하겠다.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서울과의 교통 및 연계가 강화되면서 대규모 기업이 유치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호남향우회나 영남향우회 등이 1970년대에 결성된 것으로도 확인된다.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의 인구 이동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입지의 고용기회, 임금수준, 전출지와의 거리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였다.<sup>35</sup> 물론 서울은 이러한 조건 외에도 특수한 상징 효과들이 수반되었다. 수도라는 상징성 외에도 한국사회의 최고 도시로서 교육기회, 문화수준 등 여러 조건이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불러 모았을 것이다. 수원은 이러한 조건 등에서 서울과 비교하기 어렵기는 했지만 1970년대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고용기회와 임금수준 면에서 유리했고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에서도 전입지로서 매력적이었다. 이러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1970년대 수원으로의 인구 집중이 초래되었다고 하겠다.<sup>36</sup>





1. 이촌향도 배경과 이주 과정
2. 이촌향도민의 정착 과정
3. 이촌향도민의 사회활동 \_ 향우회 활동
4. 새로운 삶과 정체성 \_ 탈향과 귀향 사이

황 병 주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 02 | 수원 이주 이촌향도민의 삶

이 글에서는 고향을 떠나 수원으로 이주한 5명의 개인 생애사를 이촌향도라는 맥락에서 검토할 것이다. 수원의 이촌향도를 밝혀 줄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구술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자료의 보충이라는 의미를 넘어 구술은 이촌향도민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서자료의 가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문서자료로 개개인이 실감한 이촌향도의 체감온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속에 5명으로 한정하였다. 5명의 구술을 통해 수원 이촌향도의 전모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고, 또 일반화된 상을 그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수십 만, 수백 만에 이르는 거대한 군중의 경험을 단 5명의 구술로, 그것도 제한된 시간의 구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촌향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수적으로도 많을뿐더러 계층, 지역, 성별, 세대 등 너무나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에 선부른 일반론은 오히려 사태를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구술을 통해 수원 이주 이촌향도민의 대체적 상황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선부른 일반론보다는 이촌향도를 경험한 수많은 대중의 목소리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술자들은 전라도 2명, 경상도 1명, 충청도 1명, 경기도 1명이며, 구술면담은 2012



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술자는 지역과 성별 등을 고려해 각 지역 향우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sup>1)</sup>

〈표 1〉 이촌향도민 구술자 인적 사항

구술자	출생연도	출생지	이주와 활동	구술 일시 · 장소
정옥배	1948	전남 신안	1969년 서울로 상경해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언론 계통에 종사하다가 연합통신사 수원지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1980년대 중반 수원으로 이주하였고, 호남향우회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5월 12일, 수원호남향우회 사무실
박정용	1948	경북 상주	강원도 탄광지대로 이주해 살다가 운수업 계통으로 진출해 서울 등에서 거주하다 1974년 건영정기화물 수원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원과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택시 회사를 운영하였고, 시의원을 역임하였다.	2012년 5월 22일, 수원택시 사무실
정석기	1942	전남 강진	제대 후 상경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장사에 발을 들여 경기도 여러 도시를 거쳐 1970년대 후반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이주 전부터 순대장사를 했으며, 현재 지동시장에서 순대 국밥 집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5월 23일, 지동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
차금자	1947	충남 서천	고향에서 서점 등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1973년 친구가 있는 수원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주 후 금은방을 하는 남편을 만나 오랫동안 함께 일하였다.	2012년 6월 20일, 충청도민연합회 사무실
김희식	1946	경기 용인	마을 인근이 민속촌과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개발되면서 1974년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이주 후 여관업을 하면서 새마을금고 일을 오래 했으며, 수원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2012년 9월 19일, 수원교회

## 1. 이촌향도 배경과 이주 과정

이촌향도는 사실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조상 대대로 가족, 친지들과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타지로 이주한다는 것은 여간해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 처하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꾸게 될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수천 년간 농업을 기반으로 한 촌락질서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이 질서는 나름대로 문제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생활양식이었다. 농사는 선택이 가능한 여러 직업 중의 하나가 아니라 천직에 가까운 것이었고,

촌락사회의 생활은 개체성보다는 집단성과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것이었다.

이촌향도는 공간 이동이자 직업의 변화이기도 했다. 농업 또는 어업에서 전혀 새로운 도시 직업으로의 전직인 것이다. 전직은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함부로 결정하기 힘든 일이기도 했다. 직업도 직업이지만 오랜 기간 형성된 촌락사회의 인간관계와 유대관계를 떠나 새로운 생활을 모색한다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위험천만한 곳으로 여겨진 서울 또는 도시로 나가 산다는 것은 익숙한 대면사회 속에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경험해 왔던 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 한두 가족이 아니라 수십, 수백 만의 사람들이 이촌향도를 감행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그만큼 이촌향도의 압력과 필요성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이촌향도의 압력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도시의 유인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의 유출요인이다. 즉 도시 이주를 충동하는 흡인력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농촌의 암울한 현실이 이촌향도의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두 요소는 서로 떨어진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촌의 배출요인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대안적 생활공간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촌현상은 일어나지 않거나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흡인요인이 강하다 해도 농촌의 삶이 안정적이라면 굳이 커다란 모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도시의 흡인요인은 농촌의 배출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며,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5명의 구술자들을 통해 확인되는 모습도 농촌의 배출요인과 도시의 흡인요인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의 빈한하고 고된 삶과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서 도시의 매력이 그들을 이촌향도의 대열로 이끈 것이다. 농촌의 힘들었던 삶은 다음과 같이 기억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팔달문 주변 시가지 1970년대 들어서 수원은 경기도청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 삼성전자 입주, 경부고속도로 개통, 수도권 전철 개통 등으로 급속하게 도시화가 전개되었다. 수원의 도시화는 이촌향도민에게 이주지로써 매력을 갖게 하여 이들의 유입을 증가시켰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수원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정석기 : 시골이 전라도는 그렇습니다. 농경사회기 때문에 아무 수입원이 없어요. 뭘 일 있으면, 누가 가족이 아파도, 벼 팔고 쌀 팔아서 그것을 충당하고. 그러니까 핑장히, 7-8남매, 9남매, 10남매, 그때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핑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죽으로도 죽이, 식구들은 많으니까 어떨 때는 (죽에다가) 물을 더 부어 가지고 부모님들은 배가 고파도 자식 더 먹어라.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렇게 빈곤한 삶은 여러 우연적 요소와 결합되어 매우 곤란한 지경으로 연결되기 십상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었다. 위 구술자는 군 입대 전 17마지기에 달했던 농토가 제대 후 불과 3마지기로 줄어들었던 경험을 토로하였다. 주된 원인은 가족의 질병이었고, 그 결과 아예 마을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상황까지 치달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구술자에게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은 극심한 가난의 연속이었다.

박정용 :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강원도 삼척 도계라는 데로, 저는 선택권도 없이 아버님이 탄광촌에 가셨기 때문에, 선택권도 없이 따라갔지요. 결국 4학년까지 시골에서 상주에서 다니다가 정말 어려웠어요. 초등학교도 월사금 다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때 먼저 객지에 나가서 탄광에 가서 일을 하시고 제가 7남매의 맏이라 밑에 동생들이 있고 하니까, 먹는 게 하루 한 끼 먹었다 하면 믿어지실란지 몰라도 그런 생활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강원도 삼척 도계 아버지 찾으러 갔었는데, 결국 가서 도계초등학교 1년을 다니고 졸업을 했지요. 중학교 그때는 시험을 쳐서 갔으니까 360명 중에 5등이라고 하는 좋은 실력을 시험을 잘 쳤는데도 입학금이 없어 가지고 진학을 못 했습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와 중학교 진학 좌절로 상징되는 탄광촌의 팍팍한 삶 속에서 도시로의 욕망이 자라났다고 하겠다. 즉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희망이 이촌향도의 주된 동력으로 나타난 셈이었다. 물론 시골의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곧바로 이촌향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위 구술자의 경우 탄광촌에서 좌절된 진학의 꿈을 '강의록' 공부로 대신해 가면서 치열한 생존 기술을 익혀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아이스케키' 장사를 비롯해 신문배달을 거쳐 탄광으로까지 이어졌다. 구술자는 17세가 되면서 탄광에 들어가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같이 일하던 동료는 낙반 현장에서 문



도계 탄광촌([http://blog.naver.com/jack\\_johnson](http://blog.naver.com/jack_johnson))

히는 사고를 경험하고 탄광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수 계통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평생의 업이 되었다.

차금자 : 고추밭, 깨밭도 많이 밟죠. 산에 올라가서 이 작은 키에 나무를, 어머니하고 같이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내려오며는 그~ 다리에 돌이 걸려 가지고 나무지게하고 같이 넘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보리 같은 거 베다가 손 베 갖고 이 손가락 끄트머리가 어긋나 갖고 흥졌잖아. 낫질하다가 여기 여 흥터도 있고.

여성은 더욱 고생스러운 경험을 간직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은 가부장적 농촌 환경 속에서 가장 바닥에 놓여 있는 존재였다. 딸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아들에게 모든 기회를 양보해야 하는 일이 태반이었다. 위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차금자는 여성의 신분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될 정도로 고생스러운 삶을 보냈다고 하겠다. 차금자는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진학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촌 여성

들에게 교육기회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다.

차금자는 상급학교 진학이 좌절된 이유를 부모님의 결정보다는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즉 차금자 스스로 “우리 가정을, 인제 여유를, 내가 판단을 한 거죠. 동생들 때문에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진학 대신 차금자가 선택한 길은 장사였다. 이미 부모님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그리 낮은 직업이 아니기도 했고, “뭘라도 해 갖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에 조금 보탬이 돼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서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금자는 수원으로 이주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도박에 따른 가정경제의 위기였다. 요컨대 고향에서의 삶은 가난과 고생으로 특징되었다.

경기도 용인 출신의 김희식도 농촌에서의 어린 시절을 “고생 엄청했지요. 그때. 그 래 살림을 제가 일찍 짰다고.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 좀 실컷 먹어 봤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는 기억으로 회상하였다. 그런데 김희식의 경우는 앞의 두 사례와 또 다른 특징이 있었다. 농촌의 빈곤한 삶과 도시 이주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바 개발 열풍으로 이촌향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였던 것이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걸쳐 용인 한국민속촌과 영동고속도로 등이 건설

되면서 개발 열풍이 불어닥쳤고 상당한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렸다. 그 결과 기존의 농촌 주민 상당수가 자의반 타의반 이촌향도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다. “20원씩 주고 산 거를 아 5,000원씩 준다니까 얼른 팔고 나온 거죠.”라는 말에서 확인되듯이 개발의 효과로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자본이 마련된 셈이었다. 물론 개발로 손에 쥐게 된 보상금이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용인 민속촌이 들어서는 기흥면 보라리(『동아일보』, 1973년 7월 28일)

도시로 이주하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계속 영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회 전체가 도시 중심의 생활로 전변되고 있었기에 김희식도 자연스럽게 도시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도시지향성 가치관과 감각은 토지 보상금을 ‘이익금’으로 부르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즉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라 20원을 투자해서 5,000원을 번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도시 이주는 사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시적 삶을 경험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농촌의 생활 경험만 간직한 경우에는 도시 이주가 그렇게 강렬한 욕망으로 다가오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화려한 생활을 실제 경험하게 되면 그전까지 참고 견딜 만했던 농촌의 삶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고역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정석기 : 대전에, 도시에서 근무하면서 농촌 사람이, 정말 도시에 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욕망이 들어 가지고.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려는, 친척 분이 서울 송인동 산꼭대기에 살으셨어 지금 보니까. 근데 꼭대기서 야경을 서울시 야경을 내려다보니까, 서울의 등불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별 중, 불 중에서 내 불은 없지 않으나, 오냐 좋다, 나도 제대하면 어느 서울 하늘 밑에 내 불 하나 켜야 되겠다. 거기서 혼자 그다짐을 했었어요.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구술자는 서울의 삶에 대해 매우 강렬한 동경을 품게 되었는데, 그 계기는 군대 가서 경험한 도시였다. 구술자는 대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접한 최초의 도시 충격이 서울의 화려한 삶에 대한 동경으로 연결되었고 결국 이촌향도의 기본적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위 구술자는 제대하고 딱 일주일만 시골에서 머물다가 바로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 정도로 도시를 향한 열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를 향한 열망은 강렬한 삶의 의지로 연결되었다. 군복 한 벌로 도시에서 누울 자리 하나 만들 때까지 버티겠다는 각오가 나오기도 했던 것이다.

정석기 : 도시로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의정부 와 가지고 기와공장에서 일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창동제지라고 의정부 들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군에 있으면서 내 각오가, 군복 한



벌 가지고 나가서 이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내가 살며는 혹시 내 누울 자리 하나 마련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군대에서 군복 한 벌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한편 이주 과정에 대한 주변의 반대나 만류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만큼 농촌이나 탄광촌 지역에서의 삶이 친족 및 이웃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많이 상실한 상태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확고한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를 끊어 내면서 이촌향도를 감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거나 적어도 머뭇거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술자들은 이촌향도 과정에서 별다른 반대나 만류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차금자의 경우 미혼상태로 혼자 도시로 이주하게 된 경우였음에도 부모의 적극적인 반대는 없었다고 했다. 물론 차금자가 부모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감안된다 하더라도 이미 농촌 생활의 전망과 구성원 간 유대관계는 매우 약화된 것이라고 하겠다.

예외적으로 김희식의 경우 주변 친족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고 한다. 민속촌과 영동고속도로 건설로 고향 사람들이 다 서울·오산·수원 등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집안사람들이 수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삼촌들하고 큰아버지가 막 야단을 하면서 말리는 거요. 너 같은 순둥이가 도시가 어떤 곳인데 다 까먹는다 가지 말라.”고 막았다고 했다. 김희식은 이러한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수원으로의 이주를 감행했는데, 집안에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기억하였다.

반대 이유는 도시적 삶의 위협에 대한 경계로부터 나왔다. 개발 보상금으로 상당한 돈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히려 도시는 기회의 공간이 아니라 확보된 돈을 “까먹을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나이든 세대에서 더욱 강렬하게 나타났다 하겠다. 김희식보다 연배가 높았던 삼촌들은 도시의 불확실한 삶 대신 농촌의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호했던 것이며, 김희식은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 이주를 감행한 것이다.

이주 과정의 특징을 보면 처음부터 수원으로 바로 이주한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수원으로 바로 이주한 김희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도시에서 일정한 거주 경험을 가졌다. 김희식의 경우는 수원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거주

하고 있었고 이주 이전에도 자주 수원을 출입했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기존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소극적인 이촌향도였다고 하겠다. 김희식을 제외하고 수원으로 바로 이주한 경우는 차금자가 있다. 그러나 차금자 또한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기에 수원이 최초의 도시 생활은 아니었다.

그 외 나머지 3명의 구술자는 모두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여러 차례에 걸친 이주 끝에 수원으로 이사를 했다. 정석기는 서울로 상경한 다음 경기도 여러 도시를 거쳐 수원으로 이주했고, 정옥배도 서울 생활 다음에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박정용은 대구, 서울을 거쳐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이렇게 수원이 1차 이주 지역으로 선택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명의 구술자 중 1명을 빼고, 나머지 4명은 모두 1973년과 1974년에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정옥배는 1980년대 중반에 이주했지만, 나머지 4명이 모두 1970년대 초중반에 수원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수원은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청 이전, 삼성전자 입주가 이루어졌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서울-수원 간 전철화가 진행되면서 교통과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수원이 도시로서 크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흡인요인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970년대 초중반이 수원의 이촌향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원의 인구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60년대 중반까지 미미한 인구 증가율을 보이다가 후반기에 들어 상승곡선을 보여 주는데, 1970년대 중반경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1970년대 초반 이후 수원이 이주지로서의 매력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수원이 중소도시였기에 이주지로서의 매력이 있었다는 구술은 주목을 요한다.

차금자 : 근데요, 그게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서울이라는 데가 왠지 겁나고, 그~ 마을이 이렇게 내려놓고 정착하기가 겁이 나더라고. 근데 수원은 그래도 거기다 대면 지방이기 때문에 좀 만만해 보였다고 할까, 아 요 정도면 내가 좀 여기서 정착하기에 내가 좀 마음이 편할 거라는 생각에 부담이 그러니까 적었던 거죠. 친구도 수원서 살고 그러니까 왠지 인





1968년 서울-수원 간 경부고속도로 개통(경인일보사, 『경기 근현대 사진집』, 2010)



1970년대 경기도청 전경



삼성전자 텔레비전 생산라인

제, 서울도 시골서 살다가 가서 그런지 복잡하고 길도 잘 모르고 팽창히 살기가, 정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차금지는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에 잠시 거주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촌향도 대상으로 서울 대신 수원을 선택한 계기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하나는 친구가 있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가 서울에 대한 공포(?)였다. 인용문에 보이듯이 차금지는 서울 생활을 통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서 바라보았을 때 서울은 화려한 도시 생활의 상징이었지만, 실제 경험한 서울 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중소 규모의 도시인 수원이 매력적인 이주지로 떠오른 것이다.<sup>2</sup>

다음으로 이주 계기를 살펴보면 직업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졌다. 정옥배와 박정용은 직장이 수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주한 경우이고, 정석기도 지동시장에서 장사를 하





남문시장(1970년대 초)

게 되면서 이주한 케이스였다.

이촌향도가 새로운 생활근거지로의 이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경제적 문제가 이주의 중요한 척도였음을 알 수 있다. 직장 이외의 이주 동기로는 연고 이주가 있는데, 차금자의 경우 친구가 수원에 먼저 정착해 살고 있었다는 조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주 형태를 보면 단신 이주보다 가족 단위 이주가 압도적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차금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 모두 가족 단위 이주였는데, 이럴 경우 이주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었다. 단신 이주의 경우 재이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지만 가족 이주의 경우 재이주에 따르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북문 밖 주거지역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하겠다. 차금자도 수원으로 이주한 다음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이것이 수원에 정착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5명 모두 가족 단위를 구성함으로써 수원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된 셈이었다고 하겠다.

## 2. 이촌향도민의 정착 과정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에 정착한다는 것은 매우 고생스러운 과정이었음이 틀림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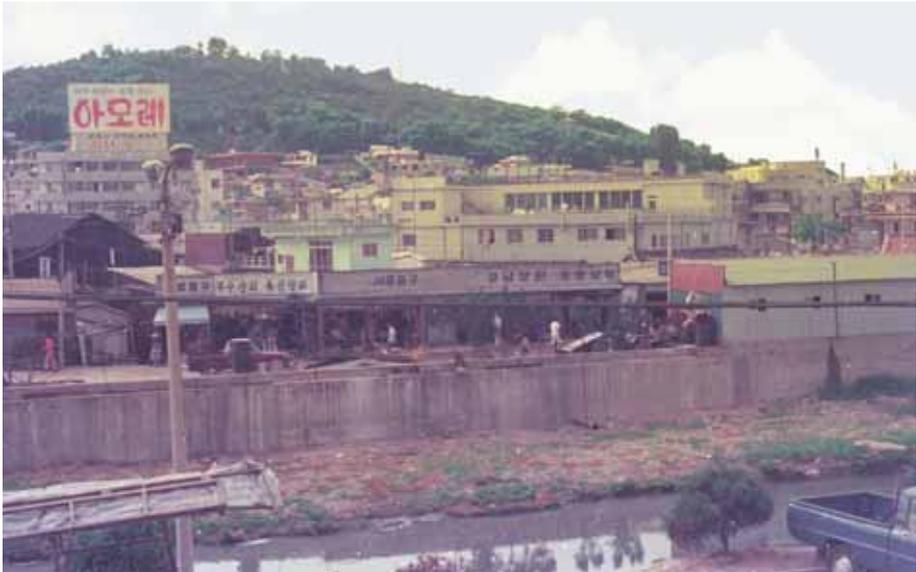




이주 초기 정석기의 가족(정석기 제공) 이주 형태를 보면 단신 이주보다 가족 단위 이주가 많았는데, 이는 이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석기의 부인과 처가 친척들(정석기 제공) 정석기의 부인은 자동시장에서 순대장사로 자리를 잡은 후 고향의 친척들을 수원으로 불러 들여 시장에서 순대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세류동, 매산동, 매교동 등에 흩어져 장사를 하던 친척들은 모두 수원에서 기반을 잡고 정착하였다.



김희식이 정착 초기에 거주하였던 행복예식장 일대(1979년)

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직업과 인간관계 등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생활환경 속에 놓인다는 것은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과정이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별다른 자본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고통은 더욱 배가된다. 정착에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경제적 생활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타의 조건 또한 해결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형편이 괜찮은 경우 정착의 고통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었다. 김희식의 경우 고향에서 받은 토지 보상금이 수원 정착에 아주 귀중한 종잣돈으로 사용되었다.

김희식 : 그때 여관을 샀어요. 그때 1,500평, 21원씩 주고 1,500평을 사 났는데 민속촌이 들어 오면서 5,000원씩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7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집을 산 거죠. 그때 가정집 100만 원씩 갔었어요. 제일 좋은 집이래야 150만 원. 지금 내가 행복예식장 옆에 살고 있는데, 행복예식장이 300평인데 3,500만 원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집이.





수원시 민간기동순찰대(김희식 제공) 맨 앞줄 가운데 앉은 이가 대장을 맡고 있던 김희식이다. 김희식은 팔달새 마을금고에 재직하면서 수원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무, 통장, 민간기동순찰대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수원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김희식의 수원장로교회 장로 임직(김희식 제공) 김희식은 수원 이주 직후부터 수원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현재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 그에게 교회 활동은 개인의 신앙생활이자 사회활동의 연장이었고 일종의 공동체적 상호부조체계이기도 했다.

김희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이주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주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다. 새마을금고를 오랫동안 다니게 되었는데 중요한 계기는 이주한 동네 동장과의 관계였다. 이주 후 동장과 관계를 트게 되었고, 그의 추천으로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직장생활과 함께 통장, 새마을협의회, 방법기동대 등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낯선 지역에 정착하였다.<sup>3</sup>

김희식의 경우 또 하나 중요했던 조건은 신앙생활이었다. 이미 고향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김희식은 수원으로 이주한 다음에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유지하였다. 그에게 신앙생활은 어머니로부터 유래했는데, 어머니가 심장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된 상황에서 신앙의 힘으로 병을 고쳤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김희식은 수원 이주 직후부터 수원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원에 정착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든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는 다양했는데, 이전 거주지에 비해 낯선 것과 함께 경제 상황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박정용은 그것을 물가로 설명하였다. 처음에 와서 수원에 정이 안 붙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물가가 비싸다는 점이었다고 기억하였다. 수원은 이전 거주지 중의 하나였던 대구에 비해 물가가 상당히 비쌌다는 것이다. 물가가 정착 과정에서 그리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초기 이주민의 경우 경제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가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낯선 곳에서의 정착 과정이 야기한 팍팍한 삶을 박정용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박정용 : 집 살 때까지. 집 사고 나서 여유가 좀 생겨서. 제일 그런 게 애들한테, 지금 시집 장가다 보냈지만, 애들 데리고 공원 한 번 못 가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만 삼풍숲 거기 딱 한 번만 데려간 적이 있어요. 공원이든 놀이터도 한 번도 못 간 게 참 내가 마음에 걸린다.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

인용문에 보이듯이 초기 정착 과정은 매우 빠듯한 삶으로 특징되었다. 박정용은 운수업을 통해 비교적 성공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장만은 수원으로 이주한 지 10



년 만인 1984년도였다.<sup>4</sup> 물론 그는 돈이 좀 모이면 운수업에 투입할 차를 한 대 더 늘리는 게 중요하였다. 그래서 집 장만도 그만큼 늦어진 것이기도 했지만 초기 정착 과정이 만만치 않았음을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셋방살이에 아이들 세발자전거도 남이 버린 것을 주워 수리해 타게 할 정도로 박정용의 초기 정착 과정은 힘들었다. 다음 인용 문은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정착 과정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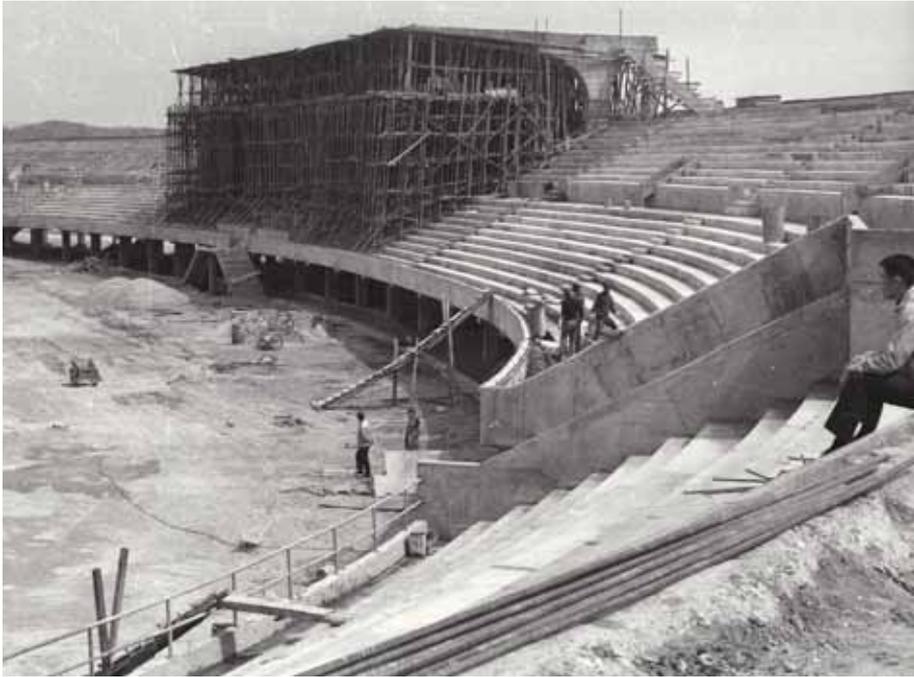
정옥배 : 이농을 해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오는 케이스도 있고, 아무것도 농사에 실패를 하고 농촌에서는 도저히 살 수는 없고 무작정 상경했다가 수원까지 흘러들어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은 대부분이 혹시 재산을 가지고 도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제일로 하기 좋은 것이 구멍가게, 세탁소, 전파사 이런 업종을 했던 것인데,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농촌인들이 금방 그걸 없애 먹어요. 그냥 자기 재산을 없애고 장사를 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막노동, 품팔이 뭘 이런 걸 하면서 하다못해 리어카 또 자영업이 주로 식당이 많은데 식당업을 꾸준하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안 되면 막다른 길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호남인들이 제일 많이 종사했던 것이 건설현장에서 …….

정옥배는 특히 호남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는 했지만 여타 지역 출신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희식처럼 상당한 자금을 갖추고 이주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정옥배는 호남인과 경기도 출신들의 차이를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옥배 : 경기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산업개발 붐으로 인해서 갑자기 땅값을 보상받거나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집값 상승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천한 노동이라든가 하지 않고도 자립기반이 형성이 되었지만, 호남인들은 빈손으로 왔던 사람들도 있고 맨몸으로 무작정 상경했다고 …….

정옥배는 맨몸으로 상경한 호남인들의 60%가 건설업과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외 자영업이 20% 되고, 10% 내외가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sup>



수원종합운동장 건설공사(1971년) 경제적 기반이 없는 이촌향도민들에게 가장 손쉬운 일자리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그중에서 0.5%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이 성공한 축에 든다고 했다. 이 또한 명확한 자료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맞는 추정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촌향도를 통해 정착하고 성공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정옥배는 호남인의 애환을 강조했지만 그가 상대적으로 조건이 낮다고 판단한 경기도 출신 이주민들도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희식의 구술에 따르면 가까운 고향친구 상당수도 서울, 오산, 수원 등지의 도시로 이주했는데 대부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한다. 서울로 간 1명만 그런 대로 성공하고, 수원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본인 하나 빼고 나머지는 가지고 온 재산을 거의 다 들어먹었다고 한다.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은 모든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문제였는데, 이



는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게 그리 쉬울 리는 없었을 것이다.

정석기의 경우는 서울 이주 초기에 직장을 구했음에도 정착이 안정화될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 주고 있었다.

정석기 : 삼양 설탕 계열이었어요, 그 당시. 이 년 반 만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그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또, 시골서 도시에 취직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별 딴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체험하고, 봄 같은 때 퇴근하면 해가 중천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냅니까? 내가 아무리 평생 이 공장에 머무르더라도, 공원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도 안 될 거고. 월급도 쪼그마한데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었고.

시골서 생각하기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회사 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장생활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이다. 산업화 시기 한국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이미 유명한 사실인데, 전태일 분신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도시지역에 정착한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삶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정석기가 경험하고 말한 내용은 바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공장생활을 통해 그 암담한 미래를 생각한 정석기는 자영업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가 장사를 시작한 곳은 애초 수원이 아니라 평택이었다. 평택 서정리에서 순대집을 시작한 정석기는 좀 더 규모가 큰 도시였던 인근 수원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평택에는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평택에서 순대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수원에 가서 장사를 하는 생활을 시작하였다. 버스에 이동식 연탄아궁이를 싣고 수원과 평택을 왕복해야 했기에 만만치 않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생을 한 보람이 있어서 평택이면 3일 걸렸을 게 수원 지동시장에서는 불과 45분 만에 다 팔릴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이 정석기가 수원으로 아예 근거지를 옮기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성공은 또 다른 시련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했으니 기존 상권에 있던 사람들과 일정한 마찰이 없을 수 없었다. 정석기의 좌판은 시장 골목에서 계속해서 구석자리로



1960년대 지동시장(지동시장 계곡)

밀려났고 무려 17번이나 빈자리로 쫓겨났다고 한다.<sup>6</sup>

도시에서의 낯선 삶에 적응하는 데는 적극적인 성격이 중요하였다. 차금지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었다. 서울에서 동생 뒷바라지하면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드문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스스로를 “도전적이고 뭐든지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넘쳤던 성격”이라고 말했는데, 어릴 적부터 자전거·스케이트는 물론 태권도까지 배웠다고 한다. 엄마한테 시집 못 간다고 야단을 맞으면서도 적극적인 성격 탓에 당시로서는 좀 튀는 활동을 많이 했던 듯하다. 이러한 성격으로 차금지는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도시 이주와 결혼 등을 부모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결정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은 도시 적응에 큰 장점이었다. 차금지도 도시와 시골 사이에 인심의 차이가 심각했고 물가도 비싸다고 느꼈지만 빠르게 적응한 듯하다. 2~3년 지나 “수원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





지동시장순대게게들(1997년)

었다.”는 게 그의 회고였다.

빠른 적응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차금자는 남편과 함께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사와 육아도 병행해야 했기에 매우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루 두세 시간의 수면으로 버티면서 비좁은 가갯방에서 먹고 지는 정신없는 생활을 해야 했기에 오히려 적응이 빨랐다고도 할 수 있었다. 즉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이렇게 바쁘게 산 덕분에 차금자의 금은방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만으로 도시에서의 삶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차금자는 수원으로 이주해 막내 동생을 데려와 키우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또 남편과 함께 금은방을 운영했는데 강도를 당해 남편이 중상을 입고 커다란 위기를 맞기도 했다.

도시의 삶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겨 주는 것이기도 했다. 농촌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삶도 물론 자연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었지만 도시의 삶은 주기적 경기 변동이나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었다.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변동의 영향은 매우 컸다. 차금자의 금은방은 IMF사태 까지도 잘 넘겼지만 뒤이은 금값 폭등으로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금값이 7만 원, 8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을 넘겨 28만 원까지 가게 되면서 금 소비가 급감했던 것이다. 예컨대 아이들 돌 반지 대신 현금이 오가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금 소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금은방 운영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게 되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수십 개씩 나가던 반지가 하나도 팔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이촌향도민의 정착에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역시 경제적 토대의 확립이었다. 5명의 구술자 중 3명이 직장 이동을 계기로 수원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2명 중 1명도 여관업 운영이 수원 이주 과정의 중요한 매개였다. 1명만 직업적 연관이 애매한 이주였는데, 친구라는 연고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제 문제는 이주 동기이자 정착의 핵심 사항이었다.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면 이주 후의 정착은 힘들 수 있었다. 5명 모두 이주 후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원에서 경제적 토대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5명 중 4명이 1970년대에 수원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당시 수원이 대기업 입주, 교통망 확충 등으로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확장되던 시기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3. 이촌향도민의 사회활동 \_ 향우회 활동

이촌향도민들의 삶은 뿌리 뽑힌 경험을 안고 다시 낯선 곳에서 새로운 뿌리는 내리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주 초창기에는 일단 정착이 급선무이고, 정착의 최대 우선 과제는 경제적 문제를 안정화하는 것이었다. 5명의 구술자 모두 이주 초창기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었을 때에는 향우회는 물론 별다른 사회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했다. 심한 경우에는 사회친구조차 사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정착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낮은 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며,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해질 것이다.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에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5명의 구술자들도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관계를 형성했고 또 사회활동을 진행하였다.

차금지는 여성이라는 조건상 아이를 매개로 한 사회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차금지는 수원에 정착해 살면서 동네 모임, 향우회, 산악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는데, 제일 처음 참가한 모임이 바로 큰아이의 초등학교 6학년 임원진 엄마들의 모임이었다. 최초의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금지는 이 모임을 3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를 통한 모임 참가는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도 계속 유지, 확대되어 다양한 모임 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관계가 아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차금지는 다양한 친목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동네 모임, 향우회, 동창 모임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남편 향우회의 부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직업적 모임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귀금속연합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귀금속연합회 모임은 분기별 야유회에 참가하는 정도라고 했다.

다양한 모임과 사회관계, 사회활동 중에서도 이촌향도와 관련하여 향우회 활동은 특별한 관심을 끈다고 하겠다. 5명의 구술자 중 향우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김희식이 유일하였다. 김희식은 경기도 용인에서 이주했기에 도 단위 향우회는 없는 상황 이었고 군이나 면, 마을 단위 향우회 활동도 없었다. 다만 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희식의 경우 사실상 고향과 관련된 사회관계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구술자들은 향우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여겨진다. 향우회의 의미는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낮은 도시의 삶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관계를 제공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충청도민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차금자(수원시 충청도민연합회 제공)

구술을 통해 확인한 향우회는 호남향우회, 충청도민연합회, 영남향우회 등 3개였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의 향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위 3개의 향우회가 수원 지역의 대표적 향우회 조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7</sup> 현재 수원 시민 중 대략적인 추계로 충청도 출신이 33만 명가량 되고, 호남 출신이 30만 명, 영남 출신이 20만~25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 인구 110만 명 중 90만 명가량이 이 세 지역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세 향우회 중 제일 먼저 결성된 것은 호남향우회였다. 1965년도에 결성된 호남향우회는 역사가 가장 긴데, 1960~1970년대 이촌향도가 심각했던 지역이 호남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영남향우회는 1972년도에 결성되었다. 그러나 향우회와 별도로 영남인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조직이 병립해 오다 2009년 들어 통합 움직임이 나타났다. 결국 2009년 수원 지역 영남인의 모임 50개 단체와 영남인연합회와



김희식과 신갈초등학교 동창들(김희식 제공) 용인에서 이주한 김희식은 고향과 관련된 사회적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향 친구들과 친목모임을 갖는 정도였다.

영남향우회가 통합돼 ‘재수원 영남향우연합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sup>9</sup>

충청도민연합회는 제일 늦게 결성되어 2003년에야 조직이 구성되었다. 수원의 이촌향도민 중 제일 많은 인구가 충청도 출신으로 알려진 사실에 비추어 좀 의외인 상황이었다.<sup>10</sup> 사실 충청도 출신 이촌향도민들도 향우회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영남향우회와 호남향우회가 있는데 충청도향우회가 없는 것에 대해 차금자는 “그게 얼마나 아쉬웠던지. 참, 고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충청도향우회가 없더라 얘기에요. 내가 굉장히 고향어, 그리웠단 말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차에 충청도향우회 결성 이야기가 나오자 한 마디로 “예스”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충청도향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충우회’란 이름을 가진 모임도 있었고, 각 지역별로 소규모 향우회는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략 30여 개의 소규모 향우회가 존재했다고 하며, 내력이 오래된 곳은 30년이 넘는 곳도 있



수원시 충청도민연합회 한마음축제(수원시 충청도민연합회 제공)

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지역과 달리 연합회 조직 결성이 늦은 셈이었는데, 10여 년 전 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충청도민연합회가 결성되었다. 호남향우회 결성과 비교하면 근 40년이나 연합회 결성이 지연된 셈이었다.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 대립구도가 영남-호남 중심으로 강화되는 조건에서 충청도 지역의 지역 정체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사정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듯이 한국사회는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대립구도가 매우 강한 특징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향우회 조직도 두 지역이 대표적이고, 특히 호남향우회의 결속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충청도 지역은 호남이나 영남에 비해 지역 간 대립구도가 뚜렷하지 않았기에 향우회 조직 결성도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향우회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됨으로써 충청도 지역 출신들도 향우회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뒤늦게나마 향우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겠다. 즉 호남향우회와 영





수원시 호남향우회 체육대회 몇 천 명이 운집하는 체육대회는 향우회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주요한 공간이 된다.



수원시 영남향우회 정기산행 및 आयु회(수원시 영남향우회 제공)

남향우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충청도 지역 출신들도 상당한 자극을 받게 되어 연합회 결성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남과 호남 향우회의 체육대회 행사가 그렇게 부러웠다고 하는 것은 곧 타 지역 향우회의 활동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현재 충청도민연합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있고, 연례행사로 체육대회와 송년회 등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자신의 고향이 충청도임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향우회 조직은 전국연합회가 있고 시도연합회도 있지만, 수원시향우회가 그렇게 강한 규정력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시향우회 밑으로는 각 동 지부가 있고 출신 군 지역에 따른 향우회도 있으며 별도의 친목회 모임도 많다. 일상적으로는 동 지회나 출신 군 지역에 따른 향우회, 친목회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에 수원시향우회는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은 대규모의 인원이 참가하는 큰 대회로 치러진다. 몇 천 명이 운집하는 체육대회 등은 향우회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주요한 공간이 된다.

영남향우회는 100~12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로 활동하는 인력은 40~50명 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는 1,000여 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한다. 영남향우회도 각 지부나 소모임이 있는데, 34개 정도가 활동 중이라고 한다. 사실 이 소모임이나 지부가 향우회의 골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향우회장은 이들 지부나 소모임 순회가 중요 업무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

호남향우회는 역사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왕성한 조직력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향우회 설립 초창기인 30년 전에도 50~60명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보다 많아 500여 명가량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호남향우회도 처음부터 동 지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애초 수원호남향우회 차원으로 활동하다 2000년대 초반에 가서야 동 지회가 만들어졌다. 현재 34개 동 중 30여 개 정도에 지회가 만들어졌고, 그 외에 친목모임이 20여 개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옥배는 향우회의 주요 행사인 체육대회나 야유회 행사 참여 인원을 보면 체육대회의 경우 많으면 5,000명, 야유회의 경우 2,000~3,000명이 참가한다고 한다. 이는 수원시의 향우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인원 참가라고 하겠다.



수원시 충청도민연합회 소속 각 지회(수원시 충청도민연합회 제공) 수원시 향우회는 하부 조직으로 각 동 지부, 출신군 지역에 따른 향우회, 별도의 친목회 성격의 모임 등이 있어서 일상적으로는 이들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평소에는 간부 중심으로 수원시 향우회가 운영되다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은 대규모의 인원이 참가하는 큰 대회로 치러진다.

향우회 활동은 일상적으로 지회 활동이 중심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회에 중복 가입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차금자의 경우 청명회라는 지회를 스스로 조직해 활동하는가 하면, 출신지역인 서천향우회에도 가입해 있다. 여기에 수원 충청도민연합회에서 활동하기에 총 3개의 활동 단위가 있는 셈이었다.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복수의 향우회 활동을 하는 것은 곧 향우회 조직이 하나의 단일한 통합조직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향우회가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임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향우회 활동은 다른 사회활동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형편 등에 따라 활동력과 조직 내 지위 등이 달라진다. 특히 경제형편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우회 활동을 하려면 사실 꽤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회원 경조사부터 각종 행사 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회장 되려면

돈 많이 써야 돼요.”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우회 활동도 경제조건이 밀접히 관련된다고 보인다.

그러면 향우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구술 내용은 지역 향우회의 의미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정옥배 : 회원 간에 직종별로 구분해 보면 법무사, 판사, 검사 무슨 큰 회사 설립해 가지고 기업체 사장 각계각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대상을 찾아 가지고 다이렉트로 정보 교환을 하죠. 그러니까 호남향우회라고 하는 사무실이 소 호남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친목도모도 하지만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이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향우회를 나와서 서로 향우회원들끼리 친목하면서 정보교환을 하면 그 도시에 대한 약간의 장악력이 생겨요. 나도 태평양 한복판에 떨어진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도 어디까지나 향우회라고 하는 기반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면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상당히 그 사람들하고 술자리하고 얘기해 보니까 동네 사정도 훤히 알고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또 인물들이 우리 호남 사람들이 범조계에 어디어디에 있어 가지고 어디 판사는 어디가 고향이고 검사는 어딘데, 또 아무 개 법무사가 줄을 잘 대고 있고 변호가 줄을 잘 대고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시에 대한 장악력이 생긴다고.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향우회는 단순한 친목모임이나 사고모임 수준을 넘어서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낯선 타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가 유통되고 또 사업상, 사회활동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맥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영남향우회의 박정용이었다. 그는 수원시의원을 역임했는데, 애초에는 시의원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향우회 송년회에서 만난 선배의 권유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고 당선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었다. 또 건영정기화물 수원영업소를 운영하다 택시회사 경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도 ‘경청회’라는 향우회에서 만난 선배와의 인연 때문이었다.<sup>11</sup>

“학생부군을 면한다.”는 식의 향우회 선배의 권유는 박정용의 선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었는데, 향우회가 사회활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수원시의원 시절 현장을 방문한 박정용 박정용은 2002년 수원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사실 시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드는 일이었다. 박정용이 출마한 것은 2002년도였는데, 당시 비용은 2억 원 내외였다고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2001년 송년회 자리에서 권유를 받아 2002년 4월 13일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인데,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광고와 홍보물 제작도 빠듯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향우회 선배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의원을 통해 박정용의 사회활동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이미 12~13개의 모임에서 활동하던 상황에서 시의원이 되자 18개의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향우회 활동을 계기로 시의원까지 하게 되면서 박정용의 사회활동은 정점을 찍었다고 보인다.

또 한편으로 향우회는 출신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회원의 정체성 형성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정옥배 : 향우회가 우리끼리만 뽕뽕 뭉쳐 가지고 전라민국을 수원에도 옮겨 놓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고향이 없는가. 타 도민들도. 우리의 교양을 쌓고 향우회에서 또 한 가지 목표가 뭐냐면 일사불란한 행동체계를 수립할라고 애를 씁니다. 예의 바르게 하면서 장유유서를 찾고 또 행동도 제약을 해서 술 먹고 어디 가서 뺨깡 부리고 호남인이라고 욕 얻어먹지 말라. 이런 지침도 있고 해서 행동 통일에도 일사불란한 체계가 조금 형성되어 있어요.

위 인용문의 구술자는 “군대가 아니기에 완전히 잡지는 못하지요.”라고 했지만 “묵



수원시 호남향우회연합회 월례회(수원시 호남향우회 연합회 제공) 향우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사교 모임을 넘어서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타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가 유통되고, 사업상 또는 사회활동상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맥 구축에 매우 유용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시적으로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암시를 주고 해서 질서의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짧은 인용문이지만 향우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보인다. 호남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되 예의범절을 잘 지켜 타 지역 출신 시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행동 통일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타 지역 출신 시민들과의 융화를 위해 질서 있는 향우의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편으로 호남에 대한 강렬한 자긍심과 짝을 이루는 것이었다. “푸 대접을 어떤 놈들이 한다고 해서 기죽지 마라. 우리는 높은 긍지의 문화유산과 갖고 있고 예술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시인·문인이, 엄청나게 훌륭한 시인·문인을 배출했고, 또 훌륭한 정치인도 많이 배출한 고장이다. 그러니까 향시 당당하고 떳떳하면서도 남에게 예의범절에 소홀함이 없어 가지고 욕 얻어먹지 마라.”는 게 정옥배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호남향우회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것이 회원강령일 것이다.

### 「수원시 호남향우회연합회 회원강령」<sup>12</sup>

우리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깨닫고 수원시 호남향우회연합회를 통하여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소박한 마음으로 수원시 호남향우회연합회 회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회원들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2. 우리는 회원의 애경사 시 그 슬픔과 기쁨을 내 가족처럼 나누며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에 양식이 되어 주고 고향애의 정신으로 항상 회원들 간의 유대 강화에 힘쓴다.
3. 우리는 우리 모임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 상호간에 단합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천리타향 수원시에서 회원들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수원시 호남향우회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온갖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5. 우리는 수원시에 사는 호남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호남인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노력한다.

위의 모든 일들을 본인 능력을 다하여 지켜 나갈 것을 우리는 양심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회원강령을 보면 호남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회원 간의 유대 강화, 품행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호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이다. 정옥배의 구술에서도 나왔지만 출신지역에 대한 자긍심은 향우회 활동의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기에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품행 규정이나 회원 간 유대 강화도 출신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연결되는 것이었기에 강령 전체가 자긍심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옥배의 구술에서도 나왔듯이 한국사회가 보여 준 지역 대립구도에 따른 피해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지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이 이촌향도민에게는 더욱더 민감하게 느껴졌을 것이기에 그 영향으로 자신의 출신지역을 숨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렇

게 출신지역조차 공개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향우회가 존속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긍정적 인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출신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사실 다른 향우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충청도민연합회의 행동강령을 보자.

「충청도민연합회 행동강령」<sup>13</sup>

하나. 우리는 충청도민들의 화합과 단결,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적극 행동한다.

하나. 우리는 봉사과 친목을 도모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충청인의 기상을 드높이는데 적극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도전과 끈기로 새로운 충청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충청도민연합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나라사랑, 수원사랑, 향우사랑을 적극 실천한다

충청도민연합회의 행동강령도 출신지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주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출신지역과 거주지역 모두가 중요한 삶의 조건이 되는 이촌향도민의 처지를 반영한 강령으로 보인다. 충청도 출신의 이촌향도민이 향우회에 느끼는 감정의 일단을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자 : 충청도연합회에 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마음을 붙여 가지고 고향 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삶의 지식도 배우고, 또 웃음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우리 연합회 충청도인들, 지혜 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더불어서 제가 긍지를 갖고, 내가 충청도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정말 보람 있게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 인생에서 최고로 여기는 게, 우리 향우회들을 만났다는 거, 그거를 제가 참 고맙고, 아, 살아가는 데 많이 이게 의지와 활력소가 됐어요.



사실 어려운 시절에는 “고향 사람 보면 붙잡고 눈물 나” 을 정도로 고향에 대한 감정이 애뜻했을 것이다.<sup>14</sup> 현실적 이익이나 사회생활의 유리한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딱딱하고 힘든 초기 도시 정착 과정에 떠난 고향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대거 수원으로 모여들면서 약간은 좁어져 간 듯하다. 정석기는 그것을 고향 사람이 많이 올라오니까 “눈물이 마르더” 라고 표현하였다.

향우회라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다. 조직 내부적으로 전국연합회가 강력한 통합력을 발휘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수원 지역 호남향우회의 특징 중 하나는 전북도민회가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같은 호남이라 하더라도 전남과 전북은 미묘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별도의 향우회 조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해도 큰 행사를 치를 때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다.

정옥배 : 전라남도고 북도고 간에 옛날에는 향우회, 수원 호남향우회 산하에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전북도민회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실 향우회에서 봐서는 하나의 단체인 명칭이 인제 전라북도 도민회라고 하니까 그 호칭을 쓰지 말도록 굉장히 향우회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전라남도 향우회가 따로 있고 전라북도 향우회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은 좌우당간 전북도민회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하늘이 높다한들 수원 호남향우회라고 하는 산하단체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 도민회가 자기들끼리 많이 모여요. 동질성이 더 있나 봐. 자기네들끼리 별도 회의도 하고, 여기에 인제 전라북도 도민회 최고 책임자들이 호남향우회에 포괄적인 회의 때 나와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같은 호남향우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전남과 전북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별도의 조직을 꾸릴 정도로 그 차이가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sup>15</sup> 애초 호남향우회에서는 전북도민회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그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

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실 이러한 소지역주의는 어느 지역이나 상존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좀 더 뚜렷해지기는 했지만, 하나의 단일한 지역으로 보였던 곳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소지역으로 구분되어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경남과 경북이 또 다르듯이 전남과 전북도 여러모로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향우회 조직활동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한편으로는 향우회 조직을 꾸려가면서 두 지역이 아무런 불만 없이 균형을 잡는 것이 제법 힘든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소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조직 내 피로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영남향우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남향우회가 있음에도 영남인연합회가 따로 결성된 것은 이러한 갈등이 조직적 분리까지 나아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sup>16</sup> 그러한 갈등양상은 향우회 관련 인사들도 인정하는 바였다. 영남인연합회는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영남인들이 작은 체육대회 하나를 치러도 화합과 친목의 장으로 되지 못하고 서로간의 크나큰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밖에 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었다.<sup>17</sup> 앞에서 서술했듯이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향우회 내부의 갈등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향우회 활동상의 문제는 이 외에도 더 있다. 대표적인 것이 향우회 활동력의 문제인데, 현상적으로는 집행부의 열성에 비해 일반 회원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행사를 치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죽기 살기로 하는데, 딴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가면 그 걸로 끝”인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래도 조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18</sup> 향우회 집행부, 특히 회장 역할을 맡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송년회를 비롯해 이런저런 향우회 행사를 치르다 보면 회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간다는 것이다.<sup>19</sup>

향우회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 호남향우회에서는 ‘공동체 토대 구축’을 매우 강조하였다. 호남 출신이라는 집단 정체성도 오랜 세월 동안 도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컸고, 또 무엇보다도 2세들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하고 있었다. 지역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1세들과 달리 2세들은 부모의 고향과 단절된 경험





전남 강진의 도암초등학교 동창회 기념사진(1995년, 정석기 제공) 정석기는 가끔 고향에 내려가 동창들을 만난다. 수원에서 나름 성공하고 기반을 잡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고향으로 향하게 한다.

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회관 건립이었다. 즉, 약화되고 있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삼고자 회관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금도 상당히 모금했지만 아직 회관 건립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sup>20</sup> 그러나 현재 향우회의 가장 큰 문제는 2세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옥배 : 2세대 잘 안 와요. 2세대들이 잘 안 오는 이유가 향우회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왜 나하면 개네들은 초등학교부터 여기 친구들이 많거든. 경기도. 그리고 호남이 조금 인기가 타 도민들에게 덜 있다 해 가지고, 나는 수원 사람이지만 향우회, 고향에 가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호남 사람이나. 이것이 인기가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돋보이게 내가 미국 뉴욕 사람이다 더 내세우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 호남 사람들은 개똥새라고 옛날부터 해 부러 가지고 망할 놈들이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그랬던 말이어.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향우회는 1세들의 조직이나 활동으로 국한되고 2세들은 여간해서는 잘 참여하지 않는 형국이다.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한다면 수원에서 태어난 2세들은 수원이 고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고향에 그리 큰 애착을 가지기 힘들 것은 당연지사이다. 게다가 부모 세대의 고향을 내세워 별다른 이점이 없는 경우에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고향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모금함(수원시 충청향우회 제공)

더욱더 단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문화, 관습, 언어, 인간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2세들은 부모 세대의 고향과 단절되어 있고, 그것을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것이 향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의 공통된 고민일 수밖에 없다. 호남향우회가 회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결국 2세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우회 외에도 구슬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 중 동창회가 주목된다. 정석기는 초등학교 동창회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전남 강진까지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고향을 지켜 준 동창들이 너무 고맙다고 했으며, 의형제까지 맺은 사람이 두세 사람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촌향도민 중에는 고향을 떠난 것을 매우 미안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자신도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기는 했지만 힘든 고향을 버렸다는 자책감이 들곤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 기반을 잡은 경우 고향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더욱 강해지는 듯하다. 정석기도 고향을 지켜 준 동창들이 마냥 고마운 것이다.

구슬자를 통해서 확인된 중요한 사회활동 중의 하나는 종교생활이었다. 5명의 구슬자 중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김희식 한 명이었다. 일반적으로 낯선 곳으로 이주할 경우 새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이럴 때 도시지역의 대표적 종교인 기독교가 중요한 매개로 기능하는 경우도 많다. 재미교포



사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한 국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관계망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구술자 중에서는 1명에 그쳤지만, 이촌향도민 중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식의 경우 모친의 병환을 계기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부인도 같이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 가족 전체가 교회에 다니는 셈이었다. 김희식은 고향에서 다니던 기독교장로회 계통의 교회를 수원으로 이주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녔다. 교회생활은 개인의 신앙생활이자 사회활동의 연장이며 일종의 공동체적 상호부조체계가기도 하다. 김희식의 경우를 통해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

김희식은 수원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먼저 친목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다. 꿀벌회라는 이 모임은 비슷한 연령대의 열 가족이 모여 들었는데, 김희식이 수원으로 이주하면서 바로 조직하여 40여 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모임이다. 활동은 구성원 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부터 장학사업 등의 사회봉사활동으로 확장되었다. 비단 장학금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사회진출 시 취직 알선까지 하기도 했다. 장기간의 활동과 비교적 활발한 활동내용을 보건대 꿀벌회는 김희식의 사회활동 중 상당히 비중이 높은 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라는 튼튼한 공동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꿀벌회 외에 교회를 통한 활동 중 중요한 것이 묘지위원장 일이었다. 김희식은 수원교회 묘지위원장 일을 오랫동안 맡아 했다. 사실 경조사 중에서도 상례는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다양한 공동체적 결속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경조사에 특별히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 전체가 동원되는 상황이었기에 개별 가족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를 맺기 어려웠기에 경조사 치르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었다. 특히 상례의 경우 그 부담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이는데, 도시지역에 별다른 사회관계가 없는 이촌향도민의 경우는 더 심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상호부조체계는 이촌향도민에게 꽤 부러운 것일 수 있다. 김희식이 다니고 있는 수원교회의 경우 신도생활 1년 이상이면 교회 묘지에 들어

갈 수 있었는데, 묘지 구하는 것도 큰일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었다. 묘지 외에도 장례 전 과정에 교회가 큰 도움을 주기에 도시지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호부조체계가 아닐 수 없다.

#### 4. 새로운 삶과 정체성 \_ 탈향과 귀향 사이

이촌향도민의 삶과 정체성을 시공간적 측면에서 보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하겠다. 첫째 출신지역과 이촌향도 이전의 삶, 둘째 현 거주지역과 현재의 삶인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이촌향도민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 뽑힌 상태로부터 새로운 뿌리내림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주체의 삶과 의식 전체를 크게 요동치게 만든 거대한 모험의 시공간이었다.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고향의 시공간과 현재의 삶을 가능케 하고 있는 거주지의 시공간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이촌향도민의 의식과 무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서로 다른 출신지역과 문화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김희식 : 다르죠. 우선 음식 같은 것도 다르고 음식 만드는 거. 장례 절차 이런 거 하는 것도 틀려. 나는 여기서 배운 것, 신갈이나 수원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다른 데 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는 3일 동안 조문받고 조문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군 산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동네에서 초상이 났다 하면 밤새도록 영영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행여에다 꽃으로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여기는 행여에다 그냥 모시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음식 하는 것도 틀려요. 여기는 대부분 육개장 이런 걸로 다 하는데, 저기는 뭐 개 잡는 데도 있데. 초상이 났다면 개, 전라도인가 개를 잡는데. 또 생선, 갈치국만 끓이는 데도 있고, 죄 음식이 틀리더라고. 야 지방에 따라 틀리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경기도 용인 출신의 김희식은 음식과 문화 등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의 익숙한 문화와 다른 지역의 그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느낀다고 얘기하였다. 근



대 이전 한반도 주민 집단의 통합력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다고 하겠다. 언어, 풍습 및 관습, 음식, 신분 및 사회관계 등이 서로 매우 달랐고 하나의 통합적 실체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예컨대 조선왕조 500년간 서북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은 거의 없다. 굳이 들자면 홍경래 정도일까. 그런데 근대 이후 서북 지역 출신은 '서북파'라는 중요 파벌집단을 형성할 정도로 급변하였다. 안창호, 이광수, 이승훈, 김소월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유명한 서북 출신 인사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즉 근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정도는 매우 컸고 그만큼 통합력도 제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는 지역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기도 하다. 김희식의 경우 그것은 단지 지역 간 문화와 관습의 차이 정도로 파악되었지만, 호남의 경우 상황 인식이 매우 다르다. 호남향우회장을 역임했던 정석기는 경상도와 대비되는 호남 지역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석기 : 저는 그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경상도는 부산 항구가 있어 가지고 상경사회고,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곳이고. 전라도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 밖에 없어요, 돈을 만들려면. 아까 제 말씀대로. 쌀 팔아도 안 되고, 옛날에 전라도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도시에 올라오면, 주머니에 가져간 돈이 적습니다, 도시 오면. 또 친한 일은 전부 다 맡아서, 건축부터 다 하고 있고, 식당 같은 거도 하고 있고. 옛날엔 돈이 없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남의 돈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었든가 봐요. 그래 전라도 사람 나쁜 놈들. 지금도 그렇죠. 나는 정직하게 살아도. 그래 나는 떼어먹습니다. 남의 돈 십 원을 안 떼어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상도는 장사, 부산에 있어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돈이 여유가 있었고, 전라도는 농사 지어 도시에 올라와도 쌀이나 팔아 가지고 돈 적게 가지고 오지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노동일 하다 보면, 안 되면 남의 돈 좀 떼어먹고 가고, 그런 사람이 더러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기화가 돼 가지고, 전라도 놈들, 전라도 놈들. 지금은 나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보는 전라도 사람들, 지금에 와서 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이 극소수라고 봅니다. 별로 없다고 봐요, 제 느낌으로 봐서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지에서 배타적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위 인용문은 한국사회의 가장 널리 퍼진 지역적 편견의 내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지역 차별 구도의 핵심은 호남 대 영남이자 호남 대 비호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호남은 단지 영남의 대립항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호남 전체의 대립항으로 기능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호남 출신에 대한 편견은 다양한데, 정석기는 “돈 떼어먹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즉 “신의가 없다.” “배신을 한다.”는 편견에 대한 나름의 설명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이유를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제적 여건의 차이로부터 설명하였다. 경제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전통적 농업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전라도와 그 반대로 경제개발이 집중된 영남 지역 간의 경제여건의 차이가 이촌향도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인 것이다.

경제개발시대 이래 경제 여건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분할선을 만들어 냈다. 경제가 모든 것의 핵심인 시대가 되었고, 경제적 실력이 다른 여타의 조건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돈’이 모든 것이 되었다. 이 돈 문제를 빼놓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차이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석기의 판단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같은 호남 출신인 정옥배의 구술에서도 확인되었다. 정옥배도 호남인들이 주로 빈손으로 상경하여 갖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경상도 출신의 박정용은 수도권 지역으로 바로 이촌향도한 것이 아니라 대구 등 경북 지역에서 일정한 기반을 잡은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물론 박정용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최소한 영남 지역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고도 일정한 경제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로 바로 올라와 공장생활을 시작한 정석기와 대비된다.

물론 정석기의 설명이 꼭 들어맞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정석기는 그렇게 믿고 있고, 이는 호남 출신 이촌향도민의 정체성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즉 그것은 권력의 편파적인 경제개발로 호남 지역이 차별 대우를 받았고, 그것이 이촌향도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믿음이다. 먹고살 길이 막막하기에 이촌향도를 감행했지만, 빈손으로 올라왔기에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여타 지역 출신들과 다양한 갈등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학계의 분석과도 연관된다. 호남 지역이 경제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일찍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으로 이촌향도가 진행되었고, 이미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하층민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반호남 정서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분석은 정석기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sup>21</sup> 실제로 호남향우회는 1965년도에 결성되고 영남향우회는 1972년에 결성되는 것으로 보아 호남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촌향도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는 아직 경제개발의 효과가 전면화되기 전이라 대규모 공장 등과 같은 정규 일자리가 적었기에 대부분의 초기 이촌향도민은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이나 노점, 상업 등에 종사하기 마련이었다. 수원 지역도 1970년대가 되어야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 입주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에는 도시 하층민들의 안정적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건에서 호남 출신들이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타 지역 출신들과 일정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충분하였다. 정석기가 처음 노동시장에 터를 잡을 당시 무려 17번이나 좌판을 옮겨야 했던 사정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제적 상황 차이에 대한 인식은 곧 정치적 소외와 억압에 대한 억울함, 울분과 결합되는 것이었다.

정석기 :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기를, 소원이죠 소원. 전라도 분들은. 그리고 전라도 사람 빨갱이, 대중이 빨갱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자꾸 그렇게 주입시키니까 그렇지, 자신 있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예요, 정 많고. 진짜 정 많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했던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은 용공조작의 대표적 대상이었고,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고비마다 핵심적 탄압대상이었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호남 지역과 민주화운동은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그전까지 호남 지역의 진보성이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태도는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광주항쟁 이후 호남 지역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실체였다. 김대중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호남과 민주화운동의 상징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김대중의 정치적 성향이

나 이념적 지향의 실제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호남 출신들이 그에 대해 거는 기대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정치적으로 탄압받으며 사회적으로는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던 호남 출신 이촌향도민에게 이 모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었다. 그것은 개인의 힘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전망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 출세 욕망으로 집약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 억압에 맞선 민주화운동은 매우 커다란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다. 더욱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현실적 출세가 더욱 빠르고 확실한 길처럼 보였을 것이다.

정석기 : 내 자신이 입신이 돼야만이 내가 남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지, 큰소리칠 수 있는 거지. 내가 없이는 남한테 큰소리쳐도 메아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살아야 돼요, 보란 듯이. 그런 말 많도록, 지들이 스스로 인정해 주도록.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역대 높은 사람들, 대통령도,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인용문은 낮은 곳에서 정착한다는 것이 곧 현실적 출세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란 듯이 잘살아야 되는 것”이었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정석기는 이러한 인식을 강화해 왔을 것이다. 또한 인용문은 그러한 출세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 높은 사람들과 대통령을 독식한 특정지역에 비해 자신의 출신지역인 호남의 열악한 상황이 못내 안타까운 것이다. 출세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차별 구조 속에서 그것이 녹록치 않은 일임을 곱씹으면서 더욱더 출세 욕망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하겠다.

김희식 : 신갈초등학교 모임을 갖자고 그러더라고요. 동창들도 보니까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이게 사는 생활수준이 비슷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안 만나지더라고요. 처진 사람들은 소외감 느껴 가지고 거기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빠지



지는 앓고 내가 새마을금고 지점장하면서 내 직책도 괜찮고, 내가 사는 생활 정도도 질살 지는 못해도 중간은 가고 계속 나가는데, 영동시장에서 옷가게 하는 동창이 “야 우리 가지 말자. 거기 가니까 지네들 잘산다고 해 가지고 부모재산 받아 가지고 잘산다고 꺼떡거리는 거 보면 눈꼴이 시어. 아 싫다, 가지 싫다.” 자꾸 가지 말자 해 가지고. 그래 그 모임이 그저 있나 했더니 흐지부지 뺐개졌다고 그러더라고.

김희식의 구술에서도 경제적 형편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음이 나타난다. 경제 형편에 따라 사회관계 및 향우 모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 고향에서의 인간관계 또한 현재의 경제 형편에 따라 재규정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곧 이촌향도민의 이중적 정체성, 다시 말해 고향에 대한 귀속의식과 타향에 대한 소속감이 단순 병렬관계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아무리 타향일지라도 현실적 삶의 규정력은 더욱 큰 것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귀속의식은 타향의 삶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현재의 타향살이가 주는 고달픔과 소외감이 만만치는 않았다. 그럴수록 고향이나 동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위안을 얻는 경우도 많았다.

차금자 : 사회에서 만나기는 다 만났어요, 충청도향우회도. 근데 웬지 모르게 우리 향우회 모임은요. 한 번만 만나며는 옛날부터 많이 보고 알았던 사람처럼 금방 친근감이 드는 거 있잖아요. 끈끈한 안 보이는 정이 있는가 봐요. 그 희한하죠? 빨리 친해져요, 스스로 없 어지고, 이게 격이 없어져요. 벌써 나이 많으면 누나, 오빠, 형님, 아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더라구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다른 모임은 안 그래. 그 정 들으려면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그렇데요. 금방 친해져요.

차금자는 수원에 정착한 이후 다양한 사회관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우회 관계처럼 편하고 친근한 곳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모임은 정 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고향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그만큼 도시에서의 사회적 삶이 항상적 긴장관계를 수반하는 것이었음을 반증해 준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자신의 삶에 어떠한 요소로 연루될 것인지



수원시 영남향우회 척시대회(수원시 영남향우회 제공) 이촌향도민들은 타향살이가 주는 고달픔과 소외감이 클수록 고향이나 동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위안을 얻는 경우도 많았다.

긴장감을 갖고 주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의 쓰라린 맛을 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호남 출신인 정석기의 체험과 인식은 단지 영남 지역과의 대비로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예비군 훈련 과정을 통해 “경기도 친구들한테 예비군 훈련받고 술 한 잔 못 얻어 먹어 봤습니다.”라고 토로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지역 차별 구도는 호남대 비호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정석기 또한 영남은 물론 경기도 지역 출신들과의 관계에서도 숨기기 힘든 차별의 경험을 간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연민과 집착, 현실적 출세욕망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촌향도 1세대의 이야기이고, 2세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향우회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2세들이 향우회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나아가 부모세대의 고향에 대하여 별다른 애착이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을 못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강렬할 수밖에 없었던 출신지역에 대한 애정과 연민, 집단적 연대의 경험들이 자식세대에서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부모세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시대가 바뀌었기에 호남인의 정체성이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게 되었다.

정옥배 : 이주했던 1세대하고 2세대와의 차이점, 그것이 부모들이 하기에 매였어요. 자꾸 나는 호남인이다 내세워 가지고 호남인들 단체 모임에도 애들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호남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주로 과거 개념으로는 호남인이 후대접받던 시절이고 호남인이라고 하면 3공 때는 요시찰 인물로 볼 정도로 압박이 심했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나면 호남인 자체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정일수록 2세대들은 나는 호남하고 관계없단 말여. 우리 아버지는 그럴는지 몰라도, 나는 태어나기를 수원에서 태어났으니까 수원 사람이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서울 사람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죠. 호남인을 탈호남인을 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프로 정도는 탈호남을 주장했던 것인데. 문민정치가 되면서 많이 완화되었다고 봐요. 인제 떼떽하게 나와 가지고 내 부모가 호남인입니다. 그래 갖고 표 달라고.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상당히 격세지감을 참 웃기는 현상인데, 문민정치 들어와서부터 많이 바뀌었어. 그 이전에 3공 시절에는, 5공시절에는 끝까지 호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옥배는 부모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호남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만큼 자식세대와의 단절이 커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과거 3공과 5공 시절의 호남 차별과 억압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호남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호남인이라 하더라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 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지역적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옥배 : 내가 분석해 본 결과 전라북도민들이 좀 더 온순 순박해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사람들이 조금 욱하는 다혈질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결단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라북도는 온순 순박한 반면에 결단력이 부족해서 전라남도 사람들하고 북도 사람들이 모이면 남도 사람들이 좀 갑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잘라서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충청도 기질이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이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호남인들은 전라남북도를 떠나서 근본적인 성격은 다정다감하면서 섬세하다고 봅니다.

위 인용문을 보건대 호남인으로서의 통합적 정체성은 이미 미묘한 균열이 있는 셈이었다. 낯선 타향에서 호남인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이 중요한 것으로 상정되었지만 그 내부에는 그리 쉽사리 매워지기 힘든 기질적 차이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이촌향도민의 정체성이 분열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촌향도민에게 단일한 집합적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나아가 1세대 이촌향도민들도 현 거주지 구성원이기에 자신의 출신지역으로의 귀향의식은 절반의 의식임을 숨길 수 없다. 정석기는 호남인과 수원 시민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대해 양자가 반반 될 거라는 답을 내놓았다. 자신들이 주도했던 삶과 그 현실적 담지체로서 향우회 또한 자식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귀향과 탈향 사이에서 방황하는 듯하지만 자식세대는 결국 탈향으로 귀결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수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떠한 모습일까.

박정용 : 80년 초반부터. 그때 80년대 초반 되니까 다른 데 비교할 것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사업상 문제 때문에. 이 수원이 뭐 여기서 인생 마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친구들도 사귀고, 우리 애 때문에. 셋 다 유치원부터 여기서 자랐고, 나도 중요하지만 애가 옮기면 애들한테도 친구들하고 멀어지니까. 내가 사망 다녀 보니까 친구가 없더라고. 친구 사귀는 여유도 없었지만, 거의 유일하게 고향에서 5학년까지 다니던 초등학교 친구들 지금까지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수도권에서. 요즘에 두 사람 죽고 14명 있었는데, 매달 한 번씩 첫째 주 토요일에. 지금도 돌아가면서 각 집에서, 음식점에 안 가고 각 집에서.

인용문은 영남 출신인 박정용의 말이다. 그도 수원에 들어온 지 채 10년이 안 되어서 수원을 제2의 고향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업과 가족 등의 요인으로 더 이상의 이주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수원 시민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에게도 고향은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다. 초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향에 묘지로 쓸 임야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식세대에게 자신과 같은 출신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영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사위를 맞아들였고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하게 잘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박정용은 전국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수원에 정착한 경우였다. 다른 구술자 중에서도 서울로 이주했다가 수원으로 재차 이주한 경우가 있지만, 박정용은 고향인 상주에서 태어나 대구를 거쳐 강원도 도계, 서울, 오산 등지에 거주하다 수원에 정착한 경우이다. 1960~1970년대 한국의 사회적 유동성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였다. 생존을 위해 전국을 떠돌게 된 삶은 뿌리 뽑힌 자들의 전형적인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물론 박정용의 경우 전국을 떠도는 삶이 비교적 성공적인 삶으로 연결되기는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뿌리 뽑힌 채 다시는 정착하지 못한 삶들도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이촌향도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새로운 정착의 기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기회도 함께 제공했던 것이다. 어쨌든 박정용의 경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모든 구술자들은 하나같이 이제 수원에서 뼈를 묻어야 될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수원에 터를 잡고 어쩔 수 없는 수원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촌향도민들은 수원의 발전과정에 자신들의 흔적을 기입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옥배는 호남 출신이 30만 명에 달하고 “수원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sup>22</sup>

수원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삶의 터전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출신지역에 따른 갈등과 차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채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지역적 차이가 어떻게 인식, 경험

되고 있었던지를 살펴보자.

정옥배 : 내가 경기도에 살면서 느낀 건데,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람들은 썸이 상당히 정확하다. 그런데 그 대신 어디까지나 정확한 썸을 할 줄은 알아도 남에게 인심을 베풀거나 후덕한 맛은 추호도 없어요. 오죽하면 ‘각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 다만 정직하고 성실하다, 인제 썸이 정확하다. 그러나 아기자기한 인간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사람들과 생활해 보면 썸은 정확하니까 정직하고 사람들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각쟁이여. 기질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호남에서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째째하게 보이고 기질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촌향도민의 정체성 인식이 출신지역과 현 거주지로 이중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수원 시민 또는 경기도 도민에 대한 타 지역 출신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수원 사람, 경기도 사람에 대한 인식은 한 마디로 ‘각쟁이’라는 통념적 파악과 유사하였다. 즉 썸이 분명하고 세세한 인간미는 없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호남이 인간적 정이 두드러진다는 의식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구술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수원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차금자 : 고향은 충청도예요. 그렇지만 현재 사는 건 수원이에요. 그러면 수원, 수원은 내가 여기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삶의 터전과 모든 걸 내가, 나이와 같이 세월을 흘렸잖아요. 그러면 충청도는 내 고향일 뿐이야, 부모님 계시고, 수원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책임감 있게 동참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차금자는 “수원 사람이냐, 고향인 비인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수원 사람이죠. 난 비인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단언하였다. 비인은 단지 고향일 뿐이며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가 수원이니 자신은 수원 사람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향과 현 거주지의 반반이라고 했던 다른 구술자와는 달리 차금자는 수원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 자식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수원이 고향임을 강조하였다.





이촌향도민의 수원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여 주는 문구들(수원시 충청도민연합회 제공)



지역 청소 봉사(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아래) (수원시 영남향우회 제공)

차금자 : 본인 고향은 아닌데 엄마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죠. 개들 고향은 수원  
이예요. 개들이 비인이 고향일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엄마 고향이니까, 친근감이 가는  
거죠. 정은 있는 거죠, 즈네들 고향은 아니지만 정은 있단 말이에요. 충청도를 무시할 순  
없잖아, 엄마의 고향이니까. 모태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세대가 향우회 활동에 열성적이지 않고 부모세대와 달리 고향에 대한 귀속의  
식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기는 했지만, 차금자는 이것을 분  
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구술자의 경우 자식세대가 부모세대의 고향과 점점 멀  
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가급적 고향 중심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차금자는 자식세대는 고향조차도 수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삶이 당  
연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자식들의 향우회 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  
였다. 즉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 향우회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  
다는 입장이었다. 정옥배가 호남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회관 건립 등의 문제를 강조  
한 것과 미묘하게 다른 입장이라고 보인다.

이촌향도민의 이중적 정체성은 결국 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재규정되는 과정에 있  
다고 하겠다. 심지어 고향에 대한 애뜻한 감정마저도 현재의 삶과 연루되어 구성되는  
것이지 않을까 한다. 현재의 삶이 주는 고통과 좌절, 긴장과 번민이 고향에 대한 회구  
를 강렬하게 한다면, 현실의 성공과 행복 또한 동향 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고  
축하받고 싶은 것이다. 이촌향도라는 과정을 통해 ‘굴러 온 돌’ 처럼 수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기에 불가피하게 ‘박힌 돌’ 인 기존 거주민들과 일정한 갈등과 긴장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  
우회를 만들 필요조차 없는 ‘박힌 돌’ 들과 달리 향우회라는 조직을 통해서나마 자신  
들의 사라진 고향을 현재화해야만 하는 ‘굴러온 돌’ 들의 삶은 한국사회가 지난 50여  
년간 지나온 행로의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 5

## 결혼 이주여성의 생애 이야기

\_ 꿈꾸는 삶, 끊임없는 노력의 여정

결혼 이주여성 스스로가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된 차별적인 시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1. 한국사회, 그녀들과 만나다
2. 이야기의 주인공

김 윤 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조원

# 01 | 먼 곳에서 온 그녀들

## 1. 한국사회, 그녀들과 만나다

전 지구화와 함께 진행된 국제이주의 물결은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가 다민족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학계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며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결혼 이주자의 등장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실질적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된 국제결혼의 급증은 기존의 이주민정책을 본질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이주노동자나 다른 외국인 이주민들과 달리 한국에 정착한 후 영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영주뿐만 아니라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민과는 차이가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주노동자와 달리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는 이주민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시켜 주었고, 손님으로서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던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타자가 아닌 함께 살아야 할 사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이후 한국



사회의 전망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이 성사되기 시작한 것은 심각한 농어촌 청년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1980년대 말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조선족 동포 여성과 결혼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후 한동안 농촌의 영농후계자들에게 배우자를 주선하는 여성단체나 농민단체의 중국 방문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92년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경로로 조선족 동포와 결혼을 주선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교가 일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결혼 주선을 필리핀 여성으로 확대하면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증가했으며,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등장과 함께 국제결혼 대상국은 다변화되었다. 초기에는 필리핀 여성들이 많았으나, 피부색의 차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고려인) 등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들 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국제결혼도 늘어나고 있으며 저소득층 남성, 재혼 남성, 장애인 등도 국제결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외국인 출신 여성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을 돕는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시민단체들의 보고서는 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실태를 보여 주는 가정폭력의 실상,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대한 내용들이다.<sup>1</sup>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국제결혼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이 조사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보건복지정책을 개발하려는 시도에서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로서, 국제결혼에 관한 전국 단위의 현황을 잘 보여 준다.<sup>2</sup>

이러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보고서는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이주여성의 문제를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했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주여성을 피해자 또는 희생자의 이미지로 고착시키는 시각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양적조



수원 다문화행시장 벽에 걸려 있는 사진

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들 연구는 주체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행위자성이 사장된 피해자 및 희생자의 이미지로 이주여성을 재현하였다. 이는 능동적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희생자가 교차하는 이주여성의 현실의 상황을 보여 주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목소리가 없는 하위주체로 대상화시키게 되었다.<sup>3</sup>

학계에서는 문화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적응 과정과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실태조사들이 문화적 갈등의 기본적 현황을 제시해 주었다면, 문화인류학적 접근은 문화적응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보여 주었다.<sup>4</sup> 구조적 조건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연구는 국제결혼을 전지구화의 흐름과 관련 지음으로써 성별이 국제이주에서 중요한 작동지점이며, 저개발국의 '성별화된 이주 방식' 이 국제결혼임을 드러냈다.<sup>5</sup> 사회구조적 제약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미진한 영역이었던 주체들의 삶의 경험과 의미화의 실천들을 다룬 연구도 등장하였다.<sup>6</sup> 이들의 연



구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피해자로 대상화된 이주여성의 이미지를 주체들의 행위자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

한국사회는 최초의 정착형 이민자인 결혼 이주자 덕분에 순혈주의나 단일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재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결혼 이주 여성은 복지의 대상이나 한국의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희생자 혹은 못사는 제3세계의 여성이라는 통합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적 차원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가족 돌봄 노동의 전담자 및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문제의 해결사로 인식되고 있다.<sup>7</sup> 한편 출신국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짙은데, 특히 이주 적응의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몇몇 사례에 대하여 출신국별 집단이미지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sup>8</sup> 결국 이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개별적이고 다성적인 개인의 삶의 경험과 과거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하나의 집합으로서 결혼 이주여성이라는 분류체제로 규정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9</sup>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1992년에 2,057명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1만 2,647명, 1998년에는 8,054명, 2000년에는 7,304명, 2003년에는 1만 9,214명에 이른다. 1997년 IMF경제위기로 1999년에 5,775명까지 감소하던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은 2000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 이는 경기 회복과 함께 1999년 8월부터 국제결혼 알선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국제결혼 알선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후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8만 7,964명, 2008년에는 10만 2,713명, 2009년에는 12만 5,673명, 2010년에는 12만 5,087명이 되었다. 전국 지역별 결혼 이주여성의 숫자는 2007년에는 서울이 2만 3,41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3만 2,576명으로 2만 9,455명의 서울보다 앞서게 되었다.

경기도 내 시군별 변화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안산시가 3,9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수원시가 3,067명으로 나타났다.<sup>10</sup> 전국에서 경기도는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경기도 내에서 수원은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 중 하나인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수원시에 외국계 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만 5,019명에서 2009년 3만 139명(20.5%)으로, 2010년에는 3만 1,552명(4.7%)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안산시가 2008년 3만 6,387명에서 2009년에 4만 1,785(14.8%)명으로, 2010년에 4만 3,190명(3.4%)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그 증가율이 높다. 즉 기존에 경기도 내 다문화 지역으로 대표되는 안산만큼이나 수원은 다문화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원의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논의나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 1〉 경기도와 수원시 외국계 주민 현황<sup>1)</sup>

(단위 : 명, %)

구분		경기도			수원시			
		2009	2010	증감률	2009	2010	증감률	
주민등록인구		11,335,127	11,460,610	1.1	1,070,841	1,073,149	0.2	
외국계 주민 총계	계	323,964	337,821	4.3	30,139	31,552	4.7	
	남	181,636	183,637	1.1	14,765	13,062	-11.5	
	여	142,328	154,184	8.3	15,374	18,490	20.3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소계	계	276,762	278,997	0.8	25,826	26,172	1.3
		남	163,683	162,167	-0.9	13,004	11,155	-14.2
		여	113,079	116,830	3.3	12,822	15,017	17.1
	외국인 근로자	계	205,239	203,387	-0.9	18,159	17,743	-2.3
		남	139,781	136,508	-2.3	10,165	7,931	-22
		여	65,458	66,879	2.2	7,994	9,812	22.7
	결혼이민자	계	32,444	32,576	0.4	2,972	3,067	3.2
		남	4,765	4,867	2.1	517	513	-0.8
		여	27,679	27,709	0.1	2,455	2,554	4
	유학생	계	6,867	7,887	14.9	1,377	1,548	12.4
		남	3,551	3,828	7.8	768	690	-10.2
		여	3,316	4,059	22.4	609	858	40.9
	재외동포	계	10,625	12,191	14.7	671	856	27.6
		남	4,885	5,572	14.1	327	430	31.5
		여	5,740	6,619	15.3	344	426	23.8
기타 외국인	계	21,587	22,956	6.3	2,647	2,958	11.7	
	남	10,701	11,392	6.5	1,227	1,591	29.7	
	여	10,886	11,564	6.2	1,420	1,367	-3.7	



구분		경기도			수원시				
		2009	2010	증감률	2009	2010	증감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소계	계	21,554	28,871	33.9	2,080	2,957	42.2	
		남	4,831	6,126	26.8	621	653	5.2	
		여	16,723	22,745	36	1,459	2,304	57.9	
	혼인 귀화자	계	12,316	17,279	40.3	884	1,217	37.7	
		남	861	1,552	80.3	36	60	66.7	
		여	11,455	15,727	37.3	848	1,157	36.4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	계	9,238	11,592	25.5	1,196	1,740	45.5	
		남	3,970	4,574	15.2	585	593	1.4	
		여	5,268	7,018	33.2	611	1,147	87.7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계	25,648	29,953	16.8	2,233	2,423	8.5	
		남	13,122	15,344	16.9	1,140	1,254	10	
		여	12,526	14,609	16.6	1,093	1,169	7	
	외국인 부모	계	1,348	2,796	107.4	210	145	-31	
		남	687	1,441	109.8	104	74	-28.8	
		여	661	1,355	105	106	71	-33	
	외국인-한국인 부모	계	19,891	22,505	13.1	1,531	1,684	10	
		남	10,145	11,519	13.5	789	880	11.5	
		여	9,746	10,986	12.7	742	804	8.4	
	한국인 부모	계	4,409	4,652	5.5	492	594	20.7	
		남	2,290	2,3484	4.1	247	300	21.5	
		여	2,119	2,268	7.0	245	294	20.0	
	외국인 주민세대수			51,150	60,595	18.5	5,237	5,960	13.8

## 2. 이야기의 주인공

이러한 시점에서 동질화, 집단화되어 분류된 모습이 아닌 결혼 이주여성 개개인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유의미할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 스스로가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된 차별적인 시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를 위



수원 디문화푸드랜드 2012년 경기도와 수원시 공동 예산으로 수원 역전시장 지하1층에 문을 열었다.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 언어 문화 동아리의 견학(수원이주민센터 제공)

해 연구자는 수원에서 살아가는 4명의 결혼 이주여성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연구자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수원에서 살아가는 4명의 결혼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것들이 수치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인간에게는 있다. 인간의 느낌, 감정, 직관, 상상력, 초월적인 것에 대한 믿음, 관념 등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서 인간 행위의 강력한 요인이지만 수치화하기는 힘들다.<sup>12</sup> 개개인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에 대한 이해와 분석,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부여 방식을 밝히는 작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4명의 결혼 이주여성들과 심층면담을 갖고, 그들의 집과 일터에서 참여관찰을 했다. 또한 아이들과 남편 등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성들이 가족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통합하여 하나의 일반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삶의 맥락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개별적 이야기로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의 이야기 속 주인공의 이름은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은 보통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생겨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고 밝힌다.<sup>13</sup> 그러나 그들을 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삶의 맥락 안에서 현재 왜 그것을 힘들어 하고 극복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해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sup>14</sup> 왜냐하면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구조<sup>15</sup>와 개인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이 글에서 살펴본 수원에서 살아가는 4명의 결혼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안산만큼이나 많은 다문화가족과 결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수원의 다문화 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모국

에서 태어나 서로 다른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고 극복해 나가 현재에 이른 4명의 결혼 이주여성의 역동적인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집단으로 범주화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단순화시키는 일인 것인지, 통계 수치로는 채 드러낼 수 없는 다채로움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소폰은 태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방콕에서 비서로 근무하다 한국계 기업에 파견을 나가서 지금의 한국인 남편과 만나게 되었다. 1997년 그와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수원의 중산층 가정에서 맘머느리로, 1남 1녀의 어머니로 13년간 전업주부로 살게 된다. 그녀가 한국에 살기 시작한 시기에는 ‘결혼 이주여성’ 이라고 그녀를 규정하는 용어도, 이들을 돕기 위한 기관도 없었던 시기였으므로 오로지 가족 안에서 한국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배워 나갔다. 낯선 환경에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한국인처럼 생긴 외모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본인의 의지와 가족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한국 문화를 배우며 익히는 과정에서도 모국의 문화를 잊지 않았으며, 한국 생활에서 모국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함께 혼합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그녀는 다문화가족은 가난하고 불행하며 아이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에 저항하며, 롤 모델이 되고자 끊임없이 자신과 아이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한편 2년 전부터는 이주민을 위한 NGO에서 일을 하며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5년간의 한국 생활 경험을 토대로 결혼 이주여성을 돕는 멘토로, 태국 문화를 전하는 전도사로,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산드라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바야의 시골 마을에서 1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가난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돈을 벌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싱가포르·대만·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생활을 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에서 2003년부터 3년간의 이주노동자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 일하던 공장의 사장 소개로 남편과 결혼하였고, 이후 1년 8개월간 더 그 공장에서 일하였다. 일하는 동안 꾸준히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 모국의 가족들은 집도 짓고 닭 농장을 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산드라는 이주노동자로 살아갈 동안에



는 언젠가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지 않았으나,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영주할 생각을 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눈에도 외국인임이 드러나는 까만 피부색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좌절하기도 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남동생이 사고를 쳤을 때는 왜 자신에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억울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강한 승부욕과 독립심을 가졌던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갔다. 돈을 모아 닭 농장을 하고 싶었던 꿈,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꿈을 이루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도 돕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할 있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게 다음의 꿈이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라이혼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근에서 엔지니어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하다 통역사로 일하는 외숙모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2002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라이혼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반장은 놓치지 않고 우등생으로 살아가면서 의대를 나와 산부인과 의사로 부족할 것 없이 살아왔으나 단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삶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한국 생활 초기에 힘들어 하는 라이혼을 남편은 많이 도와주었다. 함께 한국어 학당을 다니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힘이 되어 주었다. 동시에 라이혼은 첫째 아이를 낳자마자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향해 나아갔으나, 결국 그 꿈은 좌절되었고 한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꿈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라이혼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신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둘째를 출산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러시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일을 하게 되면서 못다 이룬 꿈과 현실의 타협점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 의사가 되고자 했던 자신의 꿈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현은 베트남에서 고위공무원 가정의 막내딸로 어려움 없이 자랐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지현은 첫사랑의 실패 후 베트남을 떠나고자

했으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파견하는 첫 번째 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된다. 한국말 한 마디도 못 한 채 열악한 식생활과 주거환경, 외로움에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오로지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딸이 되지 않기 위해 참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연수생 생활 동안 첫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은 많은 거짓말을 했고 돈을 주지 않았으며 폭력을 휘둘렀다. 2001년 지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딸을 데리고 남편을 떠나 이혼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은 2006년에야 끝이 났다. 그동안 지현은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혼자 두 가지 일을 하며 딸을 키웠다. 2005년에는 자신의 첫 번째 가게 문을 열었고, 2010년에 베트남 음식점을 열게 된다. 2007년에는 베트남 사람인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은 세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 20년간의 한국 생활 동안 이주노동자로, 폭력적인 남편의 아내로, 새로운 가정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수원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표하는 롤 모델로, 베트남 커뮤니티의 대모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이었다.

이 4명의 여성의 삶은 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묶기에는 너무나 달랐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꾸며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배워 나가는 삶의 자세는 이들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었다. 또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었던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우선적으로 가족이 있었으며, 신앙과 친구들도 그중 하나였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돕는 여러 단체들에 대한 필요성과 고마움을 대화 도중 여러 차례 드러냈다. 수원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곳들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좋았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어 힘이 된다고 하였다.

차후에는 더 많은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대화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알맞은 곳에 자리 잡아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원이주민센터 후원의 날(수원이주민센터 제공) 수원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등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인권 보호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수원이주민센터 후원의 날 행사장 내부



수원이주민센터 후원의 날 행사(수원이주민센터 제공)



수원이주민센터 후원의 날 각국의 행사 상품들



각국의 음식들



1. 소폰 이야기 \_ 나는 정말 행복해요
2. 산드라 이야기 \_ 난 꿈이 있어요
3. 라이혼 이야기 \_ 이제 아이들을 위해 살아요
4. 지현 이야기 \_ 나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 윤 희 |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조원

## 02 | 그녀들의 이야기

### 1. 소폰 이야기 \_ 나는 정말 행복해요

#### 1) 태국에서의 삶

올해 마흔 살이 된 소폰은 태국 북부 지역 딱 출신으로 1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공무원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다. 태국은 한반도의 다섯 배 크기로 크게 북부와 남부, 중부, 서부로 나뉘며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소폰의 고향인 딱은 미얀마와 인접한 지역으로 소폰은 “북쪽 여자들은 얼굴도 하얗고 너무 예쁘고 얌전하고 남자들도 모두 잘생겼다.”고 했다. 하얗고 얌전한 외모는 소폰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지금 고향에는 어머니와 이모들, 조카와 동생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모들은 모두 선생님이고 동생들도 공무원이며, 동생들은 모두 결혼하여 각각 7살, 6살, 5살 여자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소폰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 형제와 떨어져 증조할머니 댁에서 살았다. 일곱 살이 되자 무용학교에 들어갔고 중학교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았다. 어린 시절 직계 가족과 떨어져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 배경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주체적인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용학교에서의 생활은 어렵고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입학하자마자 기숙



사에서 생활하여 학교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다. 무용뿐만 아니라 앓는 법, 걷는 법, 화장법, 사용하는 꽃과 장식품 만드는 법까지 모두 배웠다. 또한 몸매관리를 위해 많이 먹지도 못했으며, 허리를 가늘게 보이기 위해 허리띠를 매고 생활했다. 태국 무용에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필요한데, 소폰은 하얀 얼굴과 통통하고 둥근 얼굴 때문에 여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힘들기도 했지만 무용학교에서의 생활로 소폰은 가녀리고 여성스러운 성격과 외모를 갖게 되었다. 태국무용은 요가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허리와 몸매가 예뻐진다. 그 시절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줄 때 “내가 딱 봐도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또한 친 한 장으로 된 태국 전통 치마를 입고 생활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몸가짐에 익숙해졌으며, 자주 무대에 오름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에 두려움 없는 성격이 되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소폰은 무용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 딸의 역할이 큰 태국에서 무용을 계속 했을 경우 불투명해질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한 것이다. 결국 무용학교에서 나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대학은 비서학과를 가게 된다. 무용으로 다져진 외모와 성격이 비서 역할을 하는 데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향을 떠나 방콕으로 왔고, 그곳에서 외국기업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비회사에 비서로 취직을 하게 된다.

## 2) 운명 같은 남편과의 만남

소폰은 회사 중역의 비서로 일하면서 결혼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된다.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한 것이다. 20대 초반이면 모두 결혼을 하는 태국에서 스물여섯 살이 되어도 결혼을 하지 않는 딸을 어머니는 많이 걱정하였다. 그런데 그즈음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된다.

소폰이 일하는 경비업체 인근에 한국 기업인 ○○건설이 46층짜리 건물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소폰의 회사로 두 명의 태국인 경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는데 직원이 농담으로 “태국 사람 오라고 했다.”며 소폰을 보낸 것이다. 소폰과 그녀의 친구

한 명이 현장에 갔는데, 헬멧을 쓰고 현장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이는 공사현장의 환경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놀랐다. 소폰의 친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났지만, 소폰은 “어차피 여기까지 왔어. 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원 서류를 냈다. 경비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태국 여성이 지원을 했음에도 소폰은 고용이 되었고, 다음 날 출근 하리는 전화를 받았다. 3층에 있는 오피스에 갔을 때 어리둥절하였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하얀 얼굴의 그녀가 한국인 비서인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피스에 있는 태국 사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한국인 총무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폰의 남편은 ○○건설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태국 현장에 파견을 나와 있었다. 소폰과 남편은 같은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한 달 후 소폰은 총무에게 “이 남자(남편) 좋아해.”라고 남편을 향한 마음을 고백했다고 한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형, 머릿속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대머리에 배도 볼뚱 나온 한국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마음이 이상하고 느낌이 너무 좋다.”는 소폰의 고백을 들은 총무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고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소폰은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동안 자신이 상상했던 남성상과도 전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된 것에 대해 ‘인연’ 또는 ‘운명’, ‘드라마’ 같다고 이야기했다. 우연한 계기로 한국 기업에 파견을 나와 일하게 되고, 또한 친구와 재미로 본 타로카드 점에서 “너 외국 사람과 결혼해. 그리고 외국에서 살아.”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했다. 또한 남편의 연결다리를 해 준 총무와 남편의 과거 인연도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하게 했다. 태국 현장에서 만난 남편과 총무는 과거 한국에서 일을 할 때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던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테이트를 시작한 소폰과 남편은 소폰이 영어로, 남편은 태국 생활에서 배우게 된 짧은 태국어로 대화를 했다. 그러나 3개월 후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남편은 “한국에 같이 가자.”라고 했고, 장난인지 진심인지 몰랐던 소폰은 “really?”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태국어로 “จริงจริง(짱짱 : 정말)”이라고 답했다. 소폰은 갈까 말까 고민이 되었지만 “알았어. 해 보자.”라고 생각했다. 소폰은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 가 보는 거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랑은 뒤를 안 보잖아요. 신랑만 보잖아요.”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기 전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할 겸 고향집에 가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는 “애야 가지 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폰은 “엄마 괜찮아. 잘할게. 이 남자는 그렇지 않아. 느낌이 좋아.”라고 말하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진짜 그때는 대단했어. 인연은 있는지. 드라마야 드라마. 누가 내 얘기하면 안 믿어. 다 거짓말한대. 나도 나를 안 믿어.”

### 3) 한국 생활의 시작

1997년 소폰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에 오게 된다.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와 여비를 모두 총무가 부담해 주었다. 고향에서 방콕으로 건너와 생활하면서 모아 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소폰은 여권 한 장만 가지고 한국에 왔다.

남편의 나이도, 남편 가족에 대해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만 보고 무조건 한국행을 선택한 소폰을 남편의 가족들은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처음 남편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소폰의 손을 꼭 잡아 주며 “어서 와.”라고 말해 주었다. 알고 보니 자신과 남편의 나이가 12살 차이가 났는데, 38살의 노총각 아들이 예쁘고 어린 신붓감을 데리고 온 것에 시댁 가족들은 만족감을 느낀 것이다. 또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과거 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태국 여성인 “긴 검정색 머리와 까만 피부”가 아닌 하얀 얼굴과 한국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한 소폰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비자가 만료되는 3개월간 소폰은 남편의 집에서 머물렀다. 태국에서의 연애기간에 남편은 소폰의 손만 잡았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소폰과 남편의 잠자리를 권했다. 이 시기 소폰은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3개월 후 소폰은 태국으로 돌아갔고 남편이 비행기표와 모든 준비를 해 주었다. 태국에서 2주 동안 머물며 결혼 준비를 하였는데, 그동안 남편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했다. 당시에는 전화비가 비싸 돈이 많이 나왔다.

태국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의 가족들이 신랑에게 일정 수준의 지참금을 받는다. 결혼 준비도 모두 남자가 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결혼 준비도 신랑과 신부가 반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

고, 형편이 되지 않은 소폰은 남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국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드리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자비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 주기로 결정하였고, 결혼식을 하는 데 모두 600만 원이 들었다. 소폰은 결혼식을 올려 준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임신과 함께 시작한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다. 임신 8개월 때까지 계속 입덧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지금은 한국 음식을 모두 잘 먹지만 처음에는 음식이 달라 무척 힘들었다. 외롭고 힘들어서 태국 방향을 보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왜 왔나. 왜 왔어. 뭐 하나. 어떡할까.” 그렇게 자신에게 물으며 견뎠다. 게다가 한국 날씨가 이렇게 추운지도 몰랐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추웠다.

#### 4) 새로운 가족

남편의 가족은 3대가 모여 살고 있었다. 시할머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과 소폰,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이제 4대가 되었다. 1988년에 군포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시택은 시아버지가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대학교 교수 사택이 매물로 나와 시아버지가 구입하여 가꾼 집은 150평이 넘었다. 정년퇴직한 이후 시아버지는 마당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 오이와 태국 야채도 키우고 강아지도 기른다. 소폰은 그 집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도움을 주는 센터나 기관이 전무했던 1997년 당시 소폰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새로운 가족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시어머니가 소폰의 선생님이었다. 시아버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였고 영어를 조금 하셔서 시아버지와 남편과는 영어로 대화를 하였으나 시어머니와는 한국말로 대화를 했다. 시어머니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 소폰은 열심히 배웠다. 시어머니가 알려 주면 따로 적어 두고 외우곤 했다. 요리도 열심히 배웠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아버지가 수시로 손님을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는 따로 요리를 배워 요리를 아주 잘했다. 지금 소폰은 못 하는 한국 요리가 없다며 모든 한국 요리를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93세에 돌아가신 시할머니와 결혼 후 5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소폰은 한국의 존대문화와 어른들을 모시는 태도도 습득했다.



어른들이 다 오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는 게 처음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다. “아, 문화가 이렇구나. 천천히 공부랑 똑같아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소폰은 시할머니와의 생활이 참 좋았다고 회상했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폰이 시할머니의 병수발을 들었는데, 이때의 모습이 소폰의 가족 내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가족이 할머니를 돌보는 소폰의 모습에 놀랐고, 그 일로 시아버지는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이런 며느리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결혼 후 바로 낳은 첫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시대 식구 모두 무척 기뻐했다. 5년 후 둘째인 딸이 태어났다. 아이들 모두 한국 국적이고, 주변에서 모두 한국말만 사용하다 보니 태국말은 할 줄 모른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공부도 잘한다. 특히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딸은 공부는 오빠보다 잘하지 않지만 야무지고 언어감각이 있어 영어를 아주 잘하며 무용에도 재능이 있다. 애교도 많고 눈치도 빨라 시아버지와 남편이 “애 보통 아니다.”라고 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아들과 반장과 부회장을 하며 리더십 있는 둘째 아이에 대해 “다문화가정 애 아냐.”라는 말로 소폰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편견이 어떤 모습인지 표현했다. 또한 아들과 딸 모두 생김이 한국 사람과 같아 학교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고 했다. 소폰은 아이들에게 수시로 “엄마도 외국 사람이니까 더 잘해야 해. 너희들도 잘해야 해.”라고 말하곤 한다. 아들과 딸 모두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학교와 수원시에서 바른 생활상과 메달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한다. 선생님도 “어머니, 애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라고 말해 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 소폰은 아이들이 항상 바르고 예의 있게 행동하길 기대했다.

남편은 ○○건설에서 엔지니어 일을 하다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대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건설을 맡아서 지금은 주말부부다. 그러나 매일 아침 7시면 전화를 하고 주말에는 수원으로 올라온다. “너무 착한” 남편은 사업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서 걱정이지만 성실하다. 요즘에도 가끔 농담을 한다. “내가 태어

났을 때 당신은 6학년이다.” 나이 차가 많이 나고 문화가 다른 남편을 “잡아야 된다.” 고 했다. 크게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건 아니지만 “얘기해. 하지 마. 싫어. 조금만 싸워요.” 한국 남자는 강하지만 서로가 같이 이해하면 좋다. 소폰은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남편과 산책을 하거나 등산이나 낚시 가는 것을 즐긴다. 남편은 전화해서 “맛있는 거 없냐? 뭐 먹고 싶어?” “사 와.” 그러면 어려운 것이 아니면 꼭 사 오고, 소폰도 그렇게 한다.

### 5) 사회생활

13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했던 소폰은 2년 전부터 다문화 관련 NGO단체에서 다문화 강사와 언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둘째 아이가 1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 제안을 받았지만 아이가 어려 거절했다가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무용을 했던 경험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태국 문화를 이야기하는 다문화 강사를 어려움 없이 잘했다. 현재 태국어 배우는 학생이 한 명 있어 동영상으로 태국어도 가르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서는 태국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 등 태국 문화를 재현하는 역할도 한다.

소폰은 15년간의 한국 생활로 얻어진 경험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NGO에서 만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어려운 결혼생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걱정하며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고민하기도 했다. 특히 베트남 이주여성들은 너무 어린데 아이도 바로 낳아서 걱정이라고 했다. 또한 통역사로 일하면서 한국 가족과 태국 여성 간을 중재하기도 했다. 태국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3,000만 원을 태국 가족에게 주길 요구했는데 소폰은 통역을 하면서 여성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냐. 돈이 필요한 거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며 소통할 수 있게 하였고, 결국 금액 차이를 좁혀 결혼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많은 돈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도 했다.

「아이러브 아시아」와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모든 외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보여 주는 것을 기분 나빠 하기도 했는데, “우리도 잘살아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 무조건 가난한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주여성들 기분 나빠.”라며 자신의 경제적 환경을 더욱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그러한 이미지를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좋은 면 안 보여. 나쁜 면만 보이는 거야. 이런 거만 보잖아요. 외국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못사는 사람이구나. 우리 집은 아니거든. 동남아시아는 자기 집 있어요. 한국은 없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못살지만 우린 자기 집도 있고.”

#### 6) 주체적 문화 적응

전 국민의 90%가 불교를 믿는 태국 출신인 소폰은 한국에서도 절에 다닌다. 인터뷰를 진행했을 즈음이 초과일이 막 지난 시점이었는데, 초과일 전 주에 절에 다녀왔다며 자신이 다니는 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티베트 쪽 영향을 받은 태국 불교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불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나는 무조건 부처님 똑같애. 부처님 내 맘 알아. 똑같애. 어차피 한국 부처님이나 다 똑같애. 부처님 제 맘 아시죠?” 하며 한국 절에서 태국 방식의 절과 향 피우기를 한다. 한국에서는 향을 한 개만 피우지만, 태국에서 향을 한 개 피우는 건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는 세 개를 피운다. 세 개의 향을 피우는 소폰에게 한국에서는 한 개만 피운다고 한국 방식을 고집하길 요구하는 신도를 만났을 때도 소폰은 “태국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하나만 피워요. 우리는 세 개예요.” 하며 세 개의 향을 피웠다고 한다.

아이들이 반장을 하다 보니 자주 학교에 가고 학부모들도 만나게 되는데, 소폰은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었다. 아들이 키가 조금 작아 다른 학부모들이 성장판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하거나 주사를 맞히라고 했지만 “애 이빠도 작고 나도 작아. 이런 거 없다. 잘 먹어야 하는데 잘 안 먹어. 약이 문제 아냐. 뭐든 잘 먹어야 커.”라고 말했다며 자신이 조금 “고집”이 있다고 했다. 또한 딸아이가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원을 보냈는데, “내가 보기에 비싸고 넓은 학원에서는 애들이 공부 안 해.”라며 작은 동네 영어학원을 보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싫어하면 학원도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강요보다는 책임감을 강조하며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소폰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가 결혼 이주여성에게 기대하는 순종적인 며느리이자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의 전형을 재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가족의 도움이 다른 언어와 문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보여 주는 훌륭한

한 에이기도 하다. 소폰은 NGO단체에서 일하기 전 13년 동안은 오로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과 주변 이웃들로 이루어진 가족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였으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족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터뷰 내내 한국 내 태국 친구들보다는 가족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태국의 가족들과도 매일 전화를 하며 안부를 묻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결혼 후 태국을 딱 한 번 가 봤고 그때도 너무 더워 힘들었다며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소폰은 여성스러운 외모와 살가운 성격을 지녔지만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해 왔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또한 큰딸로서의 책임감과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와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어머니는 하나야.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아이에게는 “니 인생이야.”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람들 모두 똑같애. 부자인 사람도 행복한 건 아냐. 가난한 사람도 불행한 것만은 아냐.”라며 이주여성과 외국인들을 향한 편견에 대해 부드럽게 저항한다. 넓은 집과 화목한 가정, 예의바른 아이들을 통해 외국인들이 모두 가난하거나 가족 간에 불행한 것은 아니며,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롤 모델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 2. 산드라 이야기 \_ 난 꿈이 있어요

### 1) 인도네시아에서의 삶

인도네시아 자바섬 수라바야 보노로그시의 농촌에서 태어난 산드라는 올해 서른세 살로, 1남 1녀 중 장녀이다. 산드라의 외가는 무척 가난했는데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외할아버지는 수마트라 섬에 가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외할머니는 막내인 어머니를 포함해 4명의 자식들을 혼자 키웠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잘사는 집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살거나 아내의 친정 근처에 집을 만들어



살며, 여자들은 자기 집 근처를 떠나는 걸 싫어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친정 근처에서 살 수 없었고, 산드라 아버지와 결혼 후 시댁 가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집살이가 무척 심했다. 산드라의 이모들도 자신의 집을 떠나 모두 시집을 가야만 했다. 외할머니네보다는 사정이 좀 나았지만 산드라의 아버지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산드라의 증조부는 마을 이장으로 땅도 넓고 부자였다. 그러나 많은 땅과 소·물소도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다 없어졌고, 산드라의 아버지도 땅을 물려받긴 했으나 도박에 빠져서 산드라가 어렸을 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산드라는 다섯 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다. 그러나 일곱 살이 1학년인 초등학교에서 5살 아이는 받아 줄 수가 없었다. 산드라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친척 중에 선생님이 있어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1학년을 3년 동안 다녔다. 5시 반이면 해가 떠서 학교에는 7시에 갔고 10시 반이면 끝나 집에 돌아왔다. 그 후부터는 마을 친구들과 놀았다. 전통놀이와 숨바꼭질을 하고, 비가 올 때는 비 맞으며 놀았다. 그리고 모내기철에는 자기 집 모내기가 끝나면 남의 집에 가서 도와주는 일이 무척 행복했다. 또한 옥수수에서 옥수수알을 빼고 타마린 같은 열매들도 따서 모아지면 팔며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초등학교는 학비가 없었고, 1년에 3번 보는 시험 때만 돈을 냈다. 산드라는 초등학교 때 매번 1등을 했다. 학생들은 1학년 때는 많았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점점 줄어 6학년이 되면 20명도 남지 않았다. 산드라는 어릴 적부터 독립심과 승부욕이 강했다. 자신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고, 물건도 같이 쓰는 걸 싫어했다. 5살이 되자 따로 방을 만들어 달라고 부모님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공부를 잘한 산드라는 보노로그 시립중학교에 들어갔다. 중학교부터는 학비를 내야 하는데 시립이라 저렴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가지 말고 수라바야 시내나 자카르타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 산드라는 “안 돼. 나는 꼭 학교 가야 돼.”라고 하며, 일단 첫 번째 등록금만 달라고 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도 시립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보다는 등록금이 저렴했다. 중학교는 자전거로 30분이 걸렸는데, 고등학교는 1시간이

걸렸다. 5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면 더운 날씨에 힘이 들어 공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자취 비용은 한국 돈으로 한 달에 1,000원 정도 했다. 그때 당시 산드라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동네 친구와 함께 살아 방값과 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졸업을 하자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학교 근처 마을 이장이 집 청소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그 집에 살며 남은 2년을 보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수라바야 시내 혹은 자카르타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인력회사를 통해 해외 취업을 한다. 산드라와 친구들 모두 고향을 떠나 취업을 했고, 산드라도 해외에 취업을 하게 된다.

## 2) 해외 생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산드라는 1999년도에 싱가포르에 가서 가정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살의 산드라는 싱가포르 생활이 무척 힘들었다. 지금은 영어를 잘 쓰지만, 그때는 영어도 잘 몰랐고 날씨도 무척 더웠으며 문화도 완전 달라 적응이 힘들어 11개월밖에 있을 수 없었다.

11개월 후 인도네시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막막했다. 싱가포르에서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인력회사에서 떼어 가고 집에 보내면 남는 게 없었다. 집에 있으면 계속 돈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다른 곳에 가야 했고, 집에서는 무조건 결혼을 하라고 성화였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20살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아버지 나이가 60살이 다 되어 친구들은 다 손자가 있었다. 결국 인력회사를 통해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

대만에서는 돈을 조금 벌었다.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되었다. 인력 회사에도 떼어 주었지만, 그 돈으로 인도네시아 집을 대나무집에서 벽돌집으로 만들었다. 대만에서는 주중에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고, 주말에 사장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다.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도 가정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만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비행기표도 사야 하고 “내가 가 봤자 뭐 하나.” 싶어서 그



냥 기도만 하고 가지 않았다. 2년 후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는데, 집 짓고 오토바이 하나 사고 나니 남은 돈이 없었다.

대만에서 돌아왔을 때가 스물두 살이었다. 돌아오고 나니 또 어딜 가야 하나 막막해졌다. 결혼할까 생각도 많았는데, 결혼을 하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 대만에 있을 때 산드라보다 두 살이 많았던 남자 친척이 한국에 있었는데 돈을 굉장히 잘 벌었다. 그 친척이 산드라에게 한국에 오라고 했고 한국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친척에게는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 한국에 가려면 인도네시아 돈으로 3,000루피,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나 산드라는 인도네시아 돈 600루피 밖에 없었기 때문에 먼저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가 나오면 돈을 내야 했다. 한국 비자는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비자를 기다릴 동안 산드라의 엄마는 산드라의 돈 150루피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일하러 갔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 동생과 둘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하니 수입이 있어야 했다. “머리가 막 돌아가. 한국에 언제 가는지 모르고, 아무 비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팔콩을 사 와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놓은 후 튀겨서 마늘과 섞어 조금씩 포장해 마트에 내다 팔았다. 그렇게 과자를 팔아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중 6개월 만에 한국행 비자가 나왔다.

2003년 6월 중순 한국행 비자가 나왔을 때 산드라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나머지 돈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3일 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간절했다. 도와주기로 한 친척에게 연락을 했지만 지난달에 이미 모든 돈을 인도네시아 가족에게 보냈다고 했다. 결국 그 집에 가서 소 두 마리를 가져와 팔았다. 그리고 이모는 오토바이를, 친구 엄마는 목걸이를 팔아 도와주었다. 정말 창피했지만 너무 고맙다. 한국에서 미치도록 일을 하고 돈을 아껴 일 년 만에 모두 갚았고, 이자까지 보냈다.

어릴 적부터 독립적이고 승부욕이 강했던 산드라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대신 일을 하라는 제안에도 혼자 스스로 돈을 벌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친구들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음에도 결혼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집처럼 잘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첫째라 그래서 좀 도와주고 그런 거 있어.”

### 3) 한국 생활 그리고 남편과의 만남

화성시에 있는 공장에 처음 왔을 때 월급이 65만 원이었다. 친구들은 100만 원을 받는데 산드라의 회사는 잔업이 전혀 없어 추가로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계속 인력회사에 전화를 걸어 회사를 옮겨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월급 65만 원 중 10만 원은 연수생 적금을 내고 인력회사에 1만 2,500원을 낸 후,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돈을 모아 인도네시아에 보내야 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쓰고 3개월에 100만 원을 모아 인도네시아에 보냈고, 이렇게 일 년 만에 한국에 오면서 생긴 빚을 모두 갚은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10만 원 가지고,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못 할 거 같아요.”

12개월 동안 잔업이 전혀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잔업이 많아졌다. 그렇게 해서 12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 행복했다. 빚을 갚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땅도 사고 소도 몇 마리 샀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돈 빌려 달라는 친척이 있으면 빌려 주기도 하였다.

2006년이 되자 계약기간이 끝나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다. 그때는 계약을 연장할 수가 없었다.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졌다. 회사의 회장이 산드라를 무척 좋아했지만 계약 만료가 되어도 연장을 해 줄 수가 없었다. 회장은 산드라에게 “너 가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줄게. 여기 성실한 직원 있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 줄게.”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다.

이슬람교를 믿었던 산드라는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결혼 전에는 동거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싱가포르나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 연애를 했지만 당장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도 계속 연애를 했었는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경우 10대 1 정도로 남자가 많았기 때문에 산드라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돈도 벌지만 남자도 고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산드라는 지금의 남편에게 아무 관심도, 감정도 없었다. 그러나 막상 사장님이 남편과의 만남을 제안하자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산드라가 보기에 인도네시아 남자들은 비전이 없어 보였다. 한국에서는 매달 월급을 한 달에 150만 원씩 받는데, 이 돈은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두세 배 월급이다. 그러나 인도네



시아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다. 집 마련하고 차 한 대 있고 그럼 끝이다. 비전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 남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사장님이 알아서 다 해 주겠다고 하여 만나기 시작했다.

당시 남편은 서른세 살이었는데, 친구들이 모두 결혼을 하고 본인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남편은 성실하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충청도 시골에 아버지만 계셔서 혼자 살고 있었다. 매일 보다 보니 “뉘 괜찮아. 나쁘지 않다. 볼 만해.”라고 생각했고, 불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집에서 어머니가 선을 알아보고 결혼을 독촉하던 차였다.

2006년 7월에 출국해야 해서 2005년 11월부터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고, 다음해 2월에 결혼식장을 예약했으며 4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7월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결혼식을 한 후 서류를 정리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서의 결혼식에 비자가 나오지 않아 어머니와 동생은 올 수가 없었다. 남편 쪽은 아버님, 산드라 쪽은 회장님이 앉아 있었고 입장은 남편과 함께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결혼식을 했는데 한국에서 산드라의 지시로 청첩장과 데코레이션, 옷 등을 준비했다. 자카르타에 들러 비자 신청을 하고, 제일 빠른 기차를 열 시간 타서 산드라의 집에 도착하였다. 결혼식을 집에서 하는데다가 바로 다음날이 결혼식이라 집에 도착했을 때 산드라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후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 한국에서의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은 남편이 부담하고, 인도네시아에서의 결혼 경비는 산드라가 부담했다. 산드라는 남편에게 경제적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싫었다. “자존심” 때문이다. 지금도 자신이 필요한 돈은 스스로 벌어서 쓴다.

#### 4) 가족

어머니와 동생은 산드라가 보내 준 돈으로 닭 농장을 한다. 어릴 적부터 닭 농장이 꿈이었던 산드라에게 첫 번째 꿈이 실현된 것이다. 예전에는 2,000마리 정도 키웠는데, 지금은 900마리이다. 계란이 아침 10시쯤 나오는데 그걸 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고향에 처음으로 갔는데, 아침에 시끄러운 닭 소리

가 너무 좋았다. 오리도 100마리를 키워서 고기를 판다.

어머니는 두 번 한국에 왔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비자가 쉽게 나와 3개월 동안 와 있었고, 2010년에는 친정 가족 초청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동생과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집도 새로 짓고 땅도 사고 닭 농장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친정이 가난하여 할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시집을 왔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모셔 온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는 시댁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혼 후에는 명절 때만 돈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 사고를 쳤다. 아버지처럼 도박에 손을 댔는지 어머니와 산드라 몰래 빚을 많이 져서 닭과 오토바이를 팔아야 했다. 계란을 팔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해서 결국 산드라가 오토바이를 새로 마련해 주었다. 지금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을 갚아야 해서 한 달에 한국 돈 4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올해까지는 갚아야 할 것 같다. 인도네시아 공무원 월급을 매달 빚 갚는 데 쓰고 있어 너무나 속상하다. 그 소식을 듣고 억울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돈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 나는 여기 가정도 있고 애도 키우고. 엄마는 사실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냥 얘기해도 막 속이 터지는 거 같애. 왜 맨날. 그게 막 억울해.”

산드라의 남편은 경제적으로도 무척 꼼꼼하고 혼자 오래 살아서 살림도 잘 도와준다. 요리도 잘한다. 2남 1녀의 둘째로 6년 동안 동생을 돌보면서 같이 살았다. 결혼 후에도 1년 동안 아가씨와 함께 살았는데, 갈등이 많았다. “나 땀에 시집간 거 같애.”라고 산드라는 말했다. 처음에는 아가씨와 함께 사는 게 싫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 친구의 부인들과 공장 아줌마, 주변 사람들이 아가씨와 왜 함께 사냐고 나가라고 하라고 말했다. 결혼 전에는 한국에서 돈 벌고 돌아갈 테니까 한국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 보니까 아가씨는 산드라보다 세 살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산드라가 다 하는 게 너무 싫었다. “왜 부모님도 아닌데 우리 집에서 살아?” 직장을 다니면 월세를 얻든가 아니면 어쨌든 나가라고 말했다. 남편과도 많이 싸웠다. 1년 후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다.

남편의 형은 아버지와 충청도 시골에서 살고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산드



라는 형님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형님이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산드라가 못 하게 했다고 한다. “그 여자가 불쌍하잖아요.”

산드라는 결혼 1년 후 계획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지금은 5살이 되었다. 아들은 말을 아주 잘하고 장난꾸러기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닌다. 산드라는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적으로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싶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이중국적인 아들이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인도네시아 말은 조금씩 가르치는데 잘 하지는 못한다. 산드라는 아들이 한국 사람이자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된다면 중국이나 호주에서 살면서 아들의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둘째도 낳고 싶지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낳을 예정이다. 하지만 아들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뒤에 두지 않는다. 남편에게도 “아이한테 투자하면 20년 후에 결과를 알지만 나한테 투자해, 5년이면 돼.”라고 말한다.

### 5) 꿈꾸는 삶

산드라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그러나 결혼 전에는 어차피 돌아갈 텐데 한국말은 왜 배우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이 낳기 전까지 한국말을 지금처럼 하지 못했다. 결혼 후 임신 8개월이 될 때까지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 다닐 수도 없었고, 공장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다.

임신하고 나서 보건소에서 한국인 엄마 두 명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아이를 낳고 6개월간 자주 만났다. 매일 돌아가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때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 아쉬운 점은 외국 사람의 경우 한국 친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90프로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사해야 해요. 안 끼워 줘요.”라고 말했다.

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한국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세 번 한국어 교육이 있는 센터에 가고, 일요일은 다른 한국어교실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방문선생님의 교육도 받았다.

아이가 24개월이 되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인도네

시아 통역사로 일했고, 그 후 2년 동안 다문화 관련 NGO단체에서 다문화 강사와 언어 강사로 일하였다. 그리고 1년 전부터는 압○○ 사업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올해로 한국 생활 9년째인 산드라는 결혼 전 3년 동안은 인도네시아 노동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들과의 만남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결혼 후 본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해지면서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혼자 생각할 수 있고 여러 사람 만나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결혼 초기에는 만나는 사람이 많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함께 모여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고민이 있을 때는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이주민 관련 센터와 연구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수님께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산드라는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했다.

산드라는 항상 꿈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왔을 때 인도네시아에 닭 농장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자신의 차로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놀러가는 게 두 번째 꿈이었는데 그 꿈도 이루었다. 항상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제 나이에 주변 인도네시아 친구들 보면 거의 완전 인생이 거기까지 멈추는 거 같고, 애기 키우면서 집에서 농사하면서 구멍가게 하면서 사는 거고 자기 계발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고.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한국 사람 젊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나 산드라가 언제나 이렇게 당당하고 도전적으로 살지만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독립적이고 자신 위에 누군가 위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강한 성격이었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모자란 것이 너무 많고 아무것도 못 하고 안 해 봤다고 생각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서 피부 하얀 사람들도 많은데, 누가 봐도 외국 사람임을 감출 수 없는 외모가 너무 싫었다. 하얀 피부가 너무 부럽고, “나도 조금만 더 하얀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감정은 자신을 꾸미지도 않게 했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외모가 누가 봐도 외국인인데 한국인이라고 증명해 주는 게 좋지 한 장뿐인데 무슨 소용이냐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암○○ 사업을 하게 되면서 다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기업이자 인간관계망 중심의 특성 때문에 스폰서와 멘토 관계가 활발했고, 학습과 세미나·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피부색과 외국인이라는 위치로 차별받았던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고 부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연구자는 산드라를 따라 소모임에 참석해 보았는데, 모임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확신과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알려 주었다. 그 모임을 가지면서 산드라는 자기계발과 교육을 많이 받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므로 눈을 맞추고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까만 피부를 보여 주기 싫어 치마를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보일까.” 고민하고 있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남편의 새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뭐라 그럴까 자신감도 생기고 …… 있잖아요. 화장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른 거.”

산드라의 집 한 쪽 벽에는 비싼 자동차, 넓은 아파트, 시계, 보석, 화장품 등 화려한 자본주의 상징들이 잔뜩 붙어 있다. 그것이 산드라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며,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었다.

### 3. 라이훈 이야기 \_ 이제 아이들을 위해 살아요

#### 1)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의 생활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3km 정도 떨어진 도이치파이 출신인 라이훈은 울

해 서른여덟 살이며 고려인이다. 2녀 중 막내로 언니는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으며 백화점에서 옷을 팔고 있다. 부모님은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는데 두 분 다 전문직 기술자였다. 아버지는 비행기 관제사무소에서 날씨와 비행기의 비행 상황을 체크하는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전화 연결이 잘되지 않을 경우 연결 상황을 점검하고 연결해 주는 기술자였다. 전문직 종사자인 부모님 덕분에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다.

타슈켄트에는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라이혼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타슈켄트에서도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라이혼의 사촌들 모두 근처에 모여 살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면 친척들은 서로서로 도왔다.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북 사투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라이혼은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한국말로 “밥은 먹었니?” “학교는 갔다 왔어?”라고 라이혼에게 말을 건넸지만, 라이혼은 언제나 “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어와 문화를 알려 주는 고려인센터에 잠깐 다녔다. 그곳에서 짧은 한국어를 배워 사촌들에게 알려 주기도 했다. 이때 어렵듯이 한국에 가서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라이혼은 어릴 적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쪽 반장을 했다. 언제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자랐다. 공부도 아주 잘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 금메달을 주는데, 라이혼은 이 금메달도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라이혼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로 갔다. 1996년 당시 소련에서 독립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분리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학제가 15년인 우즈베키스탄 의대보다 카자흐스탄 의대가 6년으로 더 짧고 우즈베키스탄 의대보다 입학이 쉬워 카자흐스탄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카자흐스탄 사람이 아니라 입학시험에서 불리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으나 시험에서 1급을 받아 합격했다. 당시 카자흐스탄 의대는 장학금이 있어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라이혼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내과, 치과와 함께 산부인과가 인기가 많았다. 남자들은 외과를 많이 갔다. 의학 공부는 무척 힘들었다. 어느 순간은 너무 힘들어서 다 버리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한 라이혼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 계속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살게 되었고, 카자흐스탄 국적을 갖게 되었다.

## 2)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생활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자들은 보통 스물세 살이면 결혼을 했다. 그런데 라이혼은 열심히 공부하느라 어느덧 스물여덟 살이 되었다. 스물여덟 살이 되면 결혼이 너무 늦고 좋은 남자를 만나기 힘들다.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눈도 높았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아스타나에서 타슈켄트로 왔을 때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외숙모의 소개로 타슈켄트에 놀러 온 남편과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119구급대 일을 하고 있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무척 똑똑하고 보진 쪽 전공을 해서 대화도 잘 통했으며 교회도 다니고 있었다. 결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 남편과는 라이혼이 문화원에서 배운 짧은 한국어와 남편이 배운 러시아어로 대화를 했고, 5개월간 연애를 했다. 남편은 “한국에 가자.”고 하며 한국에서도 의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카자흐스탄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잘살고 있으니 한국에 가지 말라고 했다. 결혼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았다.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라이혼은 고려인센터에서의 경험으로 한국에서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한국에 가서도 의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결혼을 결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을 취득했던 라이혼은 아스타나에서 여러 가지 서류 준비를 한 후 한국으로 왔고,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참석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살고 있다. 예전에는 인삼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짓지 않는다. 남편은 2남 2녀 중 장남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 분으로, 지금은 친딸처럼 생각해 준다. 결혼 초에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누나들이나 남편, 어머니가 일을 해서 시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었다. 라이혼이 시아버지 간병을 다 했고, 그때 가족들 모두 라이혼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002년에 결혼 후 한국에서 처음 정착한 곳은 대전이었다. 말도 잘 못하고 문화적

으로도 힘들었다. 매일 집에만 있고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 하는 라이혼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한국어교실을 알아봐 주었다. 처음 왔을 때 남편이 아주 많이 도와주었고 YMCA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다른 무엇보다 말을 못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의대를 나와 산부인과 의사까지 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이 취급을 받았다. 한국말만 잘하면 하고 싶은 것 다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YMCA 한국어교실을 다니다가 한 학기에 200만 원 하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한국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5급으로 바로 들어갔다. 말은 잘 못하지만 쓰기는 잘 했다. 6급이 될 때까지 일 년이 걸렸다.

대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10명이 친하게 지냈고,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지금은 모이면 20명이 넘는다. 함께 러시아 음식도 해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너무 좋다.

대전에서 2년을 살고 남편이 일하는 곳이 달라져 용인으로 이사를 왔다. 용인에서 2년을 살고 다시 수원으로 왔고, 수원에서 6년째 살고 있다.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센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대전이나 용인보다 수원이 훨씬 좋다. 아주 편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많이 도와준다.

### 3) 꿈의 좌절

“제가 욕심, 고집이 있었어요.” 목표했던 것은 모두 이루고 자기주장을 마음껏 펼치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꼭 해서 잡고야 마는 성격이었던 라이혼은 한국에서도 의사 면허증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결혼 후 한 달 만에 생긴 큰아들을 낳자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고 한국어 공부를 하며 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용인으로 이사 온 후 교회에서 만난 분의 소개로 병원 응급실에서 3개월간 실습을 했는데, 그때 살이 10kg이 빠졌다. 라이혼이 한국말을 잘 못 하니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왜 이걸 하나며 이것저것 물어봤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간호사들도 불편해 했다.



“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러냐고.” 사람들과 간호사들의 무시에도 라이혼은 3개월 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급실에 가서 지켜보며 이것저것 배웠다. 나중에는 수액까지 놓을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된다.

한국어 공부와 응급실 실습을 하며 라이혼은 한국에 있는 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한다. “의대 가서 제가 입학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4학년부터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다. 한 학기에 700만 원 하는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며 준비를 했다. “정신 나가서 열심히 생각했어요.” 한국어 6급을 따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도 만들었다. 러시아 말을 모두 영어로 번역하였다. 모두 300만 원이 들었다.

라이혼은 “그때 아이 아빠가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계속 둘째를 낳자고 했고, 교회에서 만난 전도사도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다. “지금 공부해도 안 돼. 한국에서 언어 잘 못하니까 안 돼. 여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야 해. 아니면 졸업해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혼은 포기하지 않았고 의학대학원에 합격을 했다. 그런데 의학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했고 시험은 일 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즈음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파 포기하라고. 안 된다고. 너 혼자 아니고 아이도 힘들었고 아빠도 힘들었고. 가족 아니면 공부 선택해야 돼요. 그 느낌이 들었어요.”

119구급대 일을 하던 남편은 오래 기다렸던 승진이 잘 되지 않아 사표를 낸 후 건강이 나빠져 쓰러지게 된 것이다. 남편의 실직과 갑작스러운 병으로 집안 경제가 어려워졌고 라이혼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 그때 공장에서 두 달 동안 일을 해 보았는데, 라이혼은 손을 쓰는 일이 아닌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내가 왜 공부했는데. 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돼.” 라이혼은 의사를 향한 꿈을 포기하고 우울증이 생겼다. 계속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니 둘째를 갖기로 결정했고, 6개월 후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했을 때부터 어떤 학생이 부탁해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를 낳자 마음이 많이 괜찮아졌다. “안 된다면 어

쩔 수 없지. 제가 제일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라이혼에게 일이 찾아왔다. 러시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친구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를 고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했던 경험과 3개월간 응급실에서 한국 병원을 경험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2년 전 아무것도 없이 밑에서부터 시작했다. 환자는 한 명도 없었고, 사무실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 왔고 지금은 한 달에 20건 정도 일을 한다.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많이 온다. 의사 경험 때문에 환자들이 믿고 와 준다. 아직까지 한국 의사들이 답답해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일을 하고 있다. 라이혼은 서너 명의 통역사를 고용하여 일을 하고 있다. 의료관광 일은 주로 불임이나 부인과 질환을 담당한다. 얼마 전에도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사진을 보내 주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일 아주 좋아요. 내가 맘에 들어요. 다른 일 맘에 안 들어요. 싫어요.”

#### 4) 가족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족들끼리 서로 돕는다. 한 사람이 아프면 사촌들이 모두 돕는다. 라이혼은 한국에 오면서 자신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사촌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만 돈을 보낸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친척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놀러 가거나 서로 돕고 있다.

라이혼의 큰아들은 올해 10살이 되었고, 둘째 딸은 5살이 되었다. 큰아들은 학교에 갔다 학원에 가고, 둘째 딸은 밤 9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있다. 서울의 직장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 밤 9시가 넘는다.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는 둘째 딸에게 무척 미안하다. 집에 오면 밥 챙겨 주고 조금 놀아 주다가 12시쯤 잠이 든다. 결혼 처음에는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119구급대 일을 그만둔 남편은 현재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다.



큰아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몰라 동네 놀이터에 나가 한국 엄마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한국 엄마들은 아이에게 시키는 것이 너무 많다. 학습지도 시키고 바둑에 영어에 너무 많다. 이걸 다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센터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본다. 요즘에는 책을 많이 사 주고 싶은데 무슨 책을 사 줘야 할지 모르겠다. 센터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 줬으면 좋겠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라이혼은 깜짝 놀랐다. 선생님은 라이혼이 친엄마가 아닌 줄 알았다고 했다. 선생님은 “친엄마도 아닌데 엄마라고 잘하네.”라고 말했다.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아이의 정서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해 주고 표현을 많이 해 주라고 했다. 라이혼은 깜짝 놀라 그때부터 아이를 더 많이 안아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바빠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도 60%밖에 알아듣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못 알아들어서 남편에게 도와 달라고도 한다. 지난번에는 딸 유치원에서 보낸 것을 못 알아듣고 안 했는데, 선생님이 “왜 아이를 프로그램에 보내지 않느냐.”고 연락이 왔다. 라이혼은 큰애와 둘째 아이 선생님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부탁했다. “내가 못 알아들으면 직접 연락해 주세요.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요. 다 알아듣기 힘들어서. 100프로 알아듣기 힘들어서. 이해해 주세요.”

라이혼은 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위해서” 살기로 한다. 대화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아이를 위해 살아요.”라는 말을 자주 했다. 카자흐스탄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카자흐스탄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을 가는 데 편하기 때문이었다. 두 아이는 모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아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아이에게 러시아 말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은 건 후회하고 있다. 어차피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집에서 러시아 말을 가르쳐 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미술에 재능이 있는 큰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가 최근의 고민이었다. 남편은 그림을 그리

면 가난해진다고 말렸지만 라이혼은 아이의 공부를 함께해 주지 못하는 대신 재능이 있는 것을 살려 주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무척 궁금해 했다.

### 5) 극복과 적응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말보다 러시아말을 많이 하게 되어 한국말 실력이 많이 줄고 있다고 했다. 라이혼은 고려인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한국 사람과 똑같다. 그러나 약간은 어눌한 한국말 때문에 말을 하면 언제나 “어디에서 왔어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라이온은 그것이 너무나 싫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말을 완벽하게 할 수 없음을 좌절하기도 했다.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완벽하지 못한 한국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스럽다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일을 하는 지금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인다.

라이혼이 한국에서 적응이 어려웠을 때, 꿈이 좌절되었을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신앙이었다.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결혼 후 남편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러시아 예배가 있는 교회를 다니며 러시아 친구들도 만나 러시아 말로 이야기를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다. 삶의 태도에도 종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편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자신의 실패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이 가족을 위해 공부를 포기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회공동체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도 라이혼이 자신의 꿈을 위해 아이와 남편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처럼 신앙은 그토록 이루고자 한 꿈의 좌절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동시에 꿈과 현실의 타협점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일을 충실히 하면서 아이들로 향한 희망을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라이혼의 꿈은 아이들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원을 다녀도 오르지 않은 성적에 조바심이 나서, 왜 매일 다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 학원에 물어보기도 하고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고 있다. 바빠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최근 본 시험에서 성적이 많이 올



라 기뻐다. 올해 처음으로 교회의 여름 캠프에 혼자 보냈는데 아이가 노느라 계속 통화가 되지 않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큰아들이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상담 내용과 지금의 변화는 라이혼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 4. 지현 이야기 \_ 나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 1) 베트남에서의 삶

올해 서른아홉 살인 지현은 베트남 하노이 출신으로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제일 큰언니와 나이 차이가 20살이 난다. 아버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소련에 6년간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였다. 아버지는 학생 시절 어머니와 결혼을 하여 하노이 외곽 농촌에서 살았으며, 1975년에 하노이 중심가로 이사를 왔다. 아버지가 소련을 다녀올 때까지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해서 가난했으나, 아버지가 소련에서 돌아와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 살림은 넉넉해져 지현의 집에는 경비도 있었다. 아버지는 호치민의 묘를 건설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그 밖에 국가 기간 산업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일을 하여 정부는 자동차도 지원해 주었다. 아버지는 62세에 정년퇴직을 한 후 집에 계셨다.

6남매 중 막내딸인 지현은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딸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해 주었다. “베트남에 알죠? 막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 아빠 잘해 주잖아. 힘든 거 안 시키고 그렇게 자랐어요.”

지현은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다. 또한 요리와 빨래, 살림을 좋아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장을 봐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 주었고, 이미 아가씨와 청년이 된 언니와 오빠의 빨래들을 모아서 하곤 했다. “엄마랑 언니, 오빠는 편했어요. 편해. 나 있으면 편해.”

지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을 나오면 미술선생님을 할 수 있었다. 지현이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사랑에 빠졌고 그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큰 상처를 받아 베트남을 떠나고 싶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베트남은 자유롭게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었는데, 1992년에 제재가 풀렸다. 미국과 수교를 맺고 한국과도 수교를 맺게 된 것이다. 베트남과 수교 후 한국은 베트남 연수생을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지현은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가는 첫 번째 연수생이 되고자 했다. 정부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현은 아버지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가지 못하게 했다. 지현은 아버지의 부하 직원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 주에 아버지는 지현이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지현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몹시 속상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한국행을 반대했지만 지현은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다.

## 2) 연수생으로서 한국에서의 삶

베트남에서 ‘아빠의 귀여운 막내딸’ 로만 자랐던 지현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겨울날씨에 놀랐다. 더운 날씨인 베트남에서는 따로 크림 같은 걸 바를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김포공항에 처음 도착해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난생 처음 맞은 찬바람에 얼굴이 당기고 아파 왔다.

공항에서 차로 갈아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섯 시간을 가서 도착한 곳은 부산이었다. 김해에 있는 원단회사가 앞으로 지현이 일할 곳이었다. 지현은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첫 번째 연수생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하는 고용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말 한 마디도 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줄 생각도, 음식이나 생활을 배려해 주지도 않았다.

김해 시내에서도 3km 이상 산속으로 들어가야 있는 공장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로지 지현이 일하게 된 공장만 있었다. 지현을 포함한 9명의 베트남 연수생들이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다. 모두 300명이 일하는 공장인데, 쉬는 날에는 밥도 주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쉬는 날이면 기숙사를 나가 가족과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9명의 연수생들은 공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쉬는 날에는 심심해서 공장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경비아저씨가 내보내 주지 않았다. 몽둥이처럼 생긴 것을 들고 “나가면 안 돼.”라고 말했다. 공장 벽 너머 고속도로와 자동차가



아주 작게 보였다.

연수생 생활은 무척 힘들었다.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몰라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실수를 많이 했다. “이거 가져와라. 이러면 딴 거 가져오고, 그럼 야단 맞고.”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외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들어가기 전에 배운 한 마디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였다. 지현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웃었다. 왜 웃는지조차 몰랐지만 열심히 물어봤다.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손과 자기가 맡은 기계에 다 적으면서 그렇게 배웠다.

다니는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는 한 삼 년 동안은 그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월급은 230달러였는데, 사장님은 딱 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베트남에 돌아가면 주겠다고 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도망가지 않아야 그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 전화만 하면 너무 울어서 집에 전화도 잘 못했다. “사장님, 저 부모님 전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실 들어가 가지고 십 분만 써. 더 이상 안 돼. 십 분만 통화해. 그랬어.”

그런데 칠 개월 만에 회사가 파산을 해서 지현은 또 다섯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도착한 곳은 용인이었는데, 그곳에 왔을 때 “살았다.”는 기분이었다. 주변에는 김해와 달리 여러 공장들이 있었고, 도착한 공장에 이미 세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알려 주니 훨씬 편하고 좋았다. 쉬는 날이 되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밖에 나갔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장 같은 것이 보이면 내려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

용인에 있는 이 공장에서 2년 3개월을 지냈다. 스물한 살 때 한국에 온 지현은 이제 스물네 살이 되었다. 무조건 “빨리 해, 빨리.”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씻고, 특히 생리가 있을 때는 더 많이 고생했다. 섬유회사였기 때문에 먼지도 정말 많았다.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눈만 보였다. 음식도 김치밖에 없었다. 쉬는 날엔 밥을 주지 않았고 회사 식당 문도 잠가 버렸다. 쉬는 날 한국 사람들은 모두 집에 가고 남아 있는 아홉 명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식당 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 물을 끓이다가 아줌마에

게 들키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아홉 명 중 세 명만 남고 여섯 명은 도망갔다. 회사를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섯 명은 불법노동자가 되었다. 지현은 도망갈 수도,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 직원에게 말해서 오게 된 한국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너무 창피할 거라고 생각해서 참았다.

지현을 포함해 남아 있는 세 명 중 두 명도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어 쉬는 날에는 애인 집에 갔다. 공장 기숙사에는 지현만 남아 있었다. 지현은 남자친구를 사귄 생각이 없었다. 그것도 부모님 때문이었다. 지현은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곤란해지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 3) 첫 번째 남편과의 만남

지현과 두 명의 친구들은 공장일로 바빠 그녀들의 남자친구가 지현의 공장으로 놀러 왔다. 그때마다 남자친구들이 일하는 공장 사장이 그들을 데리고 왔다. 지현의 친구들은 지현에게 그 사장을 소개해 주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다. 지현이 보기엔 그 사장은 무식한 사람 같았다. 자기가 총각이라면서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지현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첫사랑과의 헤어짐에서 생긴 충격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친구가 소개시켜 줘. 같이 가. 같이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 주고, 근데 저 안 갔어요. 저 그런 거 원래 싫어하거든요. 이유 없이 되게 싫어요. 저 그래요. 까다로워요. 그리고 저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냥 와서 만날려고, 안 만났어요. 생각 없다고, 왜냐하면 저 한 번…… 지금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남자 자체 싫다고 하는 거야. 첫사랑이었어요.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삼년 동안 한 명도 사귀지 못했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 사장은 지현을 좋아해서 자꾸 만나려고 했지만 지현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지현이 베트남에 돌아가야 하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에 혼자 공장 기숙사에 있었다. 눈이 엄청 많이 왔었다. 친구들도 애인을 만나러 공장 밖에 나갔고, 식당 밥도 없어 지현은 자다가 배가 고파 눈을 떴다. 슈퍼를 가려고 공장 밖에 나왔는데, 주변은 모두 눈이었고 1km를 걸어가야 했다. 슈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따라왔다. 그 사장이었다. 지현에게 차를 태워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차는 슈퍼까지 따라왔다. 슈퍼에 도착했지만 슈퍼 문은 닫혀 있었다. 그래서 사장은 지현에게 다른 마트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지현은 할 수 없이 차에 탔다. 어두운 시골길을 달렸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슈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 사장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 배고프지? 내가 밥 사 줄게.”라고 말했고 지현은 “아니에요. 저 빨리 사고 기숙사 가야 돼요.”라고 했다. 사장님은 지현을 내려주지 않았고, 어떤 곳에 도착해서 슈퍼라며 지현을 내리게 했다. 호텔이었다. 지현은 지금까지 호텔을 가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곳이 호텔인지도 몰랐다. 카운터에서 말을 하고 지현을 방으로 데리고 갔다. 느낌이 이상해서 들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 사장은 지현에게 목쓸 짓을 했다.

지현은 너무나 무서워서 울었다. 나쁜 사람이라 욕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 그러나 호텔에서는 아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사장은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지현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하며 베트남에 가서 결혼하자고 했다.

지현은 정말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크리스마스 밤 열한 시가 되어 돌아온 친구들은 지현이 기숙사에 없어 깜짝 놀랐다.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없으니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 모두 밖에 나와 지현을 기다렸다. 회사 앞에 내리자마자 지현은 울었다. 속상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사장은 매일 과일을 사서 친구들에게 주고 기다렸다. 하지만 지현은 그 사람을 만나 주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들은 “너 결혼해. 이 사람이 너 좋아. 가지 마.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 니가 결혼하면 우리 셋이 재미있잖아.”라고 말했다. 지현은 싫다고 했다.

지현의 베트남 출국을 앞두고 공장식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그때는 외부 사람들도 공장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사장도 식당에 찾아왔다. 사장은 지현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자신도 베트남에 가겠다고 했다. 지현이 베트남에 간 후 일주일 만에 정말 사장은 베트남에 왔다. 서류와 초청장을 만들어 왔는데, 지현은 갈등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했다. 자신은 지금 돈이 많고 총각이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지현이 결혼을 승낙하지 않자 사장은

한 달 동안 베트남에 있었다. 그 모습에 부모님은 지현에게 그냥 함께 가라고 말했다. 지현은 그때 만약 첫사랑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사장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현의 집 근처에 살았던 첫사랑은 지현이 베트남에 돌아왔을 때 이미 결혼을 한 후였다. 그래서 그냥 그 사장을 따라 한국에 와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 4) 첫 번째 결혼생활과 이혼

한국에 돌아와 남편의 집에 갔을 때 남편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달랐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서 남편은 살고 있었고, 사장도 아니었다. 차를 임대해 그 회사의 진짜 사장의 운전을 해 줬던 것이었고, 한 달 동안 베트남에 들어가 있던 사이 그 차도 없어졌다. 방은 기름보일러였는데, 추운 겨울에 돈이 없어 보일러를 틀 수 없었다. 밥도 없어서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해 주다가 성질을 내기 시작했다. 지현 생각에는 자기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미안해서 성질을 내는 것 같았다. 지현은 하루 종일 울었다. 지현이 울면 남편은 살림을 때려 부쳤다. 그럼 더 많이 울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달랠 수가 없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아버지 때문이었다. “딸내미 결혼 소문냈는데 내가 도망가면 나중에 부모님 저 책 피하잖아요. 그래서 참아 주고 그냥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럴 돈 없으니까 우리 일해야 해. 돈 없잖아요.”

원래 미싱사였던 남편에게 지현은 미싱 일을 알려 달라고 했다. “어차피 왔으니까 잘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노력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했다. 지현은 한 달 동안 물건 잡고 일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돈 빌려서 살았다. 그래도 지현은 일하는 걸 좋아했다. 한 달 동안 미싱을 배워서 그다음부터는 미싱을 아주 잘했다. 물건을 더 잡아 와 미싱을 두 대 사고 다섯 대로 늘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줬다. “진짜 사장님 됐어요.”

어릴 적부터 요리하고 빨래하기를 좋아했던 지현은 많은 거짓말을 한 남편이 실망스러웠지만 한국 음식을 배워서 밥을 해 주며 노력했다. 남편은 물건을 잡으러 열심히 나갔다. 그렇게 지냈는데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총각이란 것도 거짓말이었다. 이미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부인이 도망을 가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이가 넷이나 있었다. 남편은 형이 일찍 죽어 형수가 아이 넷을 키



울 수 없어 자신의 호적에 올린 것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모두 고아원에 보냈는데 가끔 집에 왔다. 지현은 정말 조카인 줄만 알았다. 7개월 후 남편은 전 부인을 찾아 이혼을 했고, 그 후 혼인신고를 했다. 고아원에서 지내던 아이들도 집에 가끔 왔는데 남편은 아이들이 불쌍하니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 그래서 지현은 애들이 불쌍해 다 오라고 했다. 큰아이만 서울에 있어서 세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살던 큰아이가 와서 지현에게 “우리 아빠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라고 말했다. 지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때가 같이 살기 일 년째, 이미 혼인신고도 마쳤고, 지현이 임신 6개월에 들어섰을 때였다.

처음에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다. 남편은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던 지현의 사촌 언니에게도 찾아가 지현을 달래 주기를 부탁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현에게 무척 잘해 주었다. 사촌 언니도 지현에게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아니야. 시간 줘라.” 라고 말했다. 지현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어디로 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의 네 아이와 함께 살았고, 몇 년 동안 지현이 그 아이들을 돌봤다.

지현은 임신 8~9개월 때도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하지만 남편은 지현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친구들 앞에서는 “사고 싶은 거 다 사.” 하며 돈을 주고는 친구들이 가면 “다시 돈 내놔.” 하며 가져가 버렸다. 친구들은 지현에게 “남편이 잘해 주지?” 라고 말했다. 아무도 지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출산이 다가오는데도 남편은 지현에게 한 달에 5만 원만 주었다. 곧 아이를 낳아야 해서 준비할 것이 많았다. 그때 베트남에서 오빠가 왔다. 오빠가 있어서 남편은 병원 가기 전에 40만 원을 썼다. “병원에 가서 당신 먹고 싶은 거 사.” 그렇게 말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지현이 배가 아프다고 말해도 남편은 그냥 지현을 병원에 두고 가 버렸다. 병원 옆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밤에 홀로 딸을 낳았다. 다음 날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 고생했어. 아파? 괜찮아? 그렇게 하잖아요. 문 탁 열어. 돈 내놔. 40만 원, 돈 내놔.” 지현은 남은 돈을 남편의 얼굴에 던졌다. 가져가라고 소리 질렀다. 지현은 출산 후 2주 동안 하혈을 했다. 그 사람 때문에.

“저 이 사람 잊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 분유도, 기저귀도 사야 했는데 남

편은 여전히 돈을 주지 않았다. 애기가 너무 말랐다. 남편은 아이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갓난아기가 우는데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다. 애기가 유모차에 있었는데, 그 유모차를 들고 던졌다. 그곳이 침대가 아니라면 애기는 죽었을 것이다. 지현은 아이에게 그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짐을 싸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 갔는데 남편이 찾아와 친구에게 행패를 부렸다.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혼해 줘.” 이혼하자고 말을 하자 남편은 지현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도와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다. 지금은 센터 같은 데가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는 사람에게 가면 남편이 행패를 부리니 친구들에게 갈 수도, 친구들이 도와줄 수도 없었다. 애기가 많이 울었다. 아빠를 보면 무서워서 울면서 도망갔다. 친절에도 한 번도 못 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지현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였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해서 변호사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소송 접수만 해 줬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때려서 병원에 갔는데 2주일 정도 있어야 했는데도 금방 나와야 했다. 그때는 진단서를 떼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도 다시 때리니 정말 살 수가 없었다. 지현은 아무도 몰래 보따리를 싸 가지고 수원에 왔다. “우리 딸내미 불쌍했어.”

##### 5) 새로운 시작

그때가 2001년이였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수원에 도착해 수원역 앞에 아기를 안고 그냥 서 있었다. 돈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지현에게 어떤 아저씨가 말을 건넸다. 어디 가냐고. 지현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자신의 집에 월세집이 하나 있다며 “우리 집에 와.”라고 말했다. 그 아저씨의 차를 타고 탑동에 갔다. 반 지하에 방 두 개인 월세방이었다. 지현은 그 아저씨에게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 일을 알아보고 다음에 월세를 주면 안 되냐고 말했다. 그 아저씨는 지현에게 “그냥 살아.”라고 말했다.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

그 아저씨가 지현을 많이 도와주었다. 일을 하려면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묻고는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 외국 사람이 아기 혼자 키운다며 월비는 다음 달에 내고 먼



저 받아 달라고 부탁도 해 주었다. 동네에 순대를 만드는 식품회사에도 사람 필요 없냐고 물어봐 주고 취직도 시켜 주었다. 그 식품회사에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90만 원을 벌었다. 지현은 6시에 일이 끝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아이와 함께 좀 놀아 주고는 재우고, 새벽 1시부터는 동네 순댓국집에서 새벽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365일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했다.

식품회사에서 3년 동안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며 일했다. 일이 바쁘니까 참고 참아서 급성방광염이 생겼다. 너무 아팠지만 3년이나 함께 일한 사장은 쉬게 하지 않았다. 그러다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는 15분만 늦게 왔어도 죽었을 거라고 했다. 그다음 날 회사에 돌아갔는데 사장은 엄청 화를 냈다. 지현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대답도 안 하고 회사를 나왔다. 순댓국집에도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 그 사장도 진짜 못됐다. 지현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새벽시간에 택시기사 손님들도 젊은 외국인 아가씨 있다며 많이들 와서 팔아 주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 동안 밥도 안 컸다. 어떤 날은 손님이 많아 6시에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럼 집과 가까운 순댓국집으로 아이가 찾아왔다. 아이가 오면 지현은 사장 몰래 밥을 찼다. 그러다 딱 한 번 사장에게 들켰고, 아이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탁 들고 밥솥에다 다시 넣었다. 그 모습을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았고 지현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 “그냥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직원의 딸이 와서 그러면. 저는 그만뒀어요.”

지현은 식품회사와 순댓국집을 그만두며 조금 모아 둔 돈과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촌언니에게 빌린 돈으로 시장에 작은 가게를 차렸다. 그때가 2005년이였다. “이렇게 그냥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 해야 돼요.”

식품회사를 다니면서 순대 만드는 법을 알았고,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만드는 비법을 배웠다. 음식솥씨가 좋은 지현은 그녀가 일한 순댓국집보다 더 맛있는 순댓국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한 그릇에 4,000원씩 팔았다. 싸고 맛있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왔다. 24시간 문을 열고 택시기사들이 아주 많이 왔다.

장사가 아주 잘됐는데 가게 옆 슈퍼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와서 행패를 부렸다. 지현은 갖 만든 순대도 가져다주고 잘해 주려고 했지만 순댓국도 던져 버리며 신고해 버린다고 협박했다. 위생 관련 기관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이상이 없어 돌아갔다. 가게

에 손님이 들어가면 “그 집에 가지 마.” 하며 손님도 쫓아냈다. 매일 와서 숟가락, 젓가락 엮어 버리며 행패를 부렸다. 경찰에도 여러 번 신고했지만 경찰들도 어쩔 수 없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2년 동안 그랬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슈퍼 문을 닫아야 했다.

2010년 재개발로 보상을 받고 나와 지금은 베트남 음식점을 차렸다. 순댓국집 하는 동안 고향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베트남 음식점을 하면서는 이곳이 베트남 노동자들과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지현은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 대신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 일도 해 주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대신 물어봐 주기도 하며 통역이나 송금을 도와주는 등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전화가 울려댔다.

#### 6) 새로운 가족

수원에 오면서 전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다. 그때 죽인다고 협박을 해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한 번도 안 하고 몰래 숨어 살았다. 그 소송은 2006년에 끝이 났고, 지현이 이겼다.

이혼소송을 내고 딸아이와 단둘이 아무도 없는 수원에서 살아가면서 지금의 동갑내기 베트남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수원에서 알게 된 한 베트남 친구가 생일파티에 지현을 초대했다. 딸아이 손을 잡고 그 생일파티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2003년이었다. 그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였고, 둘은 친구가 되었다. 365일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지현은 딸아이와 놀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딸아이를 챙겨 주고 손 잡고 놀아 주었다. 지금의 남편은 지현을 처음 보자마자 사랑했다고 한다. 2006년 이혼소송에서 승리하고, 2007년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지현은 순댓국집을 운영하다가 2010년 베트남 음식점을 차리면서 남편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둘째 남자아이와 셋째 딸아이가 연이어 태어나 지금은 중학교 1학년짜리 큰아이, 다섯 살짜리 남자아이, 세 살짜리 딸아이, 세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식당에는 아침 9시에 나와 새벽 1시쯤 들어간다. 9시부터 준비하고 시장 보면서 10



시쯤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은 후 1~2시간 정리를 하고 집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가 지난 여름에 큰딸아이가 하도 졸라 이틀간 문을 닫고 가족여행을 갔다. 하루 종일 가게를 해야 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 베트남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왔다. 남편의 동생도 왔다. 지현의 가게에 가면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끝나면 아이들은 가게에 와서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테이블 위나 바닥에서 뛰어 논다. 지현은 큰딸아이에게 용돈을 그냥 주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면 설거지를 시킨다. 주말이면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카운터를 보기도 한다.

“우리 ○○이 용돈 있잖아요. 여기 와서 설거지해. 용돈 줄게. 그냥 안 줘. 설거지하는 거, 자기 일하는 거 배우는 거지. 교육시키는 거. 일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돈 쉽게 아니거든.”

친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큰딸아이는 초등학교 때는 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많이 의젓해졌다. 집중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지현처럼 미술에 재능이 있어 지금은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다. 지현은 딸아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다. “엄마 돈 많이 드는데 괜찮아? 물어봐요. 니가 할 수 있으면 엄마 다 해 줄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

현재 지현의 가족은 베트남에서 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지현, 세 아이 이렇게 일곱 식구다. 지현은 한국 국적을 얻었고, 남편은 영주권자다. 세 아이 모두 한국 국적만 갖고 있는데, 너무 바빠 이중국적을 신청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세 아이 모두 베트남어를 잘 구사했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에 따라 지현의 가족처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현은 아버지에게 딸내미가 행복하게 잘사는 거 보여 주고 싶어서 힘든 삶을 견뎌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큰딸을 키우기 위해 살아야 했다. 베트남에서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에서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로, 폭력에 시달렸던 이주여성 아내로, 사업가로, 그리고 한 가족의 중심으로, 수원에서 살아가는 베트남 사람들의 대모로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된 것이다.



# 이주 여성들의 한국 문화 적응



다문화강사 교육(수원이주민센터 제공)



수원이주민센터 이주여성 한글반 수료식(수원이주민센터 제공)

수료식



어린이생태미술관 체험에 나선 엄마와 아이들(수원이주민센터 제공)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우관계 및 자아정체성 수업(수원이주민센터 제공)



전국 결혼이민자여성 우리말 대회 서울·경기 지역 예선(수원이주민센터 제공)



이주여성 한지공예 강사반 교육(수원이주민센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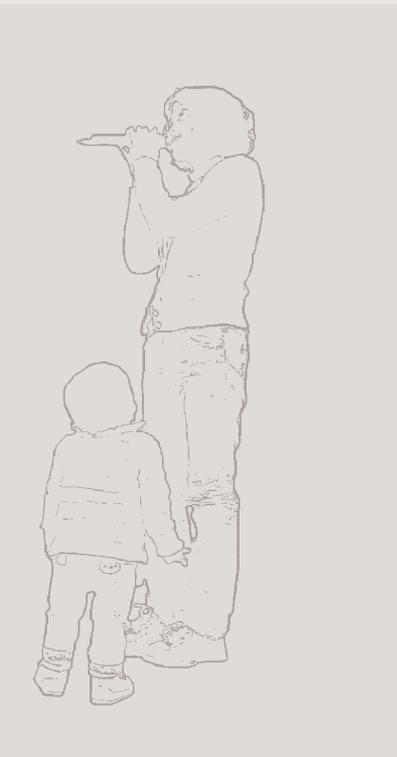


이주민 인권말하기대회에 참가한 이주여성 (수원이주민센터 제공)

# 요리 쿵 수다 쿵



이주여성 요리 동아리 '요리쿵 수다쿵' (수원이주민센터 제공)



요리 강습(수원이주민센터 제공)





화성행궁 견학(수원이주민센터 제공)



박물관 견학



수원시민 통일한미당 참여(수원이주민센터 제공)



다어울림한마당(수원이주민센터 제공)



이주여성 모국어로 들려주는 동화 동아리(수원이주민센터 제공)



## 제1부 식민 지배와 일본 이주민

## 01 | 일제하 수원 일본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 주

- 1) 김명준 편저, 『우리들의 신앙 - 日本人선교사 乘松雅休에 의한 수원동신교회 100년 略史』, 성서강당학회 편찬위원회, 2000, 17쪽.
- 2) 원광목, 『한국 기독교신회 100년사, 1897~1997』, 기독교신회, 2003, 48~49쪽.
- 3) 淺田洋次郎, 『先輩兄弟ら(明治篇)』, 同信社, 1976, 198쪽; 김명준 편저, 『우리들의 신앙 - 日本人선교사 乘松雅休에 의한 수원동신교회 100년 略史』, 성서강당학회 편찬위원회, 2000, 53쪽.
- 4) 국가기록원, 『宗教=關スル諸表綴』, 『宗教=關スル雜件綴(1906~1909)』, 264쪽.
- 5)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日韓印刷株式會社, 1914, 12쪽;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11~12쪽.
- 6)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6일.
- 7)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日韓印刷株式會社, 1914, 8~9쪽.
- 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0)』, 1912, 659쪽.
- 9) 경기도, 『대정 4년 조선총독부경기도통계연보』, 1917, 112~113쪽.
- 10) 福崎毅一, 『京仁通覽』, 1912, 160~161쪽.
- 11)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21~22쪽.
- 12) 『황성신문』, 1908년 3월 10일.
- 13) 『황성신문』, 1908년 12월 23일.
- 14) 김도형,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구성원과 식민지 농업지배」, 『수원학연구』 창간호, 2005, 270쪽.
- 15)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구성원과 식민지 농업지배」, 『수원학연구』 창간호, 2005.
- 16) 혼다 코스케가 1930년 4월 2일 사망하였을 때 『조선농회보(朝鮮農會報)』에서는 “1906년 통감부 권업모범장을 설립함과 함께 그 장장에 취임하였다. 선생(本田幸介 - 필자주)은 여기서 그 직(職)은 하나의 모범장장이었지만, 통감의 명에 의해 조선농업정책의 기초방침 수립에 부심하여 그것을 통감에게 진언헌책(進言獻策)한 바가 있었다. 당시에 있어서 선생의 대정신(大精神)은 금일 또한 그것을 전통으로 반도 농업정책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一記者, 『朝鮮農界の恩人本田博士を思ひて』, 『조선농회보』 4-5, 1930년 5월, 15쪽).
- 17)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日韓印刷株式會社, 1914, 5~6쪽.
-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명부』, 1985.
- 19) 『동산농장사업성적개요』, 『조선농회보』 8-8, 1913년 8월, 16~17쪽.
- 20) 『조선산업지침』, 11쪽.
- 21) 『水原東山農場の小作人獎勵』, 『조선농회보』 7-3, 1912년 3월, 59쪽.
- 22) 『東拓 其他 日本人이 가진 朝鮮의 土地』, 『개벽』 57, 1925년 3월, 59쪽.

- 23) 「再次 東拓에 대하여(押)(1924년 11월 12일)」, 『조선일보명사설오백선』, 1972, 104쪽.
- 24) 이동근,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경기사학』 7, 2003, 201쪽.
- 25)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12월 20일.
- 26) 손정목, 「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정책 연구」, 『한국사연구』 58, 1987, 106쪽.
- 27) 손정목, 「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신사참배 강요정책 연구」, 『한국사연구』 58, 1987, 107~108쪽.
- 28) 『홍재전서』 권23, 「祭文」 5, 화성성묘고유문(華城聖廟告由文).
- 29) 「水原神社 御造營」, 『경성일보』, 1939년 2월 5일.
- 30) 「水原神社 御造營 工事不遠着手」, 『동아일보』, 1940년 5월 5일.
- 3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3, 44~45쪽.
- 32)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2, 52~53쪽.
- 33)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역세일반』 상, 1914, 94쪽; 박찬수, 「수원과 철도」, 『수원학연구』 2, 2006.
- 34) 『巡廻探訪 196, 停車場近處부터 日人이 蠶食(1) 大悟를 要할 우리』, 『동아일보』, 1927년 1월 14일.
- 35) 홍석창, 『수원지방 삼일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 235쪽.
- 36) 細井肇, 「附錄 京城の沿革」, 『現代漢城の風雲と名士』, 日韓書房, 1911, 22쪽; 영인본,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12, 아세아문화사, 1985.
- 37) 幣原垣, 『朝鮮教育論』, 六盟館, 1919, 60쪽.
- 38) 稻葉繼雄, 『舊韓末 '日語學校' 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1997, 61~62쪽.
- 39) 稻葉繼雄, 『舊韓末 '日語學校' 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1997, 273쪽.
- 40)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612쪽.
- 41) 『각사등록(근대편)』, 광무 9년 10월 28일, 照會 제47호, 「일본인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금지 관련 조회」.
- 42)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日韓印刷株式會社, 1914, 12쪽; 酒井政之助, 『水原』, 1923, 酒井出版部, 11~12쪽.
- 43) 稻葉繼雄, 『舊韓末 '日語學校' 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1997, 271쪽.
- 44) 幣原垣, 『朝鮮教育論』, 六盟館, 1919, 59쪽.
- 45) 幣原垣, 『朝鮮教育論』, 六盟館, 1919, 264쪽.
- 46) 小林, 「水原修學旅行の記」, 『조선신보』, 1906년 11월 29일.
- 47) 『조선신보』, 1906년 11월 15일.
- 48)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創立三十周年記念 學校沿革誌』, 1936.
- 49) 오쿠조노 에쓰지로는 1912년 이천공립보통학교, 1913~1914년 수원공립간이농업학교 및 수원공립보통학교 훈도로 근무하였다.
- 50)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 『創立三十周年記念 學校沿革誌』, 1936, 16쪽.
- 51) 「수원행행하신 회보」, 『共立新報』, 1908년 11월 4일, 內報. 수원농사모범장 500원, 수원농림학교 150원, 수원부회(水原父老會) 200원, 수원 한국관민 일동 200원, 수원 일본인회 200원, 수원보통학교 100원, 수원 일본인소학교 100원, 수원사립학교 전체 400원, 수원 부근 7군 학교 450원.
- 52) 高秘發 제353호, 융희 3년(1909) 11월 5일, 「伊藤公爵 遭難에 關하여 各地方 其後の 狀況」.
- 53) 『매일신보』, 1913년 11월 2일.

- 54) 조선총독부령 제6호, 「학교조합령시행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1월 25일.
- 55) 1914년 7월 10일 평택학교조합 구역은 진위군 병남면으로 변경하였다.
- 56) 조선총독부 고시 제10호, 1921년 1월 28일.
- 57)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7월 16일.
- 58) 경기도, 『경기도의 교육과 종교』, 1937, 11쪽.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인 학생수이다.
- 5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4호, 1971년 5월 29일.
- 60) 조선총독부 훈령 제1호, 「학교조합규약준칙」,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1월 25일.
- 61) 『동아일보』, 1932년 3월 1일.
- 62) 와자와 유사쿠(小澤有作) 저·이충호 역. 「일본 제국주의와 인간 형성」, 『재일조선인 교육의 역사』, 혜안, 1999, 44-65쪽.

## 02 |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의 활동과 지방지 편찬

### 참고자료

-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 酒井政之助, 『華城乃影』, 酒井出版部, 1915.
- 朝鮮新聞社, 『朝鮮人事興信錄』, 1922
-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其一：水原郡』, 1929.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각 연도.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
-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 허영란, 『일제시기 장시 연구』, 역사비평사, 2009.
-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校倉書房, 2009.
- 권태환, 「일제시대의 도시화」, 『일제 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 정신문화연구원, 1990.
- 김백영, 「일제하 식민지 도시수원의 시기별 성격 변화」, 『도시연구』 8, 2012.
- 김태웅, 「해방 이후 지방지 편찬의 추이와 시기별 특징」, 『한국 민중사의 새로운 모색과 역사쓰기』, 선인, 2010.
- 박용규, 「일제하 지방신문의 현실과 역할」, 『한국언론학보』 50 - 6, 2006.
- 박 환, 「일제하 재수원 일본인의 지방지 편찬-酒井政之助의 『水原』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5, 2008.
- 성주현, 「근대 식민지 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 2005.
- 양보경·김경란, 「일제 식민지 강점기 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 『응용지리』 22, 2001.
- 지수걸,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사회와 조선의 ‘지방 정치」,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I, 아연출판부, 2007.
- 허영란, 「식민지 구관조사의 목적과 실태 - ‘시장조사’ 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6, 2007.

허홍범, 「지역사 연구와 지방지 편찬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48, 2003.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go.kr).

## 주

- 1) 朝鮮新聞社, 『朝鮮人事興信錄』, 1922, 665쪽.
- 2)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116쪽.
- 3) 지수걸, 「일제시기 채조선 일본인사회와 조선의 '지방 정치」,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I, 아연출판부, 2007, 99~100쪽.
- 4)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8~9쪽.
- 5)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go.kr), 「해제 - 조선신문」.
- 6) 1942년을 하한으로 표기한 것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점까지라는 의미이지 이 시점 이후 그만두었다는 뜻은 아니다.
- 7) 1914년 『발전하는 수원』은 발행소가 사카이 마사노스케로 되어 있는 반면, 1915년에 출판한 『화성의 그림자』는 사카이출판부가 발행소로 되어 있다. 이 시점부터 출판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며, 1918년 설립된 수원인쇄주식회사는 이 출판부를 확대 개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동아일보』, 『일제시기 검찰기록』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수원인쇄주식회사의 전신이 『화성의 그림자』를 간행한 사카이출판부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915년 사카이출판부를 설립했다가 1918년에 수원인쇄주식회사로 전환시킨 것이므로, 그는 1915년부터 1942년까지 계속 관여한 셈이 된다.
- 9)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공직 이력에 대한 조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직원록(朝鮮總督府職員錄)』 등을 활용하였다.
- 10)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51쪽.
- 11)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48쪽.
- 12)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1쪽.
- 13)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1~2쪽.
- 14)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2쪽.
- 15)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11쪽.
- 16) 1910년대 지역사회에서 헌병경찰은 도둑을 막고 치안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조선 민중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역을 강제하는 존재였다. 조선 민중도 이런 헌병경찰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校倉書房, 2009, 189~190쪽을 참조.
- 17)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13쪽.
- 18)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62쪽.
- 19)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19~23·35쪽.
- 20)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49~50쪽.



- 21)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12쪽. 노리마츠(乘松)는 성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평신도만으로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기독교신회 계열의 선교사로, 그가 수원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9년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으로 이주한 시기에 대해서 사카이 마사노스케는 1901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한동민은 1900년 8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질병 때문에 1914년에 일본으로 귀국했으며 1921년에 사망하였다.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은 수원으로 옮겨져 광교산에 묻혔다. 노리마츠가 세운 수원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동신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다.
- 22)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06.
- 23) 1910년대에 정비된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13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府)·군(郡)·도(島)가 있으며, 말단 행정단위로 읍·면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 24) 권태환, 「일제시대의 도시화」, 『일제 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 정신문화연구원, 1990, 265~266쪽.
- 25) 성주현, 「근대 식민지 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 2005, 192~196쪽.
- 26)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
- 27)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연도.
- 28) 박용규, 「일제하 지방신문의 현실과 역할」, 『한국언론학보』 50 - 6, 2006, 48-53쪽.
- 29) 여러 권이 간행되었더라도 『경성부사(京城府史)』 같은 동종 지방지는 1종으로 간행하였다. 간행시기는 첫째 권의 간행시기를 따랐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처럼 하나의 시리즈라 하더라도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1929), 『생활상태조사 - 평양부』(1932) 등은 각각 별개의 종으로 계산하였다.
- 30) 1910~1945년으로 시기를 제한하면 16종이 줄어든 432종의 지방지가 간행되었다. 지방지의 시기별 간행 추이나 성격 분석을 위해 일본인의 내륙 이주가 증가하는 청일전쟁 전후부터를 분석 대상시기에 포함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아 빠진 것이 있을 것이고, 잘못 분류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방지 간행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 글에서 분석한 지방지의 구체적인 목록은 지면의 제약 때문에 생략한다. 자세한 목록 및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 31) 일제강점기 읍지(邑誌)의 간행 상황과 개략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양보경·김경란, 「일제 식민지 강점기 읍지(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응용지리』 22, 2001)을 참조. 이 연구는 1910~1945년 사이에 107개 지역에서 간행된 161종의 읍지를 분류, 정리하였다. 넓게 보면 읍지류도 지방지에 포함되고 식민지시기라는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재조선 일본인의 정착과 지역사회에 대한 식민 지배의 강화라는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 일본어로 간행된 근대적 형식의 지방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 32) 사카이 마사노스케가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에 맞추어 간행한 『화성의 그림자』(1915년) 역시 수원과 용인, 이천, 여주의 명승지를 소개한 안내 책자이기 때문에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제외시켰다.
- 33) ① D: 부는 1914년 부제 실시 당시의 12개 부(경성, 인천, 부산, 마산, 대구, 목포, 군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이고, ② F: 지정면은 1917년 면제 실시 당시의 23개 면(춘천, 개성, 수원, 시흥, 진주, 진해, 통영, 김천, 포항, 광주, 강경, 익산, 전주, 공주, 대전, 조치원, 청주, 의주, 함

- 홍, 나남, 성진, 회령, 해주)이다. ③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를 함께 다룬 지방지가 3종씩 검색되어서 편의상 남·북도 각 1.5종씩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34)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63~73쪽.
- 35)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 및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간행 배경에 대해서는 허영란, 「민지 구관조사의 목적과 실태- '시장조사' 를 중심으로」(『사학연구』 86, 2007)를 참고.
- 36) 1923년부터 1935년까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근무한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는 1985년 일본 카가와(香川)현 출신으로 1910년에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 등으로 근무하다가 1923년 7월 조선으로 와서, 조선의 사회사정 조사에 관한 사무를 촉탁받아 조사과에 근무하였다. 조선에 관한 저서가 무려 20여 권에 달하며, 조선 내 각지를 널리 다녔고 여러 차례 중국과 만주의 경제사정을 시찰하였다. 그는 1936년 10월 이후 만철로 자리를 옮겼다(허영란, 『일제시기 장시 연구』, 역사비평사, 2009, 32쪽).
- 37)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1 : 수원군』, 조선총독부, 1929, 32쪽.
- 38) 이 책에는 조사 항목만 30페이지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1 : 수원군』, 조선총독부, 1929, 2~31쪽).
- 39) 사카이 마사노스케, 「서언」, 『화성의 그림자』, 1915.
- 40) 1915년 조선신문사 충청지사에서 편찬한 『조치원발전지』 같은 지방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 41)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54~55쪽.
- 42) 酒井政之助, 『水原』, 1923, 80쪽.
- 43) 酒井政之助, 『發展する水原』, 1914, 61쪽.

### 03 | 유아사 가쓰에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 이주민의 정체성

#### 참고자료

-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사관), 日韓印刷株式會社, 1914.
-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 湯淺克衛, 「怒濤の譜-舞姫・白聖姫半生記」, 『週刊朝日』, 1935년 8월 4일~25일.
- 湯淺克衛, 『半島の朝』, 三教書院, 1942.
- 湯淺克衛, 『舞姫記 崔承喜の半生』, 文明社, 1947.
- 湯淺克衛, 「舞姫の追憶」, 『対馬』, 出版東京, 1951.
- 湯淺克衛, 『ラテン・アメリカへの招待-中南米移住読本』, 日本週報社, 1958.
- 湯淺克衛, 「座談會 朝鮮への郷愁-初秋のよりに語る-」, 『親和』 59号, 1958년 10월, 日韓親和會.
- 湯淺克衛, 『南米への旅』, 雪華社, 1961.
- 湯淺克衛, 「訪韓日記抄-生いたちの土ふみしめて」, 『親和』 103号, 1962년 6월, 日韓親和會.
-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淺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會, 1995.
- 이원희,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와 조선」,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 박광현, 「유아사 가쓰에 문학에 나타난 식민2세의 조선」, 『日本學報』 제61집 2권, 한국일본학회, 2004.
- 박광현, 「'전후' 와 '첸고戰後' -식민지 역사에 관한 기억/망각-」, 『國際言語文學』 제10호, 國際言語文學會, 2004.
- 박광현, 「'재조선(在朝鮮) 일본인 지식 사회 연구 -1930년대의 인문학계를 중심으로-」, 『일본학 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6.
- 나리타 류이치, 「'고향' 이라는 이야기 · 再說-20세기 후반의 '고향' 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제3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 신승모, 「'인양(引揚)' 후의 유아사 가쓰에론 - 연속해가는 혼효성(混淆性) -」, 『日語日文學研究』 第71輯 2卷, 韓國日語日文學會, 2009.
- 기유정, 「민족국가중심론 비판과 제국연구를 위한 시론적 고찰 : 『綠旗』(錄人) 속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국체론과 정체성 분석을 중심으로」, 『재조일본인의 사회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제4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2012년 6월 30일),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 外務省調査,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大藏省管理局, 1948~1950.
-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64.
- 任展慧, 「植民者二世の文学-湯淺克衛への疑問」, 『季刊三千里』 5号, 1976.
- 高崎隆治, 『文学のなかの朝鮮像』, 青弓社, 1982.
- 大河内一雄, 『幻の国策会社 東洋拓殖』, 日本經濟新聞社, 1982.
- 朴春日,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 未来社, 1985.
-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会史』, 未来社, 1989.
- 高崎宗司, 「在朝日本人と日清戦争」, 『近代日本と植民地』 5, 岩波書店, 1993.
- 梁礼先, 「湯淺克衛論-生涯と作品-」 <その一>, 『文学研究論集』 第1号, 明治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1994.
- 梁礼先, 「湯淺克衛論-生涯と作品-」 <その二>, 『文学研究論集』 第3号, 明治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1995.
- 田中益三, 「夢見る頃を過ぎても-湯淺克衛と中島敦」, 『日本文学誌要』 第54号, 法政大学国文学会, 1996.
- 黒川創 編, 『<外地>の日本語文学選③ 朝鮮』, 新宿書房, 1996.
- 成田竜一, 『「故郷」という物語』, 吉川弘文館, 1998.
- 南富鎮, 『近代文学の<朝鮮>体験』, 勉誠出版, 2001.
- 東洋拓殖会社社史集第一卷, 『東拓十年史』, 丹精社, 2001(초출 1918).
- ロビン・コーエン, 『グローバル・ディアスポラ』(角谷多佳子 訳), 明石書店, 2001.
-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2002.
- 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 新曜社, 2004.

## 주

- 1) 湯淺克衛, 『半島の朝』, 三教書院, 1942, 155쪽.

- 2) 이 같은 여행기로서는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平壤より義州」(1906),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滿韓とところどころ」(1909), 다카야마 고시(高浜虚子)의 「朝鮮」(1911),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朝鮮雜感」(1918),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滿韓の行楽」(1924)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덧붙여 이들 조선여행기에서는 관광하는 관찰자로서의 시선과 제국주의적 확장 정책에 공명하는 일본 문학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3) 박광현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일본문단이 일본 외부로 눈을 돌려 식민지 정주자(생활자)의 시선에서 ‘외지문학’=식민지(민)를 소재로 한 문학을 양산하게 된 배경에는 4만세기 동안에 축적된 식민통치의 산물이라는 측면을 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소설의 장르적 특성상 여행기 보다는 더 깊고 복잡한 인간관계나 일상의 경험이 필요하고, 조선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등장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제국’ 의식의 축적이 필요했다는 것이다(박광현, 『유아사 가쓰에 문학에 나타난 식민2세의 조선』, 『日本學報』 제61집 2권, 한국일본학회, 2004, 488쪽).
- 4) 유아사 가쓰에의 연보적인 사항은 주로 梁禮先, 「湯淺克衛年譜」, 『カンナニ湯淺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를 참조하였다.
- 5)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에 실린 유아사 이헤이(湯淺伊平)의 경력을 참조하였다.
- 6) 조선총독부립 경성중학교는 일본인 자제의 중·고등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일본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식민지의 학교였다. 유아사는 경성중학교에 입학한 뒤 수원에서 ‘경성’의 경성중학교까지 매일 기차로 통학하다가 후에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다. 덧붙여 작가 나카지마 아츠시(中島敦은 유아사의 경성중학교 동급생이었고,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치인의 사랑(痴人の愛)」이 유아사의 기숙사 책상에서 발각되어 정학처분을 받을 뻔한 것을 같은 반이던 나카지마의 중재로 도서관 감금 정도의 처벌로 해결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 7) 대학 재학 중에 유아사는 방학 때마다 수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이를 ‘귀성’이라 표현하고 있다(湯淺克衛, 「関釜連絡船その他」, 『半島の朝』, 三教書院, 1942, 113쪽).
- 8) 湯淺克衛, 「作品解説と思ひ出」, 『カンナニ』, 大日本雄弁会講談社, 1946. 이 글에서는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淺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521쪽에서 재인용하였다.
- 9) 1935년 4월호에 발표된 「간난이」는 발표 당시 3·1운동을 다룬 후반부 46매(전체 11장 중 제6장이하)가 전부 삭제된 것을 비롯하여, 5장에서 12행이 삭제되고 전체 20군데가 복자(伏字)로 처리되어 게재되었다. 삭제된 후반부가 복원된 것은 1946년에 고단사(講談社)에서 발행된 유아사의 전후 첫 창작집 『간난이』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원래의 유일한 원고가 분실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후 그 삭제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은 ‘복원’이라기보다는 재창작 또는 개작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간난이」의 복원작업에 대해 논의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국책에 협력한 전중까지의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유아사의 의도가 복원작업에 개입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다만 10년 이상이나 지난 시점에서 처음과 완전히 똑같이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원된 후반부(6장부터 11장)와 초출의 전반부 사이에 단층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복원이 이루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간난이」의 복원 경위와 이에 대한 논의는 신승모, 「‘인양(引揚) 후의 유아사 가쓰에론-연속해 가는 혼효성(混滯性)-」, 『日語日文學研究』 第71輯 2卷, 韓國日語日文學會, 2009, 297~301쪽 참조.
- 10) 덧붙여 일본인 작가가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을 소설 작품 속에서 다룬 경우는 필자의 좁



은 조사에 한하자면 이 유아사의 「간난이」와 식민지 2세 출신의 작가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의 「이조잔영(李朝殘影)」(1963)이 유일한 사례이다. 이 사건을 형상화한 작가들의 문체의식 만으로도 작품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 11)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간난이는 “군도를 휘두르는 아저씨들”, 즉 일본군 헌병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간난이의 소지품이 발견된 곳이 병사를 훈련하는 장소인 연무대 부근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상징적인 처리이다.
- 12) 湯浅克衛, 「故郷転々」, 『半島の朝』, 三教書院, 1942, 109~110쪽.
- 13) 湯浅克衛, 「故郷について」, 『青空何処まで』, 東亜公論社, 1942. 이 글에서의 인용은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浅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457~458쪽.
- 14) 南富鎮, 「第四章 母胎としての水原」, 『近代文学のく朝鮮〉体験』, 勉誠出版, 2001 참조.
- 15) 湯浅克衛, 「怒涛の譜-舞姫・白聖姫半生記」, 『週刊朝日』, 1935년 8월 4일~25일; 湯浅克衛, 『舞姫記 崔承喜の半生』, 文明社, 1947; 湯浅克衛, 「舞姫の追憶」, 『対馬』, 出版東京, 1951.
- 16) 유아사 자신은 “마지막까지 만류되는 채 기류를 정하지 못하던 나도 아버지를 따라 귀국하게 되었다.”고 당시를 순회하고 있다. 조선에서 귀환할 당시 조선인 폭동의 위험이 없었지 걱정하여 묻는 아내에게 유아사는 “폭동 속에서 죽는다면 바라던 바가 아닌가.”라고 농담처럼 대답했다고도 한다(湯浅克衛, 1946, 「作品解説と思ひ出」, 『カンナニ』, 大日本雄弁会講談社;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浅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524~525쪽).
- 17) 1952년 6월 도쿄에서 창립된 일한친화회는 설립 당초부터 한일 양국의 ‘친화’와 우정을 문화교류를 통해 도모하는 친선단체임을 표방했고, 이 단체의 활동에는 유아사 가쓰에를 포함해 많은 재조일본인들이 참가했다. 일한친화회는 기관지 『친화』(월간, 창간호 1953년 11월)의 발행을 비롯해, 오무라(大村)수용소의 조선인 가석방자 보호사업, 재일조선인 상담역 등 재일조선인을 원조하는 활동과 재한국 일본인 아내의 일시귀국, 밀항자 한국인 유학생의 보증, 한일문화 교류에 관련된 각종 강연회와 한국어 강좌의 개최 등 다방면의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일한친화회는 발족 자체가 제1차 한일회담(1951년 6월)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성격의 것이었고, 그 활동은 언제나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체결되기까지의 일본의 정치적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르는 성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일한친화회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 해인 1966년에 일본 외무성(外務省)으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는다.
- 18) 湯浅克衛, 「座談會 朝鮮への郷愁-初秋のよるに語る-」, 『親和』 59号, 1958년 10월, 韓親和会, 2~3쪽.
- 19) 조선에 이주해 정착하는 식민지 1세의 삶을 묘사한 소설에는 이 외에도 「이민(移民)」(1936), 「뿌리(根)」(1938) 등의 작품이 있으나, 작품의 무대가 되는 장소가 각각 함흥평야 부근의 복선과 청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글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 20) 작품 속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사관, 인쇄는 일한인쇄주식회사), 1914, 1~2쪽의 서언이고, 사카이 마사노스케의 이름은 아카이 마사노스케(赤井政之助)로 바뀌어 있다. 작품 속에서 본페이는 이 아카이 마사노스케를 자신의 친구이자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카이 마사노스케는 ‘조선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에 거주하면서 변호사로서 ‘사카이 마사노스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21) 湯浅克衛, 「元山の夏」, 『文学評論』, 1935년 7월;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浅克衛植民地小説

- 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93쪽.
- 22) 가령 소설 「이민」에 등장하는 가와테 기스케(川手儀助)라는 상인은 일본군 병사로 러일전쟁에 출정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데, 기스케나 본페이와 같이 러일전쟁에 참전했거나 '외지' 근무를 하던 일본군 병사 중에는 전쟁이 끝나거나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식민지화된 한반도에 남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국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권신장을 도모하는 상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 23) 湯浅克衛, 「城門の街」, 『人民文庫』, 1937. 이 글에서의 인용은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浅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136쪽에 준하였다. 이하 「城門の街」의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기하였다.
- 24) 湯浅克衛, 「望郷」, 『改造』, 1938, 改造社. 이 글에서의 인용은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浅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215쪽에 준하였다. 이하 「望郷」의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기하였다.
- 25) 박광현, 「유아사 가쓰에 문학에 나타난 식민2세의 조선」, 『日本學報』 제61집 2권, 한국일본학회, 2004, 500쪽.
- 26) 池田浩士, 「解説・湯浅克衛の朝鮮と日本」, 『カンナニ湯浅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625쪽.
- 27) 박광현, 「유아사 가쓰에 문학에 나타난 식민2세의 조선」, 『日本學報』 제61집 2권, 한국일본학회, 2004, 500쪽.
- 28) 湯浅克衛, 「作品解説と思ひ出」, 『カンナニ』, 大日本雄弁会講談社, 1946;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浅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523쪽.
- 29) 湯浅克衛, 『葉山桃子』, 土の文学叢書, 1939. 이 글에서의 인용은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浅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230~231쪽에 준하였다. 이하 「葉山桃子」의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기하였다.
- 30) 일본정부는 조선에서의 토지 취득, 일본인 식민과 농업 척식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를 1908년 12월에 설립해,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이민사업을 실행해 갔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선량한 농민을 이식해 진보하는 농업의 모범을 보일” 것을 “본사 창립의 근원”으로 삼아 1908년 8월 공포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법」 제3장 ‘영업’의 제11조 3항에는 그 업무로서 “척식을 위해 필요한 이주민의 모집 및 분배”가 명기되어 있다(『東拓十年史』, 東洋拓植會社社史集 第一卷, 丹精社, 2001(초출 1918)).
- 31) 유아사는 수필집 『반도의 아침(半島の朝)』에서도 “마쓰시타(松下)라고 해서 소학교 동급생으로 2리 정도 떨어진 부락에서 농업을 하고 있다. 이 마을의 주위는 조선에서도 유수의 비옥한 토지로, 동척이민도 3~4곳으로 나뉘어 부락을 이루고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어 실제로 동척의 농업 이민사업으로 다수의 일본인 이민이 수원에 입식해 정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湯浅克衛, 『半島の朝』, 三教書院, 1942, 127쪽). 덧붙여 유아사는 작품 「이민」(1936)을 통해서도 동척의 이민사업으로 함흥평야 부근의 북선으로 이민 온 주인공 마쓰무라 마쓰지로(松村松次郎)라는 식민지 1세의 조선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동척의 이민사업에 대해 비판적



인 논조와 태도를 보이고 있다.

- 32) '신조선' 담론에 관한 사항은 박광현, 「'재조선(在朝鮮)' 일본인 지식 사회 연구-1930년대의 인문학계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6과 『식민 지식사회의 집단적 정체성에 관한 학제 연구』(한국연구재단 2009년도 기초연구과제지원(인문사회분야) 연구계획서)에 실린 박광현의 논의를 인용한 것이다.
- 33) 덧붙여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재조일본인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게 된 2세대 재조일본인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朝鮮っ子(조선아이)', '조선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의미의 '朝鮮生' 등의 표현이 있었다. 기유정, 「민족국가중심론 비판과 제국연구를 위한 시론적 고찰: 『綠旗』(録人) 속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국제론과 정체성 분석을 중심으로」, 『재조일본인의 사회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제46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2012년 6월 30일), 86쪽, 각주 9 참조.
- 34) 湯淺克衛, 「旗」, 『太平』, 1946년 4월. 이 글에서의 인용은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淺克衛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470쪽에 준하였다.
- 35) 湯淺克衛, 「作品解説と思ひ出」, 『カンナニ』, 大日本雄弁会講談社, 1946; 池田浩士 편, 『カンナニ湯淺克衛 植民地小説集』, インパクト出版会, 1995, 525쪽.
- 36) 로빈·코어엔, 『글로벌·데이스포라』(角谷多佳子 訳), 明石書店, 2001, 118쪽.
- 37) 로빈·코어엔, 『글로벌·데이스포라』(角谷多佳子 訳), 明石書店, 2001, 118~119쪽 참조.

## 제2부 월남민의 이주와 정착

### 01 | 수원 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생활경험

#### 참고자료

-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밀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수원박물관, 『수원근·현대사증언자료집』 제2권, 2002.
- 수원박물관, 『세류동지』, 2010.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6.
- 수원문화원, 『2009년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조사결과보고서』.
- 김정숙, 「인천시 황해도민의 정착과 정체성 형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 학위논문, 2007.
- 김형재, 「속초시의 월남난민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

- 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8.
- 남상준, 「전북 김제지방의 북한난민 개척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82.
- 신상준, 「주한미군정치의 해외귀환동포 및 월남민에 대한 구호행정」, 『복지행정논총』 4, 한국복지행정학회, 1994.
- 오세창, 「풍기읍의 정감록촌 형성과 이식산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79.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 이문웅, 「도시지역의 형성 및 생태적 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해방촌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66.
- 이신철, 「월남인 마을 '해방촌' (용산2가동) 연구 : 공동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 이용기 · 김영미, 「주한미군 정보보고서(G-2)에 나타난 미군정기 귀환 · 월남민의 인구이동 규모와 추세」, 『한국역사연구회 회보』 32, 한국역사연구회, 1998.
- 차철욱 · 공윤경,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변화」, 『문화역사지리』 22 - 1(통권 40),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0.
- 차철욱 · 공윤경,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정착과 장소성 : 부산 당감동 월남 피난민마을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47,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0.
- 차철욱 · 류지석 · 손은하,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 4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 최원규, 「한국전쟁중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CAC)의 전재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 Vansina J., "Memory and Oral Tradition," in J. C. Miller(ed), *The African Past Speaks : Essay on Oral History*, Dawson : Folkestone, 1980.
- 『민주신보』, 1951년 1월 17일.
- 『동아일보』, 1951년 2월 13일.
- 『동아일보』, 1951년 4월 8일.
- 『민주신보』, 1951년 11월 23일.
- 『연합신문』, 1952년 4월 14일.
- 『조선일보』, 1952년 12월 1일.
- 『동아일보』, 1953년 5월 6일.

주

- 1) 이문웅, 「도시지역의 형성 및 생태적 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해방촌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66; 오세창, 「풍기읍의 정감록촌 형성과 이식산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1979; 남상준, 「전북

- 김제지방의 북한난민 개척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1982; 김형재, 「속초시의 월남난민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88;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밀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이신철, 「월남인 마을 '해방촌'(용산2기동) 연구: 공동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83~116쪽; 김정숙, 「인천시 황해도민의 정착과 정체성 형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차철욱·공윤경,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정착과 장소성: 부산 당감동 월남 피난민마을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47,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0, 279~321쪽; 차철욱·류지석·손은하,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 4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251~279쪽; 차철욱·공윤경,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변화」, 『문화역사지리』 22 - 1(통권 40),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2) 「한국전쟁과 수원」은 『수원시사』 상(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6)에서 인용하였다.
  - 3)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 4) Vansina J., "Memory and Oral Tradition", in J. C. Miller(ed), *The African Past Speaks : Essay on Oral History*, Dawson : Folkestone, 1980.
  - 5) 수원문화원에서 발간한 『2009년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월남피난민 관련 인터뷰와 수원박물관에서 발간한 『수원근·현대사증언자료집』 제2권에 실린 관련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 6)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40쪽에서 재인용.
  - 7) 1946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월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 몰수와 종교적 억압 및 정치·사상적인 동기로 월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47년과 1948년의 4월에서 7월까지 시기에 토지개혁 당시와 비슷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 월남 동기에 대해서는 1947년 개성 전제민 수용소에 수용된 월남민을 대상으로 월남 동기를 조사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I - 9, 1948;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밀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44쪽에서 재인용). 월남 이유로 생활난 65.1%, 귀향 29.5%, 사상 1.6%, 상용(商用) 0.8%, 향학(向學) 0.3%로 되어 있어 생활난 등 경제적 이유가 이 시기 주된 월남 동기로 보인다. 신상준도 이 시기 월남 이유는 북한에서의 식량난에 따른 생활고가 주된 이유라고 보았으며 춘궁기가 지나고 하곡(夏穀)이 성숙되어 갈 무렵이면 월남민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신상준, 「주한미군정치의 해외 귀환동포 및 월남민에 대한 구호행정」, 『복지행정논총』 4, 한국복지행정학회, 1994). 그뿐만 아니라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월남 인구가 급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용기·김영미, 「주한미군 정보보고서(G-2)에 나타난 미군정기 귀환·월남민의 인구이동 규모와 추세」, 『한국역사연구회 회보』 32, 한국역사연구회, 1998).
  - 8)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2년사』, 국방부, 1953; 권대환, *Demography of Korea :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1966*,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7; 장정규, 『분단

- 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이복5도위원회 엮음, 『이복5도30년사』, 1981(김귀옥,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밀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68쪽에서 재인용).
- 9) 수원박물관, 『수원근·현대사증언자료집』제2권, 2002.
- 10) 『한국전란 1년지』, C49~50쪽.
- 11) 『민주신보』, 1950년 8월 26일. 한국전쟁 초기 피난민 문제에 대한 남측의 최종 결정권자는 유엔 사령부였으며 그 산하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 Committee of Assisting Civilians)가 피난민 구호물자 공급, 구호 예산 규모, 구호물자 선정문제를 총괄하는 주 담당 부서였다.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는 1953년 9월에 창설되어 1955년까지 활동하였다.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한국의 복구와 재건에서 주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을 추진하였다면,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응급적인 구호정책을 추진하였다.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는 한국정부와 구호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연락부서를 두었고, 각 도에는 구호물자의 배분을 감독하고 보건의료와 농사지도를 담당하는 인력들로 구성된 야전팀을 두었다(최원규, 「한국전쟁중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CAC)의 전제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113~161쪽).
- 12) 『한국전란 1년지』, C61쪽.
- 13) 『한국전란 1년지』, D37쪽. 참고로 1951년 1월 16일 사회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피난민의 수는 약 167만여 명, 수용소의 수는 72개소였다(『민주신보』, 1951년 1월 17일). 그런데 1951년 4월 5일 현재 각 도에 분포되어 있는 피난민 총수는 702만여 명인데 그중 455만 841명이 각 도에 설치된 1,770개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동아일보』, 1951년 4월 8일). 즉, 3개월이 안 된 시기에 피난민은 약 535만 명이, 수용소의 수는 1,698개가 증가한 셈이다.
- 14) 『동아일보』, 1951년 2월 13일.
- 15) 『민주신보』, 1951년 11월 23일.
- 16) 『동아일보』, 1953년 5월 6일. 『수원신문』이 피난민 여성의 아사사건을 보도하자 수사당국은 이를 “전시하 인심의 흑란을 유발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이 신문사 편집부장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원에서는 무죄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문제된 보도는 병사자의 피난살이의 뒷모습과 당국의 철저히 못한 구호대책으로 영양실조와 아사자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의 대책에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 17)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6에서 재인용)
- 18)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42쪽(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6에서 재인용)
- 19)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24~325쪽(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6에서 재인용)
- 20) 『경기도지』(작성기준은 1951~1954년 : 12월 말, 1955년 : 9월 말임).
- 21) 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15~316쪽(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6에서 재인용)
- 22) 『조선일보』, 1952년 12월 1일.
- 23) 『연합신문』, 1952년 4월 14일. 한편 수원외의 경우 유엔의 원조 자재로 반항구적인 간이주택 200호와 월동수용소(越冬收容所) 40호를 수원 시내에 건축하여 피난민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무상원조 자재로 국민후생주택(國民厚生住宅)을 건축하였다. 수원시

- 에는 1952년에 220호, 1953년에 350호가 건축되었다. 이어 1953년에는 수원에 국제연합한국지원단(UNKRA) 원조 자재로 지어진 9평 내지 12평 규모의 재건축택 200호가 축조되었다(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56~357쪽). 그러나 이 주택이 어느 지역에 건설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24) 정부는 전쟁 중에 난립한 판자촌이 위생상, 도시미관상 문제를 야기한다 하여 강제 철거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358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6에서 재인용).
  - 25) 수원시는 1954년 12월 31일 강원도 출신 부녀자 83세대 465명에게 수원시 남수동에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정착촌을 마련해 주었다(경기도, 『경기도지』 중권, 1956, 299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상, 1996에서 재인용).
  - 26) 수원문화원, 『2009년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조사결과보고서』, 2009.
  - 27) 1960년대 말까지 초가집과 염색공장이 혼재한 이 지역의 피난민들의 삶은 요절한 소설가 김소진(1963~1997)의 「용두각을 찾아서」라는 단편소설의 소재와 주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 28) 수원문화원, 『2009년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조사결과보고서』, 2009.
  - 29) 수원문화원, 『2009년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조사결과보고서』, 2009.
  - 30) 수원문화원, 『2009년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조사결과보고서』, 2009.

## 제3부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 01 | 수원 화교사회의 형성과 변화

#### 참고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www.akom.org).  
 수원화교중정소학교 홈페이지(www.oscschool.co.kr).  
 한국학부모신문(www.hakbumonews.com).  
 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www.crashkc.com).  
 「니하오?...화교학교 신나요」, 『강원도민일보』, 2005년 12월 5일.  
 「수원사람은 발가벗고 삼십리를 땀다」, 『e수원뉴스』, 2008년 1월 16일·2008년 10월 22일.  
 「수원 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서울신문』, 2009년 6월 25일.  
 「값진 투표권 행사 설렘 가득」, 『경기신문』, 2010년 6월 1일.  
 「중국음식축제협의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전달」, 『경기eTV뉴스』, 2010년 12월 24일.

- 「외국인학교 4곳 중 1곳 한국인이 더 많아」, 『머니투데이』, 2012년 9월 23일.
- 곽병근, 「한중수교 이후 재한화교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수원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사회 민속분야』, 2005.
- 김재국, 「수원 근대건축의 발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대구화교정착100주년기념활동사업회, 『100년이웃 100년친구 ; 百年之隣 百年之友 대구화교정착 100주년기념자료집』, 2010.
- 문은정, 「20세기 전반기 마산지역 화교의 이주와 정착」, 대구사학회, 2002.
-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 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 수원문화원, 『2009년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조사결과보고서』, 2009.
- 스털링 시그레이브 저 · 원경주 옮김, 『중국 그리고 화교』, 프리미엄박스, 2002.
- 양훈도, 『경기 근현대 자취 답사: 거기, 삶이 있었네』, 글을 읽다, 2011.
- 양필승 · 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이옥련,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2008.
- 이창식, 『수원상공회의소백년사』, 수원상공회소, 2008.
- 첸쇼에이스케 저 · 최석영 해제, 『민속인류학 자료대계 : 12 생활실태조사-수원, 제주』, 민속원, 2008.
- 홍현영, 「고등반점 여씨가(呂氏家)의 수원 정착기」, 『고등동지』, 2012.

주

-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화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인천 지역을 다룬 연구로 이옥련(『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2008)과 박현옥(『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이재정(「한국의 화교거주지 연구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3), 이창호(「한국 화교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2007) 등의 결과물이 있다. 이 밖에 군산의 여씨 집안을 통해 화교 생활사를 다룬 연구로 김중규(「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권 2호, 2007)의 연구가 있으며, 마산 지역을 다룬 문은정(「20세기 전반기 마산지역 화교의 이주와 정착」, 『대구사학』 제68집, 대구사학회, 2002)의 연구 등이 있다.
- 박은경은 1980년대 중반 한국 화교의 종족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수원화교협회와 수원화교중정소학교를 조사하였다. 양훈도는 경기 지역 근현대의 삶을 담고 있는 인물과 공간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수원화교중정소학교를 다루었다(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양훈도, 『경기 근현대 자취 답사: 거기, 삶이 있었네』, 글을 읽다, 2011).
-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21쪽 참고.
- 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 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19쪽.

- 6) 1990년대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중국인의 국내 체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몇 세대를 한국에서 지내 온 화교들과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참고). 따라서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 7) 홍현영, 「고등반점 여씨가의 수원 정착기」, 『고등동지』, 2012; 김재국, 「수원 근대건축의 발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75쪽.
- 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수원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사회 민속분야」, 2005, 3쪽 참고.
- 9)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유일출판사, 2008 참고.
- 10) 수원문화원, 『2009년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조사결과보고서』, 2009, 33쪽 참고.
- 11) 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22쪽 참고.
- 12) 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22쪽 참고.
- 13)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90쪽 참고.
- 14) 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참고.
- 1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참고.
- 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참고. 수원에는 인근 공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최근 몰려든 중국인(조선족) 인구가 많은 편이며 이들은 주로 수원역 주변의 원룸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화된 수원 화교와 조선족은 언어는 같은 중국어로 서로 통하지만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화교들은 간혹 중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조선족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만 교류는 거의 없다.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식당과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은 메뉴와 고객층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겹치지 않는다고 한다.
- 17)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88쪽 참고.
- 18) 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http://www.crashkc.com/>) 참고.
- 19)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89쪽 참고.
- 20)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84~86쪽 참고.
- 21)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198쪽; 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참고.
- 22) 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참고.

- 23) 박현옥 외, 『한국 화교(인천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참고.
- 24) 「니하오?... 화교학교 신나요」, 『강원도민일보』, 2005년 12월 5일; 「외국인학교 4곳 중 1곳 한국인이 더 많아」, 『머니투데이』, 2012년 9월 23일.
- 25) 「값진 투표권 행사 설렘 가득」, 『경기신문』, 2010년 6월 1일.
- 26)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166쪽; 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 (<http://www.crashkc.com/>) 참고.
- 27)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160~165쪽 참고.
- 28) 쌍십절(雙十節)은 중화민국의 건국 기념일로, 국경일(國慶日), 국경절(國慶節), 쌍십국경(雙十國慶), 쌍십경전(雙十慶典)으로도 불린다. 쌍십절은 191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우창봉기(武昌起義)를 기념하고 있다. 매년 이날이면 정부가 주최하는 축하 행사가 이루어지며, 홍콩·마카오 등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축하 행사를 주최한다.
- 29) 양훈도, 『경기 근현대 자취 답사 거기, 삶이 있었네』, 글을 읽다, 2011, 167~171쪽;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172쪽.
- 30) 양훈도, 『경기 근현대 자취 답사: 거기, 삶이 있었네』, 글을 읽다, 2011, 170~171쪽 참고.
- 31) 『한국학부도신문』(<http://www.hakbumonews.com>) 참고.
- 32) 2008년 유치부 35명, 초등부 92명으로 총 127명이 재학하였고,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 33)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155쪽.
- 34) 수원 각쟁이 란 말과 함께 “발가벗고 30리 뛰는 수원 사람”, “발가벗고 80리를 뛰었다.” “수원 사람은 발가벗겨도 삼십 리를 뛴다.” 느니, 심지어는 “물속으로 뛰었다.” 느니 하는 말들은 수원 사람들의 효심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부친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관을 바로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 뛰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엉뚱하게 다른 뜻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수원 남양의 한 마을에 갑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동네의 한 가게에서 몇 푼 되지 않는 외상을 깔지 않고 몰래 이사를 갔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려고 옷을 벗고 있던 주인의 귀에 점원과 흥정을 하는 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갑의 목소리임을 알아챈 주인이 발가벗은 채 뛰어나왔고 갑은 서울 쪽으로 삼십 리나 달아났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뒤돌아보니 가게 주인은 여전히 발가벗은 채 쫓아오더라. 그래서 “발가벗고 삼십 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수원 사람은 발가벗고 삼십 리를 뛴다」, 『e수원뉴스』, 2008년 1월 16일, 2008년 10월 22일; 「수원 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서울신문』, 2009년 6월 25일).
- 35) 「중국어식축제협의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전달」, 『경기eTV뉴스』, 2010년 12월 24일.
- 36) 「경기도회, 소외 계층 사랑 나눔」, 2011년 6월 30일, 사단법인 대한한 의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akom.org/>) 참고.



## 02 | 만민원 유씨 가족을 통해 본 수원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수원화교중정소학교 홈페이지(www.oscschool.co.kr).  
 KBS 2TV, 『뉴스타임』, 2003년 10월 20일 보도.  
 「너희가 ‘중국집 木간판’에 얽힌 그 사연을 아느냐!», 『인터넷 뉴스 신문고』, 2011년 8월 14일.  
 광병곤, 「한중수교 이후 재한화교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중규,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2007년 10월, 역사문화학회.  
 김중규, 「화교학교의 역사를 통해서 본 화교문화의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2010년 5월, 역사문화학회.  
 대구화교정착100주년기념활동사업회, 『100년 이웃 100년 친구 ; 百年之隣 百年之友 대구화교정착 100주년기념자료집』, 2010.  
 문은정, 「20세기 전반기 마산지역 화교의 이주와 정착」, 『대구사학』, 대구사학회, 2002.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박현옥 외,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수원문화원, 『2009년 수원 역사사랑방 네트워크 조사결과보고서』, 2009.  
 스틸링 시그레이브 저 · 원경주 옮김, 「중국 그리고 화교」, 프리미엄북스, 2002.  
 양훈도, 『경기 근현대 자취 답사: 거기, 삶이 있었네』, 글을 읽다, 2011.  
 양필승·이정희, 『차이타운 없는 나라 -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이옥련, 『인천 화교 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2008.

### 주

- 1) 박현옥 외,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03, 9쪽 참고.
- 2) 수원화교협회(水原華僑協會)는 수원시를 포함하여 안산,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여주, 이천, 오산, 화성 등의 도시에 호적을 두고 있는 화교 인구 2,000여 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단체이다. 화교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공, 전출입과 출생·사망 신고 등의 행정 사무와 중화민국의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설(구정) 등 각종 행사, 화교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수원화교협회의 전신인 중화공회는 1934년 수원 지역 화교 유지들의 힘을 모아 설립되었다. 협회 사무실은 수원시 팔달구 교동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건물 내에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원화교협회의 회장, 이사, 감사 등은 화교협회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다.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데, 회비는 1인당 매월 2,000원 이상을 내도록 한다(수원화교협회의 현 총무인 우진강(남, 1958년생)과의 면담;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160~166쪽; 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http://www.craskhc.com/>) 참고).
- 3) 수원화교중정소학교(水原華僑中正小學校)는 수원 및 인근 지역 화교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

하고 있으며, 유치부와 초등부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 팔달구 교동 172번지, 매산 119안전센터 건너편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다. 수업은 모두 중국어(번체자)로 진행하며, 주 1회 한국어 수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학생은 초등부 105명, 유치부 40명 내외로 총 150명 선이다. 이 중 부모가 화교가 아닌 순수 한국인 학생 비율이 75~80%이며, 나머지는 화교나 조선족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학생은 수원뿐만 아니라 용인, 수지, 안산, 안양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다. 학교 교장과 임원(이사, 감사)은 화교협회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열어 이들의 인품, 화교사회에서의 역할, 학력 등이 교육자로서 적합한지 판단하여 선출한다. 이들은 월급이 없는 무보수의 명예직이기에 화교 사회에서 봉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임기는 화교협회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있다(수원화교협회의 현 총무인 우진강(남, 1958년생)과 수원화교중정소학교 교장 강학천(남, 1957년생)과의 면담 및 수원화교중정소학교 홈페이지(www.oscschool.co.kr) 참고).

- 4) 화교청년회는 현재 수원 화교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2세대들이 젊은 시절 활발히 활동하던 조직으로 주로 20~30대의 화교 남성들로 구성되어 각 집의 경조사를 돕고 명절, 행사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수원 화교 인원이 감소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화교청년회는 없어지다시피 하였는데 화교 1세대가 고령으로 속속 사망하고 화교 2세대의 연령이 60대로 접어들면서 향후 화교사회의 인력을 미리 양성하지는 차원에서 다시 만들어졌다. 화교협회와 화교소학교 등의 임원으로 수원 화교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던 이들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다(수원화교협회의 현 총무인 우진강(남, 1958년생)과의 면담 참고).
- 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번지이다.
- 6) 양필승·이정희, 『차이니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89쪽 참고
- 7) 「너희가 '중국집 민간관'에 얽힌그 사연을 아느냐!」, 『인터넷 뉴스 신문고』, 2011년 8월 14일.
- 8) KBS2TV, 『뉴스타임』, 2003년 10월 20일 보도.
- 9) 4급 이상 공무원 2명의 연대 보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에서 귀화를 포기하였다. 수원에서 연대 보증인으로 가능한 이는 국회의원, 수원시장, 은행장, 언론사 부장급이었다. 강학천은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수원에서 한의사로서 명망을 쌓는 등 성공한 엘리트에 속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고위 공무원을 사귀고 어울리기가 어디 쉬운 일이라고 반문하였다. 또 한국사회가 신원 보증을 쉽게 해 주는 분위기도 아니라고 한다. 예금잔고 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등본을 제출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소유를 증명해야 하고, 고위 공무원의 신원 보증, 귀화 시험 등 조건이 까다롭기에 대다수 화교들은 귀화를 포기하였다.
- 10) 수원화교협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수원, 안산,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여주, 이천, 오산, 화성 등 수원화교협회 지역에 소속된 13개 도시에 적을 두고 있는 화교 인구는 총 2,000명 선이다. 이 중 수원에는 남녀노소를 모두 합하여 510명 정도 거주한다. 수원 화교의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대만·미국 등으로 이민을 갔으며, 현재도 사업·유학 등으로 수시로 대만·중국 등 해외를 오가는 인원이 많다(수원화교협회의 현 총무인 우진강(남, 1958년생)과의 면담 참고).



## 제4부 이촌향도민의 이주 경험과 삶

## 01 | 1960~1970년대 이촌향도민의 수원 이주

## 주

- 1) 이촌향도가 한창이던 1960년대 중반 한 언론은 남성보다 젊은 여성의 서울 전입이 훨씬 많은 상황을 전하면서 이 “서울 신랑에게 시집오는 행운(?)의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그만큼 서울 이주는 행운에 비견될 정도로 기존 억압적 질서로부터의 해방의 의미가 컸다(『동아일보』, 1967년 1월 31일).
- 2) 손승호, 「인구와 주민구성의 변화」,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이하 인구 관련 서술 내용 중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이 글에 의거한 것임을 밝혀 둔다.
- 3) 손승호, 「인구와 주민구성의 변화」,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 4) 1949년 시 승격과 함께 수원읍 이외의 면 지역은 화성군으로 떨어져 나갔으나 1995년 일부가 다시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 5) 『동아일보』, 1952년 2월 7일.
- 6) 『경향신문』, 1953년 1월 10일.
- 7)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사』, 1997, 16쪽.
- 8) 1959년 출생은 3,032명, 사망은 579명으로 증가분은 2,444명이었다(수원시, 『제1회 통계연보』, 1961, 8쪽).
- 9) 수원시, 『제1회 통계연보』, 1961.
- 10) 수원시, 『제5회 통계연보』, 1965, 21쪽.
- 11) 『동아일보』, 1963년 12월 27일.
- 12) 『동아일보』, 1964년 2월 18일.
- 13) 『경향신문』, 1965년 5월 12일.
- 14)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사』, 1997, 57쪽.
- 15) 『경향신문』, 1963년 1월 5일.
- 16)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 17) 송건영,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연구고찰」, 『국회보』 73호, 1967, 18쪽.
- 18) 수원시, 『제5회 통계연보』, 1965, 38쪽.
- 19) 『동아일보』, 1967년 1월 31일.
- 20) 이러한 비율은 1963~1968년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그 비율이 82.9%로 상승하였다(변시민, 「인구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인구의 이동관계를 중심으로」, 『국회보』 108호, 1970, 53쪽).
- 21) 변시민, 「인구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인구의 이동관계를 중심으로」, 『국회보』 108호, 1970, 53쪽.
- 22) 변시민, 「인구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인구의 이동관계를 중심으로」, 『국회보』 108호, 1970, 54쪽.
- 23) 수원시, 『수원 도시계획 재정비』, 1984, 27쪽.

- 24) 수원시, 『수원도시계획사』, 1997, 14쪽.
- 25) 수원시, 『통계연보』, 각 연도.
- 2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이동통계연보』, 1971, 24쪽.
- 2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이동통계연보』, 1971, 22쪽.
- 28) 수원시, 『제23회 수원통계연보』, 1983, 52쪽.
- 29) 수원시, 『수원 도시계획 재정비』, 1984, 30쪽.
- 30) 『매일경제』, 1971년 3월 19일.
- 31) 수원 지역의 대표적 상공인인 우봉제의 경우 신경의 임직을 통해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대표적 케이스였다.
- 32) 『매일경제』, 1971년 2월 4일.
- 33) 정옥배 구술(2012년 5월 12일, 수원 호남향우회 사무실), 박정용 구술(2012년 5월 22일, 수원택시 사무실).
- 34) 1980년대 중반 수원으로 이주한 사람의 기억에도 삼성전자의 역할은 매우 컸던 것으로 남아 있었다. “수원이 경기도 수부도시라고는 했어도, 수원이 그때 와서 보니까 인구 45만 도농 도시로 농촌을 조금 탈피하고 그저 한적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도 여기에 문화유산이 수원성이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돋보이고 나머지는 도로망이라든가 주거실태라든가 이게 거의 농촌에서 조금 탈바꿈한 하나의 도시였는데, 여기가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산업체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와 갖고 한 70만 정도 80만 되더니 …… (정옥배 구술, 2012년 5월 12일, 수원호남향우회 사무실).
- 35) 김대영 외,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 1965-1970』, 한국개발연구원, 1976, 124쪽.
- 36)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입주가 다양한 인구층의 유입을 초래한 것은 구술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애초 정기화물영업소를 통해 1974년 수원으로 이주한 한 구술자는 삼성전자 통근버스 운전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기도 했다(박정용 구술, 2012년 5월 22일, 수원택시 사무실).

## 02 | 수원 이주 이촌향도민의 삶

### 주

- 1) 향우회 추천은 입장일단의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나마 출신지역별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역의 위신을 고려해 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추천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 2) 정옥배 또한 비슷한 말을 하였다. 그도 서울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수원으로 이주한 케이스인데, 서울에서는 못 살겠다고 했다. 그 이유를 그는 “지역사회에서 살면 서로 간에 상당히 친구의 친구를 물어보면 알 수가 있고 연고가 역시 지역사회는 한정되어 있어요. 대인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그래도 정서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서울은 동대문에서 벌어진 일이 영등포로 가면 알 수도 없고, 따뜻한 향토적인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복잡하고 ……”
- 3) 김희식이 동장과 안면을 트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성실성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한다. “동사무소에도 가끔씩 가고 심부름도 가고, 통장 심부름시키면 가기도 하고, 그



러다 보니까 얼굴 자꾸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반장 한 번 봐 보라고. 반장 보니까 동장님과 가깝게 자주 접촉하게 되잖아요. 통장은 또 뭘 회의할 적마다, 내가 수원시 내에서 통장 25년 제일 오래 봤는데, 수원시 내에서 시청이고 구청이고 나 모르는 사람 없었지. 경찰서에서도 내가 민간 기동순찰대 한 15년 봤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날라리들 아녀. 내가 대장을 보니까 책임자니까 사고 나면 그거 접수해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면, 아니 평상시에는 술 뺏어 먹으라고 알랑알랑하고 뭐 건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 부탁하면, 내 소관 아니라고 외면하고 말아야. 난 제일 싫다고 말아야. 그때서부터 내가 서류봉투 가지고 들어가면 형사들이 서로 뺏어. 서로 뺏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여.” 김희식 구술(2012년 9월 19일, 수원교회). 인용문에서 보듯이 동장은 물론 경찰들과도 안면을 넓히면서 김희식은 지역사회에 튼튼하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안정적인 정착에는 본인의 성실성과 탁월한 대인관계도 중요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기반도 중요했을 것이다. 인용문에 나오는 술 얘기는 김희식과 경찰들의 관계가 서로 술 사 주고 얻어먹는 관계였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 4) 박정용의 자서전인 『촌놈』에서는 처음 집 장만한 것이 1978년도로 기록되어 있다(박정용, 『촌놈 - 박정용 의원의 꿈과 삶』, 온누리기획, 2005, 113쪽). 아마 책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수원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집을 장만한 셈이었다.
- 5) 정옥배의 주장은 사실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는 추정은 아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호남향우회와 관계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6) 갈등 끝에 정석기는 상가 사장을 찾아가 부탁하는 상황까지 경험하였다. “슈퍼에서 양주 제일 큰 거, 저는 모르니까, 이름도 모르니까, 큰 것하고 소고기 한 20근씩 메고 다녔어요, 사장, 부사장한테. 상무, 전무한테도. 나 잘못 없다 흑백 가려 달라. 사장한테 가 가지고 무릎 꿇었습니다. 흑백 가려 주신다면 제가 일어서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장 부인이, 그 선물 사 줬는데, 이게 뭐냐 발로 찬 적도 있습니다.”(정석기 구술)
- 7) 이 세 개의 향우회 외에도 2012년 현재 수원에는 재수원 강원도민회, 제주특별자치도민회 등이 있고, 이북5도민회가 있다(충청도민연합회, 「제10회 충청인의 한마음축제」, 2012, 44쪽).
- 8) 물론 이 수치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세 지역 출신이 수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맞다고 보인다.
- 9) 『중부일보』, 2009년 6월 1일.
- 10) 충청도 출신 인구는 33만 명이라고 한다(차금자 구술). 차금자의 구술 과정에 우연히 동석하게 된 충청도민연합회 한 관계자는 충청도향우회 결성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 가서 있어도 충청인들은 자기표현 내지 목소리가 크질 않으니까.”라고 설명하였다.
- 11) 박정용, 『촌놈 - 박정용 의원의 꿈과 삶』, 온누리기획, 2005, 121~122쪽. 박정용은 경청회에서 알게 된 선배 박봉욱이 운영하던 택시회사 현대운수(주)가 1987년 이후 설립된 노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 12) 수원시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제13회 수원시 호남향우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2011.
- 13) 수원시 충청도민연합회, 「제10회 충청인의 한마음 축제」, 2012.
- 14) 정석기 구술(2012년 5월 23일, 자동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
- 15) 정옥배는 전남과 전북 지역 간의 미묘한 기질 차이를 예로 들기도 했다. 즉 같은 호남임에도 불구하고

- 하고 전남과 전북은 기질적으로도 제법 차이가 있는데, 전북이 좀 더 부드러운 기질이라고 했다.
- 16) 영남인연합회는 1990년대 말 결성되었다가 2009년 영남향우회와 통합하여 재수영남향우회연합회를 결성하였다.
- 17) 재수영남향우연합회(<http://cafe.naver.com/totalgroup/43>).
- 18) 박정용 구술(2012년 5월 22일, 수원택시 사무실).
- 19) 박정용은 1990년대에 영남향우회장을 역임했는데, 한 2,000만 원가량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 20) 정옥배 구술(2012년 5월 12일, 수원호남향우회 사무실).
- 21) 박상훈, 「지역균열의 구조와 행태」,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참조.
- 22) 정옥배 구술(2012년 5월 12일, 수원호남향우회 사무실).

## 제5부 결혼 이주여성의 생애 이야기

### 01 | 먼곳에서 온 그녀들

#### 참고자료

- 강세영, 「결혼 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2009.
- 고현웅 · 김현미 · 소라미 · 김정선 · 김재원,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베트남 · 필리핀 현지 실태 조사』,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
- 김대성, 「다문화가정 급증에 따른 전남의 정책대응 방안」, 『리전인포』 145, 2008, 1~24쪽.
- 김민정, 「한국의 여성결혼 이주자」, 『정부의 이주정책 돌아보기와 뛰어넘기』,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정기심포지엄, 2006.
- 김이신,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 경험을 통해 본 정신건강의 역동성」,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 『여성 결혼 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여성개발원, 2006.
-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책 한편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2008, 89~116쪽.
- 김진희 · 박옥임, 「통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 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2008, 10~37쪽.
- 김현미,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1), 2008.
- 문경연,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국결혼 이주여성들의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박경동,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재규, 「경기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0.
- 설동훈, 「한국의 결혼 이민자 가족 :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6.
- 신란희,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 윤행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2004, 321~349쪽.
- 이승희, 「한국 '결혼 이주여성' 의 교차하는 위치성(Intersectional positioning)에 대한 연구 : 태국출신 결혼 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애련, 「한국다문화가족의 실태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7, 2008, 1~30쪽.
- 임안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임인숙 · 강충구 · 진병희, 「국제결혼 경로별 부부권력과 부부관계 만족도 : 경기도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1), 2010, 35~63쪽.
- 조석주 · 이상목,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2006, 195~243쪽.
- 홍기혜,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주

- 1) 고현웅 · 김현미 · 소라미 · 김정선 · 김재원,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 베트남 · 필리핀 현지 실태 조사」,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 김진희 · 박옥임,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 만족도 비교 :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2008; 설동훈, 「한국의 결혼 이민자 가족 :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6; 이애련, 「한국다문화가족의 실태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7, 2008.
- 2) 김대성, 「다문화가정 급증에 따른 전남의 정책대응 방안」, 『리전인포』 145, 2008;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 『여성 결혼 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 · 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여성개발원, 2006; 조석주 · 이상목,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 3) 박경동,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4) 김민정, 「한국의 여성결혼 이주자」, 『정부의 이주정책 돌아보기와 뛰어넘기』,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정기심포지엄, 2006; 윤행숙,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2004;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2006.

- 5) 홍기혜,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6) 문경연,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결혼 이주여성들의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신란희,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임안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7) 김현미,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1), 2008.
- 8) 강세영, 「결혼 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2009.
- 9) 이승희, 「한국 '결혼 이주여성'의 교차하는 위치성(Intersectional positioning)에 대한 연구: 태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10) 박재규, 『경기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보고서, 2010.
- 11) 경기개발연구원, 「다문화 공동체의 문제점과 지원정책 방향」, 『수원시지역연구』, 50쪽.
- 12)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 13) 김이선,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 경험을 통해 본 정신건강의 역동성」,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임인숙·강충구·전병희, 「국제결혼 경로별 부부권력과 부부관계 만족도: 경기도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1), 2010.
- 14) 이승희, 「한국 '결혼 이주여성'의 교차하는 위치성(Intersectional positioning)에 대한 연구: 태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15)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들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2008.
- 16) 이승희, 「한국 '결혼 이주여성'의 교차하는 위치성(Intersectional positioning)에 대한 연구: 태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의 사례를 통해」,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집필위원(가나다 순)

김윤희 전북대학교 인류학과 석사  
박현정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신승모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일반연구원  
이승연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허영란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수원시사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http://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ee.com](http://www.hongee.com)

---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72-7

ISBN 978-89-87738-60-4(세트)





